

2018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보고서

Survey on Rural Well – being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지역공동체



경제활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14037호

발 행 일 2019년 3월

발 행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이용범

편 집 농업환경부장 윤종철, 농촌환경자원과장 김미희

연 구 원 국립농업과학원 황정임 농업연구사, 최윤지 농업연구관, 최정신 농업연구사,
민소영 연구원, 정용경 박사후연구원
코뮤니타스 신동호 대표, 전윤정 선임연구원, 강구민 선임연구원,
김아영 선임연구원, 문준호 연구원
수원대학교 박진우 교수, 부경대학교 박인호 교수
경북대학교 이강형 교수, 경북대학교 박창제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김경화 교수, 공주대학교 김정태 교수

발 행 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55365)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전 화 063-238-2648

인 쇄 처 코뮤니타스 053-746-0021

ISBN 978-89-480-5836-9 93520

머 리 말

농어촌의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하고 생활여건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2004년 3월, 정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05~'09),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과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이 수립·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농어촌의 복지, 교육, 기초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사업과 농어촌서비스기준·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농어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고, 실질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4)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 실태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18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는 2018년 9월 1일에서 10월 7일까지 전국 농촌 및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3,929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전반,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 여건,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지역공동체, 경제활동 등 9개 부문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가 관련 정책, 연구 및 지도 현장에서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 이용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전국의 표본가구 조사 대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3월

연구진 일동

이용자를 위하여

1. 이 보고서는 2018년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수록함.
2. 보고서에 수록된 결과분석에서는 조사대상이 된 동읍면의 실제 가구 수 분포와 동읍면 내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의 확률상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모집단으로부터의 추출확률을 고려한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3. 조사결과의 전체 합계와 각 항목 값이 모두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합계의 수치가 각 항목 값의 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
4. 보고서의 통계표는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5. 통계표 작성 시 가구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에는 가구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통계 수치를, 응답자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통계 수치를 제시하였음.
6. 통계표에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는 비워둠. 통계표에 0.0으로 표시된 경우는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 이하 숫자가 반올림 된 것임(예 : 0.03)
7. 이 보고서는 일부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수록하고 있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별책으로 발간된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8.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보고서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임을 기재하여야 함.
9.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063-238-2648)로 문의 바람.

조사결과 요약

2018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조사 개요

주요 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 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16.8.28.)

➡ 조사 연혁

2004.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5년 주기로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실시 의무화
2004. 8.~1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승인 및 조사 실시 - 농림부에서 외주용역으로 조사 실시
2008. 3.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2008. 10.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2013. 3.	농촌진흥청 이관, 농촌생활지표조사와 통합 추진 결정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실태조사 항목 포괄
2013. 9.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조사주기, 조사내용 등 변경 승인
2016. 8.	통계승인번호 변경 : 제11437호('04.8.31.) → 제114037호('16.8.28.)
2019. 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8 | 조사결과 요약

➡ 조사체계

- 조사주기 : 1년(5년 1주기)

연차	주요 조사내용		조사대상
1	종합 조사		농어촌 2,800가구 도시 1,200가구
2	부문별 조사	경제활동, 문화·여가 등	농어촌 4,000가구
3		교육, 가족, 지역개발 및 공동체 등	
4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5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등	

- 1년차 종합 조사와 2~5년차 부문별 조사가 1주기를 구성하는 체계
- 종합 조사는 농어촌 주민 및 삶의 질 비교를 위한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부문별 조사는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함

➡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표본설계	모집단	○ 전국 동/읍/면 지역의 모든 가구
	표본추출틀	○ 2015년 등록센서스에서 파악한 조사구들로 MDIS에 탑재된 명부
	표본규모	○ 농어촌 2,780가구(응답률 99.2%), 도시 1,149가구(응답률 95.8%)
	표본추출방식	○ 다단계통화집락추출 - 1차 추출 : 표본 동/읍/면 추출 - 2차 추출 : 동/읍/면 내 조사구 추출 - 3차 추출 : 가구 추출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 ○ 조사대상 : 표본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만 19세 이상) ○ 조사기간 : 2018년 9월 1일~10월 7일(1.2개월)

➡ 2018년 조사내용

- 생활전반,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지역공동체, 경제활동 등 9개 부문 78개 항목

구분	조사항목(*신규문항)
일반사항	가족 수,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업, 동거 여부, 농어가 여부,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장애 가구원 현황, 결혼이민자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등
생활전반	이주 실태, 이주의사,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농촌 주민의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만족도, 전반적인 농어촌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정신건강*, 주관적 건강 상태*,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등
보건의료	의료기관 이용 실태,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응급실 이용 경험, 질병 치료 시 어려움 등
복지	보험 가입 현황, 위기에 대한 경제적 대비 정도*,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필요 복지서비스*,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영유아 보육 및 교육 방법,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영유아 보육/교육의 어려움*,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교육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평생교육 경험 및 수요, 평생교육 참여의 어려움
문화·여가 여건	주된 문화·여가활동,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 문화·여가활동 시 어려움,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및 수요*
기초생활 여건	주택 건축·신축년도, 주택 점유형태, 주택 종류, 주택의 방 개수·면적, 주택의 시설 현황, 난방비 부담, 주택에 대한 만족도, 주택 개보수 필요성*, 상수도 및 하수도 종류, 쓰레기 처리 방법,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마을 안전 체감도,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환경·경관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마을 경관에 대한 인식*,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인식 등
지역 공동체	가족이웃과의 교류*, 공동체 활동 참여*, 외부인 유입 여부,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마을공동사업 경험 및 참여 의사,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경제활동	도·농 교류/6차 산업 경험 유무 및 만족도, 도·농 교류/6차 산업 추진 시 어려움, 월 평균 생활비,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투자 영역

2

주요 조사 결과¹⁾

가구 정보 및 생활 전반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가구주'가 66.9%, '여성'이 59.5%, [60대 이상] 연령층이 40.5%, 혼인상태로 '유배우'가 59.7%, [고등학교 이상]이 59.3%, '농어업종사자'가 27.2%, 종사자 지위로 '자영업자'가 49.2%
-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70대 이상'(+11.4%p), '농어업종사자'(+26.9%p), '자영업자'(+25.5%p) 비율이 높은 반면, '사무종사자'(-10.8%p), '상용직'(-28.7%p) 비율은 낮음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합계		(2,780)	100.0	(1,149)	100.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1,860)	66.9	(718)	62.5
	가구주 배우자	(920)	33.1	(431)	37.5
성	남	(1,116)	40.5	(392)	34.5
	여	(1,637)	59.5	(746)	65.5
연령	30대 이하	(528)	19.3	(306)	26.9
	40대	(494)	18.0	(272)	23.9
	50대	(608)	22.2	(267)	23.5
	60대	(492)	17.9	(165)	14.5
	70대 이상	(620)	22.6	(128)	11.2

➡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 농어가가 30.7%,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 '2세대 가구'가 38.2%, '1인 가구'가 31.9%. 학생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19.2%, 이 중 타지역 유학생이 있는 가구는 1.0%
-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40.7%,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는 0.8%,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10.8%
-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1인 가구'(+8.3%p) '1세대'(+9.0%p) 비율이 높은 반면, '2세대'(-17.3%p) 비율은 낮음

1) 확인/검증을 거친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코딩(Coding), 수정(Editing)과정을 거쳐 SAS를 이용,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등으로 통계분석 함

➡ 이주 실태

- '이주했다'(59.4%),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4.7%) 등 [이주민]이 64.1%. 이주직전 주택 위치로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45.0%),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30.2%)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이주해온 층이 75.3%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17.6%), '중소도시(동)'(7.2%) 등 도시에서 이주해온 층(24.7%) 보다 많음

-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선주민 비율이 높음(+30.7%p)

단위 : %(명)

구분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다른 시/군의 농어촌 (읍/면)	농어촌 → 농어촌	중소도시 (동)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도시 → 농어촌
농어촌 (1,565)	45.0	30.2	75.3	7.2	17.6	24.7
읍/면						
읍 (824)	52.5	26.4	78.9	8.4	12.7	21.1
면 (742)	36.8	34.4	71.2	5.8	23.0	28.8
영농 여부						
농어가 (243)	38.9	32.1	71.0	7.0	22.0	29.0
비농어가 (1,322)	46.2	29.9	76.0	7.2	16.7	24.0

➡ 5년 이내 이주 의사

- 이주 의향층(7.2%)의 이주 희망 이유로 주택 확장, 신규 분양, 계약 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28.2%)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울러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25.9%), '생활환경 관련 사유'(25.3%) 비율도 높음. 다음으로, '자녀 교육 때문에'(9.3%), 가구원의 분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7.0%) 순

-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직업 관련 사유' 비율이 높은 반면(+8.8%p), '주택 관련 사유' 비율은 낮음(-28.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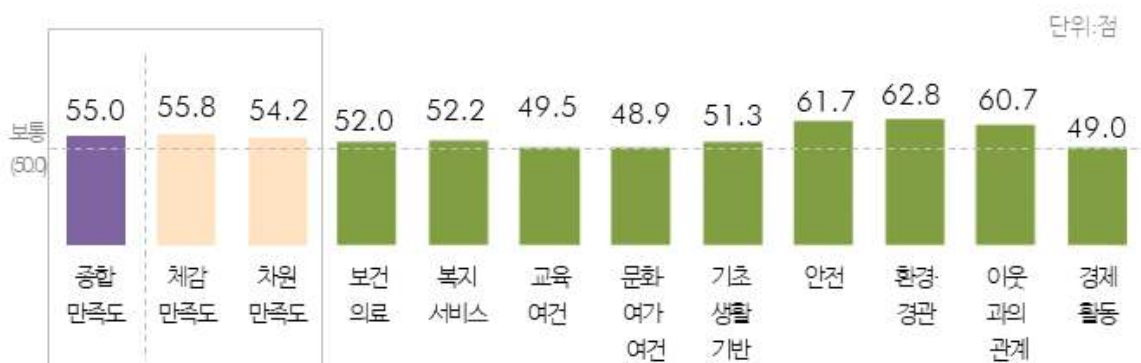
☞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 ‘보건의료’(평균 81.5점), ‘복지서비스’(평균 81.3점)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안전’(평균 79.8점), ‘경제활동 여건’(평균 79.7점), ‘기초생활기반’(평균 78.5점), ‘환경·경관’(평균 76.1점), ‘이웃과의 관계’(평균 75.0점)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를 보임
-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이웃과의 관계’(+3.3점) 중요도가 높은 반면, ‘안전’(-4.7점), ‘교육 여건’(-3.9점) 중요도는 낮음

단위: 점(명)

구분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교육 여건	문화 여가 여건	기초 생활 기반	안전	환경· 경관	이웃 과의 관계	경제 활동 여건
농어촌 (2,780)		81.5	81.3	70.4	69.5	78.5	79.8	76.1	75.0	79.7
읍/면	읍 (1,228)	79.6	79.7	73.4	72.1	77.5	78.7	74.8	73.0	80.0
	면 (1,552)	82.9	82.5	68.0	67.4	79.3	80.6	77.2	76.7	79.5
영농 여부	농어가 (853)	82.9	83.2	68.1	67.4	79.0	80.2	76.4	79.4	81.3
	비농어가 (1,927)	80.8	80.4	71.4	70.4	78.3	79.6	76.0	73.1	79.0
도시 (1,149)		84.0	80.5	74.3	71.3	80.8	84.5	76.3	71.7	80.8

- 농어촌생활 만족도는 평균 55.5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으며, 세부 영역별로는 ‘환경·경관’(평균 62.8점), ‘안전’(평균 61.7점), ‘이웃과의 관계’(평균 60.7점)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를 보임. 반면, ‘교육 여건’(평균 49.5점), ‘경제활동 여건’(평균 49.0점), ‘문화·여가 생활 여건’(평균 48.9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음
-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지역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가운데(-5.3점), 특히 ‘보건의료’(-13.9점), ‘기초생활기반’(-11.3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종합/체감/차원 만족도 : [조사연구 개요]의 '9. 자료처리 및 분석' 참조(p.64)

➡ 주관적 건강 상태

- '건강한 편이다'(42.2%) 등 [건강한 편(합)] 비율이 46.4%로,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21.3%) 등 [건강하지 않은 편(합)](24.4%)에 비해 높음
-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건강한 편(합)] 비율이 낮음(-11.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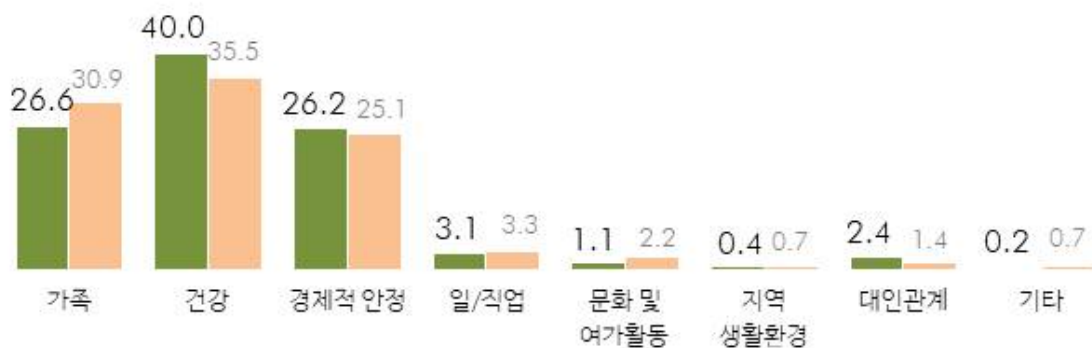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한 편(합)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편(합)
농어촌 (2,766)		4.3	42.2	46.4	29.1	21.3	3.1	24.4
읍/면	읍 (1,216)	4.7	41.7	46.4	35.1	16.0	2.5	18.5
	면 (1,550)	4.0	42.5	46.5	24.5	25.4	3.6	29.0
영농 여부	농어가 (850)	2.4	43.7	46.1	28.7	23.2	2.0	25.2
	비농어가 (1,916)	5.1	41.5	46.6	29.3	20.4	3.6	24.1
도시 (1,140)		5.8	52.2	58.0	23.8	15.7	2.5	18.2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행복감은 평균 58.7점으로 '약간 행복한 수준'
-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40.0%)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가족'(26.6%), '경제적 안정'(26.2%) 비율도 높음. 다음으로 '일/직업'(3.1%), '대인관계'(2.4%), '문화 및 여가활동'(1.1%), '지역생활환경'(0.4%) 순
-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이 낮게 나타남(-3.6점)

단위: %



보건의료

➡ 의료기관 이용 실태

- ‘병(의)원’(81.2%)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료기관까지 주로 ‘개인 차량’(52.3%), ‘버스’(27.4%)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걸어서’ 이동하는 층은 13.5%, ‘택시’를 이용하는 층은 4.5%, 오토바이 등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층은 2.2%
-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버스’(+13.6%p), ‘개인 차량’(+13.4%p) 비율이 높은 반면, ‘걸어서’ 이동하는 비율은 낮음(-29.3%p)

단위: %(명)

구분			걸어서	버스	택시	개인 차량	기타
농어촌 (2,761)			13.5	27.4	4.5	52.3	2.2
읍/면	읍 (1,220)		25.0	17.1	4.3	51.3	2.4
	면 (1,542)		4.5	35.6	4.7	53.2	2.1
영농 여부	농어가 (851)		8.1	29.7	3.9	55.1	3.1
	비농어가 (1,910)		16.0	26.4	4.8	51.1	1.8
도시 (1,146)			42.8	13.8	2.4	38.9	2.2

➡ 질병 치료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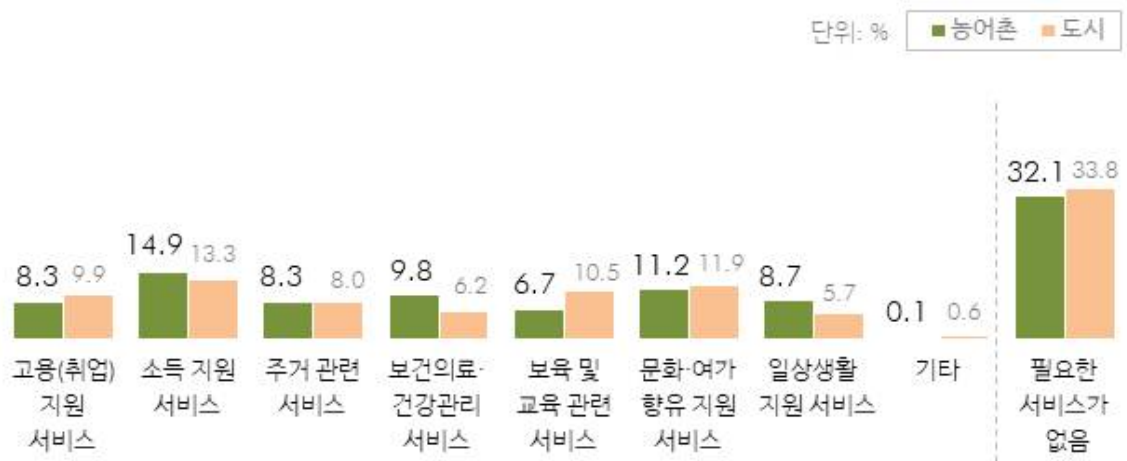
- 질병 치료 시 ‘치료비 부담’(32.0%)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13.4%),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12.7%),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10.8%),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10.7%) 순
-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9.6%p),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7.6%p), 비율이 높은 반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비율이 낮음(-20.0%p)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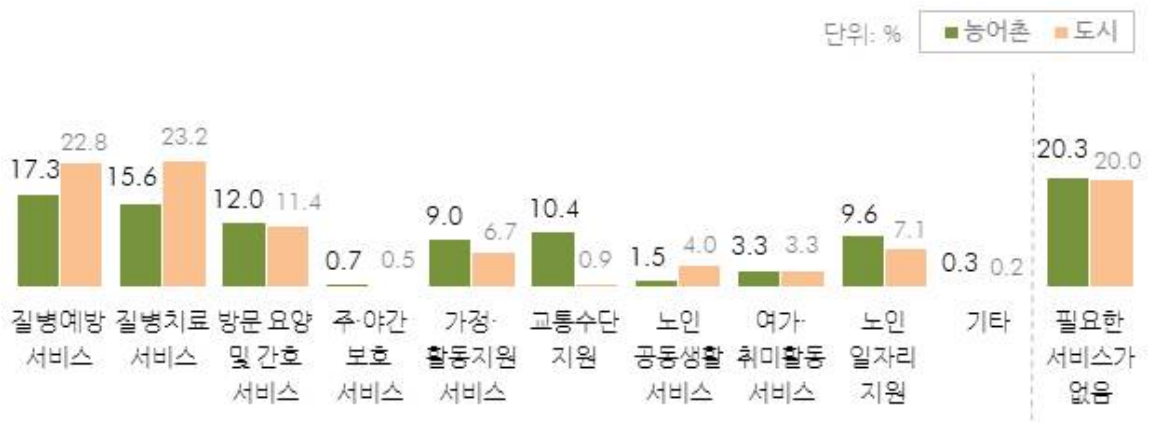
➡ 필요 복지서비스

-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소득 지원 서비스'(14.9%), '문화·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11.2%)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9.8%),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8.7%),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 '주거 관련 서비스'(각 8.3%),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6.7%) 순



➡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응답자 본인을 포함한 65세 이상 가구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질병예방서비스'(17.3%), '질병 치료서비스'(15.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방문 요양 및 간호 서비스'(12.0%), '교통수단 지원'(10.4%), '노인일자리 지원'(9.6%), '가정·활동지원서비스'(9.0%) 순



➡ 영유아 보육/교육의 어려움

- 영유아 보육/교육의 어려움으로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26.2%)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 놀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19.3%), '야간시간에 이용가능한 자녀 돌봄시설이 부족하다'(16.2%), '어린이집·유치원 수가 부족하다'(15.4%),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12.5%) 순
- 도시에 비해,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15.8%p) 비율이 높은 반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12.7%p) 비율은 낮음



➡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 '가사지원 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19.2%)가 장애가 있는 가구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15.3%),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10.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9.2%), '의료재활서비스'(8.2%), '이동편의지원서비스'(8.1%),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5.9%), '장애자녀 학습지원서비스'(3.6%) 순
-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가사지원 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5.2%p),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5.0%p) 비율이 높은 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5.3%p),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4.0%p) 비율은 낮음



교육

➡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 자녀가 있는 농촌 가구 2가구 중 1가구(45.2%)에서 '사설학원 수강'이 주된 방과 후 시간 활용방법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 내 방과 후 프로그램'(26.7%), '집에서 가족과 보냄'(13.7%), '학교 외 공공기관 방과 후 프로그램'(9.1%), '혼자 보냄'(4.6%), '기타'(0.7%) 순
-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집에서 가족과 보냄'(+11.8%p), '학교 내 방과 후 프로그램'(+8.9%p) 비율이 높은 반면, '사설 학원 수강' 비율은 낮음(-27.4%p)

단위: %

구분		학교 내 방과 후 프로그램	학교 외 공공기관 방과 후 프로그램	사설 학원 수강	집에서 가족과 보냄	혼자 보냄	기타
농어촌 (503)		26.7	9.1	45.2	13.7	4.6	0.7
읍/면	읍 (319)	21.9	10.2	49.4	14.7	2.7	1.1
	면 (184)	35.0	7.3	37.8	12.0	7.9	
영농 여부	농어가 (87)	39.4	9.8	26.9	19.5	4.3	
	비농어가 (415)	24.0	9.0	49.0	12.5	4.7	0.8
도시 (272)		17.8	4.8	72.6	1.9	2.2	0.6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강사) 지원'(27.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개발'(21.7%), '우수 교사 확보'(18.7%), '양질의 학교급식 지원'(11.0%), '학교 시설 개선'(9.5%), '통학버스 운영'(7.0%) 순
-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강사) 지원' 비율이 높은 반면(+6.2%p), '우수교사 확보' 비율은 낮음(-12.8%p)



➡ 평생교육 수요

- 수강 경험률이 높고 만족도가 높았던 '스포츠·건강교육'이 향후 수강 의향률(23.9%) 또한 가장 높음.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14.9%), '정보화교육'(12.5%), '직업능력교육'(11.3%), '농촌생활 관련 교육'(9.2%), '인문교양교육'(7.5%), '시민참여교육'(7.0%), '문화교육'(3.8%) 순
-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농촌생활 관련 교육' 참여 의향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4.1%p), '스포츠·건강교육'(-8.6%p), '인문교양교육'(-8.0%p), '직업능력교육'(-5.1%p), '문화예술교육'(-4.3%p) 참여 의향률은 낮음

단위: %(명)

구분		농촌 생활 관련 교육	문화 교육	인문 교양 교육	정보화 교육	직업 능력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시민 참여 교육	스포츠· 건강 교육	기타
농어촌 (2,780)		9.2	3.8	7.5	12.5	11.3	14.9	7.0	23.9	0.1
읍면 여부	읍 (1,228)	5.8	3.1	9.7	13.5	14.4	16.0	4.3	22.7	
	면 (1,552)	12.0	4.4	5.8	11.7	8.8	14.1	9.1	24.8	0.2
영농 여부	농어가 (853)	19.9	5.7	6.1	12.5	8.9	14.7	12.1	27.7	0.0
	비농어가 (1,927)	4.5	3.0	8.2	12.5	12.3	15.0	4.7	22.2	0.1
도시 (1,149)		5.1	4.7	15.5	11.8	16.4	19.2	3.6	32.5	0.1

➡ 평생교육 참여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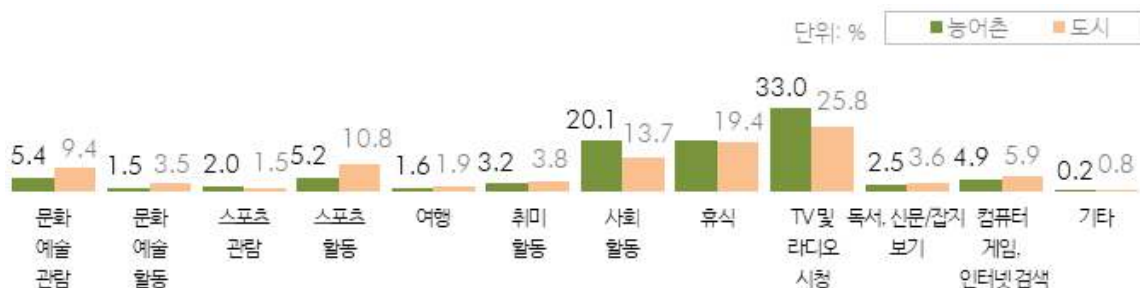
- '시간적 여유가 없다'(37.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14.2%), '비용이 부담된다'(8.3%), '지역에 제공하는 시설(기관)이 없다'(6.8%), '이동이 불편하다'(6.3%),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6.0%),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없다'(5.4%) 순
-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6.4%p), '시간적 여유가 없다'(+4.9%p) 비율이 높은 반면, '비용이 부담된다'(-6.5%p) 비율은 낮음



문화·여가여건

➡ 주된 문화·여가활동

- 'TV 및 라디오 시청'(33.0%)이 주된 문화·여가활동으로 나타난 가운데, '휴식'(20.3%), '사회활동'(20.1%) 비율도 높음. 다음으로 '스포츠활동'(5.2%), '스포츠관람'(2.0%) 등 [스포츠 관련 활동](7.2%), '문화예술관람'(5.4%), '문화예술활동'(1.5%) 등 [문화예술 관련활동](6.9%),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4.9%), '취미활동'(3.2%), '독서, 신문/잡지 보기'(2.5%), '여행'(1.6%) 순
-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TV 및 라디오 시청'(+7.2%p), '사회활동'(+6.4%p) 비율이 높은 반면, '스포츠활동'(-5.6%p), '문화예술 관람'(-4.0%p) 비율이 낮음



➡ 문화·여가 활동 시 어려움

- '시간적 여유가 없다'(30.2%)가 나타난 가운데, 아울러 '비용이 부담된다'(25.1%)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14.1%), '지역에 적합한 시설(기관)이 없다'(8.0%), '이동이 불편하다(교통불편, 거리가 멀다 등)'(4.9%),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4.1%),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3.2%) 순
-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비용이 부담된다'(-9.0%p) 비율이 낮은 반면,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6.1%p) 비율이 높음



기초생활여건

➡ 주거 현황

- ‘2000년대’(34.2%), ‘1990년대’(21.6%)에 건축(신축)된 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980년대 이전에 지어져 30년 이상 된 농어촌 주택이 27.2%로 전체 농어촌 가구의 1/3 가량을 차지함

단위 : %(명)

구분		평균	1950 년대 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 이후
농어촌 (2,707)		22.4년	3.1	3.7	7.9	12.5	21.6	34.2	17.0
읍/면	읍 (1,181)	20.8년	1.8	2.5	6.2	14.8	20.3	39.0	15.4
	면 (1,527)	23.7년	4.2	4.6	9.1	10.8	22.5	30.5	18.3
영농 여부	농어가 (843)	26.1년	3.0	5.8	12.5	15.0	29.0	20.4	14.3
	비농어가 (1,864)	20.7년	3.2	2.7	5.8	11.4	18.2	40.4	18.3
도시 (1,097)		21.0년	1.3	1.7	2.2	11.3	44.4	27.9	11.2

- 주택의 종류로 ‘단독주택’(56.9%), ‘아파트’(31.6%), ‘연립/다세대주택’(7.7%) 순이었으며, 단독주택 중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주택은 9.7%

–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단독주택’(+29.4%p) 비율이 높은 반면, ‘아파트’(-22.1%p) 비율이 낮음

단위 : %(명)

구분		단독주택	슬레이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기타
농어촌 (2,780)		56.9	9.7	31.6	7.7	3.9
읍/면	읍 (1,228)	32.3	8.8	53.4	10.7	3.6
	면 (1,552)	76.3	10.0	14.3	5.3	4.2
영농 여부	농어가 (853)	94.6	9.3	3.3	0.6	1.6
	비농어가 (1,927)	40.2	10.2	44.1	10.8	4.9
도시 (1,149)		27.5	8.6	53.7	14.3	4.5

- 주택 점유 형태로 ‘자가’(74.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월세’(12.7%), ‘전세’(9.4%), ‘무상’(3.7%) 순

–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자가’ 비율이 높은 반면(+14.0%p), ‘전세’(-9.0%p), ‘월세’(-6.8%p) 비율은 낮음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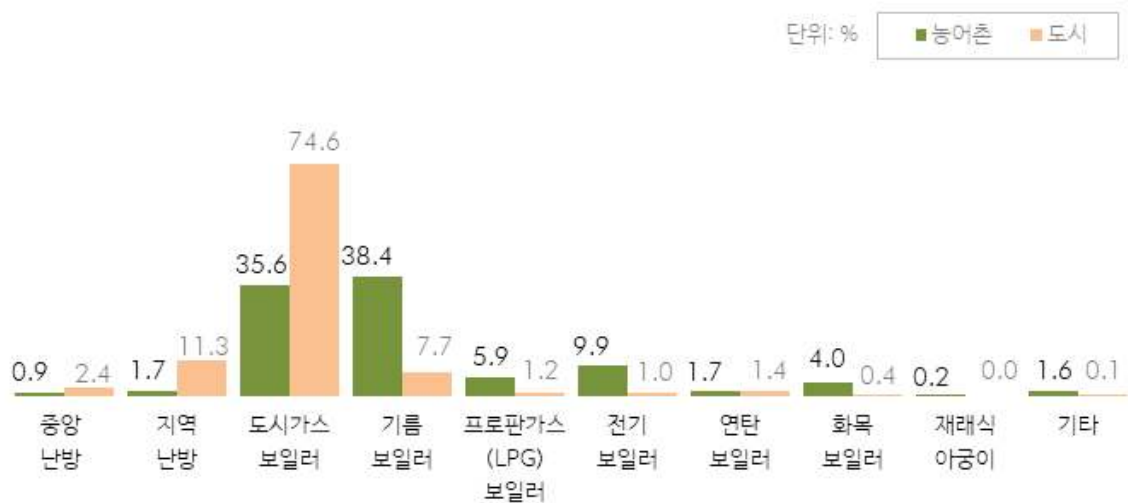
- 농어촌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9.1%로, 세부 요건 중 '방 개수'(3.9%) 미충족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용 수세식 화장실'(3.4%), '최소 주거면적'(2.9%), '목욕시설'(2.2%), '전용 입식부엌'(1.3%) 순

단위: %(명)

구분			최저 주거기준 미달	방 개수	최소 주거면적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
농어촌 (2,780)			9.1	3.9	2.9	1.3	3.4	2.2
읍/면	읍	(1,228)	10.1	5.0	3.7	1.3	2.4	2.6
	면	(1,552)	8.3	3.0	2.2	1.3	4.2	1.8
영농 여부	농어가	(853)	8.9	2.9	2.8	1.8	4.9	2.3
	비농어가	(1,927)	9.1	4.3	2.9	1.1	2.7	2.1
도시 (1,149)			6.3	4.2	1.7%	0.7	0.8	1.1

➡ 난방시설 현황

- 1순위 기준(n=2,750), '기름 보일러'(38.4%), '도시가스 보일러'(35.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기 보일러'(9.9%), '프로판가스(LPG) 보일러'(5.9%), '화목 보일러'(4.0%), '연탄 보일러', '지역난방'(각 1.7%), '중앙난방'(0.9%), '재래식 아궁이'(0.2%) 순
- 도시 대비, '기름 보일러'(+30.7%p), '전기 보일러'(+8.9%p) 비율이 높은 반면, '도시가스 보일러'(-39.0%p), '지역 난방'(-9.6%p) 비율은 낮음



➡ 난방비 부담

- 농어촌의 월 평균 난방비는 15.5만원으로 연 평균 난방비 지출 기간(평균 4.7개월)을 감안하면 연 평균 72.9만원을 난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의 월 평균 난방비가 더 많았으며(+2.8만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15.8만원을 더 지출함



➡ 주택에 대한 만족도

- '주택 면적'(평균 61.6점)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간/시설 배치, 동선 등 '주택 구조'(평균 58.8점),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 등 '주택 설비'(평균 57.8점), 내열, 내화, 방열, 방습 등 '주택 성능'(평균 54.3점) 순으로 주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평균 58.8점)의 평가
-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주택 성능'(-4.4점) 만족도가 낮음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 가장 만족하는 영역은 '하수처리'(평균 64.0점), '상수도 수질'(평균 63.8점)이며, 다음으로 '쓰레기 처리'(평균 62.1점), 인터넷, 전화, TV, 라디오, 우편 등의 활용 여건 등 '정보통신여건'(평균 61.2점) 순
- 반면, '대중교통 이용'(평균 48.6점),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시설 등 '생활서비스 이용'(평균 46.7점)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단위: 점(명)

구분		상수도 수질	하수 처리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이용	생활서비스 이용	정보통신 여건
농어촌 (2,780)		63.8	64.0	62.1	48.6	46.7	61.2
읍/면	읍 (1,228)	62.2	62.8	62.5	51.5	51.3	61.6
	면 (1,552)	65.1	64.9	61.7	46.2	43.0	60.9
영농 여부	농어가 (853)	65.0	63.3	61.6	46.4	41.8	58.2
	비농어가 (1,927)	63.3	64.3	62.3	49.5	48.8	62.4
도시 (1,149)		65.3	67.2	65.8	64.3	66.8	73.4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주된 필요사항으로 'CCTV 설치 늘리기'(23.7%)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전한 보행자길 갖추기'(15.5%), '도로 안전시설(표지판, 횡단보도, 신호등 등) 늘리기'(13.7%), '가로등 늘리고 고치기'(13.4%), '순찰(경찰, 주민봉사) 횡수 늘리기'(8.7%), '빈집, 버려진 집, 방치된 빈터관리'(5.9%), '오래되고 낡은 건물, 시설 고치기'(4.2%) 순

단위: %(명)

구분		도로 안전 시설 늘리기	안전한 보행자 길 갖추기	가로등 늘리고 고치기	CCTV 설치 늘리기	순찰 횡수 늘리기	오래 되고 낡은 건물, 시설 고치기	빈집, 버려진 집, 방치된 빈터 관리	기타	특별히 필요를 느끼지 않음
농어촌 (2,751)		13.7	15.5	13.4	23.7	8.7	4.2	5.9	0.5	14.4
읍/면	읍 (1,207)	14.8	16.3	9.9	25.5	8.5	3.6	4.3	0.7	16.4
	면 (1,543)	12.8	15.0	16.1	22.3	8.7	4.7	7.1	0.4	12.8
영농 여부	농어가 (850)	12.1	13.6	14.4	25.6	9.5	6.5	9.1	1.0	8.2
	비농어가 (1,901)	14.4	16.5	12.9	22.8	8.3	3.1	4.4	0.3	17.3
도시 (1140)		10.1	14.2	10.2	22.5	11.2	4.5	2.7	0.6	24.0

환경·경관

➡ 개선해야 할 환경 문제

- ‘소음, 진동’(17.0%), ‘악취’(13.6%), ‘대기오염’(11.9%)이 개선해야 할 주된 환경 문제로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쓰레기’(8.3%), ‘수질 오염’(6.1%), ‘토양 오염’(2.3%) 순. 한편, ‘특별히 없다’는 40.6%

단위 : %(명)

구분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소음, 진동	악취	쓰레기	기타	특별히 없다
농어촌 (2,766)		11.9	6.1	2.3	17.0	13.6	8.3	0.2	40.6
읍/면	읍 (1,221)	13.7	3.5	0.6	21.5	16.3	7.3	0.4	36.7
	면 (1,545)	10.4	8.2	3.7	13.3	11.3	9.1	0.1	43.9
영농 여부	농어가 (848)	8.7	8.4	3.9	13.0	12.6	12.1	0.0	41.3
	비농어가 (1,919)	13.3	5.1	1.6	18.7	14.0	6.6	0.3	40.4
도시 (1,143)		22.6	4.0	1.0	28.2	6.2	11.1	0.1	26.8

➡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중 ‘자연환경/경관의 보전’(37.4%)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원생활 공간 제공’(19.4%), ‘국토의 균형 발전’(12.4%), ‘농어업 유산 보존/계승’(12.2%), ‘식량의 안정적 공급’(10.4%), ‘관광/휴양 공간 제공’(8.1%) 순

단위 : %(명)

구분		자연환경/ 경관의 보전	전원생활 공간 제공	관광/휴양 공간 제공	농어업 유산 보존/계승	국토(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어촌 (2,740)		37.4	19.4	8.1	12.2	12.4	10.4
읍/면	읍 (1,201)	34.4	23.3	8.8	11.8	12.2	9.5
	면 (1,539)	39.8	16.4	7.5	12.5	12.6	11.1
영농 여부	농어가 (848)	34.4	16.5	7.5	15.3	13.7	12.6
	비농어가 (1,892)	38.8	20.8	8.3	10.9	11.8	9.4
도시 (1,141)		39.7	19.4	9.4	13.7	10.6	7.3

지역공동체

➡ 공동체 활동 참여

- 마을(동네)의 공식적인 행사나 회의, 공동작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15.1%) 등 [참여하는 편(합)] 비율이 18.3%로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21.9%) 등 [참여하지 않는 편(합)](42.9%)에 비해 낮음
-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참여하는 편(합)](+9.0%p) 비율이 높은 반면, [참여하지 않는 편(합)](-27.6%p) 비율은 낮음

단위: %(명)

구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참여하는 편(합)	보통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 편(합)
농어촌 (2,758)		3.1	15.1	18.3	38.9	21.0	21.9	42.9
읍/면	읍 (1,214)	0.9	9.6	10.5	38.7	20.1	30.7	50.8
	면 (1,544)	4.9	19.5	24.4	39.0	21.7	14.9	36.6
영농 여부	농어가 (847)	7.6	29.6	37.1	40.9	15.6	6.3	21.9
	비농어가 (1,910)	1.2	8.7	9.9	37.9	23.4	28.8	52.2
도시 (1,143)		1.1	8.2	9.3	20.2	33.5	37.0	70.5

➡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이웃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귀농·귀촌인에 대해 '매우 긍정적'(9.8%), '다소 긍정적(46.3%) 등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5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결혼이민자(54.7%), 이주 노동자(44.3%) 순
-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해 [긍정(합)] 비율이 높은 반면(+6.3%p),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비슷한 태도를 보임



➡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농어촌)

- ‘마을공동사업은 주민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데에 도움이 된다’(61.2%), ‘마을공동사업은 생활환경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바뀌는 데에 도움이 된다’(57.2%), ‘마을공동사업은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53.3%) 등 마을 공동사업의 순기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50% 이상의 공감도를 보임
- 반면, ‘마을공동사업은 우리 가구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데에 도움이 된다’(51.7%)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공감한다는 태도가 약함



➡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정도에 대해 ‘매우 발전된 수준’(1.2%), ‘발전된 편’(22.5%) 등 [발전된 편(합)]이라는 비율이 23.7%로 ‘매우 낙후됨’(2.7%), ‘낙후된 편’(27.6%) 등 [낙후된 편(합)](30.4%)에 비해 낮음
-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발전된 편(합)] 비율이 낮은 반면(-15.8%p), [낙후된 편(합)] 비율이 높음(+13.6%p)

단위: %(명)

구분			매우 발전된 수준	발전된 편	발전된 편(합)	보통	낙후된 편	매우 낙후됨	낙후된 편(합)
농어촌 (2,767)			1.2	22.5	23.7	46.0	27.6	2.7	30.4
읍/면	읍	(1,217)	1.1	26.4	27.5	46.4	24.3	1.9	26.1
	면	(1,550)	1.2	19.5	20.7	45.6	30.3	3.4	33.7
영농 여부	농어가	(852)	1.8	24.4	26.2	43.9	27.1	2.8	29.9
	비농어가	(1,915)	0.9	21.6	22.5	46.9	27.9	2.7	30.6
도시 (1,141)			4.7	34.9	39.5	43.6	15.1	1.7	16.8

경제활동

➡ 도·농 교류/6차 산업 추진 시 어려움(농어가)

- 농어가에서 도·농 교류 및 6차 산업을 추진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 '고객·판로 확보(홍보 및 마케팅)'(28.2%)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인력 부족'(23.0%), '자금 부족'(20.1%) 비율도 높음. 다음으로 '기획력 및 기술 부족'(9.2%), '시설/설비 부족'(8.0%), '경영관리 역량 부족'(6.1%) 순

단위: %(명)

구분			자금 부족	기획력 및 기술력 부족	경영 관리 역량 부족	시설/ 설비 부족	행정· 제도 복잡	관련 규제로 인한 제약	인력 부족	고객· 판로 확보 (홍보 및 마케팅)	참여자 간 갈등
농어가 (280)			20.1	9.2	6.1	8.0	2.2	1.8	23.0	28.2	1.4
읍/면	읍	(39)	17.5	20.6	6.8	3.1			11.4	40.5	
	면	(242)	20.5	7.3	6.0	8.8	2.5	2.1	24.9	26.3	1.6

➡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투자 영역

- '농어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여건 개선'(37.4%)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 특화 작목 개발'(29.3%), '농어촌 자원 활용 6차산업 육성'(15.0%), '지역 문화관광 개발, 품질 제고'(9.6%), '농공단지 조성, 기업 유치'(8.6%) 순
-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여건 개선'(+9.7%p) 비율이 높은 반면, '농어촌 자원 활용 6차산업 육성'(-8.4%p) 비율은 낮음

단위: %(명)

구분			지역 특화 작목 개발	농어촌 자원 활용 6차산업 육성	농공단지 조성, 기업 유치	지역 문화관광 개발, 품질 제고	농어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여건 개선	기타
농어촌 (2,725)			29.3	15.0	8.6	9.6	37.4	0.1
읍/면	읍	(1,203)	23.2	15.6	10.9	9.9	40.2	0.2
	면	(1,522)	34.1	14.5	6.8	9.4	35.2	
영농 여부	농어가	(835)	34.5	16.8	6.5	7.9	34.1	0.1
	비농어가	(1,890)	27.0	14.1	9.5	10.4	38.9	0.1
도시 (1,131)			26.8	23.4	11.4	10.6	27.7	0.2



2018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목차1 전체 목차

■ 조사연구 개요	55
-----------------	----

제1부 | 개인설문조사

1100. 가구 정보 및 생활 전반	73
110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4
1102 비동거 가구원 특성	76
1103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77
1104 이주 실태	79
1105 5년 이내 이주 의사	84
1106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90
1107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인식(농어촌)	96
1108 정신건강	101

1109 주관적 건강 상태	102
1110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103
1111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106
1200. 보건의료	107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1201 의료기관 이용 실태	108
1202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117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1203 응급실 이용 경험	120
보건의료 여건 전반	
1204 질병 치료 시 어려움	122
1300. 복지	125
사회안전망	
1301 보험 가입 현황	126
1302 위기에 대한 경제적 대비 정도	127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수요	
1303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129

1304 필요 복지서비스	131
---------------------	-----

노인복지

1305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134
------------------------	-----

영유아 보육 및 교육

1306 영유아 보육 방법	137
----------------------	-----

1307 영유아 교육 방법	139
----------------------	-----

1308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141
-------------------------	-----

1309 영유아 보육/교육의 어려움	145
---------------------------	-----

장애인 복지

1310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146
-------------------------	-----

1400. 교육	149
-----------------------	------------

학생교육

1401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150
--------------------------------	-----

1402 자녀의 방과후 시간 활용	155
--------------------------	-----

140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57
-------------------------------	-----

평생교육

1404 평생교육 경험 및 수요	160
-------------------------	-----

1405 평생교육 참여의 어려움	165
-------------------------	-----

1500. 문화·여가여건 167

문화·여가 활동 경험 및 수요

1501 주된 문화·여가활동 168

1502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171

1503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 172

1504 문화·여가활동 시 어려움 175

전통문화·여가활동 경험 및 수요

1505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및 수요 178

1600. 기초생활여건 181

주택여건

1601 주거 현황 182

160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185

1603 난방시설 현황 186

1604 난방비 부담 190

1605 주택에 대한 만족도 194

1606 주택 개보수 필요성 197

생활여건

1607 상수도 및 하수도 종류 198

1608 쓰레기 처리 방법	201
----------------------	-----

1609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203
---------------------------	-----

안전

1610 마을 안전 체감도	205
----------------------	-----

1611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208
-------------------------------	-----

1700. 환경·경관	210
--------------------------	------------

환경

1701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211
------------------------	-----

경관

1702 마을 경관에 대한 인식	213
-------------------------	-----

다원적 가치

1703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216
---------------------------	-----

1800. 지역공동체	218
--------------------------	------------

가족·이웃과의 관계

1801 가족·이웃과의 교류	219
-----------------------	-----

1802 공동체 활동 참여	220
----------------------	-----

1803 외부인 유입 여부	221
----------------------	-----

1804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224
------------------------	-----

마을공동사업 참여

1805 마을공동사업 경험 및 참여 의사(농어촌)	226
1806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농어촌)	228
1807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233

1900. 경제활동

도·농 교류 및 6차 산업화

1901 도·농 교류/6차 산업 경험 유무 및 만족도	236
1902 도·농 교류/6차 산업 추진 시 어려움(농어가)	240

경제활동 여건

1903 농어가 소득구조	242
1903 월 평균 생활비	243
1905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투자 영역	245

제2부 | 기존통계 활용

2100. 보건의료 부문

2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250
2102 만성질환 현황	251
2103 주관적 건강 인식	252

2104 건강검진 수진율	253
2105 월평균 보건의료비	254
2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256
2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257
2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258
2109 농작업 손상	259
2110 병상 수	261
2111 보건의료기관 수	263
2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265
2113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266
2200. 복지 부문	268
2201 치매노인 비율	269
2202 노인의 의존 소득원	270
2203 노인일자리 참여	271
2204 영유아 비율	272
2205 유치원 취원율	273
2206 보육시설 현황	274
2207 장애인 추가비용	279
2208 결혼이민자 현황	280

2300. 교육 부문	281
2301 학생 수	282
2302 학교 수	283
2303 교원 수	284
2304 사무직원 수	285
2305 보건교사 배치율	286
2306 학교 컴퓨터 보급률	287
2307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88
2308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90
2309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291
2310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294
2311 학업중단 비율	295
2312 대학(교) 진학률	296
2313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및 참여율	298
231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300
2315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301
2400. 문화여가여건 부문	303
2401 주요 여가활동	304
2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306

2403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307
2404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309
2500. 기초생활여건/환경·경관 부문	311
2501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	312
2502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313
2503 주택의 시설 현황	314
2504 상수도 보급률	315
2505 하수도 보급률	316
2506 도로 포장률	317
2507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319
2508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320
2509 인터넷 이용 목적	321
2510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322
2511 환경오염 체감정도	325
2600. 지역공동체 부문	328
2601 사회단체 참여율	329
2700. 경제활동 부문	330
2701 소득 및 가계지출	331

2702 부채 규모	333
2703 소득 만족도	334
2704 소비생활 만족도	335
2705 노후준비	336
2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338

■ 부록	339
(1) 전국 표본리스트	341
(2) 항목별 타 자료 비교	346
(3)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358
(4) 주요 용어정리	378
(5) 2018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조사표	386

목차2
표 목차

제1부 | 개인설문조사

표 1101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74
표 1101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75
표 1102 비동거 가구원 특성	76
표 1103 -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1)	77
표 1103 - (2)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2)	78
표 1104 - (1) 이주 실태	79
표 1104 - (2) 이주 후 거주기간(타향 이주층)	80
표 1104 - (3) 이주 후 거주기간(고향 이주층)	81
표 1104 - (4) 이주 직전 주택 위치(농어촌)	82
표 1104 - (5) 이주 직전 주택 위치(도시)	82
표 1105 - (1) 5년 이내 이주 의사	84
표 1105 - (2) 이주 희망 지역(농어촌)	86

표 1105 - (3) 이주 희망 지역(도시)	86
표 1105 - (4) 이주 희망 이유	88
표 1105 - (5)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89
표 1106 - (1)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91
표 1106 - (2)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93
표 1106 - (3)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 추이	94
표 1107 - (1) 농어촌 주민(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인지도	96
표 1107 - (2) 농어촌 주민(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구축제도 이용 경험(전체 가구) ...	97
표 1107 - (3) 농어촌 주민(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구축제도 이용 경험(인지층 대상) ..	97
표 1107 - (4)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인지도(농어가 기준) - 추이	98
표 1107 - (5)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이용 경험(농어가 기준) - 추이	98
표 1107 - (6)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이용 경험(농어가 중 인지층 대상) - 추이 ..	98
표 1107 - (7) 농어촌 주민(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만족도	99
표 1107 - (8)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만족도(농어가) - 추이	100
표 1109 주관적 건강 상태	102
표 1110 - (1)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103
표 1110 - (2) 행복의 영향 요인	104
표 1110 - (3) 행복의 영향 요인 - 추이	105
표 1111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106

표 1201 - (1) 의료기관 이용 실태	108
표 1201 - (2) 의료기관 이용 횟수	110
표 1201 - (3) 의료기관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112
표 1201 - (4) 의료기관 이동시 편도 소요시간	115
표 1202 - (1)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117
표 1202 - (2) 공공의료시설 이용 불만족 이유	119
표 1203 응급실 이용 경험 및 이동 시의 교통수단과 편도 소요시간	120
표 1204 - (1) 질병 치료 시 어려움	123
표 1204 - (2) 질병 치료 시 어려움 - 추이	124
표 1301 보험 가입 현황	126
표 1302 - (1) 위기에 대한 경제적 대비 정도(질병, 사고, 재해)	127
표 1302 - (2) 위기에 대한 경제적 대비 정도(퇴직, 노후생활)	128
표 1303 - (1)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129
표 1303 - (2) 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	130
표 1304 필요 복지서비스	132
표 1305 - (1) 필요 노인복지서비스	135
표 1305 - (2)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추이	136
표 1306 영유아 보육 방법	137
표 1307 영유아 교육 방법	139

표 1308 월 평균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141
표 1309 영유아 보육/교육의 어려움	145
표 1310 - (1)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147
표 1310 - (2)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 추이	148
표 1401 - (1)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150
표 1401 - (2)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초등학생 자녀)	151
표 1401 - (3)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중학생 자녀)	151
표 1401 - (4)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고등학생 자녀)	151
표 1401 - (5)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 추이	152
표 1401 - (6) 자녀 통학 시 소요시간	153
표 1402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155
표 1403 - (1)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158
표 1403 - (2)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추이	159
표 1404 - (1) 평생교육 경험	160
표 1404 - (2) 평생교육 경험 - 추이	161
표 1404 - (3) 평생교육 만족도	162
표 1404 - (4) 향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	163
표 1405 - (1) 평생교육 참여의 어려움	165
표 1405 - (2) 평생교육 참여의 어려움 - 추이	166
표 1501 - (1) 주된 문화·여가활동	169

표 1501 - (2) 주된 문화·여가활동 - 추이	170
표 1502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171
표 1503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	172
표 1503 - (2)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 - 추이	174
표 1504 - (1) 문화·여가 활동시 어려움	176
표 1504 - (2) 문화여가활동 시 어려움 - 추이	177
표 1505 - (1)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178
표 1505 - (2)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만족도	179
표 1505 - (3)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향후 참여 의사	180
표 1601 - (1) 주거 현황(1) - 주택의 건축·신축년도	182
표 1601 - (2) 주거 현황(2) - 주택의 점유형태	183
표 1601 - (3) 주거 현황(3) - 주택종류	184
표 160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185
표 1603 - (1) 난방 시설 현황(1순위)	187
표 1603 - (2) 난방 시설 현황(2순위)	188
표 1603 - (3) 난방 시설 유형 - 추이	189
표 1604 - (1) 난방비 지출 기간	190
표 1604 - (2) 월 평균 난방비	192
표 1605 주택에 대한 만족도	195
표 1608 주택 개보수 필요성	197

표 1607 - (1) 상수도 종류	198
표 1607 - (2) 하수도 종류	199
표 1608 - (1) 쓰레기 처리 방법(1)	201
표 1608 - (2) 쓰레기 처리 방법(2)	201
표 1608 - (3) 쓰레기 처리 방법 - 추이	202
표 1609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203
표 1610 마을 안전 체감도	206
표 1611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208
표 1701 개선해야 할 환경 문제	211
표 1702 - (1) 마을 경관에 대한 인식(1)	214
표 1702 - (2) 마을 경관에 대한 인식(2)	215
표 1702 - (3) 마을 경관에 대한 인식(3)	215
표 1703 - (1)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216
표 1703 - (2)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 추이	217
표 1801 가족·이웃과의 교류	219
표 1802 공동체 활동 참여	220
표 1803 - (1) 외부인 유입 여부	222
표 1803 - (2) 외부인 유입 여부 - 추이	223
표 1804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224
표 1805 - (1) 마을공동사업 참여 경험 및 참여 의사(농어촌)	226

표 1805 - (2) 마을공동사업 경험 및 참여 의사 - 추이	227
표 1806 - (1)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1)	229
표 1806 - (2)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2)	230
표 1806 - (3)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3)	231
표 1807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233
표 1901 - (1) 도농 교류 및 6차 산업화 참여 경험 유무(농어촌 - 농어가) ...	236
표 1901 - (2) 도농 교류 및 6차 산업화 이용 경험 유무(농어촌 - 비농어가, 도시) ...	236
표 1901 - (3) 도농 교류 및 6차 산업화 참여 및 이용 만족도	237
표 1901 - (4) 도농 교류 및 6차 산업화 향후 참여 의향(농어촌 - 농어가) ...	238
표 1901 - (5) 도농 교류 및 6차 산업화 향후 이용 의향(농어촌 - 비농어가, 도시) ...	238
표 1901 - (6) 도농 교류/6차 산업 참여 경험 유무(농어가) - 추이	239
표 1901 - (7) 도농 교류/6차 산업 참여 경험 만족도(농어가) - 추이 ...	239
표 1901 - (8) 도농 교류/6차 산업 참여 의향(농어가) - 추이	239
표 1902 - (1) 도농 교류 및 6차 산업 추진 시 어려움(농어가)	240
표 1902 - (2) 도농 교류/6차 산업 추진 시 어려움 - 추이	241
표 1903 - (1) 전업 또는 겸업 여부 및 겸업의 형태	242
표 1903 - (2) 소득 구조	242
표 1904 - (1) 월 평균 생활비	243
표 1905 - (1)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투자 영역	245

제2부 | 기존통계 활용

표2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250
표2102 만성질환 현황	251
표2103 주관적 건강 인식	252
표2104 건강검진 수진율	253
표2105 - (1) 월평균 보건의료비(1)	254
표2105 - (2) 월평균 보건의료비(2)	255
표2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256
표2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257
표2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258
표2109 - (1) 농기계 및 농약 사용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	259
표2109 - (2)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종류별 분포	260
표2110 - (1) 병상 수(1)	261
표2110 - (2) 병상 수(2)	262
표2111 - (1) 보건의료기관 수(1)	263
표2111 - (2) 보건의료기관 수(2)	264
표2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	265
표2113 - (1)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266
표2113 - (2) 보건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267

표2201 치매노인 비율	269
표2202 노인의 의존 소득원	270
표2203 노인일자리 참여	271
표2204 영유아 비율	272
표2205 유치원 취원율	273
표2206 - (1)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1)	274
표2206 - (2)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2)	275
표2206 - (3)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1)	276
표2206 - (4)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2)	277
표2206 - (5)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1)	277
표2206 - (6)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2)	278
표2207 장애인 추가비용	279
표2208 결혼이민자 현황	280
표2301 학생 수	282
표2302 학교 수	283
표2303 교원 수	284
표2304 사무직원 수	285
표2305 보건교사 배치율	286
표2306 학교 컴퓨터 보급률	287
표2307 - (1) 방과 후 학교 참여율(1)	288

표2307 - (2) 방과 후 학교 참여율(2)	289
표2308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90
표2309 - (1)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초등학교 6학년	291
표2309 - (2)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중학교 3학년	292
표2309 - (3)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고등학교 2학년	293
표2310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294
표2311 학업중단 비율	295
표2312 - (1) 대학(교) 진학률(1)	296
표2312 - (2) 대학(교) 진학률(2)	297
표2313 - (1)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1)	298
표2313 - (2)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2)	299
표231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300
표2315 - (1)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1)	301
표2315 - (2)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2)	302
표2401 - (1) 주요 여가활동(1)	304
표2401 - (2) 주요 여가활동(2)	304
표2401 - (3) 주중의 주요 여가활동	305
표2401 - (4) 주말(휴일 포함)의 주요 여가활동	305
표2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306
표2403 - (1)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1)	307

표2403 - (2)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2)	308
표2404 - (1)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참여현황	309
표2404 - (2) 지역별 문화 동아리 참여현황	310
표2501 - (1)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05)	312
표2501 - (2)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10)	312
표2501 - (3) 주택 노후기간별 현황(2015)	312
표2502 - (1) 주거형태	313
표2502 - (2) 점유형태	313
표2503 - (1) 주거시설	314
표2503 - (2) 난방형태	314
표2504 상수도 보급률	315
표2505 하수도 보급률	316
표2506 - (1) 도로 포장률(1)	317
표2506 - (2) 도로 포장률(2)	318
표2507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319
표2508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320
표2509 인터넷 이용 목적	321
표2510 - (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건축물 및 시설물/교통사고	322
표2510 - (2)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국가안보/범죄위험	323
표2510 - (3)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식량안보/신종 전염병	323

표2510 - (4)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정보보안/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	324
표2510 - (5)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화재산불/전반적인 사회 안전	324
표2511 - (1) 환경오염 체감정도 - 대기오염	325
표2511 - (2) 환경오염 체감정도 - 수질오염	326
표2511 - (3) 환경오염 체감정도 - 토양오염	326
표2511 - (4) 환경오염 체감정도 - 소음·진동	327
표2511 - (5) 환경오염 체감정도 - 녹지환경	327
표2601 사회단체 참여율	329
표2701 - (1) 소득 및 가계지출(1)	331
표2701 - (2) 소득 및 가계지출(2)	332
표2702 부채 규모	333
표2703 소득 만족도	334
표2704 소비생활 만족도	335
표2705 - (1) 노후준비하고(되어) 있음	336
표2705 - (2) 노후준비하고 있지 않음	337
표2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338

목차3 그림 목차

그림 1104 이주 직전 주택 위치 - 추이	83
그림 1105 - (1) 5년 이내 이주 의사 - 추이	85
그림 1105 - (2) 이주 희망 지역 - 추이	87
그림 1106 - (1)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90
그림 1106 - (2)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92
그림 1108 정신건강	101
그림 1110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추이	105
그림 1201 - (1)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 추이	109
그림 1201 - (2) 의료기관 이용 횟수 - 추이	111
그림 1201 - (3) 의료기관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추이	113
그림 1201 - (4) 의료기관 이동시 편도 소요시간	114
그림 1201 - (5) 의료기관 이동시 평균 소요시간 - 추이	116
그림 1202 - (1) 공공의료시설 경험총 - 추이	118

그림 1202 - (2)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 추이	118
그림 1203 - (1) 응급실 이용 경험 - 추이	121
그림 1203 - (2) 응급실 이동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추이	121
그림 1204 질병 치료 시 어려움	122
그림 1304 필요 복지서비스	131
그림 1305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134
그림 1306 영유아 보육 방법 - 추이	138
그림 1307 영유아 보육 방법 - 추이	140
그림 1308 - (1) 월 평균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비용(농어촌)	142
그림 1308 - (2) 월 평균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비용(도시)	143
그림 1308 - (3)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 추이	144
그림 1310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146
그림 1401 자녀 통학 시 소요시간 - 추이	154
그림 1402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 추이	156
그림 140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157
그림 1404 평생교육 참여 의향 - 추이	164
그림 1501 주된 문화·여가활동	168
그림 1504 문화·여가 활동 시 어려움	175
그림 1603 난방 시설 현황	186
그림 1604 - (1) 월 평균 난방비	191

그림 1604 - (2) 난방 사용기간 및 난방비 - 추이	193
그림 1604 - (3) 연 평균 난방비 - 추이	193
그림 1605 - (1) 주택에 대한 만족도	194
그림 1605 - (2) 주택에 대한 만족도 - 추이	196
그림 1607 - (1) 상수도 종류 - 추이	200
그림 1607 - (2) 하수도 종류 - 추이	200
그림 1609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 추이	204
그림 1610 - (1) 마을 안전 체감도	205
그림 1610 - (2) 마을 안전 체감도 - 추이	207
그림 1611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추이	209
그림 1701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 추이	212
그림 1702 마을 경관에 대한 인식	213
그림 1803 외부인 거주 여부	221
그림 1804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 추이	225
그림 1806 - (1)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	228
그림 1806 - (2)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 - 추이	232
그림 1807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 추이	234
그림 1904 월 평균 생활비 - 추이	244
그림 1905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영역 - 추이	246

조사연구 개요

2018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조사 목적
법적 근거
조사 연혁
조사체계
표본설계
조사원 선정 및 교육
조사방법
조사내용
자료처리 및 분석

1. 조사 목적

-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법적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 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16.8.28.)

3. 조사 연혁

2004.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5년 주기로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실시 의무화

2004. 8.~1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승인 및 조사 실시
- 농림부에서 외주용역으로 조사 실시

2008. 3.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2008. 10.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2013. 3. 농촌진흥청 이관, 농촌생활지표조사와 통합 추진 결정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실태조사 항목 포괄

2013. 9.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조사주기, 조사내용 등 변경 승인

2016. 8. 통계승인번호 변경 : 제11437호('04.8.31.) → 제114037호('16.8.28.)

2019. 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4. 조사 체계

○ 조사주기 : 1년(5년 1주기)

연차	주요 조사내용		조사대상
1	종합 조사		농어촌 2,800가구 도시 1,200가구
2	부문별 조사	경제활동, 문화·여가 등	농어촌 4,000가구
3		교육, 가족, 지역개발 및 공동체 등	
4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5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안전 등	

- 1년차 종합 조사와 2~5년차 부문별 조사가 1주기를 구성하는 체계
- 종합 조사는 농어촌 주민 및 삶의 질 비교를 위한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부문별 조사는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함

※ 본 조사의 대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약칭 : 농어업인삶의질법)'의 근거에 따라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함. 단, 종합 조사 시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법의 기본이념(제2조)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시 주민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여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 생활 격차 분석 자료로 활용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5. 표본설계

①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

- 전국 동/읍/면 지역의 모든 가구(2015년 기준 등록센서스)

단위 : 명

시도	동부		읍면부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전국	15,226,025	39,049,264	3,334,713	8,032,936
서울	3,813,305	9,454,950	-	-
부산	1,246,621	3,104,029	29,596	72,881
대구	841,423	2,148,139	64,848	174,527
인천	997,033	2,655,359	33,538	75,301
광주	550,781	1,399,878	-	-
대전	562,605	1,421,521	-	-
울산	336,224	878,112	78,311	203,564
세종	30,987	87,876	37,502	86,838
경기	3,620,544	9,734,244	732,268	1,919,100
강원	335,257	814,333	211,373	482,115
충북	339,563	869,643	225,081	533,187
충남	332,982	846,045	416,384	996,095
전북	473,098	1,186,684	193,414	434,577
전남	277,778	701,677	377,275	855,368
경북	527,505	1,307,015	467,213	1,070,741
경남	786,104	2,031,690	412,062	986,926
제주	154,215	408,069	55,848	141,716

② 추출 단위(sampling unit)

-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 psu) : 동/읍/면
- 2차 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 ssu) : (병합)조사구
- 3차 추출단위(ultimate sampling unit: usu) : 가구

③ 추출 틀(sampling frame)

- 2015년 등록센서스에서 파악한 조사구들로 MDIS에 탑재된 명부²⁾

④ 층화(stratification)

- 1차 층화 : 동부와 읍/면부 지역으로 층화
- 2차 층화 : 동부는 서울, 광역시, 기타의 3개의 세부적 구분
읍/면부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구분
- 3차 층화 : 내재적 층화(implicit stratification)
아파트 가구 비율, 65세 이상 가구 비율, 농림어가 비율에 따라 지역별 2~3개로 층화

⑤ 표본배분

- 역배분(power allocation)에 의해 지역별 표본 배분을 함

[표본배분 기본전략]

기존 표본설계에서 고려한 배분방식은 Bankier (1988)의 “역분해(power allocation)”로 주어진 표본크기 m 을 층별로 할당할 때, 층별 조사특성 y 의 상대표준오차 $cv_y (= S_y / \bar{Y})$ 와 보조정보 x 에 근거한 크기측도(measure of size, MOS) 혹은 중요도 t_{xh} 의 a 승의 곱에 비례하여 할당함. 즉,

$$m_h^{\text{역}} \propto (t_{xh})^a cv_{yh} \quad (1)$$

만약 $a = 1$ 이고 $t_{xh} = t_{yh}$ 이라면 역배분은 네이만배분(Neyman allocation)이 되고, 층별 상대 표준오차가 거의 동일하고 $t_{xh} = M_h$ 이라면 역배분은 층 크기 기준의 절충할당(compromise allocation)이 됨. 주요 조사특성들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대표준오차의 조화평균을 취하여 식 (1)에 적용함

$$\tilde{cv}_{yh} = \left(\frac{1}{Q} \sum_{q=1}^Q cv_{yh}^{-1} \right)^{-1} \quad (2)$$

2) 통계청 MDIS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표본설계를 위해 외부 자료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자료로 2015년 이후 등록센서스로 변경된 이후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값은 제외되어 통계청에서 공표되는 가구 규모에 비해 다소 작은 값이 제공됨

[표본배분 적용]

2013~2017년 총 5년간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설계요소별 조화평균을 계산하고, 이를 식 (2)에 통합하여 기대분산값을 산출함. 이를 식 (1)의 역배분에 적용한 후, 분석영역인 표본층별 상대 표준오차가 적절한 범위를 갖도록 추가적 조정

역배분은 $a = 1/3$ 을 적용하였고, 지역별 표본수를 먼저 계산한 후, 지역별 상대표준오차의 차이가 많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정을 실시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구분	지역	종합조사 (2018)	부문별 조사(2019~2022)	
			추가표본	총계
전국	총계	4,000	-	4,000
읍면부	소계	2,800	1,200	4,000
	경기	300	140	440
	강원	260	120	380
	충북	280	120	400
	충남	320	140	460
	전북	340	140	480
	전남	440	180	620
	경북	380	160	540
	경남	340	140	480
	제주	140	60	200
동부	소계	1,200	-	-
	서울	460	-	-
	광역시	340	-	-
	기타	400	-	-

[6] 표본추출

- 1차 추출 : 표본 동/읍/면 추출 - 동/읍/면별 인구수 크기비례확률표집(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 sampling, pps) 추출
- 2차 추출 : 동/읍/면 내 조사구 추출 - 동/읍/면 내 인구주택 조사구 크기비례확률표집 추출
- 3차 추출 : 가구 추출 - 조사구 명부 기초로 계통추출

6. 조사원 선정 및 교육

- 조사원 선정 : 3년 이상의 공공조사 경력자를 중심으로 선발하였으며, 1명의 조사원이 50가구 내외를 담당함
- 조사원 교육 : 집합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 집합교육 : 투입된 모든 조사원을 대상으로 일관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유의사항, 친절도에 대한 교육
 - 수시교육 : 응답거부 시 대처방안과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여 문제점 해결
 - 모든 조사원이 동일한 개념과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하여 조사원 교육 실시

7.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전국 3,929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응답률 98.2%)
 - 전체 4,000가구(농어촌 2,800가구, 도시 1,200가구) 중 통상적인 응답률을 고려하여 농어촌 95%(2,660가구), 도시 90%(1,080가구)로 목표 응답률 설정
 - 농어촌 2,780가구(응답률 99.2%), 도시 1,149가구(응답률 95.8%) 조사 완료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직접면접식과 자기기입식 병행
- 표본대체 :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대체방안 마련 및 그에 따른 조사 진행
 - 3회 방문 후 대체 진행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장기부재,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대체 진행
- 조사 일정 : 9월 1일~10월 7일(1.25개월)

8. 조사내용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관련 실태 및 의식에 관한 내용 : 생활전반,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지역공동체, 경제활동 등 9개 부문 78개 항목
- 일반적인 문항의 경우 다항선택형 질문(Multiple-choice Question)과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을 사용함

- 각종 만족도, 인식 등을 측정하는 척도로 Likert 척도(5점)를 주로 사용함

구분	조사항목(*신규문항)
일반사항	가족 수,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업, 동거 여부, 농어가 여부,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장애 가구원 현황, 결혼이민자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등
생활전반	이주 실태, 이주이사,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농촌 주민의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만족도, 전반적인 농어촌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정신건강*, 주관적 건강 상태*,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등
보건의료	의료기관 이용 실태,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응급실 이용 경험, 질병 치료 시 어려움 등
복지	보험 가입 현황, 위기에 대한 경제적 대비 정도*,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필요 복지서비스*,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영유아 보육 및 교육 방법,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영유아 보육/교육의 어려움*,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교육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평생교육 경험 및 수요, 평생교육 참여의 어려움
문화·여가 여건	주된 문화·여가활동,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 문화·여가활동 시 어려움,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및 수요*
기초생활 여건	주택 건축 신축년도, 주택 점유형태, 주택 종류 ³⁾ , 주택의 방 개수·면적, 주택의 시설 현황, 난방비 부담, 주택에 대한 만족도, 주택 개보수 필요성*, 상수도 및 하수도 종류 ⁴⁾ , 쓰레기 처리 방법,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마을 안전 체감도 ⁵⁾ ,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⁶⁾
환경·경관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마을 경관에 대한 인식*,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인식 등
지역 공동체	가족·이웃과의 교류*, 공동체 활동 참여*, 외부인 유입 여부,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마을공동사업 경험 및 참여 의사,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경제활동	도·농 교류/6차 산업 경험 유무 및 만족도, 도·농 교류/6차 산업 추진 시 어려움, 월 평균 생활비,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투자 영역

3) 주택 건축 신축년도, 주택 점유형태, 주택 종류: “기초생활여건” 부문(2013) → “생활전반” 부문(2014) → “기초생활여건” 부문(2017)

4) 상수도 및 하수도 종류: “기초생활여건” 부문(2013) → “환경·경관” 부문(2017) → “기초생활여건” 부문(2018)

5) 마을 안전 체감도: “지역개발” 부문(2015) → “안전” 부문(2017) → “기초생활여건” 부문(2018)

6)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기초생활여건” 부문(2013) → “안전” 부문(2017) → “기초생활여건” 부문(2018)

9. 자료처리 및 분석

① 자료처리

- 확인/검증을 거친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코딩(Coding), 수정(Editing)과정을 거쳐 SAS를 이용,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등으로 통계분석함
-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만족도 등 평가적 신념과 관련된 문항의 직관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평균값(Mean) 산출 [100점 만점 환산 : $(X_i - 1) \times 25$ 점, X_i :측정값]
- 종합만족도가 산출방법 : 상관관계 분석으로 상관계수를 활용해 중요도를 산출하고 중요도를 감안해 종합만족도를 산출함



-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 전반적인 체감 만족도 및 하위요소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상관계수의 합을 기준으로 평가 항목의 중요도를 산출함
 - 지역의 전반적 생활여건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보건의료](10.72%), [복지서비스](10.96%), [교육여건](11.61%), [문화·여가 여건](9.69%), [기초생활기반](11.67%), [안전](10.28%), [환경·경관](10.04%), [이웃과의 관계](10.90%), [경제활동](14.13%) 등으로 중요도가 산출됨

7) 본 조사에서는 종합만족도 산출 방식으로 주요 정책 만족도 측정에서 널리 활용되는 '혼합측정' 방식을 사용함. '혼합측정' 방식을 사용할 경우, 다양한 품질 차원을 고려할 수 있는 '간접 측정'의 장점과 함께, 간접측정에서 빠질 수 있는 내용을 체감만족도라는 '직접 측정' 방식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② 추정

- 표본 추정 : 조사변수 y 의 모총합 Y 은 표본가중합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정의됨

$$\hat{Y}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sum_{k=1}^{m_{hij}} w_{hijk} y_{hijk}$$

- h : 표본층 구분자
- i : 표본동읍면 ($i = 1, \dots, n_h$)
- j : 표본조사구 ($j = 1, \dots, m_{hi}$)
- k : 표본가구 ($k = 1, \dots, m_{hij}$)
- w_{hijk} : 표본층 h 내 동읍면 i , 조사구 j , k 번째 표본(응답)가구의 표본가중치
- y_{hijk} : 표본층 h 내 동읍면 i , 조사구 j , k 번째 표본(응답)가구의 조사변수값
- n_h : 표본층 h 내 표본동읍면수
- m_{hi} : 표본층 h 내 동읍면 i 의 표본조사구수
- m_{hij} : 표본층 h 내 동읍면 i , 조사구 j , k 번째 표본(응답)가구수

- 모집단 크기 M 도 위의 식을 이용하여 표본가중합의 형태로 정의됨

$$\hat{M}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sum_{k=1}^{m_{hij}} w_{hijk}$$

즉, 조사변수 $1(y_{hijk} \equiv 1)$ 에 대한 표본가중합에 해당함

- 모평균 $\bar{Y}$ 은 표본가중비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정의됨

$$\hat{\bar{Y}} = \frac{\hat{Y}}{\hat{M}}$$

● 설계가중치

- 단계별 표본포함확률 반영 : 일차추출단위 동읍면과 이차추출단위인 조사구는 각각 가구수 크기비례 계통확률추출로 선택되었고, 삼차추출단위는 가구는 단순계통확률추출로 선택됨. 표본가구 설계가중치는 단계별 추출단위의 설계가중치의 곱으로 정의되어 다음과 같이 표현됨

$$\begin{aligned}
 w_{hijk}^d &= w_{hi}^d w_{j|hi}^d w_{k|hij}^d \\
 &= \frac{M_{h...}}{n_h M_{hi..}} \frac{M_{hi.}}{m_{hi} M_{hij}} \frac{M_{hij}}{m_{hij}} \\
 &= \frac{M_{h...}}{n_h m_{hi} m_{hij}}
 \end{aligned}$$

- w_{hijk}^d : 가구 ($hijk$)의 설계가중치
- w_{hi}^d : 동읍면 (hi)의 설계가중치
- $w_{j|hi}^d$: 조사구 (hij)의 (조건부) 설계가중치
- $w_{k|hij}^d$: 가구($hijk$)의 (조건부) 설계가중치
- m_{hi} : 동읍면 (hi) 내 표본조사구수
- m_{hij} : 조사구 (hij) 내 표본가구수
- M_{hij} : 조사구 (hij) 내 총가구수
- $M_{hi.}$: 동읍면 (hi) 내 총가구수
- $M_{h...}$: 표본층 h 내 총가구수

- 레이킹-비 조정 : 본 조사는 레이킹-비 조정을 통해 칼리브레이션 조정⁸⁾을 고려하되 기존 1주기 조사 (2013~2017)의 평가를 반영한 대리응답(proxy response) 가정 및 이상치 절사(outlier trimming)을 함께 고려한 방식을 채택함

8) 칼리브레이션 조정은 조정 전 가중치를 이용하여 보조정보 x 에 대해 표본가중합과 모총합을 서로 일치시키는 것. (단위)무응답에 의한 편향(bias)을 줄임은 물론 표본추출률 결함에 따른 포함오차(coverage error) 또한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임. 다수의 보조정보에 대한 모집단 결합분포가 알려져 있지 않고 개별 보조정보의 주변분포만 주어지거나 결합분포에 따른 조정층 내 표본개체수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보조정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칼리브레이션 조정을 수행하는 레이킹-비 조정 (혹은 반복비례적합)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Deville et al., 1993)

● 레이킹-비 조정을 위한 보조변수

- 지역별 가구주 성별 (남녀)
- 지역별 가구주 연령 (20-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 지역별 주택유형 (단독, 아파트, 연립 · 다세대, 기타)

● 가중치 절사

- 레이킹-비 조정은 보조정보 주변합에 대한 반복적 칼리브레이션을 수행하게 됨으로 이상치가 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과대조정을 지양하고자 가중치절사를 적용함

$$w_k^{TR} = \begin{cases} wL & \text{만약 } w_k^{rake} < wL \\ wU & \text{만약 } w_k^{rake} > wU \\ w_k^{rake} & \text{기타} \end{cases}$$

- $qw_{0.50} = w_k^{rake}$ 의 중위수
- $qw_{0.95} = w_k^{rake}$ 의 95% 백분위수
- $wL = qw_{0.50} / 4$
- $wU = \max\{4qw_{0.50}, qw_{0.95}\}$

● 반복적 레이킹-비 조정 및 가중치 절사 적용

- 가중치 절사에 따른 표본가중합과 모총합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레이킹-비 조정과 가중치 절사 과정을 다수(3번) 반복 적용함

● 표준화 가중치

- 최종가중치는 동 · 읍면 별로 각각 다음과 같이 표준화시킴

$$w_{\eta k}^s = \frac{m_{\eta}}{\widehat{M}_{\eta}} w_k^F$$

- η : 동 · 읍면부 영역 지시자
- w_k^F : 최종가중치
- w_{nk}^s : 영역 η 의 표준화 가중치
- m_η : 동 · 읍면부 영역별 표본(응답)가구수
- $\hat{M}_\eta$: 동 · 읍면부 영역별 (최종가중치) 가중합

● 분산추정 : 선형근사방식 분산추정

- 복합표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분석에서 표본추정량 분산식은 일반적으로 수식형태로 주어지지 못하며 가중합 함수에 대한 테일러 선형근사방식이나 복제표본 추정량의 변동에 근거한 방식 중에 선택함(Valliant, 2004)
- 선형근사방식의 표본가중평균의 분산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주어짐
- 복잡표본 자료분석의 분산추정은 SAS, SPSS, R 등을 통해 가능함

$$v(\hat{Y}) =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begin{aligned} \cdot e_{hi..} &= \frac{\sum_{j=1}^{m_{hi}} \sum_{k=1}^{m_{hij}} w_{hijk} (y_{hijk} - \hat{Y})}{w_{....}} \\ \cdot \bar{e}_{h...} &= \frac{1}{n_h} \sum_{i=1}^{n_h} e_{hi..} \\ \cdot w_{....}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sum_{k=1}^{m_{hij}} w_{hijk} (= \hat{M}) \\ \cdot f_h &= \frac{n_h}{N_h} \text{ (일차추출단위 표본추출률)} \end{aligned}$$

③ 표준오차(SE)와 상대표준오차(RSE)

- 표준오차 (standard error: SE)

- 추정치의 표준편차: $\sqrt{Var(\hat{\theta})}$

- 상대표준오차 (relative standard error: RSE)

- $RSE(\hat{\theta}) = \frac{\sqrt{Var(\hat{\theta})}}{\hat{\theta}}$

- 상대표준오차는 추정치나 표준오차의 단위와 상관없이 일정하므로 표본조사 품질 척도로 널리 사용됨

-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 $\hat{\theta} \pm 1.96 \sqrt{Var(\hat{\theta})}$

-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모두 $Var(\hat{\theta})$ 의 함수로 표현

- 모두 수학적으로 동등함

-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통계적 정확도

- 통계의 중요성, 목적, 용도에 따라 정확도 요구가 다름
- 일반적으로, 전국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통상적으로 1~5% 정도로 사용
- 시도별, 속성별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3~10% 정도
- 상대표준오차가 지나치게 크면 공표를 지양해야 함

제1부 개인 설문조사

2018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 1100> 가구 정보 및 생활 전반
- 1200> 보건의료
- 1300> 복지
- 1400> 교육
- 1500> 문화·여가여건
- 1600> 기초생활여건
- 1700> 환경·경관
- 1800> 지역공동체
- 1900> 경제활동



1100> 가구 정보 및

생활 전반

- 110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102>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 1103> 이주 실태
- 1104> 5년 이내 이주 의사
- 1105>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 1106>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인식
- 1107> 정신건강
- 1108> 주관적 건강 상태
- 1109>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1110>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110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가구주'가 66.9%, '여성'이 59.5%, [60대 이상] 연령층이 40.5%
- ▶ '농어업종사자'가 27.2%, 종사자 지위로 '자영업자'가 49.2%

 '가구주' 66.9%, '여성' 59.5%, [60대 이상] 연령층 40.5%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기준]

가구주나 배우자 중 1명이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응답자의 66.9%가 '가구주' 본인이며, '여성'(59.5%) 비율이 '남성'(40.5%)에 비해 높았다. 연령별로 '60대'(17.9%), '70대 이상'(22.6%) 등 [60대 이상] 비율이 40.5%이었으며, '50대'(22.2%), '30대 이하'(19.3%), '40대'(18.0%) 순이었다. 혼인상태로 '유배우'(59.7%), '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등)'(30.9%)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70대 이상'(+11.4%p), [초졸 이하](+16.2%p) 비율이 높았다.

| 표 1101 - (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합계		(2,780)	100.0	(1,149)	100.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1,860)	66.9	(718)	62.5
	가구주 배우자	(920)	33.1	(431)	37.5
성	남	(1,116)	40.5	(392)	34.5
	여	(1,637)	59.5	(746)	65.5
연령	30대 이하	(528)	19.3	(306)	26.9
	40대	(494)	18.0	(272)	23.9
	50대	(608)	22.2	(267)	23.5
	60대	(492)	17.9	(165)	14.5
	70대 이상	(620)	22.6	(128)	11.2
혼인상태	유배우	(1,643)	59.7	(756)	66.4
	미혼, 비혼	(258)	9.4	(137)	12.1
	배우자없음(사별, 이혼 등)	(851)	30.9	(245)	21.5
학력	무학	(305)	11.3	(57)	5.0
	초등학교	(457)	17.0	(80)	7.1
	중학교	(330)	12.3	(87)	7.7
	고등학교	(946)	35.1	(361)	31.9
	대학교	(631)	23.4	(502)	44.4
	대학원 이상	(22)	0.8	(44)	3.9

 '농어업종사자' 27.2%, 종사자 지위 '자영업자' 49.2%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자에 한해]

직업별로는 [주부/무직/기타](36.8%), '사무 종사자'(8.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각 5.3%), '서비스 종사자'(4.1%) 등 [자영업/직장인](36.0%)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농어업종사자' 비율은 27.2%였다.

농어업 종사자 및 자영업/직장인층의 종사자 지위로 '자영업자'(49.2%)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상용직'(30.2%), '무급가족 봉사자'(11.3%), '일용직'(5.2%), '임시직'(4.1%) 순이었다.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종사자'(+26.9%p), '자영업자'(+25.5%p) 비율이 높은 반면, '사무종사자'(-10.8%p), '상용직'(-28.7%p) 비율은 낮았다.

| 표 1101 - (2)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합계		(2,654)	100.0	(1,105)	100.0
직업	농어업종사자	(723)	27.2	(3)	0.3
	관리자	(65)	2.4	(42)	3.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42)	5.3	(78)	7.0
	사무 종사자	(227)	8.6	(214)	19.4
	서비스 종사자	(109)	4.1	(55)	5.0
	판매 종사자	(111)	4.2	(43)	3.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6)	1.7	(37)	3.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4)	4.3	(19)	1.7
	단순노무 종사자	(141)	5.3	(64)	5.8
	주부/무직/기타	(976)	36.8	(550)	49.8
종사자 지위	자영업자	(812)	49.2	(128)	23.7
	상용직	(498)	30.2	(319)	58.9
	임시직	(68)	4.1	(55)	10.1
	일용직	(86)	5.2	(19)	3.5
	무급가족 봉사자	(186)	11.3	(21)	3.8

1102 > 비동거 가구원 특성

▶ 비동거 가구원 중 80% 이상이 '가구주의 자녀', 주된 비동거 사유는 '직장(직업, 취업준비)'



비동거 가구원 중 80% 이상이 '가구주의 자녀', 주된 비동거 사유는 '직장(직업, 취업준비)'

[비동거 가구원 : 농어촌 가구(n=321)/도시 가구(n=102) 기준]

농어촌 가구의 전체 가구원(n=6,915) 중 비동거 가구원은 4.6%였으며, 가구주와의 관계로 '가구주의 자녀'(79.7%) 비율이 매우 높았다. 비동거 사유로 '직장(직업, 취업준비)' 비율이 48.9%로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학업(타 지역 학교 유학)'(38.6%) 비율도 높았다.

도시의 경우, 전체 가구원(n=3,207) 중 비동거 가구원은 3.2%였으며, 가구주와의 관계로 농어촌과 마찬가지로 '가구주의 자녀'(86.7%) 비율이 가장 높고, 비동거 사유로 '직장(직업, 취업준비)'(51.3%) 비율이 높았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학업(타 지역 학교 유학)'(+18.6%p) 비율이 높았다.

| 표 1102 | 비동거 가구원 특성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합계		(321)	100.0	(102)	100.0
비동거 가구원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의 배우자	(35)	11.0	(24)	23.6
	가구주의 자녀	(256)	79.7	(66)	64.7
	자녀의 배우자	(6)	1.8	(1)	1.2
	손자녀/그 배우자	(6)	1.9		
	부모	(16)	5.0	(10)	9.6
	조부모			(1)	0.9
	형제자매/그 배우자	(2)	0.7		
비동거 사유	친지 보육	(2)	0.6	(1)	0.2
	학업(타 지역 학교 유학)	(109)	36.6	(18)	18.0
	자녀 교육 지원	(5)	1.7	(7)	7.1
	직장(직업, 취업준비)	(146)	48.9	(52)	51.3
	건강(입원, 요양 등)	(20)	6.6	(3)	3.2
	기타(군복무, 별거, 가출 등)	(17)	5.5	(20)	20.3

1103>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 농어가가 30.7%,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 '2세대 가구'가 38.2%, '1인 가구'가 31.9%
▶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41.0%

 농어가가 30.7%,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 '2세대 가구'가 38.2%, '1인 가구'가 31.9%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기준]

농어촌 가구 중 농어가가 30.7%이었으며, 가구원 수는 '1명'(31.9%), '2명'(31.0%), '4명'(15.0%), '3명'(14.8%) 순으로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로 부모, 자녀 중심의 '2세대' 가구(38.2%),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31.9%)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1인 가구'+(8.3%p) '1세대'+(9.0%p) 비율이 높은 반면, '2세대'(-17.3%) 비율은 낮았다.

| 표 1103 - (1) |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1)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합계		(2,780)	100.0	(1,149)	100.0
농어가 여부	농어가	(853)	30.7	(16)	1.4
	비농어가	(1,927)	69.3	(1,133)	98.6
가족 형태	1인 가구	(887)	31.9	(271)	23.6
	1세대	(688)	24.8	(181)	15.8
	2세대	(1,062)	38.2	(638)	55.5
	3세대 이상	(143)	5.1	(58)	5.1
총 가구원 수	1명	(887)	31.9	(268)	23.4
	2명	(860)	31.0	(256)	22.3
	3명	(410)	14.8	(261)	22.7
	4명	(417)	15.0	(294)	25.6
	5명	(159)	5.7	(54)	4.7
	6명 이상	(46)	1.7	(16)	1.4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41.0%

[65세 이상 가구원/장애 가구원/결혼 이민자 유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기준]

[장애 가구원 가구주와의 관계 및 장애 증상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농어촌 : n=326/ 도시 : n=86) 중 응답가구에 한해]

농어촌 가구 중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41.0%,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는 0.8%였으며, 가구주와의 관계(n=23)로 ‘가구주의 배우자’(76.5%) 비율이 매우 높았고, ‘자녀의 배우자’(22.4%), ‘형제자매/그 배우자’(1.1%) 순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6.1%,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가구는 2.1%이었다.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전체 농촌가구의 10.8%였다. 장애 가구원과 가구주와의 관계(n=326)로 ‘가구주’(53.4%) 본인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가구주의 자녀’(16.0%), ‘가구주의 배우자’(14.6%), ‘부모’(14.5%), ‘형제자매/그 배우자’(1.4%) 순이었다. 장애증상의 종류로 ‘경증’(67.2%) 비율이 ‘중증’(32.8%)에 비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율이 높았다(+18.3%p).

| 표 1103 - (2) |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2)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구분		농어촌		도시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합계		(2,780)	100.0	(1,149)	100.0	합계		(2,780)	100.0	(1,149)	100.0
65세이상 가구원	있음	(1,139)	41.0	(261)	22.7	장애 가구원	있음	(300)	10.8	(82)	7.1
	없음	(1,641)	59.0	(888)	77.3		없음	(2,480)	89.2	(1,067)	92.9
결혼 이민자	있음	(23)	0.8	(1)	0.1	장애 가구원 가구주 와의 관계	가구주	(174)	53.4	(51)	59.9
	없음	(2,757)	99.2	(1,148)	99.9		가구주의 배우자	(48)	14.6	(6)	6.5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 여부	수급	(169)	6.1	(46)	4.0		자녀	(52)	16.0	(21)	25.1
	차상위계층	(59)	2.1	(16)	1.4		손자녀/ 그 배우자			(1)	0.4
	해당 없음	(2,552)	91.8	(1,087)	94.6		부모	(47)	14.5	(6)	7.2
							형제자매/ 그 배우자	(5)	1.4	(1)	0.7
장애 증상	중증						동거인			(1)	0.2
	경증						중증	(104)	32.8	(42)	49.0
							경증	(214)	67.2	(44)	51.0

1104> 이주 실태

▶ [이주민] 64.1% > [선주민] 35.9%
▶ 이주 직전 주택 위치로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45.0%) 등 [농어촌→농어촌] 비율이 75.3%

 [이주민] 64.1% > [선주민] 35.9%

귀택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언제부터 살고 계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기준]

‘이주했다’(59.4%),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4.7%) 등 [이주민] 이 64.1%로, 현 거주지가 고향인 [선주민](35.9%) 비율보다 높았다.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선주민 비율이 높았다(+30.7%p).

| 표 1104 - (1) | 이주 실태 단위 : %(명)

구분		이주했다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	이주민 (합)	현 거주지가 고향 이다	선주민 (합)
농어촌 (2,771)		59.4	4.7	64.1	35.9	35.9
읍/면	읍 (1,221)	74.1	5.4	79.5	20.5	20.5
	면 (1,551)	47.8	4.2	52.0	48.0	48.0
영농 여부	농어가 (852)	24.7	7.3	32.1	67.9	67.9
	비농어가 (1,919)	74.8	3.6	78.4	21.6	21.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6)	86.9	2.4	89.3	10.7	10.7
	40대 (491)	74.5	5.4	80.0	20.0	20.0
	50대 (608)	59.8	9.0	68.8	31.2	31.2
	60대 (490)	46.6	4.0	50.6	49.4	49.4
	70대 이상 (619)	32.2	2.9	35.1	64.9	64.9
도시 (1,147)		89.8	5.0	94.8	5.2	5.2



평균 거주기간 : '타향 이주층'(평균 12.3년) > '고향 이주층'(평균 10.8년)

[이주민(농어촌 : 타향 이주층 n=1,646, 고향 이주층 n=132/ 도시 : 타향 이주층 n=1,030, 고향 이주층 n=58) 중 응답가구에 한해]

타향 이주층(n=1,646)의 이주 후 거주기간으로 '5~10년 미만'(21.4%), '3~5년 미만'(17.9%), '1~3년 미만'(15.9%), '1년 미만'(4.3%) 등 [10년 미만] 비율이 59.5%이었으며, 다음으로 '10~30년 미만'(27.8%), '30~50년 미만'(9.5%), '50년 이상'(3.1%)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은 12.3년이었다.

먼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평균 이주 후 거주기간이 조금(+2.8년) 더 길었다.

| 표 1104 - (2) | 이주 후 거주기간(타향 이주층)

단위 : %(명)

구분			평균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 30년 미만	30~ 50년 미만	50년 이상
농어촌 (1,643)			12.3년	4.3	15.9	17.9	21.4	27.8	9.5	3.1
읍/면	읍 (903)		11.2년	2.2	14.8	20.4	21.9	32.0	7.2	1.5
	면 (741)		13.5년	6.9	17.2	14.9	20.9	22.7	12.4	5.0
영농 여부	농어가 (209)		23.4년	0.2	8.4	10.4	12.0	29.2	29.7	10.1
	비농어가 (1,435)		10.7년	4.9	17.0	19.0	22.8	27.6	6.6	2.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457)		4.8년	8.6	30.2	26.3	25.5	7.6	1.7	
	40대 (364)		8.7년	4.6	10.4	21.0	24.3	39.0	0.7	
	50대 (363)		12.1년	2.7	16.4	12.7	18.4	39.7	10.1	
	60대 (229)		16.8년	2.0	8.7	16.4	16.4	31.7	22.3	2.4
	70대 이상 (199)		29.9년	0.2	3.0	6.0	13.9	27.6	26.2	23.0
도시 (1,029)			9.5년	7.7	22.1	15.1	19.0	30.2	5.3	0.6

고향 이주층(n=132)의 이주 후 거주기간으로 ‘5~10년 미만’(45.8%), ‘3~5년 미만’(5.9%), ‘1~3년 미만’(5.4%), ‘1년 미만’(2.9%) 등 [10년 미만](60.0%), ‘10~30년 미만’(35.3%), ‘30~50년 미만’(4.5%), ‘50년 이상’(0.3%)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은 10.8년이였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도시 지역 역시 농어촌과 비슷한 수준(+0.3년)으로 나타났다.

| 표 1104 - (3) | 이주 후 거주기간(고향 이주층) 단위 : %(명)

구분			평균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 30년 미만	30~ 50년 미만	50년 이상
농어촌 (131)			10.8년	2.9	5.4	5.9	45.8	35.3	4.5	0.3
읍/면	읍 (66)		9.9년	2.2	2.4	4.3	58.3	29.9	2.8	
	면 (66)		11.8년	3.5	8.3	7.4	33.3	40.7	6.3	0.5
영농 여부	농어가 (62)		13.7년	1.8	5.2	8.7	26.7	49.7	7.8	0.2
	비농어가 (69)		8.3년	3.8	5.5	3.3	62.9	22.5	1.6	0.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2)		8.4년	6.7			75.8	17.5		
	40대 (27)		8.2년	6.7	4.5	4.5	52.2	32.1		
	50대 (55)		10.3년	2.0	6.6	5.6	47.7	35.5	2.6	
	60대 (20)		12.6년		7.1	10.9	32.6	38.9	10.4	
	70대 이상 (17)		16.2년		4.7	7.2	23.8	48.2	14.2	1.9
도시 (58)			11.1년	2.3	7.7	9.5	28.8	46.3	5.4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45.0%) 등 [농어촌→농어촌] 비율이 75.3%

지금 살고 있는 곳 직전에 살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이주층(농어촌 : n=1,777/ 도시 : n=1,088) 중 응답가구에 한해]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45.0%),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30.2%)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이주해온 층이 75.3%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17.6%), ‘중소도시(동)’(7.2%) 등 도시에서 이주해온 층(24.7%) 보다 많았다.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해 온 가구 중 5년 이내 이주한 귀농·귀촌 가구는 전체 이주층 중 10.5%(n=187, 농어촌 전체 대비 6.7%)였다.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농어촌→농어촌]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에서 [도시→농어촌] 비율이 높았다.

| 표 1104 - (4) | 이주 직전 주택 위치(농어촌)

단위 : %(명)

구분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다른 시/군의 농어촌 (읍/면)	농어촌 → 농어촌	중소도시 (동)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도시 → 농어촌
농어촌 (1,565)		45.0	30.2	75.3	7.2	17.6	24.7
읍/면	읍 (824)	52.5	26.4	78.9	8.4	12.7	21.1
	면 (742)	36.8	34.4	71.2	5.8	23.0	28.8
영농 여부	농어가 (243)	38.9	32.1	71.0	7.0	22.0	29.0
	비농어가 (1,322)	46.2	29.9	76.0	7.2	16.7	24.0

도시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시 내 다른 동 지역’(70.8%) 등 [도시→도시] 비율이 90.2%로 매우 높았으며, [농어촌→도시] 비율은 9.8%로 나타났다.

| 표 1104 - (5) | 이주 직전 주택 위치(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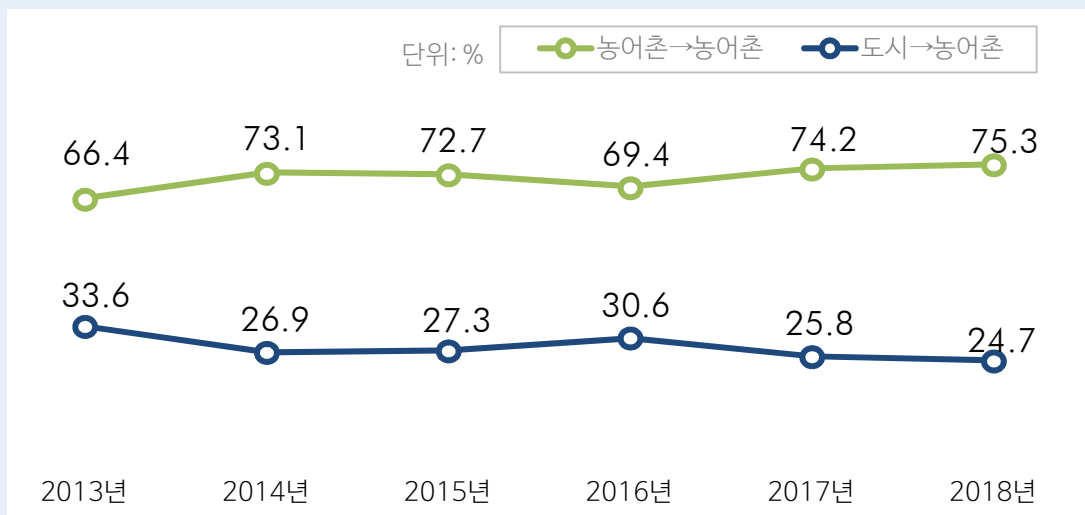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현재 살고 있는 시 내 다른 동 지역	다른 시의 동 지역	도시 → 도시	현재 살고 있는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	농어촌 → 도시
도시 (959)	70.8	19.4	90.2	9.8	9.8



이주 직전 주택 위치 - 추이

○ 2013년에 비해 [농어촌 → 농어촌] 비율이 증가(+8.9%p)함



1105> 5년 이내 이주 의사

- ▶ 이주의향층이 7.2%, 농어촌으로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68.1%
- ▶ 주된 이주의향 이유는 '주택 관련 사유'(28.2%), '직업 관련 사유'(25.9%), '생활관련 사유'(25.3%)

 이주의향층 7.2%

귀택은 향후 5년 내에 다른 곳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향후 5년 내 이주할 의향이 있는 층이 7.2%로,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층에서 이주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이주의향이 낮았다(9.2%p).

| 표 1105 - (1) | 5년 이내 이주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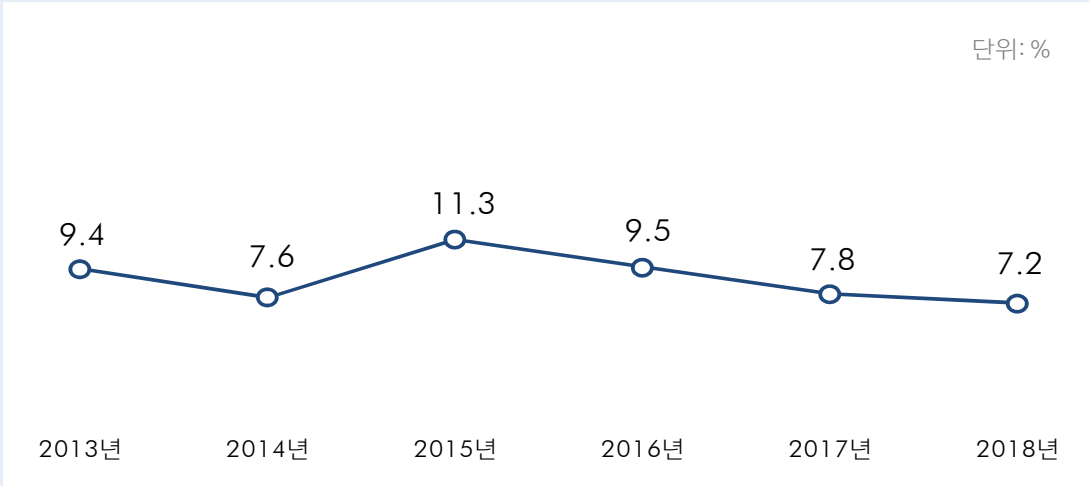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이주의향층	잘 모르겠다	없다
농어촌 (2,776)		7.2	13.4	79.4
읍/면	읍 (1,225)	10.5	17.0	72.5
	면 (1,551)	4.6	10.6	84.8
영농 여부	농어가 (852)	1.4	4.8	93.8
	비농어가 (1,923)	9.8	17.2	73.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17.2	26.5	56.4
	40대 (491)	11.9	18.9	69.2
	50대 (608)	5.1	14.0	80.9
	60대 (491)	3.1	5.4	91.5
	70대 이상 (619)	0.8	4.3	95.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7)	10.5	18.0	71.5
	선주민 (994)	1.3	5.1	93.6
도시 (1,145)		16.4	13.4	70.3



5년 이내 이주 의사 - 추이

○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농어촌으로 이주하겠다' 68.1%

어디로 이주할 생각이십니까?

[이주의향층(농어촌 : n=200/ 도시 : n=188) 중 응답가구에 한해]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55.6%), ‘다른 시/군의 농어촌 읍’(10.3%), ‘다른 시/군의 농어촌 면’(2.2%) 등 농어촌으로 이동하겠다는 층이 68.1%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18.5%), ‘중소도시(동)’(13.4%) 등 도시로 이주하겠다는 비율(31.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읍지역, 비농어가, 선주민층에서 [농어촌→농어촌]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이주민층에서 [농어촌→도시] 비율이 높았다.

| 표 1105 - (2) | 이주 희망 지역(농어촌)

단위 : %(명)

구분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다른 시/군의 농어촌 읍	다른 시/군의 농어촌 면	농어촌 → 농어촌	중소 도시 (동)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농어촌 → 도시
농어촌 (195)		55.6	10.3	2.2	68.1	13.4	18.5	31.9
읍/면	읍 (127)	68.9	5.8	1.1	75.8	13.3	11.0	24.2
	면 (68)	30.8	18.8	4.3	53.9	13.6	32.4	46.1
영농 여부	농어가 (10)	58.8			58.8	27.0	14.2	41.2
	비농어가 (185)	55.4	10.9	2.3	68.6	12.7	18.7	31.4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83)	53.7	10.9	2.4	67.0	14.1	19.0	33.0
	선주민 (12)	83.3	1.4		84.7	3.8	11.4	15.3

도시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시 내의 다른 곳’(75.1%) 등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겠다는 층이 96.9%였다.

| 표 1105 - (3) | 이주 희망 지역(도시)

단위 : %(명)

구분	현재 살고 있는 시 내의 다른 곳으로	다른 중소도시 (동)	다른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동	도시 → 도시	다른 시/군의 농어촌 읍	도시 → 농어촌	기타 (해외파견, 이민) 등
도시 (181)	75.1	3.4	18.3	96.9	2.8	2.8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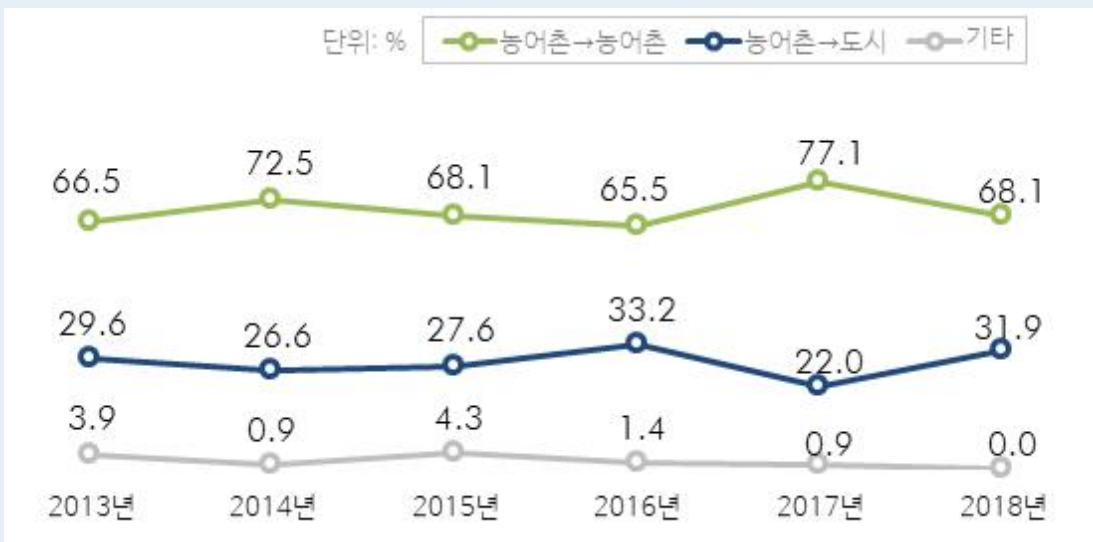
* ‘면 지역’ 항목은 응답값이 없어 제시하지 않음



이주 희망 지역 - 추이

- 2017년 대비 [농어촌→도시] 비율은 증가(+9.9%p) 반면, [농어촌→농어촌] 비율이 감소(-9.0%p)

| 그림 1105 - (2) | 이주 희망 지역 - 추이



*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n=2,780) 기준 수치임



주된 이주의향 이유는 '주택 관련 사유'(28.2%)

(이주의향층에 한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주의향층(n=200) 중 응답가구에 한해: 응답률 97.5%(n=195)]

이주 희망 이유로 주택 확장, 신규 분양, 계약 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28.2%)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울러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25.9%), '생활환경 관련 사유'(25.3%) 비율도 높았다. 다음으로, '자녀 교육 때문에'(9.3%), 가구원의 분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7.0%) 순이었다. 면지역에서 '직업 관련 사유', 농어가에서 '가족 관련 사유'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에서 '주택 관련 사유', '생활환경 관련사유' 비율이 높고, 40대 연령층에서 '자녀 교육 때문에'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직업 관련 사유' 비율이 높은 반면(+8.8%p), '주택 관련 사유' 비율은 낮았다(-28.0%p).

| 표 1105 - (4) | 이주 희망 이유

단위 : %(명)

구분		직업 관련 사유	농어업 창업 또는 전원 생활을 위해*	주택 관련 사유	가족 관련 사유	생활 환경 관련 사유	이웃 과의 관계 관련 사유	자녀 교육 때문에	가정 경제 상황의 변화로	건강 상의 이유로	기타
농어촌 (195)		25.9		28.2	7.0	25.3	0.5	9.3	0.5	0.2	3.0
읍/면	읍 (128)	16.5		33.7	5.4	33.6	0.7	6.6			3.5
	면 (67)	43.8		17.7	10.1	9.5	0.1	14.5	1.4	0.7	2.2
영농 여부	농어가 (9)	26.2		32.6	22.5	4.5		9.3		4.9	
	비농어가 (186)	25.8		28.0	6.3	26.4	0.5	9.3	0.5		3.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1)	35.1		29.3	6.3	20.9	0.9	4.6			2.9
	40대 (58)	10.8		31.1	8.5	25.4		24.2			
	50대 (28)	38.7		22.4		30.1	0.3		3.3		5.2
	60대 (14)	11.6		24.9	14.7	32.4				3.3	13.1
	70대 이상 (5)			15.1	22.9	62.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83)	26.9		25.5	6.5	27.0	0.5	10.0	0.5		3.2
	선주민 (12)	11.4		67.8	15.5	1.4				3.8	
도시 (185)		17.1	2.3	56.2	8.0	8.2	0.8	5.6	0.7	0.2	0.9

* 농어촌 설문에는 해당 선택지가 포함되지 않음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 2013년에 비해 '생활환경 관련 사유'(+12.1%p), '주택 관련 사유'(+5.1%p) 비율이 증가한 반면, '자녀교육 때문에'(-7.8%p), '가정경제상황의 변화로'(-5.8%p) 비율이 감소

| 표 1105 - (5) |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단위 : %

구분	직업 관련 사유	주택 관련 사유	가족 관련 사유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교육 때문에	생활환경 관련 사유
2018년	25.9	28.2	7.0	0.5	0.2	9.3	25.3
2017년	29.9	29.3	2.6	3.1	2.4	14.1	18.4
2016년	16.2	38.4	1.9	2.9	1.9	27.5	10.1
2015년	22.0	28.3	2.9	7.1	1.6	15.0	22.7
2014년	21.8	30.0	3.9	5.5	1.8	11.4	24.3
2013년	26.4	23.1	3.5	6.3	3.5	17.1	13.2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8년에 추가된 항목 '이웃과의 관계 관련 사유'(0.5%)와 '기타'는 제시하지 않음

1106>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 지역생활 전반적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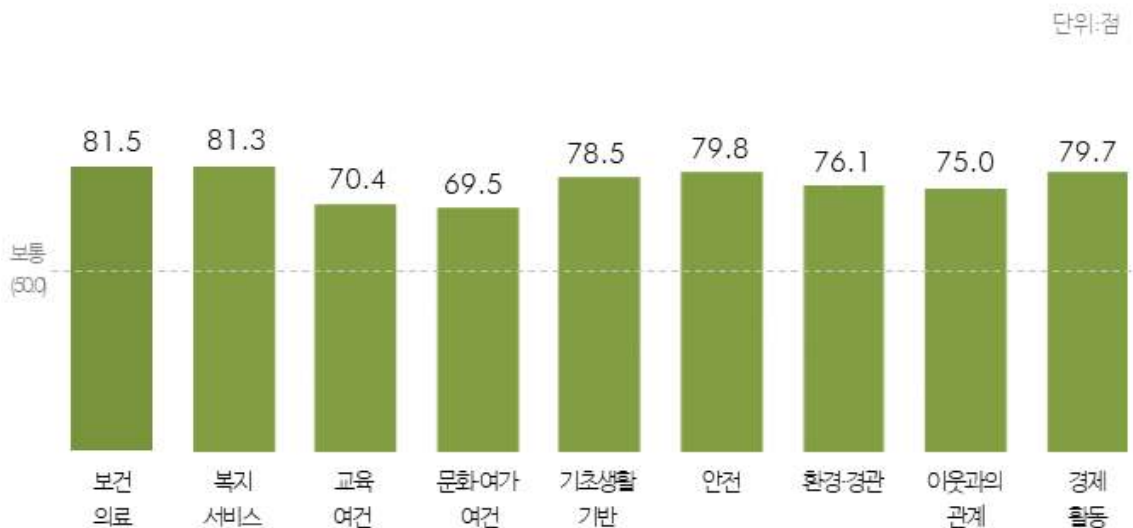
‘보건의료’(평균 81.5점), ‘복지서비스’(평균 81.3점), ‘안전’(평균 79.8점) 중요도가 높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기준/중요도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측정 값]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편의 등 ‘보건의료’(평균 81.5점), 건강, 소득, 생활, 보육 등 ‘복지서비스’(평균 81.3점)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평균 79.8점), 직업 기회, 소득, 물가 등 ‘경제활동 여건’(평균 79.7점), 주택, 도로, 대중교통 등 ‘기초생활기반’(평균 78.5점),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등 ‘환경·경관’(평균 76.1점), 지역공동체 참여, 교류 등 ‘이웃과의 관계’(평균 75.0점)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를 보였다.

한편, 자녀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여건’(평균 70.4점), 문화예술, 스포츠, 여행 등 ‘문화·여가 여건’(평균 69.5점)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그림 1106 - (1) |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읍지역, 50대 이하 연령층, 이주 의향층에서 '교육 여건', '문화·여가 여건' 중요도가 높은 반면, 농어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이웃과의 관계' 중요도가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이웃과의 관계'(+3.3점) 중요도가 높은 반면, '안전'(4.7점), '교육 여건'(-3.9점) 중요도는 낮았다.

| 표 1106 - (1) |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단위 : 점(명)

구분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교육 여건	문화· 여가 여건	기초 생활 기반	안전	환경· 경관	이웃 과의 관계	경제 활동 여건
농어촌 (2,780)		81.5	81.3	70.4	69.5	78.5	79.8	76.1	75.0	79.7
읍/면	읍 (1,228)	79.6	79.7	73.4	72.1	77.5	78.7	74.8	73.0	80.0
	면 (1,552)	82.9	82.5	68.0	67.4	79.3	80.6	77.2	76.7	79.5
영농 여부	농어가 (853)	82.9	83.2	68.1	67.4	79.0	80.2	76.4	79.4	81.3
	비농어가 (1,927)	80.8	80.4	71.4	70.4	78.3	79.6	76.0	73.1	79.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80.7	79.1	77.8	74.2	78.9	80.2	76.9	72.0	80.8
	40대 (494)	81.3	82.6	76.5	72.1	76.8	79.7	75.6	70.9	79.7
	50대 (608)	80.9	81.9	71.6	73.7	80.8	81.2	79.1	78.2	83.4
	60대 (492)	81.4	81.4	65.5	65.8	78.5	79.1	74.7	76.0	78.5
	70대 이상 (620)	82.8	81.2	61.6	61.5	77.1	78.4	74.1	76.8	76.2
향후5년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200)	85.4	83.0	79.5	76.7	79.3	81.0	78.2	73.6	81.2
	비의향층 (2,575)	81.2	81.1	69.7	68.9	78.4	79.7	76.0	75.2	79.6
도시 (1,149)		84.0	80.5	74.3	71.3	80.8	84.5	76.3	71.7	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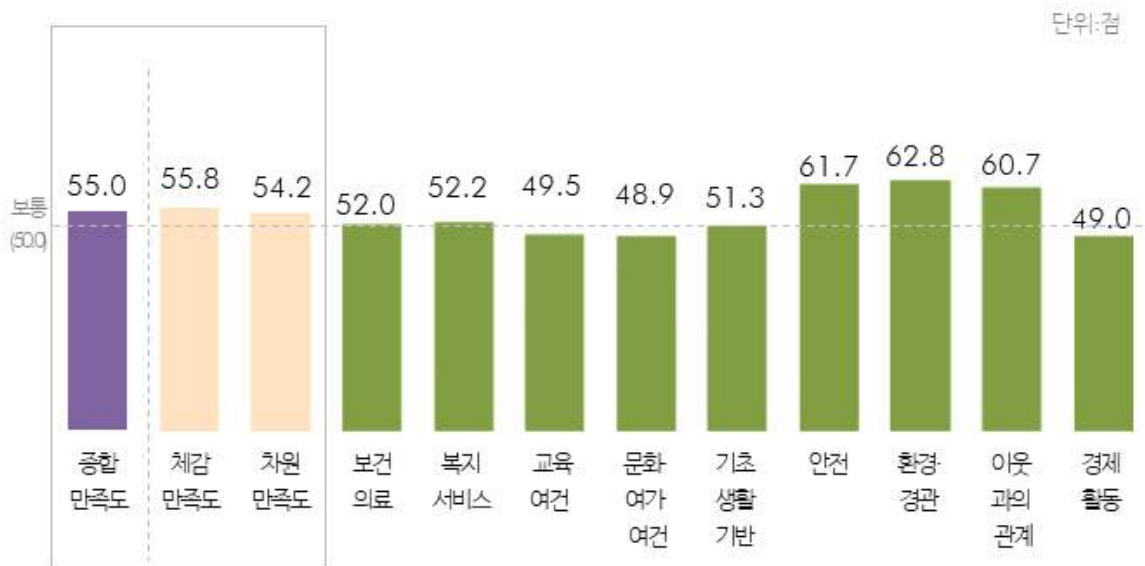
‘환경·경관’(평균 62.8점), ‘안전’(평균 61.7점), ‘이웃과의 관계’(평균 60.7점) 만족도가 가장 높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기준/ 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측정 값]

지역생활전반에 대해 평균 55.0점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전반적인 느낌을 반영한 체감만족도(55.8점)가 각 평가 속성별 만족도를 환산한 차원만족도(54.2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로는 ‘환경·경관’(평균 62.8점), ‘안전’(평균 61.7점), ‘이웃과의 관계’(평균 60.7점)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를 보였다.

반면, ‘교육 여건’(평균 49.5점), ‘경제활동 여건’(평균 49.0점), ‘문화·여가 생활 여건’(평균 48.9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던 ‘보건의료’(평균 52.0점), ‘복지 서비스’(평균 52.2점)에 대한 만족도도 ‘보통 수준’에 그쳤다.

| 그림 1106 - (2) |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 종합/체감/차원 만족도 : [조사연구 개요]의 ‘9. 자료처리 및 분석’ 참조(p.64)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40대 연령층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면지역, 농어가, 선주민층에서 ‘안전’, ‘환경·경관’, ‘이웃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지역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가운데(5.3점), 특히 ‘보건의료’(-13.9점), ‘기초생활기반’(-11.3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 표 1106 - (2) |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전반적인 농어촌생활 만족도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교육 여건	문화 여가 여건	기초 생활 기반	안전	환경· 경관	이웃 과의 관계	경제 활동 여건
			종합 만족 도	체감 만족 도	차원 만족 도									
농어촌 (2,780)			55.0	55.8	54.2	52.0	52.2	49.5	48.9	51.3	61.7	62.8	60.7	49.0
읍/면	읍 (1,228)		54.1	55.3	52.9	51.1	52.0	50.5	48.8	50.1	59.3	57.9	57.4	49.5
	면 (1,552)		55.7	56.2	55.2	52.7	52.3	48.6	49.0	52.2	63.6	66.7	63.4	48.6
영농 여부	농어가 (853)		56.8	57.7	56.0	53.0	53.0	50.3	48.8	52.7	63.6	66.9	66.9	49.7
	비농어가 (1,927)		54.2	55.0	53.4	51.5	51.8	49.1	49.0	50.7	60.9	61.0	58.0	48.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54.2	55.8	52.7	50.8	50.3	51.7	48.3	50.5	58.6	58.3	55.4	50.8
	40대 (494)		52.2	53.2	51.3	47.5	51.0	44.5	47.2	48.1	58.8	61.0	57.1	46.2
	50대 (608)		53.9	54.0	53.8	53.0	51.9	50.0	48.3	52.0	61.5	61.7	58.5	47.9
	60대 (492)		57.7	58.7	56.8	54.5	54.4	50.8	51.1	53.2	64.8	65.6	64.7	51.9
	70대 이상 (620)		57.0	57.7	56.2	53.6	53.1	49.8	49.9	52.4	64.7	67.3	67.4	48.7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7)		54.3	55.3	53.4	51.0	51.8	49.3	48.7	50.9	60.3	61.3	58.2	49.0
	선주민 (994)		56.2	56.8	55.7	53.6	52.8	49.6	49.3	52.0	64.2	65.6	65.3	49.1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200)		49.4	50.1	48.6	47.7	46.0	47.2	45.5	47.0	54.4	55.9	50.6	44.1
	비의향층 (2,575)		55.5	56.3	54.6	52.3	52.7	49.6	49.2	51.6	62.3	63.3	61.5	49.4
도시 (1,149)			60.3	61.3	59.4	65.9	57.8	57.7	55.3	62.6	62.4	59.8	57.7	55.2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 추이

- 연도별 생활영역 구성이 달라 동등 비교가 어려우나, 2017년에 비해 '안전'(-3.8점) 만족도가 감소한 반면, '교육여건'(+5.9점) 만족도 및 '보건의료'(+6.2점), '문화·여가 여건'(+6.7점) 만족도가 증가함

| 표 1106 - (3) |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 - 추이

단위: 점(명)

구분	전반적인 농어촌생활 만족도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교육 여건	문화· 여가 여건	기초 생활 기반	안전	환경· 경관	이웃 과의 관계	경제 활동 여건
	종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차원 만족도									
2018년 (2,780)	55.0	55.8	54.2	52.0	52.2	49.5	48.9	51.3	61.7	62.8	60.7	49.0
2017년 (3,995)	54.8	58.3	51.3	45.8	49.9	43.6	42.2	51.3	65.5	63.6	-	46.8
2016년 (3,952)	51.7	52.6	50.9	46.9	47.9	44.4	41.7	47.5	66.5	62.7	-	46.5
2015년 (3,934)	52.5	55.4	49.6	48.8		42.6	39.5	46.6	61.5	65.4	-	43.5
2014년 (3,939)	48.9	50.0	47.7	44.7		43.4	38.9	47.5	61.3	63.5	-	42.9
2013년 (2,764)	-	-	-	48.9	44.4	49.6	41.4	51.0	-	60.2	64.7	41.3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3년 '교육여건'은 "사교육 여건"(평균 47.3점), "학교교육 여건"(평균 51.8점)의 산술평균 값임. 2013년은 개별 문항으로 만족도를 측정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하지 않음

* 2014년, 2015년은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로 측정함

* 2016년 '안전'은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평균 66.2점), "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평균 66.8점)의 산술평균 값임. '보건의료'와 '복지여건(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은 별도의 문항으로 측정하여 종합만족도 산출 시 반영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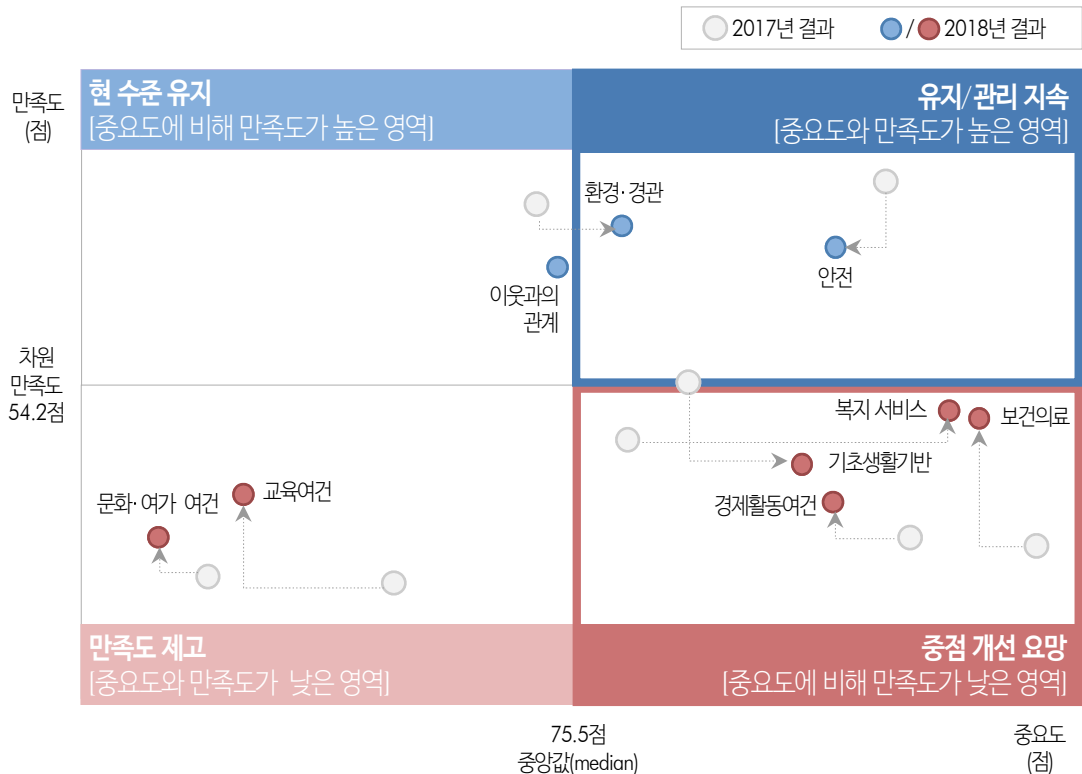
*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석

[차원 만족도/중요도 기준]

- ▶ [유지/관리 지속 영역] : '환경·경관', '안전'
- [현 수준 유지 영역] : '이웃과의 관계'
- [만족도 제고 영역] :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 [중점개선 요망 영역] :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여건'

‘이웃과의 관계’는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아 [현 수준 유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만족도 제고] 영역,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가 높은 반면 만족도는 낮아 [중점개선 요망]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대비 ‘기초생활 기반’, ‘복지 서비스’, ‘환경·경관’과 ‘기초생활기반’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여 ‘환경·경관’이 [유지/관리 지속]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1107>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인식(농어촌)

- ▶ '기초연금' 인지도(75.6%) 및 경험률(30.8%)이 가장 높음
- ▶ 사회안전망 구축제도 이용 만족도는 평균 66.4점



'기초연금' 인지도가 75.6%로 가장 높음

귀하께서는 농촌 주민(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음의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중복 응답 : 사업별 각 100.0%]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중 '기초연금'(75.6%)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21.7%),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20.9%),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20.5%), 인지도는 20% 내외 수준을 보였다.

면지역, 농어가, 5-60대 연령층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제도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 표 1107 - (1) | 농어촌 주민(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기초연금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사례수	인지층
농어촌		(2,780)	21.7	(2,780)	20.5	(2,780)	20.9	(2,780)	75.6
읍/면	읍	(1,228)	11.8	(1,228)	12.3	(1,228)	13.8	(1,228)	63.4
	면	(1,552)	29.4	(1,552)	27.0	(1,552)	26.5	(1,552)	85.2
영농 여부	농어가	(853)	43.6	(853)	41.0	(853)	41.2	(853)	92.7
	비농어가	(1,927)	11.9	(1,927)	11.4	(1,927)	11.9	(1,927)	68.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10.8	(528)	9.2	(528)	10.4	(528)	54.4
	40대	(494)	18.7	(494)	19.2	(494)	17.8	(494)	65.6
	50대	(608)	30.2	(608)	28.9	(608)	30.1	(608)	81.6
	60대	(492)	28.8	(492)	28.1	(492)	28.6	(492)	86.4
	70대 이상	(620)	19.3	(620)	16.9	(620)	17.8	(620)	86.8
국민건강보험/공적연금 가입여부	가입층	(2,630)	22.2	(1,570)	13.3				
	미가입층	(150)	12.1	(1,210)	7.2				

'기초연금' 경험률이 30.8%로 가장 높음

알고 계신다면, 귀하 또는 귀댁의 가구원께서 이 사업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사업 인지층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중복 응답 : 사업별 각 100.0%]

농어촌 가구 전체 기준,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중 농촌 주민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기초연금'(30.8%) 경험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8.9%,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6.5%,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는 5.3%의 경험률을 보였다.

면지역, 농어가에서 경험률이 높았다.

| 표 1107 - (2) | 농어촌 주민(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이용 경험(전체 가구) 단위 : %(명)

구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기초연금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농어촌		(2,780)	8.9	(2,780)	6.5	(2,780)	5.3	(2,780)	30.8
읍/면	읍	(1,228)	3.4	(1,228)	3.2	(1,228)	2.3	(1,228)	20.4
	면	(1,552)	13.3	(1,552)	9.1	(1,552)	7.7	(1,552)	38.9
영농 여부	농어가	(853)	23.9	(853)	18.4	(853)	15.4	(853)	48.1
	비농어가	(1,927)	2.3	(1,927)	1.2	(1,927)	0.9	(1,927)	23.1

각 사업별 인지층 기준,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41.1%), '기초연금'(40.7%)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31.6%),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25.5%) 순으로 나타났다.

| 표 1107 - (3) | 농어촌 주민(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이용 경험(인지층 대상) 단위 : %(명)

구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기초연금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경험층
농어촌		(602)	41.1	(569)	31.6	(581)	25.5	(2,102)	40.7
읍/면	읍	(145)	28.7	(151)	26.3	(170)	16.8	(779)	32.2
	면	(457)	45.0	(419)	33.5	(411)	29.1	(1,323)	45.7
영농 여부	농어가	(372)	54.8	(350)	44.9	(351)	37.4	(790)	51.9
	비농어가	(230)	18.9	(220)	10.4	(230)	7.4	(1,311)	33.9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인지도 및 이용 경험 - 추이

- '기초연금'(-3.1%p) 등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2017년과 비슷한 수준

| 표 1107 - (4) |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인지도(농어가 기준) - 추이

단위 : %(명)

구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기초연금
2018년 (853)	43.6	41.0	41.2	92.7
2017년 (1,340)	43.3	45.7	43.6	95.8
2016년 (1,403)	55.5	52.2	49.3	80.1

- 2017년과 비교하여 전체 농어가의 경험률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인지층의 경우,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10.5%p),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6.5%p),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6.9%p) 경험률이 증가함

| 표 1107 - (5) |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이용 경험(농어가 기준) - 추이

단위 : %(명)

구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기초연금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2018년 (853)	(853)	23.9	(853)	18.4	(853)	15.4	(853)	48.1
2017년 (1,340)	(1,340)	19.2	(1,340)	17.5	(1,340)	13.3	(1,340)	52.4
2016년 (1,403)	(1,403)	28.5	(1,403)	21.6	(1,403)	15.0	(1,403)	32.5

| 표 1107 - (6) |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이용 경험(농어가 중 인지층 대상) - 추이

단위 : %(명)

구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기초연금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사례수	경험률
2018년 (372)	(372)	54.8	(350)	44.9	(351)	37.4	(790)	51.9
2017년 (580)	(580)	44.3	(612)	38.4	(584)	30.5	(1,284)	54.7
2016년 (778)	(778)	51.4	(732)	41.5	(692)	30.3	(1,124)	40.6

 사회안전망 구축 만족도 평균 66.4점

(사업 경험층에 한해) 있다면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사업 경험층 기준(n=1,026)/ 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측정 값]

사회안전망 구축 만족도는 평균 66.4점으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이었으며, 제도별로는 ‘기초연금’(평균 69.0점),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평균 67.2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평균 64.8점),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평균 64.6점)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기초연금’ 만족도가 높은 반면, 40대 연령층에서 낮았다.

| 표 1107 - (7) | 농어촌 주민(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사회안전망 구축제도 이용 만족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 보장제도	기초연금
농어촌 (1,026)			66.4	67.2	64.8	64.6	69.0
읍/면	읍 (285)		65.1	66.5	64.7	63.2	65.9
	면 (741)		66.9	67.5	64.8	65.2	70.2
영농 여부	농어가 (546)		67.0	67.1	65.0	65.1	70.8
	비농어가 (480)		65.7	67.3	64.5	64.1	66.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42)		64.8	64.4	62.2	65.9	66.8
	40대 (80)		62.5	62.4	61.4	63.2	63.0
	50대 (160)		65.5	65.9	66.2	63.7	66.4
	60대 (249)		66.4	67.9	64.4	65.3	67.8
	70대 이상 (479)		67.4	68.3	65.1	64.7	71.7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만족도 - 추이

- 2017년에 비해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9.5점), '기초연금'(+8.9점) 등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함

| 표 1107 - (8) | 사회안전망 구축 제도에 대한 만족도(농어가) - 추이

단위: 점(명)

구분	사회안전망 구축제도 이용 만족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안전재해 보장제도	기초 연금
2018년 (546)	67.0	67.1	65.0	65.1	70.8
2017년 (887)	61.0	62.1	64.5	55.6	61.9
2016년 (839)	68.0	67.5	67.8	63.5	73.1

*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n=2,780) 기준 수치임

1108> 정신건강

▶ 지난 1년 동안 2주 이상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층은 9.7%

지난 1년 동안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슬프거나, 공허하거나, 우울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지난 1년 동안 2주 이상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슬프거나 공허하거나 우울하게 지낸 적이 있는 층은 9.7%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 지역 역시 농어촌과 비슷한 수준(2.0%p)으로 나타났다.

| 그림 1108 | 정신건강



1109 > 주관적 건강 상태

▶ [건강하지 않은 편(합)](24.4%) < [건강한 편(합)](46.4%)

귀하는 지금 얼마나 건강하다고 느끼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건강한 편이다’(42.2%) 등 [건강한 편(합)] 비율이 46.4%로,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21.3%) 등 [건강하지 않은 편(합)](24.4%)에 비해 높았다.

면지역,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하지 않은 편(합)]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건강한 편(합)] 비율이 낮았다(-11.6%p).

| 표 1109 | 주관적 건강 상태

단위 : %(명)

구분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건강한 편 (합)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편(합)
농어촌 (2,766)		4.3	42.2	46.4	29.1	21.3	3.1	24.4
읍/면	읍 (1,216)	4.7	41.7	46.4	35.1	16.0	2.5	18.5
	면 (1,550)	4.0	42.5	46.5	24.5	25.4	3.6	29.0
영농 여부	농어가 (850)	2.4	43.7	46.1	28.7	23.2	2.0	25.2
	비농어가 (1,916)	5.1	41.5	46.6	29.3	20.4	3.6	24.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6)	11.8	55.6	67.4	27.5	5.1		5.1
	40대 (491)	3.8	55.2	59.1	31.8	8.5	0.6	9.1
	50대 (600)	5.2	51.7	56.9	30.7	12.1	0.3	12.4
	60대 (492)	0.8	37.0	37.8	31.9	26.8	3.5	30.3
	70대 이상 (619)	0.4	15.4	15.7	24.9	48.9	10.5	59.4
도시 (1,140)		5.8	52.2	58.0	23.8	15.7	2.5	18.2

1110>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58.7점
- ▶ '건강'(40.0%)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58.7점

귀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행복감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 측정 값]

‘매우 행복하다’(2.3%), ‘행복한 편이다’(42.6%) 등 [행복한 편]이라는 응답이 절반수준(44.9%)을 차지하여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58.7점이었다. 농어가에서 [행복한 편(합)]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우울감 비경험층, 주관적 건강상태를 건강한편으로 인지하는 층에서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다(-3.6점).

| 표 1110 - (1)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행복하다	행복한 편이다	행복한 편 (합)	보통 이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 (합)
농어촌 (2,753)		58.7점	2.3	42.6	44.9	44.2	9.5	1.4	10.9
읍/면	읍 (1,212)	59.1점	3.0	41.4	44.4	45.8	8.6	1.2	9.8
	면 (1,541)	58.4점	1.7	43.6	45.3	42.9	10.2	1.5	11.8
영농 여부	농어가 (842)	60.4점	1.6	47.1	48.7	43.4	7.1	0.8	7.9
	비농어가 (1,911)	58.0점	2.6	40.7	43.2	44.5	10.6	1.6	12.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6)	67.3점	4.0	62.5	66.4	32.5	1.1		1.1
	40대 (489)	60.0점	2.3	45.8	48.0	43.5	6.9	1.6	8.5
	50대 (597)	59.8점	2.4	45.6	48.0	42.7	7.2	2.1	9.3
	60대 (489)	56.8점	2.1	37.1	39.2	47.5	12.4	0.9	13.3
	70대 이상 (614)	50.9점	1.0	25.0	26.1	52.6	19.2	2.1	21.3
정신건강 (우울감)	경험층 (269)	43.4점	0.1	18.1	18.2	43.5	32.2	6.1	38.3
	비경험층 (2,484)	60.4점	2.5	45.3	47.8	44.3	7.1	0.9	7.9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한 편 (1,277)	68.3점	4.4	66.5	70.9	27.3	1.6	0.2	1.9
	보통 (805)	54.7점	0.4	27.4	27.8	64.2	6.8	1.2	8.0
	건강하지 않은 편 (671)	45.3점	0.5	15.6	16.1	52.4	27.8	3.7	31.5
도시 (1,147)		62.3점	2.9	52.7	55.6	36.4	6.5	1.4	7.9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건강'(40.0%)

귀하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40.0%)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가족'(26.6%), '경제적 안정'(26.2%) 비율도 높았다. 다음으로 '일/직업'(3.1%), '대인관계'(2.4%), '문화 및 여가활동'(1.1%), '지역생활환경'(0.4%)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 비율이 높은 반면, 비농어가에서 '경제적 안정',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족'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건강'(+4.5%p) 비율이 높은 반면, '가족'(-4.3%p) 비율이 낮았다.

| 표 1110 - (2) | 행복의 영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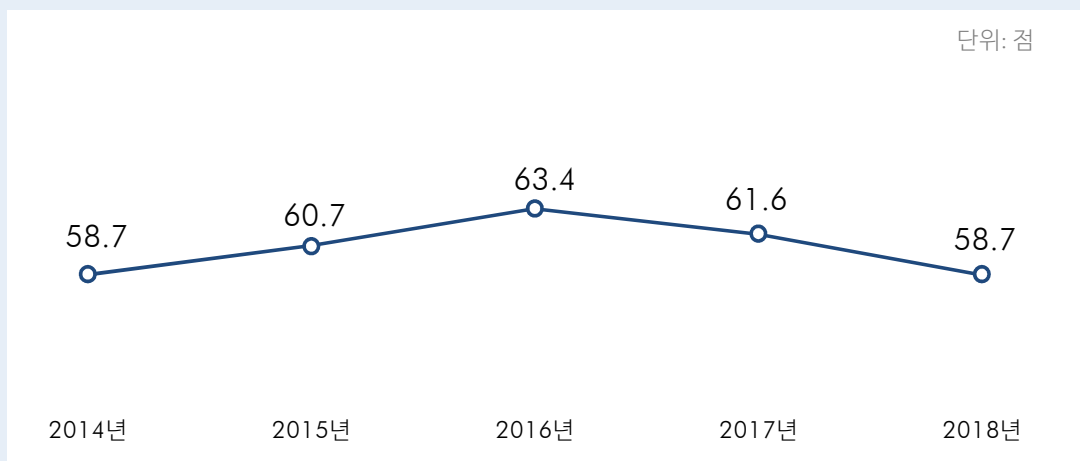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가족	건강	경제적 안정	일/직업	문화 및 여가활동	지역생활 환경	대인 관계	기타
농어촌 (2,752)		26.6	40.0	26.2	3.1	1.1	0.4	2.4	0.2
읍/면	읍 (1,210)	28.7	38.1	25.7	3.3	1.2	0.5	2.5	
	면 (1,542)	24.9	41.4	26.6	3.0	1.0	0.4	2.3	0.4
영농 여부	농어가 (842)	23.6	48.2	21.8	2.1	0.6	0.6	2.8	
	비농어가 (1,910)	27.9	36.3	28.1	3.6	1.3	0.3	2.2	0.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6)	44.6	15.6	26.7	7.5	2.3		3.3	
	40대 (489)	35.1	24.6	31.8	3.6	0.8	1.2	2.0	0.8
	50대 (599)	22.2	34.4	36.7	3.3	0.8	0.2	2.6	
	60대 (486)	18.2	53.7	22.2	1.6	1.7	0.6	1.7	0.2
	70대 이상 (615)	14.6	67.0	15.2	0.3	0.2	0.2	2.1	0.3
도시 (1,146)		30.9	35.5	25.1	3.3	2.2	0.7	1.4	0.7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추이

- 2016년 이후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이 감소하는 추세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



- 행복의 영향 요인으로서 조사년도에 관계없이 '가족', '건강'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최근으로 올수록 '가족'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경제적 안정'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표 1110 - (3) | 행복의 영향 요인 - 추이

단위: %(명)

구분		가족	건강	경제적 안정	일/ 직업	문화 및 여가활동 *	지역생활 환경	대인 관계	기타
2018년	(2,752)	26.6	40.0	26.2	3.1	1.1	0.4	2.4	0.2
2017년	(3,982)	34.3	38.0	21.8	3.3	0.9	0.5	0.6	0.5
2016년	(3,935)	41.5	33.2	15.7	3.5	1.2	1.2	3.3	0.4
2015년	(3,916)	39.4	35.2	13.3	3.6		1.8	6.3	0.4
2014년	(3,931)	41.1	35.7	12.8	2.9		0.9	6.2	0.5

* '문화 및 여가 활동' : 2016년 추가

* 2016년까지는 행복의 영향 요인 2가지를 순위별로 선택하여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함/ 2017년부터 단일항목을 선택함

* 2018년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n=2,780) 기준 수치임

1111 >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 5년 전 대비 삶의 질이 [좋아진 편(합)]이 27.2%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귀하의 삶의 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삶의 질 변화 :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측정 값]

‘좋아진 편이다’(26.1%) 등 [좋아진 편(합)](27.2%) 비율이 ‘나빠진 편이다’(21.4%) 등 [나빠진 편(합)](24.0%)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5년 전 대비 삶의 질 만족도는 50.4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층에서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좋아진 편(합)](4.5%p) 등 5년 전 대비 삶의 질 만족도가 낮았다(2.9점).

| 표 1111 |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단위 : %(명)

구분			매우 좋아졌다	좋아진 편이다	좋아진 편(합)	보통 이다	나빠진 편이다	매우 나빠졌다	나빠진 편(합)
농어촌 (2,744)			1.1	26.1	27.2	48.8	21.4	2.6	24.0
읍/면	읍	(1,208)	1.8	28.7	30.5	46.3	20.2	2.9	23.2
	면	(1,536)	0.5	24.1	24.6	50.7	22.3	2.4	24.7
영농 여부	농어가	(840)	0.7	24.1	24.8	52.1	20.8	2.3	23.2
	비농어가	(1,904)	1.2	27.0	28.2	47.3	21.7	2.7	24.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6)	2.6	42.7	45.2	44.4	8.6	1.8	10.4
	40대	(487)	0.4	30.5	30.9	53.4	12.8	2.9	15.7
	50대	(596)	0.7	26.7	27.4	45.4	24.9	2.3	27.2
	60대	(482)	1.7	21.7	23.5	49.8	24.0	2.7	26.7
	70대 이상	(615)	0.2	11.6	11.8	50.5	34.2	3.5	37.7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63)	1.1	30.0	31.1	47.4	18.8	2.6	21.5
	선주민	(976)	1.0	18.9	19.9	51.3	26.2	2.6	28.8
도시 (1,148)			1.4	30.3	31.7	50.8	15.0	2.5	17.5



1200> 보건

의료

- 1201> 의료기관 이용 실태
- 1202>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 1203> 응급실 이용 경험
- 1204> 질병 치료 시 어려움

1201 > 의료기관 이용 실태

-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병(의)원’(81.2%), ‘월 1회 미만’(54.3%) 의료기관 이용
- ▶ 의료기관까지 주로 ‘개인차량’(52.3%)으로 이동,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23.9분

‘병(의)원’(81.2%)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귀댁에 환자가 생길 경우,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은 어디입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병(의)원’(81.2%)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종합병원/대학병원’(9.9%), ‘보건의료원’(2.9%), ‘한방 병(의)원’(2.1%), ‘보건진료소’(2.0%), ‘보건소(지소)’(1.9%) 순으로 나타났다. 읍지역, 연령대가 낮을수록, 우울감 비경험층,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층에서 ‘병(의)원’ 비율이 높은 반면, 우울감 경험층에서 ‘종합병원/대학병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종합병원/대학병원’ 비율이 낮았다(3.5%p).

| 표 1201 - (1) | 의료기관 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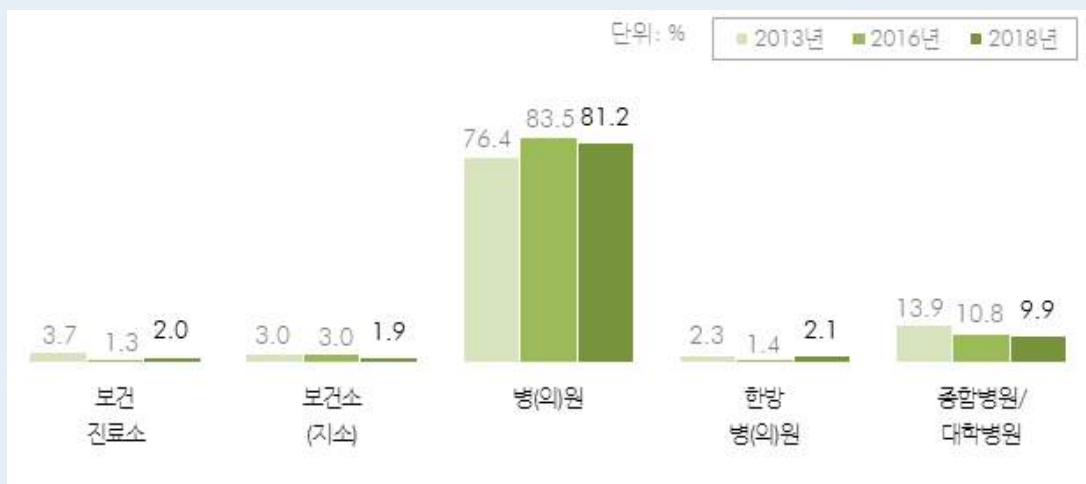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보건 진료소	보건소 (지소)	보건 의료원	병(의)원	한방 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기타
농어촌 (2,769)			2.0	1.9	2.9	81.2	2.1	9.9	0.1
읍/면	읍	(1,224)	1.2	0.6	2.2	85.0	2.4	8.6	
	면	(1,545)	2.6	2.9	3.4	78.2	1.9	11.0	0.1
영농 여부	농어가	(852)	3.4	2.3	3.9	79.6	2.6	8.0	0.2
	비농어가	(1,918)	1.4	1.7	2.4	81.9	1.9	10.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4)	0.4	1.1	2.4	84.8	1.2	10.2	
	40대	(491)	1.5	1.3	2.7	82.4	2.4	9.7	
	50대	(607)	1.0	0.8	4.3	79.9	3.2	10.8	
	60대	(492)	2.4	3.1	2.0	78.7	2.7	10.8	0.3
	70대 이상	(618)	4.5	3.3	2.8	79.2	1.4	8.8	0.0
정신건강 (우울감)	경험층	(268)	2.7	2.6	5.3	69.8	2.9	16.7	
	비경험층	(2,501)	1.9	1.8	2.6	82.4	2.0	9.2	0.1
주관적 건강 상태	건강한 편(합)	(1,281)	1.5	1.9	3.0	82.7	2.1	8.8	
	보통(합)	(806)	1.2	0.7	2.6	82.2	2.7	10.4	0.2
	건강하지 않은 편(합)	(673)	3.9	3.3	2.9	76.8	1.6	11.6	0.0
도시 (1,147)			0.6	0.2	0.8	83.6	1.3	13.4	0.0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 추이

- 조사년도에 관계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2013년 대비 '병(의)원' 비율이 증가(+4.8%p)한 반면, '종합병원/대학병원' 비율이 감소(-4.0%p)

| 그림 1201 - (1)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 추이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기타'는 제시하지 않음,

* 2018년에 추가된 '보건의료원' 항목은 제시하지 않음

‘월 1회 미만’ 의료기관 이용 54.3%

지난 1년을 기준으로 그 의료기관을 이용한 월 평균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월 1회 미만’(54.3%)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월 1~2회’ 이용층(32.1%)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월 3~4회’는 8.3%, ‘월 5회 이상’은 5.4%이었다.

40~50대 연령층, 공공의료시설, 한방병(의)원 이용층에서 ‘월 1회 미만’ 비율이 높은 반면, 70대 이상 연령층, 병(의)원 이용층에서 ‘월 1~2회’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월 1회 미만’ 비율이 낮은 반면(9.0%p), ‘월 1~2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6.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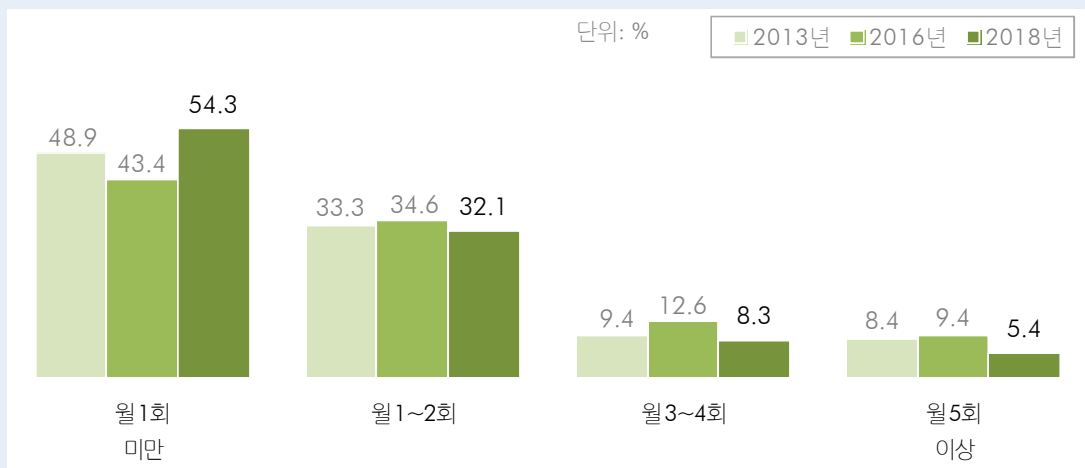
| 표 1201 - (2) | 의료기관 이용 횟수

단위 : %(명)

구분			월 1회 미만	월 1~2회	월 3~4회	월 5회 이상
농어촌 (2,764)			54.3	32.1	8.3	5.4
읍/면	읍	(1,220)	55.2	31.5	7.4	5.9
	면	(1,544)	53.5	32.6	9.0	4.9
영농 여부	농어가	(850)	53.4	32.9	8.5	5.3
	비농어가	(1,914)	54.7	31.7	8.2	5.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1)	58.3	29.0	7.4	5.3
	40대	(490)	67.8	25.6	4.8	1.9
	50대	(607)	64.6	27.5	5.6	2.3
	60대	(492)	53.8	31.9	6.8	7.5
	70대 이상	(617)	30.1	45.5	14.6	9.8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시설	(185)	60.4	28.0	5.8	5.8
	병(의)원	(2,242)	53.7	33.1	7.8	5.4
	한방병(의)원	(58)	61.5	20.2	9.9	8.4
	종합병원/대학병원	(274)	53.4	29.6	13.1	4.0
도시 (1,148)			63.3	25.4	7.8	3.5

 의료기관 이용 횟수 - 추이

- 2016년에 비해 '월 1회 미만' 비율이 증가(+10.9%p)한 반면, '월 3~4회'(-4.3%p), '월 5회 이상'(-4.0%p) 비율은 감소





의료기관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개인차량' (52.3%)

그 의료기관으로 가는 데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의료기관까지 주로 '개인 차량'(52.3%), '버스'(27.4%)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걸어서' 이동하는 층은 13.5%, '택시'를 이용하는 층은 4.5%, 오토바이 등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층은 2.2%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종합병원/대학병원 이용층에서 '개인 차량'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연령대가 높을수록, 병(의)원, 한방병(의)원 이용층에서 '버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걸어서'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버스'(+13.6%p), '개인 차량'(+13.4%p) 비율이 높은 반면, '걸어서' 이동하는 비율은 낮았다(-29.3%p).

| 표 1201 - (3) | 의료기관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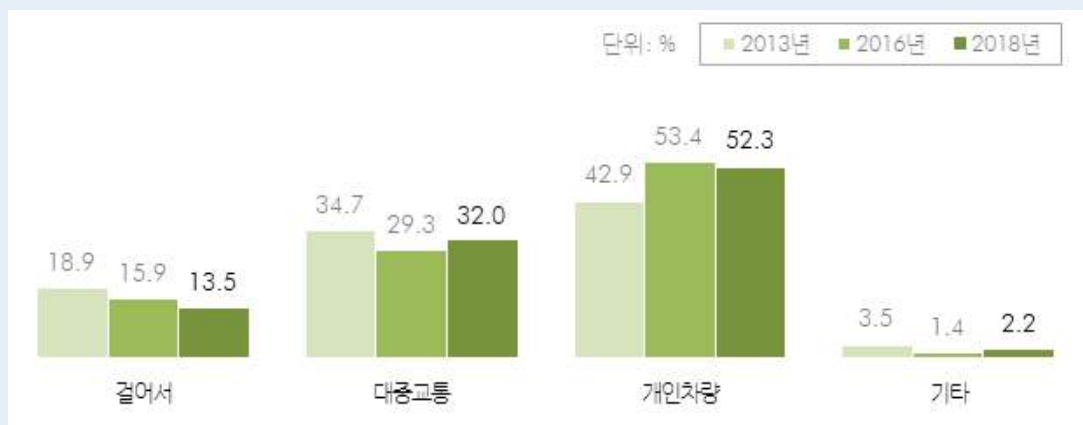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걸어서	버스	택시	개인 차량	기타
농어촌 (2,761)			13.5	27.4	4.5	52.3	2.2
읍/면	읍	(1,220)	25.0	17.1	4.3	51.3	2.4
	면	(1,542)	4.5	35.6	4.7	53.2	2.1
영농 여부	농어가	(851)	8.1	29.7	3.9	55.1	3.1
	비농어가	(1,910)	16.0	26.4	4.8	51.1	1.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4)	17.9	16.0	3.1	63.0	
	40대	(491)	15.2	11.7	3.3	67.3	2.6
	50대	(604)	14.3	17.5	3.9	63.0	1.3
	60대	(488)	12.4	28.2	2.5	54.3	2.6
	70대 이상	(616)	8.5	58.2	9.1	19.9	4.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시설	(186)	17.6	24.7	8.2	44.4	5.1
	병(의)원	(2,238)	14.8	28.2	4.5	50.5	2.0
	한방병(의)원	(59)	17.1	30.6	3.0	46.6	2.7
	종합병원/대학병원	(274)		21.4	2.6	74.0	2.0
도시 (1,146)			42.8	13.8	2.4	38.9	2.2

 의료기관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추이

- 2013년에 비해 '개인차량'(+9.4%p) 비율이 증가한 반면, '걸어서'(-5.4%p) 비율이 약간 감소

| 그림 1201 - (3) | 의료기관 이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추이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의료기관까지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23.9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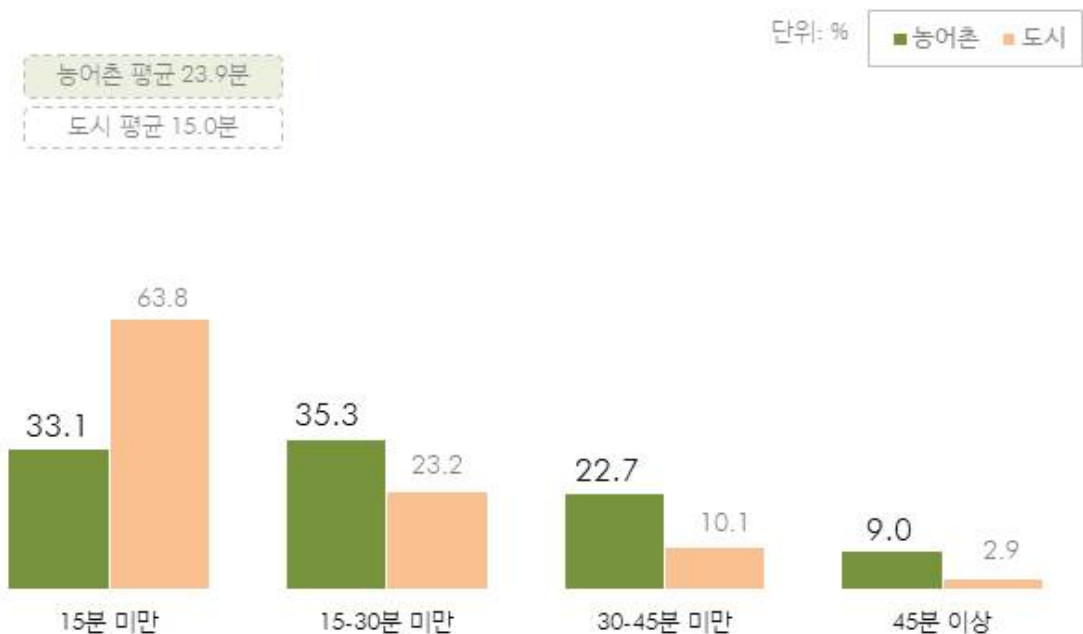
그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편도 소요시간은?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편도 소요시간으로 '15~30분 미만'(35.3%), '15분 미만'(33.1%) 등 [30분 미만]이 6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45분 미만'(22.7%), '45분 이상'(9.0%) 순이었고, 평균 소요시간은 23.9분이었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15분 미만'(-30.7%p) 비율이 낮은 반면, '15~30분 미만'(+12.1%p), '30~45분 미만'(+12.6%p) 비율은 높아 평균 소요시간이 길었다(+8.9분).

| 그림 1201 - (4) | 의료기관 이동시 편도 소요시간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종합병원/대학병원 이용층, 버스 이용층에서 평균 소요시간이 길었다.

| 표 1201 - (4) | 의료기관 이동시 편도 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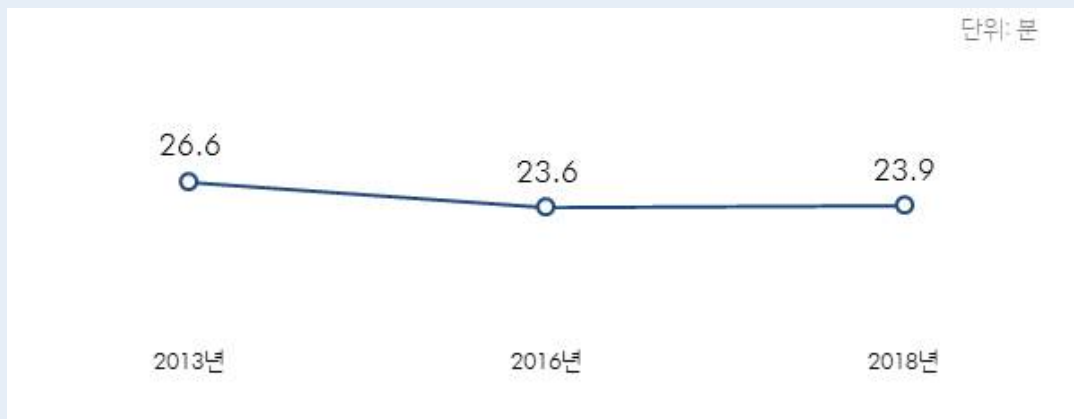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15분 미만	15~30분 미만	30~45분 미만	45분 이상
농어촌 (2,744)			23.9분	33.1	35.3	22.7	9.0
읍/면	읍	(1,214)	18.6분	53.0	26.6	14.6	5.8
	면	(1,530)	28.2분	17.3	42.2	29.1	11.5
영농 여부	농어가	(845)	26.5분	23.4	38.5	27.6	10.5
	비농어가	(1,899)	22.8분	37.4	33.8	20.5	8.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6)	21.6분	41.4	34.0	19.0	5.6
	40대	(488)	20.0분	42.7	33.1	17.9	6.3
	50대	(601)	22.2분	31.3	41.0	20.4	7.3
	60대	(488)	25.7분	31.8	33.5	23.8	10.9
	70대 이상	(613)	28.9분	21.9	32.8	31.5	13.8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시설	(183)	19.8분	33.0	38.0	24.5	4.5
	병(의)원	(2,229)	21.4분	35.3	37.9	21.0	5.8
	한방병(의)원	(58)	17.5분	59.7	14.0	22.1	4.3
	종합병원/대학병원	(269)	49.0분	9.6	16.6	34.5	39.3
의료기관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걸어서	(371)	10.0분	78.7	17.7	3.4	0.1
	버스	(754)	33.2분	14.0	35.7	36.2	14.1
	택시	(125)	22.9분	44.0	35.6	12.1	8.3
	개인 차량	(1,426)	22.4분	38.8	36.7	18.2	6.3
	기타	(59)	27.2분	43.4	17.8	19.9	18.8
도시 (1,134)			15.0분	63.8	23.2	10.1	2.9

의료기관 이동시 편도 소요시간 - 추이

- 2016년에 비해 평균 소요시간(평균-2.7분)이 약간 감소하여 2013년과 비슷한 수준

| 그림 1201 - (5) | 의료기관 이동시 평균 소요시간 - 추이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1202 >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39.4%, 경험층의 시설 이용 만족도는 평균 71.6점
▶ '전문성이 떨어져서'(25.0%),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24.1%)가 주된 불만족 이유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39.4%

귀책에서는 지난 1년 간 지역의 보건진료소, 보건소(지소), 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측정 값]

지난 1년 동안 지역의 보건진료소, 보건소(지소), 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층은 39.4%로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았다.

공공의료시설 경험층(n=1,082)의 이용 만족도는 '다소 만족하는 수준'(평균 71.6점)으로 나타낸 가운데, 면지역,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공공의료시설 이용층 비율이 높았으며(+22.2%p), 이용 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1.5점).

| 표 1202 - (1) |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공공의 료시설 이용층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평균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 (합)	보통 이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합)
농어촌 (2,780)		39.4	71.6점	12.3	67.3	79.6	15.3	4.5	0.6	5.0
읍/면	읍 (1,228)	24.9	68.5점	6.2	65.0	71.3	25.5	2.8	0.4	3.2
	면 (1,552)	50.9	72.8점	14.6	68.2	82.8	11.5	5.1	0.6	5.7
영농 여부	농어가 (853)	54.0	72.7점	16.3	64.0	80.3	14.6	4.1	1.0	5.0
	비농어가 (1,927)	33.0	70.8점	9.4	69.7	79.1	15.8	4.7	0.3	5.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19.9	70.4점	13.9	64.2	78.1	11.5	10.4		10.4
	40대 (494)	32.4	68.0점	8.2	61.9	70.2	24.3	4.7	0.7	5.5
	50대 (608)	35.7	67.7점	4.7	65.3	70.0	26.8	2.7	0.5	3.2
	60대 (492)	48.0	72.2점	14.6	67.6	82.2	11.2	5.4	1.2	6.6
	70대 이상 (620)	58.1	75.5점	17.4	71.0	88.3	8.1	3.3	0.3	3.6
도시 (1,148)		17.2	70.1점	9.3	68.7	78.1	14.9	7.1	0.0	7.1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추이

- 2016년에 비해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층이 약간 감소(-6.0%p)



- 2016년에 비해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가 약간 증가(+2.6점)

| 그림 1202 - (2) |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 추이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주된 불만족 이유는 '전문성이 떨어져서'(25.0%),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24.1%)

공공의료시설의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해 불만족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복수 응답 :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

공공의료시설의 주된 불만족 이유는 '전문성이 떨어져서'(25.0%),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24.1%)였으며, 다음으로 '불친절해서'(20.3%), '시설·장비가 낙후되어서'(15.0%), '멀다, 차편이 없다 등 '위치가 좋지 않아서'(8.0%),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4.3%), '비용이 부담되어서'(3.1%) 순이었다.

농어가, 40대 연령층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비율이 높았으며,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불친절해서'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15.2%p) 비율이 높은 반면, '불친절해서'(-16.8%p), '전문성이 떨어져서'(-12.4%p) 비율은 낮았다.

| 표 1202 - (2) | 공공의료시설 이용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구분			시설·장비가 낙후되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위치가 좋지 않아서	불친절해서	기타
농어촌 (54)			15.0	24.1	25.0	3.1	4.3	8.0	20.3	0.3
읍/면	읍	(10)	15.5	23.6	19.1	2.7	8.7	6.3	24.1	0.0
	면	(44)	14.8	24.2	26.4	3.2	3.3	8.4	19.4	0.4
영농 여부	농어가	(22)	15.4	32.2	24.6	7.1	6.6	6.7	7.4	0.0
	비농어가	(32)	14.6	17.7	25.4	0.0	2.4	9.0	30.4	0.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1)	12.8	0.0	8.0	0.0	0.0	0.0	79.2	0.0
	40대	(9)	19.4	53.3	6.8	0.0	0.0	0.0	20.4	0.0
	50대	(7)	18.1	14.8	50.1	0.0	1.7	0.0	15.3	0.0
	60대	(16)	17.3	30.9	32.8	1.6	8.2	4.5	4.8	0.0
	70대 이상	(12)	8.3	17.2	24.2	11.4	6.4	28.9	2.1	1.4
도시 (14)			13.5	8.9	37.4	0.5		2.6	37.1	

1203> 응급실 이용 경험

▶ 응급실 '이용 경험' 12.9%

▶ 응급실까지의 주된 교통수단은 '개인용 차량' 61.0%, 응급실까지의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26.5분

귀댁에서는 지난 1년(2017.09.01 ~ 2018.08.31) 동안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지난 1년 동안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층은 12.9%로 나타났다. 응급실까지의 주된 교통수단은 '개인 차량'(61.0%)이었으며, 다음으로 '구급차'(26.2%), '택시'(12.0%) 순이었다.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6.5분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개인 차량'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구급차' 비율이 높았으며, 면지역,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응급실까지의 편도 소요시간이 30분 안팎으로 길게 나타났다.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응급실 이동 시 편도 소요시간이 더 길었다(+8.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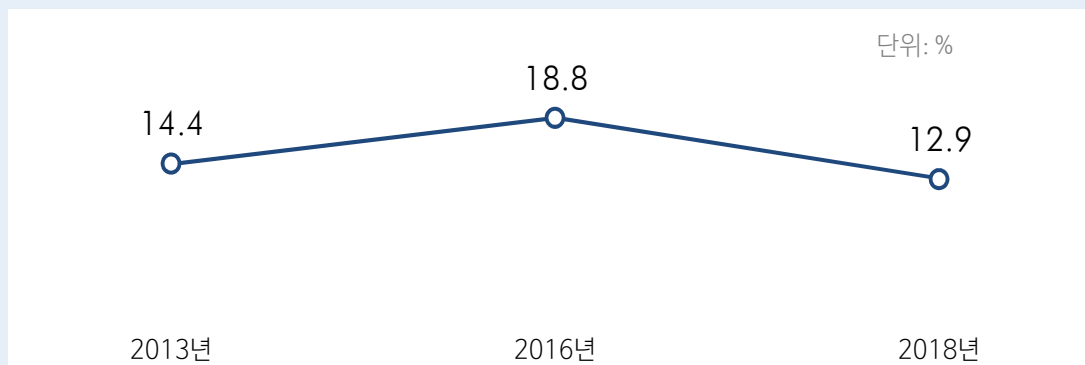
| 표 1203 | 응급실 이용 경험 및 이동 시의 교통수단과 편도 소요시간

단위: %(명)

구분		응급실 이용 경험		응급실 이동 시의 교통수단						응급실 이동 시 편도 소요시간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구급차	개인 차량	택시	걸어서	기타	
농어촌		(2,780)	12.9	(350)	26.2	61.0	12.0	0.5	0.4	26.5분
읍/면	읍	(1,228)	15.4	(184)	20.7	65.2	13.6	0.5	0.0	23.9분
	면	(1,552)	10.9	(166)	32.2	56.3	10.2	0.4	0.8	29.2분
영농 여부	농어가	(853)	13.1	(108)	34.7	53.6	11.3	0.3	0.0	28.4분
	비농어가	(1,927)	12.8	(242)	22.4	64.3	12.3	0.5	0.6	25.6분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15.5	(79)	8.0	81.3	10.7			28.8분
	40대	(494)	18.3	(90)	17.7	73.0	9.4			21.8분
	50대	(608)	10.6	(64)	29.5	62.0	8.6			25.6분
	60대	(492)	11.5	(53)	33.9	41.9	23.5	0.7		28.7분
	70대 이상	(620)	9.8	(60)	47.9	35.9	11.8	2.1	2.3	31.1분
도시		(1,149)	14.4	(165)	20.2	58.2	17.7	1.8	2.2	18.3분

 응급실 이용실태 - 추이

- 2016년에 비해 응급실 이용 경험층이 약간 감소(-5.9%p)



- 응급실 이동 시 이용 교통수단으로 2016년에 비해 '택시' 비율이 증가(+4.9%p)한 반면, '개인 차량' 비율이 감소(-5.3%p)

| 그림 1203 - (2) | 응급실 이동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추이



* '기타'는 제시하지 않음

1204> 질병 치료 시 어려움

▶ '치료비 부담'(32.0%)이 주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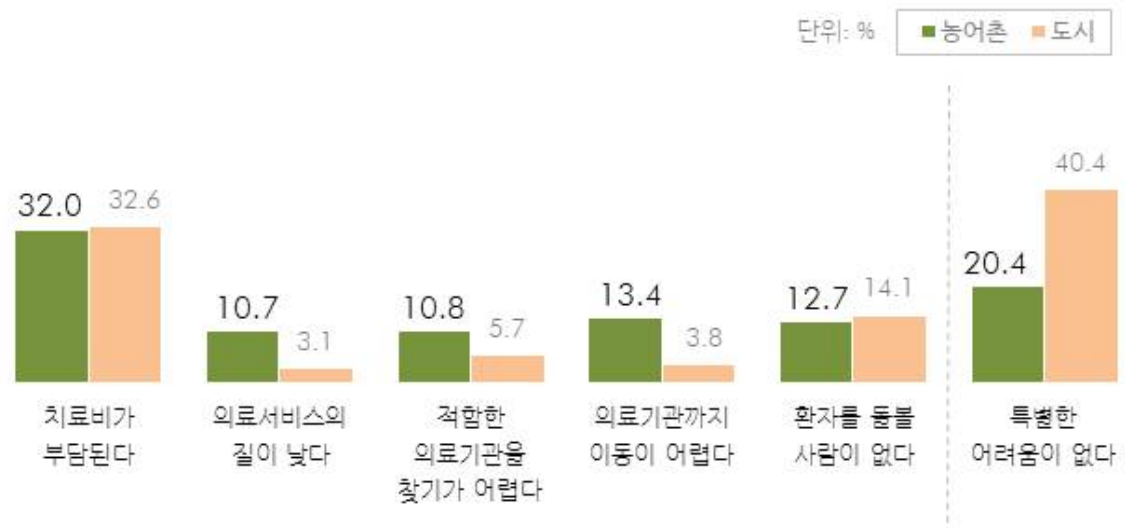
귀택에 환자가 생길 경우, 그 환자의 질병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질병 치료 시 '치료비 부담'(32.0%)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의료기관 까지 이동이 어렵다'(13.4%),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12.7%),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10.8%),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10.7%) 순으로 나타난 반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비율은 20.4%로 나타났다.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9.6%p),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7.6%p),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5.1%p) 등 질병 치료 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반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비율이 낮았다(-20.0%p).

| 그림 1204 | 질병 치료 시 어려움



* 도시: '기타'(0.3%) 수치가 제외되어 합계가 100.0%가 아님

면지역, 연령대가 높을수록,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치료비가 부담된다'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 이하 연령층, 향후 5년 내 이주의향층에서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의료기관까지 이동할 때 '버스'를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했던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 비율이 높았다.

| 표 1204 - (1) | 질병 치료 시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치료비가 부담된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다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의료기관 까지 이동이 어렵다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농어촌 (2,765)			32.0	10.7	10.8	13.4	12.7	20.4
읍/면	읍	(1,217)	25.6	15.7	14.4	10.2	12.4	21.6
	면	(1,547)	37.0	6.7	7.9	15.9	12.9	19.5
영농 여부	농어가	(850)	33.9	9.7	10.5	16.4	10.4	19.0
	비농어가	(1,915)	31.1	11.1	10.9	12.0	13.7	21.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19.2	14.1	16.5	8.7	13.0	28.5
	40대	(490)	21.5	12.7	18.0	13.4	11.4	23.1
	50대	(603)	33.4	13.8	7.8	9.6	14.1	21.4
	60대	(490)	38.4	9.3	7.7	12.0	8.9	23.6
	70대 이상	(616)	44.7	4.8	6.1	22.6	14.5	7.2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200)	24.4	14.5	21.8	14.9	5.8	18.7
	비의향층	(2,563)	32.6	10.4	9.9	13.3	13.3	20.6
도시 (1,131)			32.6	3.1	5.7	3.8	14.1	40.4

* 도시 : '기타'(0.3%) 수치가 제외되어 합계가 100.0%가 아님

 질병 치료 시 어려움 - 추이

- 조사년도에 관계없이 '치료비가 부담된다'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최근으로 올수록 '치료비가 부담된다'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6년에 비해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비율은 약간 감소(-5.7%p)한 반면,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비율은 다소 증가(+6.8%p)

| 표 1204 - (2) | 질병 치료 시 어려움 - 추이

단위 : %(명)

구분		치료비가 부담된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2018년	(2,765)	32.0	10.7	10.8	13.4	12.7	20.4
2016년	(3,952)	32.4	8.8	16.5	11.8	5.9	24.6
2013년	(2,739)	44.9	9.1	8.4	10.4	5.6	20.7

* '기타'는 제시하지 않음



1300> 복지

- 1301> 보험 가입 현황
- 1302> 위기에 대한 경제적 대비 정도
- 1303>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1304> 필요 복지서비스
- 1305>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1306> 영유아 보육 방법
- 1307> 조사년도
- 1308>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 1309> 영유아 보육/교육의 어려움
- 1310>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1301 > 보험 가입 현황

▶ '민영 의료보험 가입' 52.1%, '개인연금 가입 또는 수급' 25.6%

귀댁은 현재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전체가구 기준, 농어촌 가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⁹⁾ 가입률은 94.6%로 나타나고 있으며, 읍지역에서 민영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농어촌 가구 2가구 중 1가구가 '공적연금'¹⁰⁾(56.5%)에 가입 또는 수급 중인 가운데,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개인연금 가입률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험 가입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농업인 안전보험'(16.8%), '농작물 재해보험'(16.2%), '농기계 종합보험'(15.0%) 등 농업인 보험 가입률이 15% 내외 수준인 가운데, '농지연금' 가입률은 3.0%로 낮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민영의료보험'(-13.5%p), '공적연금'(-12.2%p), '개인연금'(-8.7%p) 등 사회 보장 보험 가입 또는 수급률이 대체로 낮았다.

| 표 1301 | 보험 가입 현황

단위 : %(명)

구분			의료		연금			재해		
			국민건강 보험	민영의료 보험	공적 연금	개인 연금	농지 연금*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농어촌 (2,780)			94.6	52.1	56.5	25.6	3.0	16.8	15.0	16.2
읍/면	읍 (1,228)		93.3	56.7	58.7	36.6	2.7	14.1	11.8	18.7
	면 (1,552)		95.6	48.4	54.8	16.8	3.2	17.7	16.0	15.4
영농 여부	농어가 (853)		96.7	50.8	60.8	18.6	3.0	16.8	15.0	16.2
	비농어가 (1,927)		93.7	52.6	54.6	28.7	-	-	-	-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98.2	66.8	60.5	39.3	10.7	18.2	22.1	14.8
	40대 (494)		96.9	71.1	62.6	39.7	0.4	17.8	29.6	27.2
	50대 (608)		95.3	63.9	61.3	30.6	3.1	24.5	16.7	20.4
	60대 (492)		94.4	49.2	55.7	15.7	4.3	19.5	14.6	18.7
	70대 이상 (620)		89.0	14.5	44.6	4.7	1.6	7.2	7.0	7.1
도시 (1,149)			98.1	65.6	68.7	34.3	-	-	-	-

*는 '농어가(n=853)에 한해' 질문함

9)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 외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임(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10) 국민연금, 특수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의 가입자 및 수급자

1302> 위기에 대한 경제적 대비 정도

▶ 농어촌 가구 2가구 중 1가구는 위기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편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재해 등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편(합)](49.0%)

다음에 대한 귀댁의 경제적 준비 상태(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재해 등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재해 등에 대해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36.6%) 등 [준비되어 있지 않은 편(합)] 비율이 49.0%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면지역, 연령대가 높을수록, 1인 가구에서 질병, 사고, 재해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편(합)] 비율이 높은 반면, 1세대, 2세대 가구에서 [준비되어 있는 편(합)]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7.8%p) 등 [준비되어 있지 않은 편(합)](+10.0%p)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표 1302 - (1) | 위기에 대한 경제적 대비 정도(질병, 사고, 재해)

단위 : %(명)

구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는 편 (합)	보통 이다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편(합)
농어촌 (2,776)			1.3	19.9	21.3	29.8	36.6	12.4	49.0
읍/면	읍	(1,225)	1.8	18.7	20.4	35.6	34.3	9.7	44.0
	면	(1,551)	1.0	20.9	21.9	25.2	38.4	14.5	52.9
영농 여부	농어가	(852)	0.5	20.9	21.4	28.7	38.7	11.3	49.9
	비농어가	(1,924)	1.7	19.5	21.2	30.3	35.6	12.9	48.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2.8	19.5	22.3	48.9	23.8	4.9	28.7
	40대	(491)	0.7	24.8	25.6	29.8	36.8	7.9	44.6
	50대	(608)	2.0	26.4	28.4	27.6	30.9	13.0	43.9
	60대	(492)	0.5	21.4	22.0	29.0	37.0	12.0	49.1
	70대 이상	(619)	0.6	9.3	9.8	16.8	50.9	22.4	73.4
세대 구성	1인 가구	(886)	1.3	12.3	13.6	21.3	44.7	20.5	65.2
	1세대	(688)	1.2	21.9	23.1	28.3	37.2	11.4	48.5
	2세대	(1,059)	1.6	25.2	26.8	37.2	29.5	6.5	36.1
	3세대 이상	(142)		19.1	19.1	34.9	35.6	10.4	46.0
도시 (1,149)			2.3	26.3	28.6	32.4	28.8	10.2	39.0

퇴직, 노후생활 등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편(합)](53.3%)

다음에 대한 귀댁의 경제적 준비 상태(퇴직, 노후생활 등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퇴직, 노후생활 등에 대해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37.6%) 등 [준비되어 있지 않은 편(합)] 비율이 53.3%로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1인 가구에서 퇴직, 노후생활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편(합)] 비율이 높은 반면, 1세대, 2세대 가구에서 [준비되어 있는 편(합)]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편(합)](+9.2%p) 비율이 높았다.

| 표 1302 - (2) | 위기에 대한 경제적 대비 정도(퇴직, 노후생활)

단위 : %(명)

구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는 편 (합)	보통 이다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편(합)
농어촌 (2,773)		1.1	17.8	18.8	27.8	37.6	15.7	53.3
읍/면	읍 (1,225)	1.5	16.6	18.1	31.6	36.9	13.4	50.3
	면 (1,549)	0.7	18.7	19.4	24.9	38.2	17.5	55.7
영농 여부	농어가 (852)	0.5	19.7	20.1	29.0	35.4	15.5	50.9
	비농어가 (1,921)	1.3	16.9	18.3	27.3	38.6	15.8	54.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1.2	19.4	20.6	35.5	33.8	10.1	43.9
	40대 (491)	1.1	19.4	20.5	32.1	33.8	13.6	47.4
	50대 (608)	1.8	21.6	23.4	29.5	31.0	16.2	47.1
	60대 (492)	0.7	20.8	21.5	25.6	38.9	14.1	53.0
	70대 이상 (618)	0.6	9.3	9.8	18.3	48.5	23.4	71.9
세대 구성	1인 가구 (885)	0.4	13.3	13.7	18.5	44.3	23.6	67.9
	1세대 (688)	1.4	20.2	21.6	27.7	36.9	13.9	50.8
	2세대 (1,058)	1.6	20.0	21.6	36.0	31.7	10.7	42.4
	3세대 이상 (142)		17.7	17.7	26.0	43.8	12.5	56.3
도시 (1,149)		1.6	20.4	21.9	34.0	31.7	12.4	44.1

1303>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 이용률은 9.3%, '소득 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8.6%
- ▶ '문화·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평균 75.8점)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음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9.3%), '소득 지원 서비스'(8.6%) 등 10% 미만의 낮은 이용률을 보임

귀책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지난 1년 동안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아이돌봄서비스, 농번기 주말 돌봄방, 교육비 지원 등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9.3%), 생계비 지원, 생활자금 융자 등 '소득 지원 서비스'(8.6%) 등 10%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 비율이 높았으며,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소득 지원 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 비율이 높았다.

도시지역 또한, 농어촌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표 1303 - (1) |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	소득 지원 서비스	주거 관련 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	문화·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농어촌 (2,780)			4.3	8.6	3.0	3.3	9.3	1.9	2.3
읍/면	읍 (1,228)		4.9	7.1	1.3	2.8	12.6	2.3	1.8
	면 (1,552)		3.9	9.8	4.3	3.7	6.7	1.5	2.7
영농 여부	농어가 (853)		1.5	6.7	2.0	2.8	2.7	1.0	1.6
	비농어가 (1,927)		5.6	9.5	3.4	3.5	12.2	2.2	2.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8.4	5.0	5.1	0.6	32.6	4.7	0.5
	40대 (494)		7.4	8.2	2.0	0.9	13.2	2.4	1.7
	50대 (608)		3.6	7.3	3.4	2.9	1.6	0.5	1.5
	60대 (492)		1.9	10.1	2.1	2.1	1.7	1.7	2.0
	70대 이상 (620)		1.2	12.5	2.4	8.9	0.5	0.6	5.4
도시 (1,149)			5.2	5.6	4.5	2.7	11.6	1.1	0.8

'문화·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평균 75.8점)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음

이용하신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층 중 응답 가구에 한해/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 측정 값]

‘문화·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평균 75.8점),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평균 67.8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평균 67.4점), ‘주거 관련 서비스’(평균 65.0점)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 가운데, 읍지역,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문화·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에서 ‘주거 관련 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소득 지원 서비스’(+6.3점), ‘문화·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13.4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7.3점) 만족도가 높은 반면, ‘주거 관련 서비스’(-4.2점),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7.2점) 만족도는 낮았다.

| 표 1303 - (2) | 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	소득 지원 서비스	주거 관련 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	문화·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농어촌		56.2	60.5	65.0	61.1	67.8	75.8	67.4
읍/면	읍	57.6	58.0	41.7	47.9	68.2	78.9	62.6
	면	54.9	62.0	70.7	69.1	67.3	72.1	70.0
영농 여부	농어가	59.6	60.3	77.1	67.4	72.4	68.4	72.4
	비농어가	55.8	60.6	61.8	58.9	67.4	77.3	66.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61.5	56.2	64.1	66.0	69.9	84.8	56.2
	40대	52.2	56.4	54.8	59.2	61.9	67.9	61.8
	50대	44.9	66.0	60.1	32.3	70.2	61.9	67.5
	60대	67.2	62.1	76.1	68.9	68.5	69.6	64.6
	70대 이상	64.5	60.3	72.5	68.9	71.3	64.9	71.2
도시		55.5	54.2	69.2	68.3	70.5	62.4	60.1

1304 > 필요 복지서비스

▶ ‘소득 지원 서비스’(14.9%), ‘문화·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11.2%)가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귀택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는 다음 보기 중 무엇입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복수 응답 :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생계비 지원”, “생활자금 융자” 등 ‘소득 지원 서비스’(14.9%), “문화 이용권”,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11.2%)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9.8%), “교통수단 지원”, “물품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8.7%), “취업상담/알선” 등 ‘고용(취업)지원 서비스’, “집수리” 등 ‘주거 관련 서비스’(각 8.3%), “교육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6.7%)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역시, 농어촌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 그림 1304 | 필요 복지서비스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 비율이 높은 반면,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보건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비율이 높았다.

한편,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지원 서비스’ 비율이 높았다.

| 표 1304 | 필요 복지서비스

단위: %(명)

구분		고용 (취업) 지원 서비스	소득 지원 서비스	주거 관련 서비스	보건 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	문화· 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기타	필요한 서비스 가 없음
농어촌 (2,771)		8.3	14.9	8.3	9.8	6.7	11.2	8.7	0.1	32.1
읍/면	읍 (1,221)	9.2	13.2	8.4	7.5	9.8	16.0	6.5	0.0	29.3
	면 (1,550)	7.5	16.3	8.2	11.6	4.2	7.3	10.4	0.0	34.5
영농 여부	농어가 (849)	4.9	14.5	10.6	13.2	2.3	7.8	11.6	0.0	35.0
	비농어가 (1,922)	9.7	15.1	7.3	8.3	8.6	12.6	7.4	0.0	30.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6)	9.9	8.5	4.7	3.5	23.0	18.7	3.5	0.1	28.0
	40대 (490)	7.9	11.7	8.1	5.8	10.2	15.7	4.7	0.0	35.9
	50대 (607)	13.7	13.4	12.0	4.6	0.8	10.2	5.1	0.0	40.2
	60대 (490)	4.8	17.2	8.7	11.3	1.0	10.5	7.9	0.0	38.6
	70대 이상 (620)	4.9	22.6	8.0	21.4	0.2	3.3	20.0	0.0	19.6
65세 이상 가구원	있음 (1,136)	5.3	19.0	8.1	18.5	1.0	6.3	14.8	0.0	26.9
	없음 (1,635)	10.4	11.9	8.4	3.5	10.8	14.7	4.3	0.2	35.9
장애 가구원	있음 (298)	6.5	23.6	10.0	16.9	1.6	7.0	12.7	0.0	21.5
	없음 (2,473)	8.5	13.8	8.0	8.9	7.3	11.7	8.2	0.2	33.5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 여부	수급 (169)	3.8	29.1	14.0	16.7	2.2	5.2	14.8	0.0	14.1
	차상위계층 (59)	15.5	39.0	6.2	15.6	1.2	4.6	9.4	0.0	8.4
	해당 없음 (2,543)	8.4	13.3	7.9	9.1	7.2	11.8	8.2	0.2	34.0
도시 (1,148)		9.9	13.3	8.0	6.2	10.5	11.9	5.7	0.6	33.8

필요 복지서비스 - 세부사항

[개방형 질문 : 농어촌 가구(n=2,780)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복수 응답 :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

구분	세부사항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 (8.3%)	· 취업상담/알선(8.3%), 노인일자리(1.8%), 직업훈련(1.5%), 아르바이트(시간제) 고용 알선(0.8%),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연계(0.2%), 공공근로 등
소득 지원 서비스 (14.9%)	· <u>생계비 지원(19.8%)</u> , 생활자금 융자(2.6%),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0.4%), 노령 연금 지원/확대, 장애인 연금 지원/확대, 국세/지방세 지원(각 0.1%) 등
주거 관련 서비스 (8.3%)	· <u>집수리(9.3%)</u> , 공공/임대주택 지원(1.9%), 임차료 지원(0.8%), 주택 구입 자금 지원(0.5%) 등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 (9.8%)	·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5.8%), 노인 돌봄 서비스(3.2%), 전문병원/종합병원 건립(1.1%), 상담, 의료비/약값 지원(각 0.9%), 병원이동 교통수단 지원(0.6%), 건강검진 서비스(0.5%), 병원 동행 도우미 지원(0.2%) 등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 (6.7%)	· <u>교육비 지원(5.0%)</u> , <u>아이 돌봄 서비스(4.0%)</u> , 보육비 지원(0.4%), 어린이집/보육시설 확대, 농번기 주말 돌봄방(각 0.2%) 등
문화·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 (11.2%)	· <u>문화이용권(10.0%)</u> , <u>문화 시설 확충(2.2%)</u> , 문화·예술활동 지원(1.7%), 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좌 개설(0.7%), <u>스포츠 활동(0.4%)</u>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8.7%)	· <u>교통수단 지원(4.2%)</u> , <u>물품 지원(3.1%)</u> , <u>식사(반찬) 배달 서비스(2.7%)</u> , <u>가정봉사서비스(2.3%)</u> 등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32.2%)	

* 세부사항은 개방형 질문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을 제외하고 합계 100.0%로 환산함, '기타'(0.1%)는 제시하지 않음

1305 >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질병 '예방'(17.3%) 및 '치료'(15.6%) 서비스가 가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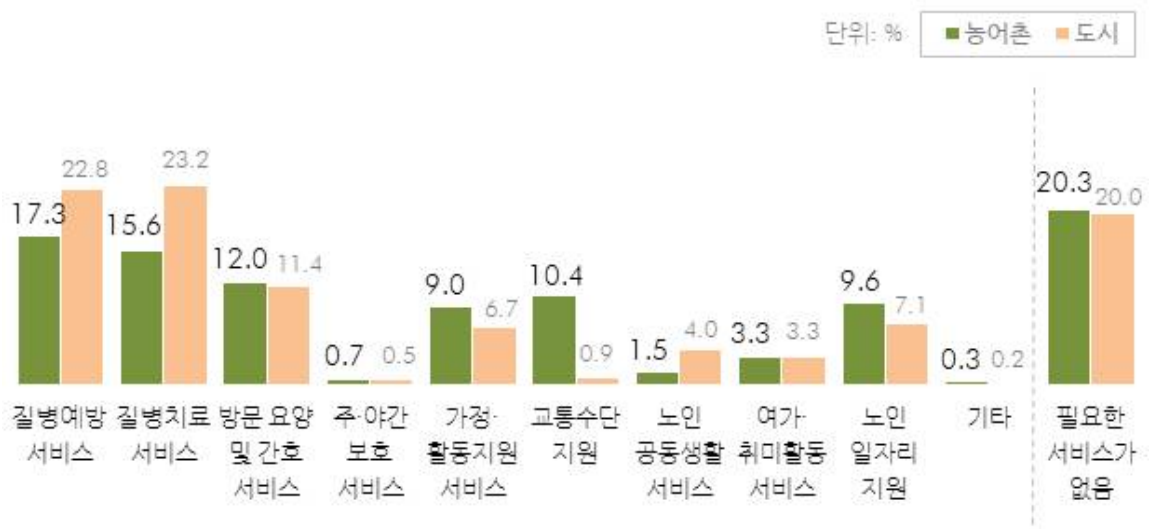
다음의 노인복지서비스 중 귀하 또는 귀댁의 어르신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1,139)/도시 가구(n=261)) 중 응답가구에 한해]

응답자 본인을 포함한 65세 이상 가구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건강진단, 치매 조기 검진 등 '질병예방서비스'(17.3%),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질병치료서비스'(15.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방문 요양 및 간호 서비스'(12.0%), 병원 동행 등 '교통수단 지원'(10.4%), '노인일자리 지원'(9.6%), 청소, 세탁, 식사준비, 생필품 구매 등 '가정·활동지원서비스'(9.0%)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질병 '예방'(-5.5%p) 및 '치료'(-7.6%p) 비율이 낮은 반면, '교통수단지원' 비율이 높았다(+9.5%p).

| 그림 1305 |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농어가, 50-60대 연령층, 1-2세대 가구에서 '질병예방서비스' 비율이 높은 반면, 50대 이하 연령층, 3세대 이상 가구에서 '방문요양 및 간호서비스' 비율이 높고, 1인 가구에서 '가정·활동지원 서비스', '교통수단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1305 - (1) | 필요 노인복지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질병 예방 서비스	질병 치료 서비스	방문 요양 및 간호 서비스	주·야 간보호 서비스	가정· 활동 지원 서비스	교통 수단 지원	노인 공동 생활 서비스	여가 취미 활동 서비스	노인 일자리 지원	기타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농어촌 (1,113)		17.3	15.6	12.0	0.7	9.0	10.4	1.5	3.3	9.6	0.3	20.3
읍/면	읍 (339)	20.9	13.4	12.5	0.2	9.3	6.0	1.9	6.7	12.3		16.9
	면 (774)	15.7	16.5	11.8	0.9	8.9	12.3	1.4	1.9	8.5	0.4	21.7
영농 여부	농어가 (515)	21.2	17.0	10.6	0.6	7.1	9.3	1.8	3.5	8.0	0.3	20.5
	비농어가 (599)	13.9	14.3	13.2	0.7	10.7	11.4	1.3	3.2	11.0	0.3	20.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35)		22.6	26.3		6.0	5.2			23.9		16.0
	40대 (80)	18.3	10.8	24.0		0.2	5.3	1.9	15.0	0.4		24.2
	50대 (77)	34.8	11.4	27.6	1.7	0.1	3.5	1.6	2.6	1.0		15.8
	60대 (288)	24.6	10.3	5.3	0.5	6.0	6.4	1.1	3.8	12.6	0.2	29.2
	70대 이상 (616)	11.6	19.1	10.5	0.7	12.9	14.2	1.8	2.0	9.9	0.4	16.9
세대 구성	1인 가구 (463)	11.5	16.1	9.6	0.6	15.7	16.3	1.6	1.5	12.0	0.3	14.8
	1세대 (320)	22.4	16.8	5.5	0.3	5.9	7.8	1.1	4.3	8.0	0.5	27.3
	2세대 (211)	21.4	15.3	18.4	1.5	3.9	6.1	1.7	2.8	7.5		21.3
	3세대 이상 (120)	18.6	10.6	27.5	0.5	0.8	2.2	2.1	8.7	8.4		20.7
도시 (253)		22.8	23.2	11.4	0.5	6.7	0.9	4.0	3.3	7.1	0.2	20.0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추이

- 2016년에 비해 '방문 가정 간호 또는 간병서비스'(+5.5%p) 비율이 증가한 반면, '질병치료서비스'(-7.8%p), '질병예방서비스'(-4.7%p) 비율은 감소

| 표 1305 - (2) |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추이

단위 : %(명)

구분	질병예방 서비스	질병치료 서비스	가정· 활동지원 서비스	방문 요양 및 간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교통수단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소득지원	노인여가 복지 서비스	특별히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2018년 (1,113)	17.3	15.6	9.0	12.0	0.7	10.4	9.6	3.3	20.3
2016년 (1,460)	22.0	23.4	8.2	6.5	0.8	7.6	13.6	4.4	13.5
2013년 (1,121)	21.0	20.1	9.7	12.5	0.9	8.8	4.9	-	20.3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놓여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6년 이전 '가정·활동지원 서비스'는 '가정봉사서비스', '방문 요양 및 간호 서비스'는 '방문가정간호 또는 간병 서비스', '여가취미활동 서비스'는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항목의 수치임

* 2018년에 추가된 항목인 '노인공동생활서비스'(1.5%), '기타'는 제시하지 않음

1306> 영유아 보육 방법

▶ 영유아 주된 보육 방법은 '부모가 돌봄'(50.1%),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48.4%)

귀댁에서는 영유아 자녀(손자녀)를 주로 어떤 방법으로 돌보십니까?

[만 6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339)/도시 가구(n=183)) 중 응답가구에 한해]

영유아 보육 방법으로 '부모가 돌봄'(50.1%),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48.4%)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부모 이외 가족(조부모, 친인척)이 돌봄'(1.4%),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지원사업 이용'(0.1%) 비율은 낮았다.

읍지역, 비농어가, 5,000만원 미만 소득층, 영유아 수가 1명인 가구에서 '부모가 돌봄'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5,000만원 이상 소득층, 영유아 수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부모가 돌봄' 비율이 높았다(+8.0%p).

| 표 1306 | 영유아 보육 방법

단위 : %(명)

구분			부모가 돌봄	부모 이외 가족 (조부모, 친인척)이 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지원사업 이용
농어촌 (330)			50.1	1.4	48.4	0.1
읍/면	읍 (218)		58.9	0.1	40.9	
	면 (112)		33.1	3.7	62.8	0.4
영농 여부	농어가 (27)		42.7	11.0	46.3	
	비농어가 (303)		50.8	0.5	48.5	0.1
연간 가구 소득	5,000만원 미만 (203)		53.0	1.7	45.1	0.2
	5,000만원 이상 (118)		42.0	0.9	57.1	
영유아 수	1명 (208)		53.2	1.3	45.3	0.2
	2명 이상 (122)		45.0	1.4	53.6	
도시 (182)			42.1	9.3	47.9	0.7

* '고용 육아도우미 또는 가사도우미가 돌봄' 항목은 응답 값이 없어 제시하지 않음



영유아 보육 방법 - 추이

- 문항 구성이 달라 동등비교가 어려운 가운데, 2013년에 비해 '부모가 돌봄'(+35.2%p) 비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34.7%p) 비율이 크게 감소

| 그림 1306 | 영유아 보육 방법 - 추이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부모가 돌봄' : 2013년 '(비용 부담 없이) 직접 또는 가족이 돌봄'

* '부모 이외 가족(조부모, 친인척)이 돌봄' : 2013년 '(비용을 부담하고) 가족, 지인 또는 고용 보모가 돌봄'

* '기타' : 2018년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부지원사업 이용'

1307> 영유아 교육 방법

▶ ‘학원,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44.3%)이 주된 교육 방법

다음 중 귀택에서 영유아 교육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만 6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339)/도시 가구(n=183)) 중 응답가구에 한해/ 교육방법별 각 100.0%]

영유아 교육을 위해 ‘학원,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을 이용하는 층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습지’(20.1%), ‘방문교육’(8.8%), ‘인터넷 교육’(4.7%),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1.8%) 순으로 나타났다.

읍지역, 비농어가, 영유아 수가 1명인 가구에서 ‘학원,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5,000만원 미만 소득층, 영유아 수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학습지’, 농어가에서 ‘해당 없음’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학원,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비율이 높은 반면(+5.1%p), ‘방문교육’(-7.4%p),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6.4%p) 비율은 낮았다.

| 표 1307 | 영유아 교육 방법 단위 : %(명)

구분			학원,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학습지	방문 교육	인터넷 교육	해당 없음
농어촌 (339)			44.3	1.8	20.1	8.8	4.7	38.5
읍/면	읍 (226)		49.2	0.7	15.3	8.6	5.8	34.2
	면 (113)		34.6	4.0	29.7	9.0	2.5	47.2
영농 여부	농어가 (27)		20.8	3.6	14.6	8.2	1.7	50.1
	비농어가 (311)		46.4	1.6	20.6	8.8	4.9	37.5
연간 가구 소득	5,000만원 미만 (212)		42.9	1.2	23.6	6.6	6.6	38.8
	5,000만원 이상 (118)		43.3	3.0	14.9	13.3	1.5	40.9
영유아 수	1명 (208)		50.2	2.9	11.2	7.8	4.6	39.2
	2명 이상 (130)		35.0		34.3	10.3	4.8	37.5
도시 (183)			39.2	8.2	18.7	16.2	3.2	35.4



영유아 교육 방법 - 추이

- 2013년에 비해 '학원,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14.7%p) 비율이 증가한 반면, '학습지'(-21.1%p) 비율은 감소

| 그림 1307 | 영유아 보육 방법 - 추이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1308>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매월 평균 49.8만원

귀택의 영유아 전체 인원의 보육/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만 6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339)/도시 가구(n=183)) 중 응답가구에 한해]

월 평균 영유아 전체의 보육/교육 비용으로 ‘30~50만원 미만’(42.3%)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70만원 미만’(25.0%), ‘70~100만원 미만’(19.8%), ‘30만원 미만’(10.9%), ‘100만원 이상’(2.0%) 순으로 평균 49.8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지역, 비농어가, 영유아 수가 2명 이상인 가구, 보육시설 이용층에서 영유아 평균 보육/교육 비용이 다소 더 많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월 평균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이 낮게 나타났다(-11.4만원).

| 표 1308 | 월 평균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단위 : %(명)

구분			평균	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70만원 미만	7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농어촌 (294)			49.8만원	10.9	42.3	25.0	19.8	2.0
읍/면	읍	(192)	48.9만원	11.5	39.2	29.9	16.4	2.9
	면	(102)	51.5만원	9.8	48.1	15.7	26.0	0.4
영농 여부	농어가	(27)	44.0만원	21.5	50.6	9.3	17.1	1.6
	비농어가	(267)	50.4만원	9.9	41.5	26.6	20.0	2.1
영유아 수	1명	(178)	42.0만원	14.1	52.3	25.1	8.1	0.4
	2명 이상	(116)	61.9만원	6.0	27.0	24.8	37.5	4.6
영유아 보육 방법	부모가 돌봄	(130)	42.1만원	17.5	47.2	23.7	11.1	0.5
	보육시설 이용	(160)	56.4만원	5.2	38.0	26.5	27.0	3.3
도시 (177)			61.2만원	9.7	33.2	25.5	14.8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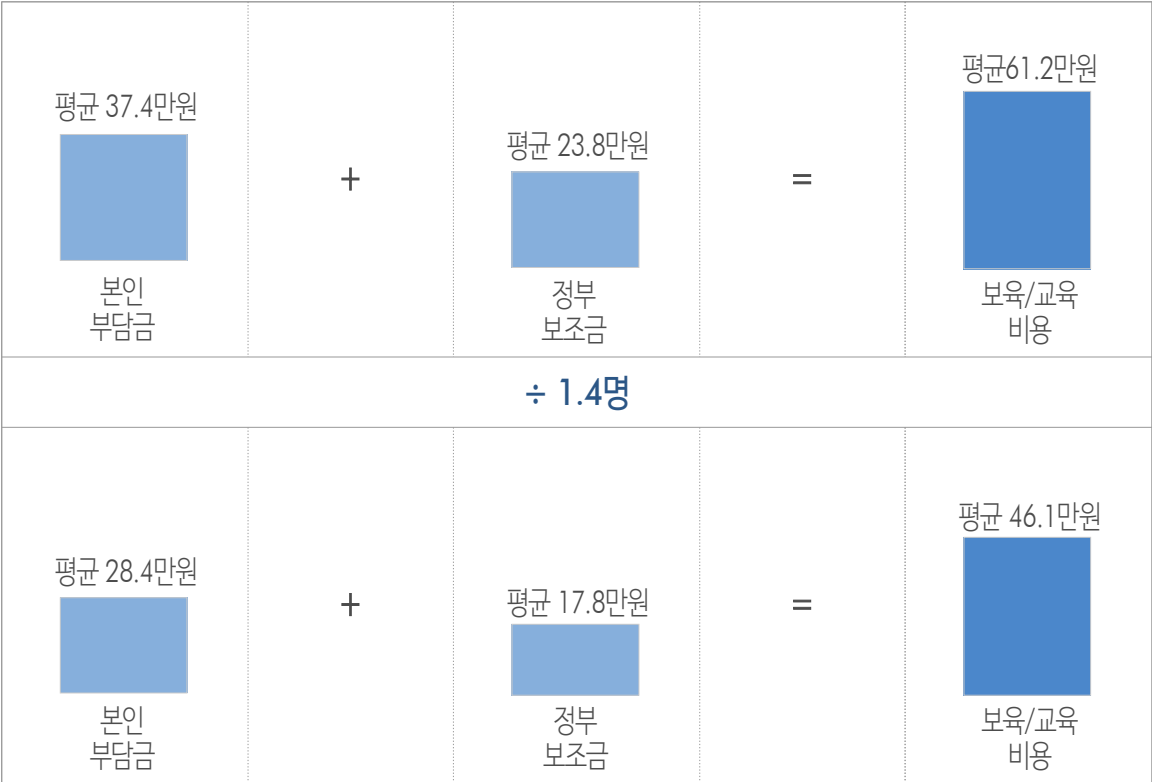
농어촌 가구의 월 평균 보육/교육 비용(평균 49.8만원)을 가구 당 평균 영유아 수인 1.4명으로 나누면 약 평균 36.8만원 선이었다. 한편, 보육/교육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평균 25.6만원, 정부 보조금은 평균 24.3만원으로 본인 부담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0.7만원).

| 그림 1308 - (1) | 월 평균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비용(농어촌)

평균 25.6만원  본인 부담금	+	평균 24.3만원  정부 보조금	=	평균 49.8만원  보육/교육 비용
÷ 1.4명				
평균 19.4만원  본인 부담금	+	평균 17.4만원  정부 보조금	=	평균 36.8만원  보육/교육 비용

도시 가구의 월 평균 보육/교육비는 평균 61.2만원으로 농어촌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11.4만원). 이를 도시 가구 평균 영유아 수인 1.4명으로 나누면 약 46.1만원 선으로 농어촌에 비해 평균 +9.3만원 높았다. 한편, 보육/교육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농어촌에 비해 +11.8만원 더 높은 37.4만원이었고, 정부 보조금은 농어촌과 비슷한 수준(0.5만원)인 평균 23.8만원으로 나타났다.

| 그림 1308 - (2) | 월 평균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비용(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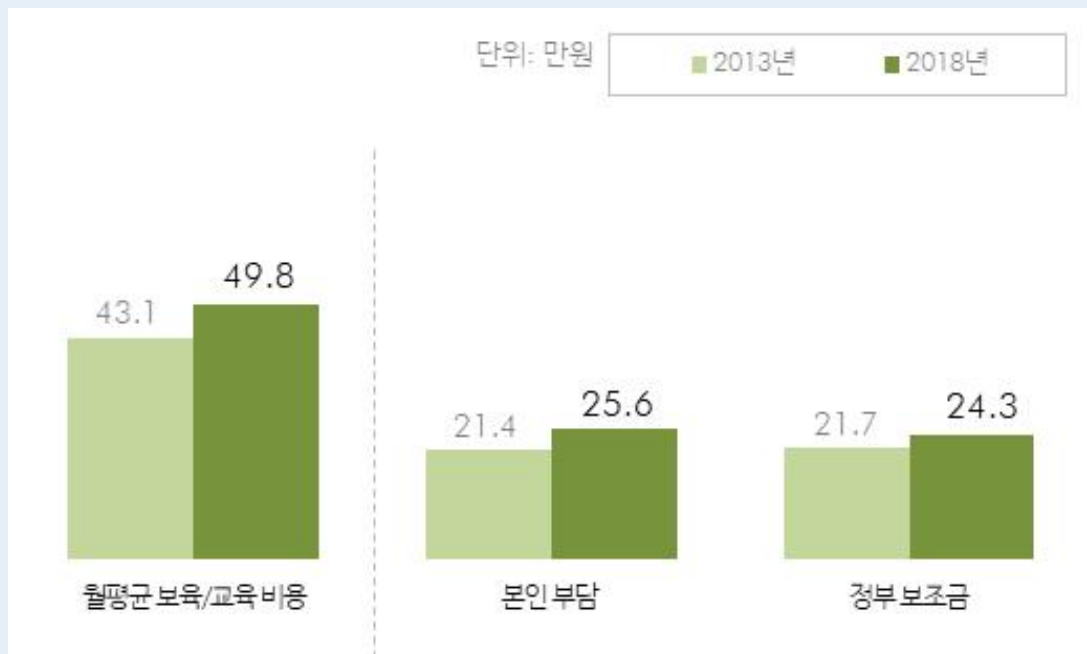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 추이

- 2013년에 비해 보육/교육 비용이 증가(+6.7만원)

| 그림 1308 - (3) |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 추이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1309> 영유아 보육/교육의 어려움

▶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26.2%)가 영유아 보육/교육의 주된 어려움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만 6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339)/도시 가구(n=183)) 중 응답가구에 한해/ 복수 응답: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

영유아 보육/교육의 어려움으로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26.2%)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 놀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19.3%), '야간시간에 이용가능한 자녀 돌봄시설이 부족하다'(16.2%), '어린이집·유치원 수가 부족하다'(15.4%),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12.5%) 순으로 나타났다.

읍지역에서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비율이 높은 반면, 농어가에서 '자녀 놀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 비농어가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야간 시간에 이용 가능한 자녀돌봄 시설이 부족하다' 비율이 높았다.

도시에 비해,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15.8%p) 비율이 높은 반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12.7%p) 비율은 낮았다.

| 표 1309 | 영유아 보육/교육의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유치원 수가 부족하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자녀 놀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	방문교육(학습지 등)을 받기가 어렵다	야간 시간에 이용 가능한 자녀돌봄 시설이 부족하다	기타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농어촌 (324)			15.4	12.5	26.2	19.3	1.8	16.2	0.6	8.0
읍/면	읍	(218)	15.2	11.5	29.7	19.5	1.8	15.6	0.5	6.2
	면	(107)	15.8	14.6	19.1	18.8	1.7	17.3	0.9	11.8
영농 여부	농어가	(25)	3.3	12.1	31.2	28.6	4.2	5.4	0.9	14.2
	비농어가	(299)	16.4	12.5	25.9	18.5	1.6	17.0	0.6	7.6
도시 (180)			22.9	7.9	10.4	16.3	0.4	16.6	4.2	21.3

1310>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 ‘가사지원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19.2%)가 가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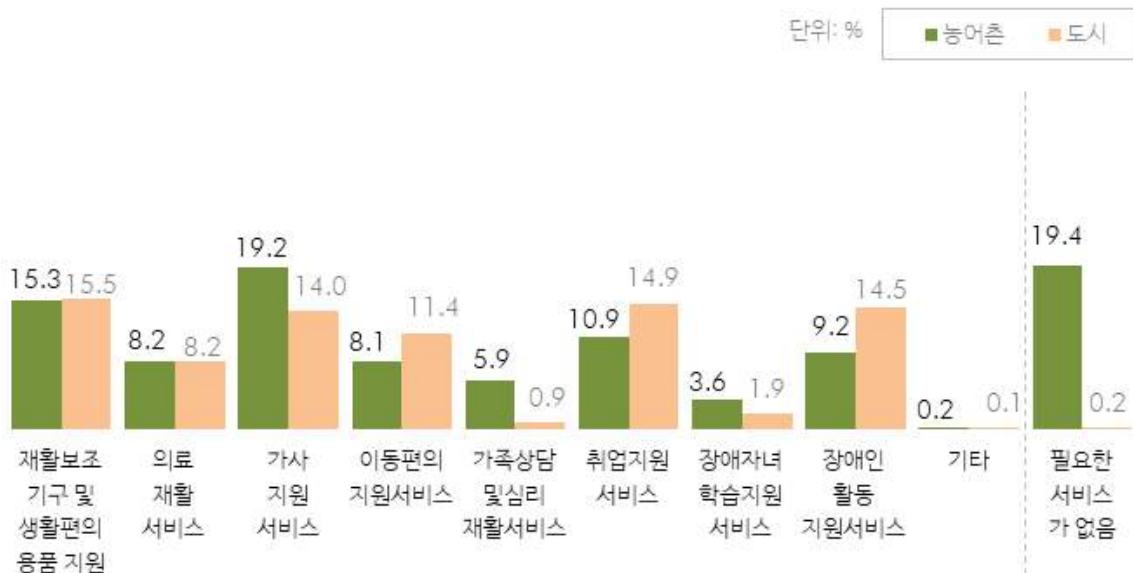
귀하 또는 귀댁의 장애가 있는 가구원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농어촌 : n=236)/도시 : n=77] 중 응답가구에 한해

‘가사지원 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19.2%)가 장애가 있는 가구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15.3%),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10.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9.2%), ‘의료재활서비스’(8.2%), ‘이동편의지원서비스’(8.1%),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5.9%), ‘장애자녀 학습지원서비스’(3.6%)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가사지원 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5.2%p),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5.0%p) 비율이 높은 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5.3%p),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4.0%p) 비율은 낮았다.

| 그림 1310 |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읍지역, 30대 이하 연령층, 경증에서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비율이 높은 반면,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이동편의지원서비스' 비율이 높았다. 중증에서 '가사지원 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비율이 높았다.

| 표 1310 - (1) |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재활 보조 기구 및 생활 편의 용품 지원	의료 재활 서비스	가사 지원 서비스 (간병인, 도우미 등)	이동 편의 지원 서비스	가족 상담 및 심리 재활 서비스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장애 자녀 학습 지원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기타	필요한 서비스 가 없음
농어촌 (236)		15.3	8.2	19.2	8.1	5.9	10.9	3.6	9.2	0.2	19.4
읍/면	읍 (89)	23.6	10.1	15.8	8.1	2.5	8.5	9.4	12.0		10.0
	면 (147)	10.3	7.1	21.3	8.1	8.0	12.3		7.4	0.3	25.1
영농 여부	농어가 (82)	15.6	8.5	14.5	7.1	0.9	8.1		10.1	0.5	34.7
	비농어가 (154)	15.2	8.1	21.8	8.7	8.6	12.4	5.5	8.7		11.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4)	33.1		5.0	9.3	28.7		23.9			
	40대 (31)	17.5	16.5	23.8		12.7	10.6	7.7			11.2
	50대 (59)	8.8	4.3	13.1	2.1		17.5	0.5	13.0		40.6
	60대 (52)	12.4	16.0	24.6	6.4	3.8	13.7		10.6		12.3
	70대 이상 (69)	16.0	4.7	23.1	17.8	1.5	7.0		12.1	0.6	17.0
장애 증상	중증 (85)	9.1	7.8	26.2	7.9	13.0	15.7	7.0	6.0	0.5	6.7
	경증 (146)	19.4	6.8	15.7	8.5	1.9	8.4	1.6	11.3		26.3
도시 (77)		15.5	8.2	14.0	11.4	0.9	14.9	1.9	14.5	0.1	18.6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 추이

- 2016년에 비해 '가사지원서비스'(+11.3%p) 비율이 증가한 반면, '의료재활서비스'(-7.1%p) 비율이 감소

| 표 1310 - (2) |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 추이

단위 : %(명)

구분	재활보조 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의료 재활 서비스	가사 지원 서비스 (간병인, 도우미 등)	이동 편의 지원 서비스	가족 상담 및 심리 재활 서비스	직업 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장애 자녀 학습 지원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2018년 (236)	15.3	8.2	19.2	8.1	5.9	10.9	3.6	9.2
2016년 (426)	10.5	15.3	7.9	7.4	2.2	6.2	1.1	6.2
2013년 (138)	20.8	16.8	14.7	18.0	3.5	7.3	6.3	-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6년 '장애인수당 증액 등 경제적 지원'(43.1%)는 제시하지 않음

* 2018년 '필요한 서비스 없음'(19.4%)는 제시하지 않음

* '기타'는 제시하지 않음



1400> 교육

1401>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1402> 자녀의 방과후 시간 활용

140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404> 평생교육 경험 및 수요

1405> 평생교육 참여의 어려움

1401 >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 ▶ 통학 시 교통수단으로 초등학교 자녀는 '걸어서' 비율이 가장 높고, 중·고등학교 자녀는 '걸어서'와 더불어 '버스' 비율이 높음
-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통학에 소요되는 편도 시간이 증가함

 통학 시 교통수단으로 초등학교 자녀는 '걸어서' 비율이 가장 높고,
중·고등학교 자녀는 '걸어서'와 더불어 '버스' 비율이 높음

귀택의 자녀(손자녀)가 통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535)/도시 가구(n=27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초등학교 자녀의 경우, '걸어서'(58.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통학버스'(18.4%), '개인차량'(15.1%)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자녀의 경우, '걸어서'(42.7%), '버스'(34.3%), '개인차량'(15.2%)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자녀의 경우, '버스'(42.4%), '걸어서'(25.6%), '개인차량'(16.0%)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걸어서' 통학하는 비율이 낮음(초등학교 자녀 -14.0%p, 중학생 자녀 -19.0%p, 고등학교 자녀 -3.0%p) 반면, 초등학교 자녀의 경우 '통학버스'(+12.4%p), 중학생(+33.6%p)과 고등학교(+10.7%p) 자녀의 경우 '버스' 비율이 높았다.

| 표 1401 - (1) |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단위 : %(명)

구분		걸어서	통학버스	학원버스	버스	개인차량	자전거	기타
농어촌 (630)		45.7	13.5	3.3	21.1	15.4	0.7	0.3
학교급	초등학교 자녀 (299)	58.6	18.4	5.3	2.0	15.1	0.4	0.1
	중학생 자녀 (163)	42.7	3.6	2.3	34.3	15.2	1.0	0.8
	고등학교 자녀 (168)	25.6	14.4	0.7	42.4	16.0	0.9	
도시 (359)		60.8	10.0	6.9	6.6	10.7	3.1	1.9
학교급	초등학교 자녀 (187)	72.6	6.0	7.8	0.2	11.9		1.4
	중학생 자녀 (101)	61.7	17.5	8.8	0.7	2.4	8.9	
	고등학교 자녀 (71)	28.6	9.8	1.7	31.7	19.1	2.9	6.3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걸어서'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에서 '개인차량' 비율이 높았다.

| 표 1401 - (2) |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초등학생 자녀)

단위 : %(명)

구분		걸어서	통학버스	학원버스	버스	개인차량	자전거	기타
농어촌 (299)		58.6	18.4	5.3	2.0	15.1	0.4	0.1
읍/면	읍 (191)	71.4	10.3	2.2	1.2	15.0		
	면 (108)	35.9	32.9	10.9	3.5	15.4	1.1	0.3
영농 여부	농어가 (50)	29.0	34.0	3.7	6.9	23.5	2.3	0.6
	비농어가 (249)	64.5	15.3	5.7	1.1	13.4		
도시 (187)		72.6	6.0	7.8	0.2	11.9		1.4

| 표 1401 - (3) |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중학생 자녀)

단위 : %(명)

구분		걸어서	통학버스	학원버스	버스	개인차량	자전거	기타
농어촌 (163)		42.7	3.6	2.3	34.3	15.2	1.0	0.8
읍/면	읍 (107)	53.0	1.5	2.3	31.9	11.3		
	면 (56)	23.1	7.7	2.3	38.9	22.6	3.0	2.3
영농 여부	농어가 (38)	20.1	8.0		46.4	25.5		
	비농어가 (125)	49.6	2.3	3.0	30.7	12.1	1.3	1.0
도시 (101)		61.7	17.5	8.8	0.7	2.4	8.9	

| 표 1401 - (4) |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고등학생 자녀)

단위 : %(명)

구분		걸어서	통학버스	학원버스	버스	개인차량	자전거	기타
농어촌 (168)		25.6	14.4	0.7	42.4	16.0	0.9	
읍/면	읍 (100)	31.4	12.9	1.2	43.9	9.1	1.5	
	면 (68)	17.0	16.8		40.3	26.0		
영농 여부	농어가 (36)	25.2	12.2		40.0	20.6	1.9	
	비농어가 (132)	25.7	15.1	0.9	43.0	14.7	0.6	
도시 (71)		28.6	9.8	1.7	31.7	19.1	2.9	6.3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 추이

- 2018년의 경우 초·중·고 학교급별로 교통수단을 응답받은 반면, 2013년은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등 자녀별 교통수단을 응답 받아 동등비교가 어려운 가운데, 초등학교 자녀의 경우, '통학 버스'(+7.6%p) 비율이 증가한 반면, '개인차량'(-8.3%p) 비율은 감소
- 중학생 자녀의 경우, '버스'(+7.4%p) 비율이 증가한 반면, '통학버스'(-4.2%p) 비율은 감소
- 고등학교 자녀의 경우, '개인차량'(+6.3%p) 비율이 증가한 반면, '걸어서'(-2.4%p) 비율은 감소

| 표 1401 - (5) |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 추이

단위 : %(명)

	구분	걸어서	통학버스	학원버스	버스	개인차량	자전거	기타
초등학교 자녀	2018년 (299)	58.6	18.4	5.3	2.0	15.1	0.4	0.1
	2013년 (198)	60.6	10.8	-	2.5	23.4	-	2.7
중학생 자녀	2018년 (163)	42.7	3.6	2.3	34.3	15.2	1.0	0.8
	2013년 (163)	44.4	7.8	-	26.9	15.2	-	5.7
고등학교 자녀	2018년 (168)	25.6	14.4	0.7	42.4	16.0	0.9	-
	2013년 (207)	28.0	15.7	-	42.3	9.7	-	4.3

*2013년 수치는 '첫째 자녀' 기준 수치임



자녀 통학 시 소요시간은 편도를 기준으로 초등학생 평균 9.7분, 중학생 평균 15.5분,
고등학생 자녀 23.8분 등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길어짐

편도를 기준으로 귀댁의 자녀의 평균 통학시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535)/도시 가구(n=27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자녀 통학 시 편도 기준 소요시간은 평균 14.4분으로, 초등학생 자녀의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9.7분, 중학생 자녀의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15.5분, 고등학생 자녀의 편도 소요시간은 23.8분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통학 시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났다. 버스, 통학버스 이용층에서 평균 소요 시간이 길었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자녀 통학 시 편도 소요시간이 약간 긴(+3.6분)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농어촌 초등학생 자녀의 편도 소요시간은 비슷한 수준(+1.4분)을 보인 반면, 중학생 자녀(+4.1분), 고등학생 자녀(+7.5분)가 통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더 길었다.

| 표 1401 - (6) | 자녀 통학 시 소요시간

단위: 분(명)

구분		전체 자녀		초등학생 자녀		중학생 자녀		고등학생 자녀	
		사례수	소요시간	사례수	소요시간	사례수	소요시간	사례수	소요시간
농어촌		(492)	14.4	(297)	9.7	(160)	15.5	(159)	23.8
읍/면	읍	(317)	14.0	(191)	8.6	(107)	15.3	(97)	25.3
	면	(175)	15.1	(106)	11.5	(53)	16.0	(63)	21.5
영농 여부	농어가	(86)	17.3	(50)	12.9	(38)	19.2	(33)	23.0
	비농어가	(406)	13.7	(246)	9.0	(122)	14.4	(126)	24.0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걸어서			(175)	9.0	(69)	11.0	(35)	13.6
	통학버스			(54)	12.6	(5)	16.2	(24)	21.5
	학원버스			(15)	10.4	(4)	13.5	(1)	10.0
	버스			(6)	18.1	(56)	22.5	(71)	34.3
	개인차량			(45)	7.5	(25)	12.9	(27)	12.5
도시		(267)	10.8	(182)	8.3	(96)	11.4	(71)	16.3

자녀 통학 시 편도 소요시간 - 추이

- 2018년의 경우 초·중·고 학교급별로 교통수단을 응답받은 반면, 2013년은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등 자녀별 교통수단을 응답 받아 동등비교가 어려운 가운데, 조사년도에 관계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임

| 그림 1401 | 자녀 통학 시 소요시간 - 추이



*2013년 수치는 '첫째 자녀' 기준 수치임

1402>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 ‘사설학원 수강’(45.2%)이 주된 방과 후 시간 활용 방법

귀댁의 자녀(손자녀)는 학교 정규 수업과정을 마친 후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535)/도시 가구(n=27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자녀가 있는 농촌 가구 2가구 중 1가구(45.2%)에서 ‘사설학원 수강’이 주된 방과 후 시간 활용방법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 내 방과 후 프로그램’(26.7%), ‘집에서 가족과 보냄’(13.7%), ‘학교 외 공공기관 방과 후 프로그램’(9.1%), ‘혼자 보냄’(4.6%), ‘기타’(0.7%) 순으로 나타났다.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사설학원 수강’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자녀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층에서 ‘학교 내 방과 후 프로그램’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집에서 가족과 보냄’(+11.8%p), ‘학교 내 방과 후 프로그램’(+8.9%p) 비율이 높은 반면, ‘사설 학원 수강’ 비율은 낮았다(-27.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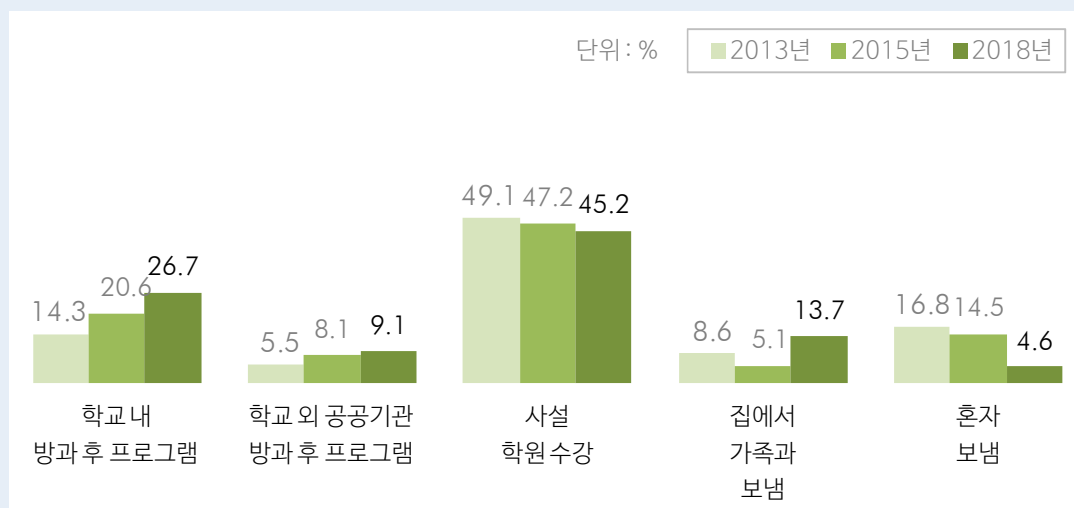
| 표 1402 |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단위 : %(명)

구분			학교 내 방과 후 프로그램	학교 외 공공기관 방과 후 프로그램	사설 학원 수강	집에서 가족과 보냄	혼자 보냄	기타
농어촌 (503)			26.7	9.1	45.2	13.7	4.6	0.7
읍/면	읍 (319)		21.9	10.2	49.4	14.7	2.7	1.1
	면 (184)		35.0	7.3	37.8	12.0	7.9	
영농 여부	농어가 (87)		39.4	9.8	26.9	19.5	4.3	
	비농어가 (415)		24.0	9.0	49.0	12.5	4.7	0.8
학교급	초등학교 (310)		36.1	10.6	40.6	10.5	1.0	1.1
	중고등학교 (193)		11.7	6.7	52.6	18.8	10.3	
도시 (272)			17.8	4.8	72.6	1.9	2.2	0.6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 추이

- 2015년 대비, '집에서 가족과 보냄'(+8.6%p), '학교 내 방과 후 프로그램'(+6.1%p) 비율은 약간 증가한 반면, '혼자 보냄'(-9.9%p) 비율이 다소 감소



140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강사) 지원’(27.1%)이 가장 시급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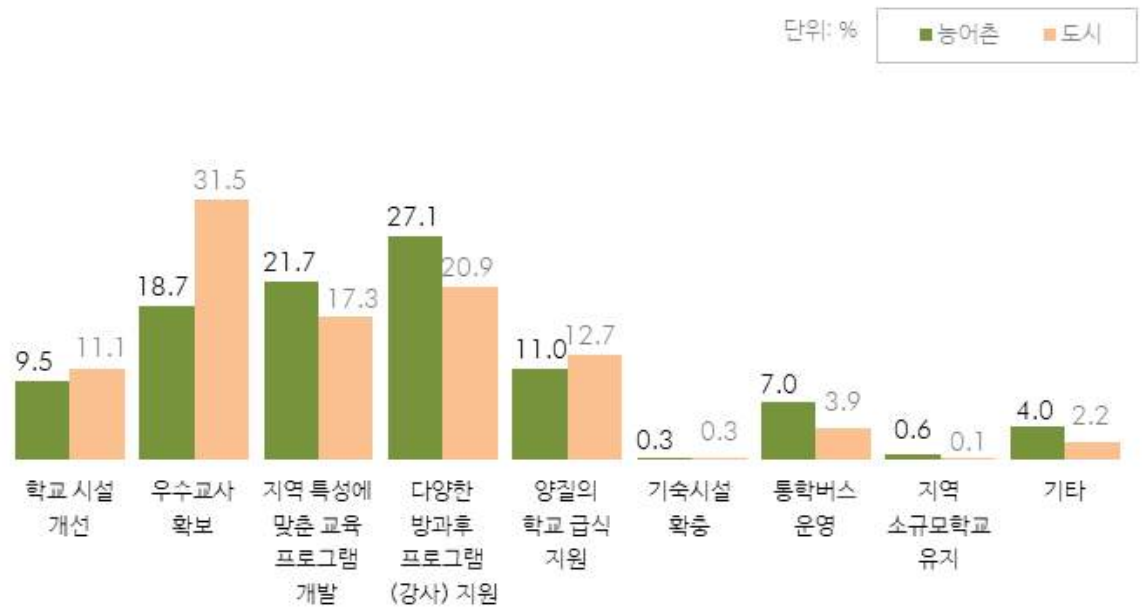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535)/도시 가구(n=27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강사) 지원’(27.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개발’(21.7%), ‘우수 교사 확보’(18.7%), ‘양질의 학교 급식 지원’(11.0%), ‘학교 시설 개선’(9.5%), ‘통학버스 운영’(7.0%) 순이었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강사) 지원’ 비율이 높은 반면(+6.2%p), ‘우수교사 확보’ 비율은 낮았다(-12.8%p).

| 그림 1403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읍지역,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 향후 5년 내 이주 의향층,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층에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강사) 지원’ 비율이 높았으며, 이주 비의향층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비율이 높았다. 면지역, 40대 연령층,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층에서 ‘우수교사 확보’, 농어가, 이주 의향층에서 ‘통학버스 운영’ 비율이 높았다.

| 표 1403 - (1)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단위 : %(명)

구분			학교 시설 개선	우수 교사 확보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 그램 개발	다양한 방과 후 프로 그램 (강사) 지원	양질의 학교 급식 지원	기숙 시설 확충	통학 버스 운영	지역 소규모 학교 유지	기타
농어촌 (496)			9.5	18.7	21.7	27.1	11.0	0.3	7.0	0.6	4.0
읍/면	읍 (316)		9.0	17.2	22.4	29.4	10.3	0.5	7.2	0.4	3.5
	면 (180)		10.4	21.5	20.4	23.1	12.1		6.7	0.9	4.9
영농 여부	농어가 (86)		11.9	16.5	17.4	22.9	13.2		15.5	1.6	1.1
	비농어가 (410)		9.0	19.2	22.6	28.0	10.5	0.4	5.2	0.4	4.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52)		2.6	1.1	28.3	36.3	12.0		12.4		7.4
	40대 (268)		12.1	27.3	19.1	21.9	12.8	0.6	2.5	0.6	3.0
	50대 이상 (66)		16.7	17.7	20.5	24.8	2.7		14.2	2.1	1.4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62)		5.6	20.0	9.2	35.2			14.2	2.7	13.1
	비의향층 (434)		10.1	18.6	23.5	26.0	12.5	0.4	6.0	0.3	2.8
학교급	초등학교 (307)		8.2	9.7	27.3	35.1	7.2	0.5	5.1	0.4	6.4
	중고등학교 (190)		11.6	33.3	12.7	14.1	17.1		10.0	0.9	0.2
도시 (269)			11.1	31.5	17.3	20.9	12.7	0.3	3.9	0.1	2.2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추이

- 2013년 대비,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개발'(-7.2%p) 비율이 감소한 반면, '양질의 학교급식 지원'(+7.2%p),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강사) 지원'(+4.7%p) 증가

| 표 1403 - (2) |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추이

단위 : %(명)

구분		학교 시설 개선	우수 교사 확보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 지원	양질의 학교 급식 지원	기숙 시설 확충	통학 버스 운영	지역 소규모 학교 유지	기타
2018년	(496)	9.5	18.7	21.7	27.1	11.0	0.3	7.0	0.6	4.0
2013년	(545)	12.1	21.1	28.9	22.4	3.8	1.4	6.0	1.1	2.0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3년 '없음'(1.3%)은 제시하지 않음

1404 > 평생교육 경험 및 수요

- ▶ '스포츠·건강교육'의 수강 경험률(8.0%) 및 향후 수강 의향률(23.9%) 가장 높게 나타남
- ▶ 만족도로는 '문해교육'(평균 76.5점)이 가장 높음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8.0%)이 '스포츠·건강교육'을 수강한 경험 있음

귀하께서는 지난 1년(2017.09.01 ~ 2018.08.31) 동안 다음의 평생교육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여하신 활동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향후 참여 의사는 어떠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지난 1년 동안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8.0%)이 스포츠, 건강/의료 강좌 등 '스포츠·건강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기술교육, 생활개선교육 등 '농촌생활 관련 교육' 수강 경험률이 5.1%, 문화, 음악, 미술 강좌 등 '문화예술교육' 수강 경험률이 4.3%, 워드,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등 '정보화교육'(3.4%), 자격증 강좌, 취업/창업 준비과정 등 '직업능력교육'(3.0%), 마을리더/자치위원 교육, 인권교육 등 '시민참여교육'(2.9%), 경제/경영, 역사, 철학 등 '인문교양교육'(2.1%), '문해교육'(0.7%) 순으로 나타났다.

면지역, 농어가에서 평생교육을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층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농어촌에서 '농촌생활 관련 교육' 비율이 높았다(+4.9%p).

| 표 1404 - (1) | 평생교육 경험

단위 : %(명)

구분		평생 교육 경험률	농촌 생활 관련 교육	문해 교육	인문 교양 교육	정보화 교육	직업 능력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시민 참여 교육	스포츠· 건강 교육	기타
농어촌 (2,780)		17.0	5.1	0.7	2.1	3.4	3.0	4.3	2.9	8.0	0.1
읍면 여부	읍 (1,228)	12.5	2.1	0.3	3.0	2.9	4.2	3.7	1.4	6.8	-
	면 (1,552)	20.5	7.5	1.1	1.4	3.8	2.1	4.7	4.2	9.0	0.2
영농 여부	농어가 (853)	27.2	14.5	1.3	2.2	4.4	2.0	6.0	6.2	9.8	0.0
	비농어가 (1,927)	12.5	1.0	0.5	2.0	2.9	3.5	3.5	1.5	7.3	0.1
도시 (1,149)		16.9	0.2	0.7	5.2	2.2	3.8	6.2	0.8	7.1	0.1

 평생교육 경험 - 추이

-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2015년 대비 평생교육을 하나라도 들은 적이 있는 경험층 비율이 감소함(-4.9%p)

| 표 1404 - (2) | 평생교육 경험 - 추이

단위 : %(명)

구분		평생 교육 경험층	농촌 생활 관련 교육	문화 교육	인문 교양 교육	정보화 교육	직업 능력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시민 참여 교육	스포츠· 건강 교육	기타
2018년	(2,780)	17.0	5.1	0.7	2.1	3.4	3.0	4.3	2.9	8.0	0.1
2015년	(3,934)	21.9	8.2	1.1	2.8	3.3	2.9	5.3	-	9.6	
2013년	(2,764)	20.4	8.7	1.0	2.7	4.1	3.7	3.7	-	6.8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평생교육은 '문해교육'(평균 76.5점)으로 전반적으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

귀하께서는 지난 1년(2017.09.01 ~ 2018.08.31) 동안 다음의 평생교육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여하신 활동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향후 참여 의사는 어떠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 측정 값]

'문해교육'(평균 76.5점), '스포츠·건강교육'(평균 70.4점), '문화예술교육'(평균 69.8점), '농촌생활 관련 교육'(평균 68.8점), '시민참여교육'(평균 68.4점), '직업능력교육'(평균 66.8점), '정보화교육'(평균 65.8점) 등 전반적으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을 보인 반면, '인문교양교육'(평균 47.6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시민참여교육'(+18.5점), '문해교육'(+10.6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교양교육'은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20.6점).

| 표 1404 - (3) | 평생교육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농촌생활 관련 교육	문해 교육	인문 교양 교육	정보화 교육	직업 능력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시민 참여 교육	스포츠· 건강 교육
농어촌		68.8	76.5	47.6	65.8	66.8	69.8	68.4	70.4
읍면 여부	읍	68.7	74.3	49.1	59.9	71.3	72.5	64.4	69.6
	면	68.8	77.1	45.0	69.2	59.5	68.2	69.4	70.9
영농 여부	농어가	69.2	77.7	56.5	71.1	56.9	73.6	69.1	71.9
	비농어가	66.5	75.1	43.3	62.2	69.3	67.0	67.1	69.6
도시		73.2	65.9	68.2	68.0	69.1	67.3	49.9	67.2

* '기타' 만족도는 사례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가장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스포츠·건강교육'(23.9%)

귀하께서는 지난 1년(2017.09.01 ~ 2018.08.31) 동안 다음의 평생교육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여하신 활동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향후 참여 의사는 어떠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수강 경험률이 높고 만족도가 높았던 '스포츠·건강교육'이 향후 수강 의향률(23.9%) 또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14.9%), '정보화교육'(12.5%), '직업능력교육'(11.3%), '농촌생활 관련 교육'(9.2%), '인문교양교육'(7.5%), '시민참여교육'(7.0%), '문해교육'(3.8%) 순으로 나타났다.

면지역, 농어가, 50-60대 연령층에서 '농촌생활 관련 교육' 참여 의향률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문화예술교육', '스포츠·건강교육' 참여 의향률이 높았으며,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직업능력교육',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인문교양교육'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농촌생활 관련 교육' 참여 의향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4.1%p), '스포츠·건강교육'(-8.6%p), '인문교양교육'(-8.0%p), '직업능력교육'(-5.1%p), '문화예술교육'(-4.3%p) 참여 의향률은 낮았다.

| 표 1404 - (4) | 향후 평생교육 참여 의향

단위 : %(명)

구분			농촌 생활 관련 교육	문해 교육	인문 교양 교육	정보화 교육	직업 능력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시민 참여 교육	스포츠· 건강 교육	기타
농어촌 (2,780)			9.2	3.8	7.5	12.5	11.3	14.9	7.0	23.9	0.1
읍면 여부	읍	(1,228)	5.8	3.1	9.7	13.5	14.4	16.0	4.3	22.7	
	면	(1,552)	12.0	4.4	5.8	11.7	8.8	14.1	9.1	24.8	0.2
영농 여부	농어가	(853)	19.9	5.7	6.1	12.5	8.9	14.7	12.1	27.7	0.0
	비농어가	(1,927)	4.5	3.0	8.2	12.5	12.3	15.0	4.7	22.2	0.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2.8	2.0	11.9	12.7	16.3	16.4	6.7	22.8	
	40대	(494)	8.4	2.5	11.4	16.9	16.6	18.9	5.2	25.6	0.5
	50대	(608)	15.6	5.2	9.4	21.0	17.1	17.7	12.2	29.0	
	60대	(492)	14.9	5.5	5.6	11.2	5.9	15.0	9.0	29.8	
	70대 이상	(620)	5.1	3.2	0.7	2.4	1.2	8.3	2.4	14.0	0.0
도시 (1,149)			5.1	4.7	15.5	11.8	16.4	19.2	3.6	32.5	0.1

평생교육 참여 의향 - 추이

- ‘스포츠·건강교육’이 2015년에 비해 약간 감소(-3.7%p)

| 그림 1404 | 평생교육 참여 의향 - 추이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8년에 추가된 항목인 '시민참여교육'(7.0%)과 '기타' 항목은 제시하지 않음

1405> 평생교육 참여의 어려움

▶ '시간적 여유가 없다'(37.1%)가 주된 어려움

귀하께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평생교육을 받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37.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14.2%), '비용이 부담된다'(8.3%), '지역에 제공하는 시설(기관)이 없다'(6.8%), '이동이 불편하다'(6.3%),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6.0%),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없다'(5.4%) 순이었다.

읍지역,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면지역,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6.4%p), '시간적 여유가 없다'(+4.9%p) 비율이 높은 반면, '비용이 부담된다'(-6.5%p) 비율은 낮았다.

| 표 1405 - (1) | 평생교육 참여의 어려움

단위: %(명)

구분		비용이 부담된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역에 제공하는 시설(기관)이 없다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이동이 불편하다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기타	해당 없음
농어촌 (2,756)		8.3	37.1	6.8	5.4	6.3	14.2	6.0	0.6	15.4
읍/면	읍 (1,211)	8.7	41.9	4.7	6.1	6.3	7.8	7.3	0.7	16.4
	면 (1,545)	8.0	33.2	8.5	4.8	6.3	19.2	4.9	0.5	14.5
영농 여부	농어가 (851)	5.2	39.9	8.9	4.1	7.3	14.1	8.1	0.0	12.4
	비농어가 (1,905)	9.8	35.8	5.9	6.0	5.9	14.2	5.0	0.8	16.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8)	9.4	51.8	4.1	9.0	4.7		5.7	2.3	12.8
	40대 (489)	5.5	45.9	8.6	7.3	7.1	2.6	5.8	0.1	17.2
	50대 (601)	10.4	46.2	5.7	3.8	5.4	1.1	7.2		20.2
	60대 (490)	8.6	36.0	11.6	6.1	7.8	9.6	6.2	0.5	13.6
	70대 이상 (620)	7.7	9.6	5.3	2.1	7.1	50.7	5.1	0.1	12.3
도시 (1,145)		14.8	32.2	2.9	3.8	2.3	7.8	10.3	0.8	25.1

평생교육 참여의 어려움 - 추이

- 문항 구성이 달라 2015년과 동등비교가 어려운 가운데, 2013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임

| 표 1405 - (2) | 평생교육 참여의 어려움 - 추이

단위 : %(명)

구분		비용이 부담된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역에 제공 하는 시설 (기관)이 없다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이동이 불편하다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기타	해당 없음
2018년	(2,756)	8.3	37.1	6.8	5.4	6.3	14.2	6.0	0.6	15.4
2015년	(3,665)	4.1	43.9	12.7	7.4	4.6	17.0	10.0	0.4	-
2013년	(2,738)	11.4	38.0	8.6	3.8	5.0	11.4	5.4	0.9	15.6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5년은 '해당 없음' 항목이 없음



1500> 문화·여가

여건

- 1501> 주된 문화·여가활동
- 1502>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1503>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
- 1504> 문화·여가활동 시 어려움
- 1505>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및 수요

1501 > 주된 문화·여가활동

▶ 'TV 및 라디오 시청'(33.0%)이 주된 문화·여가활동

귀하께서는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십니까?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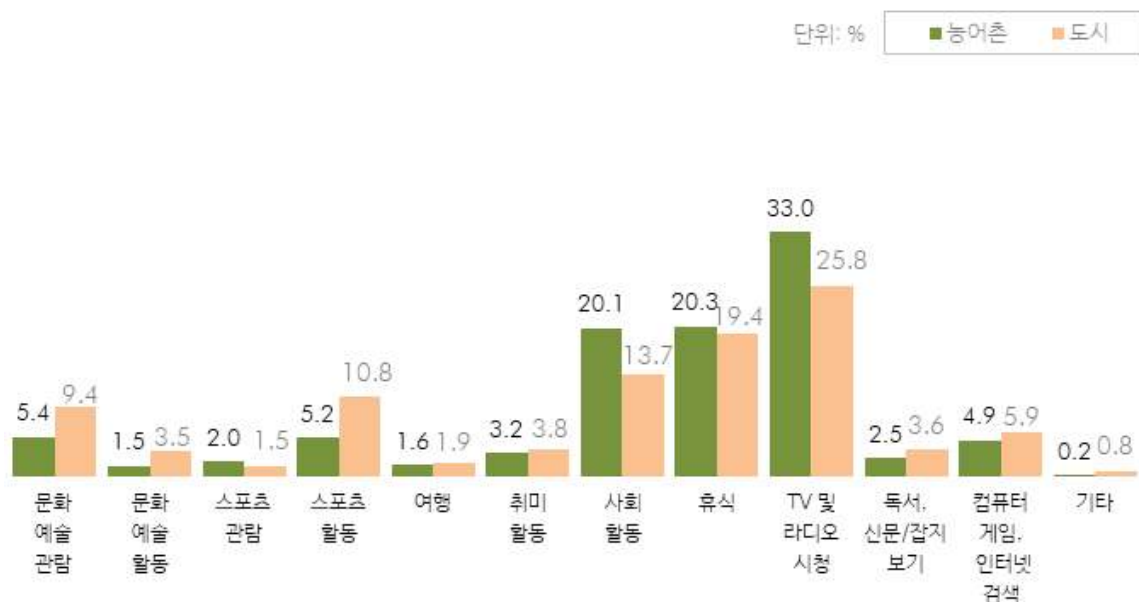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복수 응답 :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

'TV 및 라디오 시청'(33.0%)이 주된 문화·여가활동으로 나타난 가운데, '휴식'(20.3%), '사회활동'(20.1%)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포츠활동'(5.2%), '스포츠관람'(2.0%) 등 [스포츠 관련 활동](7.2%), '문화예술관람'(5.4%), '문화예술활동'(1.5%) 등 [문화예술 관련활동](6.9%),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4.9%), '취미활동'(3.2%), '독서, 신문/잡지 보기'(2.5%), '여행'(1.6%) 순이었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TV 및 라디오 시청'(+7.2%p), '사회활동'(+6.4%p) 비율이 높은 반면, '스포츠활동'(-5.6%p), '문화예술 관람'(-4.0%p) 비율이 낮았다.

| 그림 1501 | 주된 문화·여가활동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면지역,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TV 및 라디오 시청'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농어가에서 '사회활동',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문화예술관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1501 - (1) | 주된 문화·여가활동

단위: %(명)

구분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활동	스포 츠 관람	스포 츠 활동	여행	취미 활동	사회 활동	휴식	TV 및 라디 오 시청	독서, 신문/ 잡지 보기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기타
농어촌 (2,751)			5.4	1.5	2.0	5.2	1.6	3.2	20.1	20.3	33.0	2.5	4.9	0.2
읍/면	읍	(1,214)	5.9	1.6	1.9	7.2	2.0	4.4	18.3	20.3	29.0	2.7	6.7	0.1
	면	(1,537)	5.0	1.5	2.2	3.6	1.2	2.3	21.5	20.4	36.2	2.4	3.5	0.2
영농 여부	농어가	(850)	1.8	1.7	1.3	3.5	1.1	2.2	26.7	22.0	35.0	1.7	2.8	0.2
	비농어가	(1,901)	7.0	1.4	2.4	5.9	1.7	3.7	17.1	19.6	32.1	2.9	5.9	0.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6)	13.2	1.0	4.0	6.0	4.4	4.2	17.7	10.6	22.8	2.3	13.8	0.0
	40대	(491)	9.2	1.9	1.7	8.4	2.0	5.6	11.5	17.8	31.0	4.1	6.6	0.2
	50대	(600)	3.6	2.3	2.7	6.1	0.5	3.8	19.2	24.8	30.6	2.7	3.4	0.1
	60대	(488)	1.8	1.9	1.6	5.0	0.9	2.2	24.8	21.6	36.3	2.0	1.6	0.3
	70대 이상	(620)	0.6	0.8	0.5	1.4	0.4	0.9	25.9	24.8	42.9	1.2	0.4	0.2
도시 (1,147)			9.4	3.5	1.5	10.8	1.9	3.8	13.7	19.4	25.8	3.6	5.9	0.8



주된 문화·여가활동 - 추이

- 2014년 대비, '사회활동'(+5.7%p), 'TV 및 라디오 시청'(+3.8%p) 비율이 약간 증가한 반면, '스포츠 활동'(-12.3%p) 비율이 감소

| 표 1501 - (2) | 주된 문화·여가활동 - 추이

단위 : %(명)

구분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활동	스포 츠 관람	스포 츠 활동	여행	취미 활동	사회 활동	휴식	TV 및 라디 오 시청	독서, 신문/ 잡지 보기	컴퓨 터 게임, 인터 넷 검색	기타
2018년	(2,751)	5.4	1.5	2.0	5.2	1.6	3.2	20.1	20.3	33.0	2.5	4.9	0.2
2014년	(3,929)	5.4	1.4	1.5	17.5	3.3	4.8	14.4	17.8	29.2	2.0	1.9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4년은 단일항목을 선택함/ 2018년은 문화·여가활동 2가지를 순위별로 선택하여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함

1502>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문화여가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51.8점)의 평가

귀하께서는 귀하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측정 값]

문화·여가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51.8점)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만족하지 않는 편'(12.9%), '매우 불만족'(2.5%) 등 [불만족(합)]이라는 비율이 15.4%로, '만족하는 편'(23.6%), '매우 만족'(0.8%) 등 [만족(합)](24.4%)에 비해 낮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만족(합)](-10.1%p) 비율이 낮고, 본인의 문화·여가 활동에 대해 만족도가 약간 낮았다(-3.0점).

| 표 1502 |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만족(합)	보통	만족하지 않는 편	매우 불만족	불만족(합)
농어촌 (2,650)			51.8점	0.8	23.6	24.4	60.2	12.9	2.5	15.4
읍/면	읍	(1,170)	52.5점	0.9	24.6	25.5	61.2	10.0	3.3	13.3
	면	(1,479)	51.3점	0.7	22.8	23.5	59.4	15.3	1.8	17.1
영농 여부	농어가	(819)	53.1점	0.9	26.6	27.5	57.4	14.0	1.0	15.1
	비농어가	(1,831)	51.3점	0.8	22.3	23.0	61.4	12.5	3.1	15.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1)	50.7점	4.1	12.0	16.1	61.4	22.2	0.3	22.5
	40대	(478)	51.0점	3.9	13.0	17.0	58.6	24.0	0.4	24.5
	50대	(565)	51.5점	3.1	16.0	19.1	54.5	24.8	1.6	26.4
	60대	(466)	54.2점	1.1	10.5	11.7	59.3	28.4	0.7	29.1
	70대 이상	(594)	52.1점	0.5	13.1	13.5	64.7	20.9	0.8	21.7
주된 문화·여가 활동 (1순위)	문화예술	(222)	56.2점	2.0	35.9	37.9	49.0	10.9	2.2	13.0
	스포츠	(224)	58.6점	1.0	43.6	44.6	44.7	10.1	0.6	10.7
	여행	(37)	55.8점	1.1	30.0	31.1	60.0	9.0		9.0
	취미활동	(91)	57.3점	0.4	34.0	34.4	60.8	3.9	0.9	4.8
	사회활동	(524)	57.4점	1.0	37.4	38.4	52.5	8.4	0.7	9.1
	휴식	(437)	48.2점	1.6	14.8	16.4	62.3	17.4	4.0	21.3
	TV 및 라디오 시청	(931)	48.3점	0.1	12.6	12.7	69.5	16.1	1.7	17.8
	기타	(165)	49.4점	0.3	16.9	17.3	67.1	11.2	4.5	15.7
도시 (1,131)			54.8점	1.0	33.5	34.5	50.1	14.6	0.8	15.4

1503>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

▶ ‘여행’(31.8%)이 주된 희망하는 문화·여가 활동

귀하께서 앞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복수 응답 :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

“해외여행”, “국내여행” 등 ‘여행’(31.8%)이 주된 희망하는 문화·여가 활동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휴식”, “TV시청” 등 ‘휴식’(22.6%), “영화보기”, “연극공연 관람” 등 ‘문화예술관람’(11.2%), “악기연주/노래교실” 등 ‘문화예술활동’(5.3%) 등 [문화예술 관련 활동](16.5%), “헬스/에어로빅”, “요가/필라테스/태보” 등 ‘스포츠활동’(12.5%), ‘스포츠관람’(3.0%) 등 [스포츠 관련 활동](15.5%), “등산” 등 ‘취미활동’(9.4%),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4.1%)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휴식’(+9.5%p) 비율이 높은 반면, ‘여행’(4.4%p) 비율은 낮았다.

면지역, 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휴식’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문화예술 관람’ 비율이 높았다.

| 표 1503 |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

단위 : %(명)

구분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여행	취미 활동	사회 활동	휴식	기타
농어촌 (2,631)			11.2	5.3	3.0	12.5	31.8	9.4	4.1	22.6	0.1
읍/면	읍 (1,184)		13.6	5.6	3.7	13.6	32.2	10.4	4.0	16.8	0.2
	면 (1,448)		9.1	5.1	2.4	11.5	31.6	8.5	4.3	27.5	
영농 여부	농어가 (813)		7.0	4.5	2.7	11.4	29.4	8.4	5.2	31.2	0.3
	비농어가 (1,819)		13.0	5.7	3.2	12.9	32.9	9.8	3.7	18.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8)		17.2	4.4	5.4	15.2	34.3	11.6	3.1	8.9	
	40대 (483)		14.1	6.6	2.5	18.4	37.1	8.4	3.0	9.9	
	50대 (576)		11.6	5.2	3.9	11.9	33.7	11.7	5.1	16.6	0.4
	60대 (473)		8.6	5.8	2.3	10.3	32.4	9.7	5.0	25.8	0.1
	70대 이상 (555)		3.8	5.1	0.8	7.3	21.1	5.5	4.3	52.0	
도시 (1,124)			12.7	7.2	3.1	12.3	36.2	12.7	2.6	13.1	0.1

하고싶은 문화·여가 활동 - 세부사항

[개방형 질문 : 농어촌 가구(n=2,780)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복수 응답 :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

구분	세부사항
문화예술관람 (11.2%)	· 영화보기(5.7%), 연극공연 관람(2.0%) 등
문화예술활동 (5.3%)	· 악기연주/노래교실(2.8%), 미술활동(1.1%) 등
스포츠 관람 (3.0%)	· 간접관람(TV, 인터넷 등)(2.8%), 직접관람(경기장 방문)(0.4%) 등
스포츠 활동 (12.5%)	· 헬스/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태보(3.0%), 수영(2.0%), 농구/배구/야구/축구/족구(1.9%), 골프(1.5%) 등
여행 (31.8%)	· 해외여행(23.0%) , 국내여행(3.5%),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삼림욕(1.6%) 등
취미활동 (9.4%)	· 등산(2.7%), 생활공예(1.8%), 낚시(1.2%), 요리/다도(1.1%), 독서/자기계발(1.0%) 등
사회활동 (4.1%)	· 사회봉사활동(2.6%), 친구만남/동호회 모임(1.8%) 등
휴식 (22.6%)	· “휴식”, “쉬고싶다” 등 기타 휴식활동(13.6%), TV시청(1.4%), 낮잠(1.0%), 산책(0.9%) 등

* 세부사항은 개방형 질문으로 ‘기타’(0.1%)는 제시하지 않음



하고 싶은 문화여가 활동 - 추이

- 2014년 대비, '스포츠 활동'(-5.8%p), '문화예술활동'(-2.6%p) 비율이 약간 감소한 반면, '휴식'(+7.8%p) 비율이 증가

| 표 1503 - (2) |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 - 추이

단위 : %(명)

구분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여행	취미 활동	사회 활동	휴식	기타
2018년	(2,631)	11.2	5.3	3.0	12.5	31.8	9.4	4.1	22.6	0.1
2014년	(3,930)	11.6	7.9	3.5	18.3	30.7	9.2	3.8	14.8	0.2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4년은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 3가지를 순위별로 선택하여 1순위×3+2순위×2+3순위×1로 가중치 부여함/
2018년은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 2가지를 순위별로 선택하여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함

1504 문화·여가활동 시 어려움

▶ '시간적 여유가 없다'(30.2%)가 주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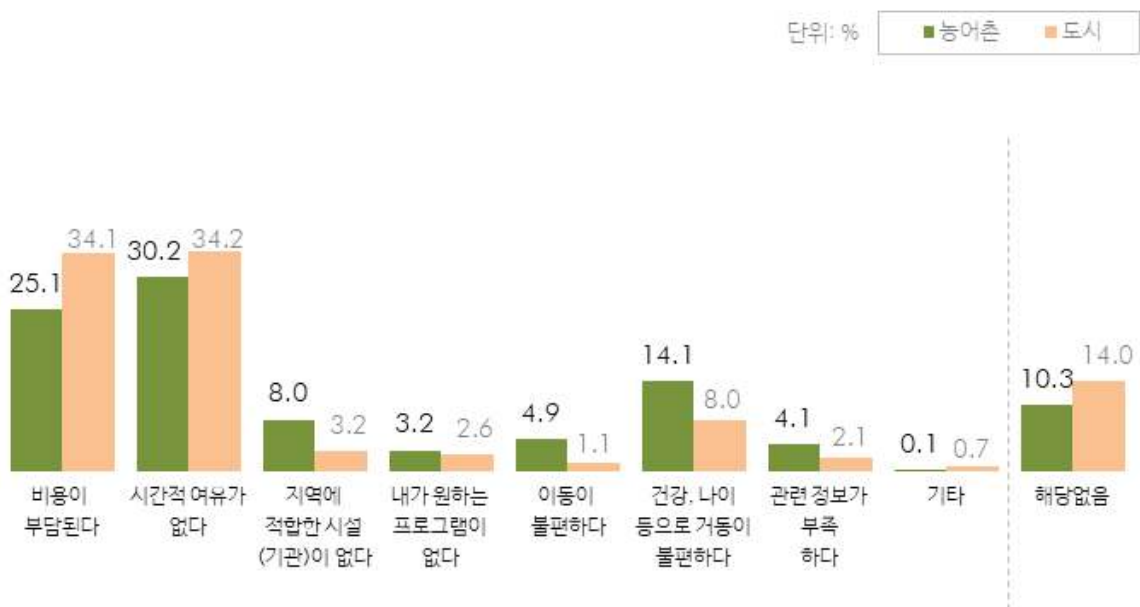
귀하께서 문화·여가활동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주된 어려움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30.2%)가 나타난 가운데, 아울러 '비용이 부담된다'(25.1%)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14.1%), '지역에 적합한 시설(기관)이 없다'(8.0%), '이동이 불편하다(교통불편, 거리가 멀다 등)'(4.9%),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4.1%),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3.2%)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비용이 부담된다'(9.0%p) 비율이 낮은 반면,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6.1%p) 비율이 높았다.

| 그림 1504 | 문화·여가 활동 시 어려움



읍지역, 농어가, 문화예술, 스포츠, 취미활동 희망층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비농어가, 여행 희망층에서 ‘비용이 부담된다’, 면지역, 70대 이상 연령층, 휴식 희망층에서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비율이 높았다.

| 표 1504 - (1) | 문화·여가 활동시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비용이 부담된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역에 적합한 시설(기관)이 없다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이동이 불편하다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기타	해당 없음 (어려움이 없음, 필요를 느끼지 않음 등)
농어촌 (2,757)		25.1	30.2	8.0	3.2	4.9	14.1	4.1	0.1	10.3
읍/면	읍 (1,215)	27.6	34.8	8.2	4.3	5.0	7.3	5.1	0.1	7.6
	면 (1,542)	23.2	26.5	7.9	2.4	4.8	19.4	3.3	0.0	12.4
영농 여부	농어가 (849)	19.1	33.2	8.6	2.5	5.1	13.7	6.2	0.0	11.6
	비농어가 (1,908)	27.8	28.8	7.8	3.6	4.8	14.3	3.2	0.1	9.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30.2	43.3	6.2	5.7	4.2		1.9		8.5
	40대 (490)	28.7	33.0	12.6	5.4	3.5	3.1	3.4		10.3
	50대 (599)	24.5	40.3	8.3	2.2	4.2	2.3	6.7	0.2	11.2
	60대 (488)	28.7	29.2	8.4	2.6	5.6	10.0	5.5		10.0
	70대 이상 (614)	16.8	6.8	5.9	0.9	7.0	48.9	3.3	0.1	10.4
하고 싶은 문화·여가 활동 (1순위)	문화예술 (404)	21.4	40.4	10.6	7.6	9.2	5.6	2.5	0.1	2.6
	스포츠 (396)	22.5	39.5	11.3	3.9	6.4	2.8	3.4		10.3
	여행 (877)	37.1	30.8	9.7	1.8	2.5	7.1	3.4	0.1	7.4
	취미활동 (209)	29.9	38.9	5.0	7.3	7.7	3.2	3.2	0.1	4.7
	사회활동 (99)	18.8	19.3	9.1	6.4	6.7	7.6	7.8		24.4
	휴식 (632)	14.0	20.3	4.3	0.7	3.7	35.5	7.2		14.3
도시 (1,142)		34.1	34.2	3.2	2.6	1.1	8.0	2.1	0.7	14.0



문화여가활동 시 어려움 - 추이

- 문항 구성이 달라 동등비교가 어려운 가운데, 2013년 대비 '비용이 부담 된다'(+11.8%p) 비율이 다소 증가한 반면, '지역에 적합한 시설(기관)이 없다'(-5.9%p) 비율은 약간 감소

| 표 1504 - (2) | 문화여가활동 시 어려움 - 추이

단위: %(명)

구분		비용이 부담 된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역에 적합한 시설 (기관) 이 없다	내가 원하는 프로 그램이 없다	이동이 불편 하다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 하다	함께 할 사람이 없다	관련 정보가 부족 하다	기타	해당 없음
2018년	(2,757)	25.1	30.2	8.0	3.2	4.9	14.1	-	4.1	0.1	10.3
2013년	(2,704)	13.3	32.9	13.9	4.8	7.6	-	3.7	3.7	2.0	19.8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8년에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항목이 추가되고 '함께할 사람이 없다' 항목이 삭제됨

1505>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및 수요

▶ '전통놀이' 경험률(8.7%)과 만족도(평균 74.5점), 향후 참여 의향(15.1%)이 가장 높음

 '전통 놀이'(8.7%) 경험률이 가장 높음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전통문화 또는 농촌문화를 활용한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전반적으로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여가 활동 참여율이 10% 미만으로 높지 않은 가운데,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널뛰기, 고누, 공기놀이 등 '전통놀이'(8.7%)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면지역, 농어가, 60대 이상 연령층, 선주민층에서 '전통놀이' 경험률이 다소 높았다.

도시 대비, '전통놀이'(+6.3%p) 경험율이 약간 높았다.

| 표 1505 - (1)|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단위 : %(명)

구분		전통예술	전통 의식주	전통무예	공동체 의례	공동체 놀이	전통 놀이	기타
농어촌 (2,780)		2.5	1.4	1.0	1.1	2.7	8.7	0.2
읍/면	읍 (1,228)	2.4	1.9	1.0	0.7	2.9	4.1	0.0
	면 (1,552)	2.5	0.9	0.9	1.4	2.5	12.4	0.4
영농 여부	농어가 (853)	3.8	1.2	1.3	2.0	3.7	16.6	0.3
	비농어가 (1,927)	1.9	1.4	0.8	0.6	2.3	5.3	0.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1.0	1.5	0.7		1.6	2.2	
	40대 (494)	2.3	3.1	0.8	0.3	4.3	8.2	
	50대 (608)	1.8	0.5	1.3	1.6	2.3	6.5	0.4
	60대 (492)	4.6	1.1	0.6	1.3	2.9	12.8	0.7
	70대 이상 (620)	3.0	1.0	1.2	1.7	2.5	13.7	0.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7)	2.2	1.6	0.7	0.6	2.8	5.4	0.2
	선주민 (994)	3.1	1.0	1.5	1.8	2.6	14.8	0.2
도시 (1,149)		1.7	1.1	0.5	0.3	0.6	2.4	0.2



전통문화 여가활동 참여 만족도가 가장 높은 활동은 '전통 놀이'(74.5점)

참여하신 활동에 대해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참여 만족도 : 활동별 참여층에 한해/ 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 측정 값]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경험층의 참여 만족도 역시 '전통놀이'(평균 74.5점)가 가장 높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60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읍지역에서 '전통예술', '전통무예' 만족도가 높은 반면, 농어가에서 '공동체 의례', '공동체 놀이', '전통놀이' 만족도가 높았다.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에 비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 1505 - (2) |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전통예술	전통의식주	전통무예	공동체의례	공동체 놀이	전통 놀이
농어촌		68.7	64.9	63.2	68.1	67.8	74.5
읍/면	읍	72.0	64.6	69.2	62.9	66.6	75.4
	면	66.2	65.4	57.7	70.0	68.8	74.2
영농 여부	농어가	70.0	66.8	68.7	70.9	72.4	76.3
	비농어가	67.5	64.3	59.2	64.2	64.5	71.9
도시		68.1	67.3	68.0	75.0	81.5	74.6

* '기타' 만족도는 사례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음

‘전통놀이’(15.1%)가 향후 참여의향도 가장 높음

향후(에도) 다음의 활용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참여 의향 :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향후 ‘전통놀이’(15.1%) 참여 의향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복, 천연염색, 매듭, 임식, 한과 등 만들기, 한옥 짓기 등 ‘전통 의식주’(10.5%), 농악, 민요, 전통무용, 전통공예, 한국화, 서예, 시조 등 ‘전통예술’(8.6%), 지신밟기, 강강술래, 줄다리기, 거북놀이, 달집 태우기 등 ‘공동체 놀이’(6.6%), 씨름, 국궁, 태권, 태권도 등 ‘전통무예’(3.3%), 동제, 산신제, 당산제, 성황제, 별신굿, 용왕제 등 ‘공동체 의례’(3.1%)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놀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면지역, 농어가, 60대 이상 연령층, 선주민층에서 참여 의향 또한 높은 반면,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전통의식주’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전통놀이’(+3.6%p) 비율이 약간 높은 반면, ‘전통예술’(4.2%p) 비율은 낮았다.

| 표 1505 - (3) |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향후 참여 의사

단위 : %(명)

구분		전통예술	전통 의식주	전통무예	공동체 의례	공동체 놀이	전통 놀이	기타
농어촌 (2,780)		8.6	10.5	3.3	3.1	6.6	15.1	0.2
읍/면	읍 (1,228)	9.1	10.0	3.0	2.4	5.3	11.7	0.0
	면 (1,552)	8.2	10.9	3.5	3.6	7.6	17.8	0.4
영농 여부	농어가 (853)	8.3	11.2	4.8	4.7	11.2	23.3	0.3
	비농어가 (1,927)	8.7	10.2	2.6	2.3	4.6	11.5	0.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7.9	12.4	2.4	2.3	3.5	12.9	
	40대 (494)	8.5	12.2	4.8	1.7	6.3	12.9	
	50대 (608)	9.5	14.0	4.3	4.6	8.4	11.8	0.4
	60대 (492)	11.5	10.6	3.7	4.5	8.8	20.2	0.7
	70대 이상 (620)	6.5	4.4	1.5	2.2	5.6	18.0	0.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7)	9.5	11.6	2.8	2.7	6.2	12.5	0.2
	선주민 (994)	7.0	8.6	4.1	3.8	7.3	19.8	0.2
도시 (1,149)		12.8	12.7	3.8	2.5	5.4	11.5	0.2



1600> 기초생활

여건

- 1601> 주거 현황
- 160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 1603> 난방시설 현황
- 1604> 난방비 부담
- 1605> 주택에 대한 만족도
- 1606> 주택 개보수 필요성
- 1607> 상수도 및 하수도 종류
- 1608> 쓰레기 처리 방법
- 1609>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 1610> 마을 안전 체감도
- 1611>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601 > 주거 현황

- ▶ 주택의 평균 노후정도는 평균 22.4년, '자가' 비율이 74.1%
- ▶ '단독주택' 비율이 56.9%, 이 중 슬레이트 지붕은 9.7%

 주택의 평균 노후정도는 평균 22.4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건축(신축)년도는 언제입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2000년대’(34.2%), ‘1990년대’(21.6%)에 건축(신축)된 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980년대 이전에 지어져 30년 이상 된 농어촌 주택이 27.2%로 전체 농어촌 가구의 1/3 가량을 차지했다. 1960년대 이전에 지어져 5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6.8%로 나타났다. 농어촌 주택의 평균 노후정도는 22.4년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층에서 주택 건축(신축) 후 경과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대비, 주택의 노후 정도가 비슷한 수준이다(+1.4년).

| 표 1601 - (1) | 주거 현황(1) - 주택의 건축·신축년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1950 년대 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 이후
농어촌 (2,707)		22.4년	3.1	3.7	7.9	12.5	21.6	34.2	17.0
읍/면	읍 (1,181)	20.8년	1.8	2.5	6.2	14.8	20.3	39.0	15.4
	면 (1,527)	23.7년	4.2	4.6	9.1	10.8	22.5	30.5	18.3
영농 여부	농어가 (843)	26.1년	3.0	5.8	12.5	15.0	29.0	20.4	14.3
	비농어가 (1,864)	20.7년	3.2	2.7	5.8	11.4	18.2	40.4	18.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4)	14.5년		1.1	3.8	4.0	11.1	51.7	28.4
	40대 (474)	19.3년	1.8	1.3	5.3	10.0	24.0	39.0	18.6
	50대 (598)	21.3년	1.4	3.2	6.1	16.0	22.1	33.9	17.3
	60대 (478)	23.5년	2.7	2.9	9.8	12.6	29.6	27.4	15.0
	70대 이상 (606)	31.8년	9.1	8.6	13.7	17.6	22.9	19.7	8.5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23)	18.7년	1.8	1.9	4.7	10.5	18.0	42.6	20.6
	선주민 (979)	28.9년	5.5	6.8	13.2	16.2	27.9	19.5	10.9
도시 (1,097)		21.0년	1.3	1.7	2.2	11.3	44.4	27.9	11.2



'자가' 비율이 74.1%

주택의 점유형태는?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자가’(74.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월세’(12.7%), ‘전세’(9.4%), ‘무상’(3.7%) 순이었다.

단독주택 비율이 높았던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층에서 ‘자가’ 비율이 높은 반면, 이주 의향 이유로 ‘주택 관련 사유’ 비율이 높았던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층에서 ‘전세’, ‘월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자가’ 비율이 높은 반면(+14.0%p), ‘전세’(-9.0%p), ‘월세’(-6.8%p) 비율은 낮았다.

| 표 1601 - (2) | 주거 현황(2) - 주택의 점유형태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농어촌 (2,773)			74.1	9.4	12.7	3.7
읍/면	읍	(1,222)	69.4	12.2	16.4	2.0
	면	(1,551)	77.8	7.2	9.8	5.1
영농 여부	농어가	(853)	93.6	3.0	1.4	1.9
	비농어가	(1,920)	65.5	12.2	17.8	4.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50.5	19.9	23.4	6.1
	40대	(491)	61.8	14.9	15.9	7.5
	50대	(608)	76.7	7.6	13.4	2.3
	60대	(490)	87.7	3.0	8.1	1.3
	70대 이상	(618)	91.2	2.1	4.4	2.3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6)	64.0	13.8	17.3	4.9
	선주민	(991)	92.4	1.6	4.5	1.5
도시 (1,109)			60.1	18.4	19.5	2.0



‘단독주택’ 비율이 56.9%, 이 중 슬레이트 지붕은 9.7%로 낮은 수준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입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주택의 종류로 ‘단독주택’(56.9%), ‘아파트’(31.6%), ‘연립/다세대주택’(7.7%) 순이었으며, 단독주택 중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주택은 9.7%였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층에서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층에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단독주택’(+29.4%p) 비율이 높은 반면, ‘아파트’(-22.1%p) 비율이 낮았다.

| 표 1601 - (3) | 주거 현황(3) - 주택종류

단위: %(명)

구분			단독주택	슬레이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기타
농어촌 (2,780)			56.9	9.7	31.6	7.7	3.9
읍/면	읍 (1,228)		32.3	8.8	53.4	10.7	3.6
	면 (1,552)		76.3	10.0	14.3	5.3	4.2
영농 여부	농어가 (853)		94.6	9.3	3.3	0.6	1.6
	비농어가 (1,927)		40.2	10.2	44.1	10.8	4.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16.9	9.4	60.4	21.2	1.5
	40대 (494)		41.0	6.5	47.6	7.2	4.2
	50대 (608)		56.9	8.3	29.3	6.3	7.6
	60대 (492)		75.6	8.9	17.7	3.1	3.6
	70대 이상 (620)		88.1	13.0	8.0	1.5	2.4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7)		40.0	8.4	45.3	11.2	3.6
	선주민 (994)		86.9	10.8	7.0	1.5	4.5
도시 (1,149)			27.5	8.6	53.7	14.3	4.5

1602> 최저주거기준 미달¹¹⁾ 가구 현황

▶ 거주 주택이 최저주거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9.1%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농어촌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9.1%로, 세부 요건 중 '방 개수'(3.9%) 미충족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용 수세식 화장실'(3.4%), '최소 주거면적'(2.9%), '목욕시설'(2.2%), '전용 입식부엌'(1.3%) 순이었다.

주택 건축 및 신축연도가 오래될수록, 차상위계층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높았으며, 차상위계층에서 '전용 수세식 화장실' 미충족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미충족률이 약간 높았다(+2.8%p).

| 표 1602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단위: %(명)

구분			최저 주거기준 미달	방 개수	최소 주거면적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
농어촌 (2,780)			9.1	3.9	2.9	1.3	3.4	2.2
읍/면	읍	(1,228)	10.1	5.0	3.7	1.3	2.4	2.6
	면	(1,552)	8.3	3.0	2.2	1.3	4.2	1.8
영농 여부	농어가	(853)	8.9	2.9	2.8	1.8	4.9	2.3
	비농어가	(1,927)	9.1	4.3	2.9	1.1	2.7	2.1
주택 건축 및 신축연도	1960년대 이전	(185)	20.6	0.3	2.9	4.0	16.7	7.2
	1970년대	(213)	14.9	3.7	5.5	0.6	7.3	1.4
	1980년대	(340)	12.9	7.5	3.2	1.7	3.3	2.2
	1990년대 이후	(1,970)	6.7	3.7	2.5	0.9	1.6	1.5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 여부	수급	(169)	7.6	2.3	1.2	0.8	3.9	4.2
	차상위계층	(59)	16.0	2.9	1.9	2.5	9.1	5.6
	해당 없음	(2,552)	9.0	4.0	3.0	1.3	3.2	1.9
도시 (1,149)			6.3	4.2	1.7	0.7	0.8	1.1

11)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으로 방 개수,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 기준인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중 하나라도 미충족 되는 경우에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봄

1603> 난방시설 현황

▶ 난방시설로 '기름 보일러'(37.8%), '도시가스 보일러'(33.9%) 비율이 가장 높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복수 응답]

1순위 기준(n=2,750), '기름 보일러'(38.4%), '도시가스 보일러'(35.6%)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기 보일러'(9.9%), '프로판가스(LPG) 보일러'(5.9%), '화목 보일러'(4.0%), '연탄 보일러', '지역난방'(각 1.7%), '중앙난방'(0.9%), '재래식 아궁이'(0.2%) 순이었다. 2순위 기준(n=294), '기름 보일러'(26.4%), 전기장판 등 '기타'(26.2%), '화목 보일러'(20.8%), '연탄 보일러'(14.2%) 순이었다.

난방시설을 2가지 사용하는 가구(n=294) 중 '기름보일러'와 '화목보일러'를 함께 사용하는 가구가 (2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름보일러×기타'(21.1%), '기름보일러×연탄보일러'(17.8%), '도시가스 보일러×기타'(8.0%), '기름보일러×재래식 아궁이'(6.5%), '기름보일러×전기보일러'(5.5%), '전기보일러×기타'(3.5%) 순이었다.

도시 대비, '기름 보일러'(+30.7%p), '전기 보일러'(+8.9%p) 비율이 높은 반면, '도시가스 보일러'(-39.0%p), '지역 난방'(-9.6%p) 비율은 낮았다.

| 그림 1603 | 난방시설 현황



1순위 기준,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택 건축 및 신축년도가 최근일수록, 아파트, 연립/다세대/기타 거주층에서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택 건축 및 신축년도가 오래될수록, 단독주택 거주층에서 '기름 보일러' 비율이 높고, '전기 보일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1603 - (1) | 난방시설 현황(1순위)

단위 : %(명)

구분			중앙 난방	지역 난방	도시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가스 (LPG)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화목 보일러	재래식 아궁이	기타
농어촌 (2,750)			0.9	1.7	35.6	38.4	5.9	9.9	1.7	4.0	0.2	1.6
읍/면	읍	(1,203)	0.1	2.6	65.9	22.6	3.4	3.3	1.1	0.1	-	0.9
	면	(1,547)	1.5	1.0	12.1	50.6	7.9	15.1	2.1	7.1	0.4	2.2
영농 여부	농어가	(846)	0.2	0.1	4.6	62.3	2.5	17.6	2.2	7.3	0.5	2.7
	비농어가	(1,903)	1.1	2.4	49.5	27.8	7.4	6.5	1.4	2.6	0.1	1.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8)	1.1	2.8	68.4	11.9	6.6	5.6	0.6	2.7	-	0.3
	40대	(483)	2.3	4.6	51.3	25.1	4.6	6.3	2.2	2.6	-	1.0
	50대	(606)	0.5	1.3	32.4	39.2	9.8	8.9	0.7	5.5	0.1	1.6
	60대	(489)	0.4	0.2	23.5	47.0	5.3	14.7	1.3	4.5	0.3	2.8
	70대 이상	(617)	0.3	0.1	9.9	63.4	1.9	13.4	3.3	4.8	0.6	2.4
주택 건축 및 신축 년도	1960년대 이전	(185)	0.5	-	1.3	79.0	1.9	6.5	4.0	2.3	2.1	2.5
	1970년대	(210)	-	-	5.2	70.7	1.0	11.3	4.8	5.0	0.3	1.7
	1980년대	(338)	0.6	-	29.4	45.7	5.7	10.0	3.6	3.5	0.1	1.4
	1990년대 이후	(1,950)	1.1	2.4	42.5	30.2	7.0	10.2	0.8	4.3	0.0	1.6
주택 종류	단독주택	(1,569)	0.2	0.4	5.7	63.1	3.1	15.7	2.8	6.0	0.3	2.7
	아파트	(860)	2.4	4.5	84.8	0.2	8.1	0.0	-	-	-	-
	연립/다세대/기타	(321)	0.0	0.7	50.2	20.2	14.0	8.4	0.4	5.5	-	0.7
도시 (1,146)			2.4	11.3	74.6	7.7	1.2	1.0	1.4	0.4	-	0.1

2순위 기준, 읍지역, 비농어가, 아파트, 연립/다세대/기타 거주층에서 ‘기타’ 비율이 높은 반면, 농어가, 단독주택 거주층에서 ‘연탄 보일러’, ‘화목 보일러’ 비율이 높았다.

| 표 1603 - (2) | 난방시설 현황(2순위)

단위 : %(명)

구분			중앙 난방	지역 난방	도시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가스 (LPG)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화목 보일러	재래식 아궁이	기타
농어촌 (294)			0.1	0.3	0.6	26.4	1.6	2.7	14.2	20.8	7.1	26.2
읍/면	읍 (41)		-	-	4.2	21.5	-	1.9	9.3	12.4	-	50.8
	면 (253)		0.1	0.3	-	27.2	1.8	2.8	15.0	22.2	8.3	22.2
영농 여부	농어가 (192)		0.2	0.4	-	25.6	0.4	2.7	16.9	26.3	7.9	19.7
	비농어가 (102)		-	-	1.7	27.9	3.8	2.7	9.2	10.5	5.7	38.5
주택 종류	단독주택 (272)		0.1	0.3	-	27.4	1.2	2.9	15.4	22.6	7.7	22.3
	아파트 (13)		-	-	13.3	-	-	-	-	-	-	86.7
	연립/다세대/기타 (10)		-	-	-	33.2	12.7	-	1.3	-	-	52.9
도시 (46)			-	0.3	11.0	13.1	0.8	0.3	9.5	-	-	64.9



난방시설 현황 - 추이

- 2017년 대비, '도시가스 보일러'(+4.9%p) 비율이 증가한 반면, '지역 난방'(-4.5%p) 비율이 감소

| 표 1603 - (3) | 난방시설 유형 - 추이

단위 : %(명)

구분	중앙 난방	지역 난방	도시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화목 보일러	프로판 가스 (LPG)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기타*
2018년 (2,750)	0.9	1.7	35.6	38.4	4.0	5.9	9.9	1.7	1.8
2017년 (3,995)	1.4	6.2	30.7	37.8	5.3	3.5	12.3	2.3	0.6
2013년 (2,760)	0.8	1.9	33.9	38.8	-	6.2	11.2	3.0	4.2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3년, 2018년 기타=재래식 아궁이+기타

* 2017년까지는 단일항목을 선택함/ 2018년은 2가지를 순위별로 선택하였으며, 제시한 수치는 난방시설 1순위 기준임

1604> 난방비 부담

▶ 난방비 지출 기간은 평균 4.7개월, 월 평균 난방비는 15.5만원

 난방비 지출 기간은 평균 4.7개월

1년 중 난방을 사용하는 기간은 언제이며, 그 기간의 월 평균 난방비는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난방비 지출 시작 월은 '11월'(46.7%), '10월'(40.9%) 비율이 가장 높았고, 종료 월은 '3월'(45.2%)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월'(30.1%), '2월'(17.5%), '5월'(5.2%) 순으로 평균 4.7개월 간 난방비를 지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지역, 농어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연평균 난방비 지출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의 난방비 지출 기간은 농어촌과 비슷한 수준이었다(평균-0.2개월).

| 표 1604 - (1) | 난방비 지출 기간

단위 : %

구분			지출 기간	난방비 지출 시작 월				난방비 지출 종료 월			
			평균	9월	10월	11월	12월	2월	3월	4월	5월
농어촌 (2,764)			4.7개월	4.4	40.9	46.7	7.2	17.5	45.2	30.1	5.2
읍/면	읍 (1,218)		4.5개월	1.6	43.5	46.4	7.5	25.8	45.2	24.1	3.2
	면 (1,545)		4.8개월	6.6	38.9	47.0	7.0	11.0	45.3	34.8	6.7
영농 여부	농어가 (849)		5.1개월	7.8	48.5	39.1	4.5	6.3	42.7	40.9	8.2
	비농어가 (1,915)		4.5개월	2.9	37.5	50.1	8.4	22.5	46.3	25.3	3.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4.5개월	2.7	44.9	42.8	8.6	24.8	47.0	21.7	4.8
	40대 (486)		4.6개월	2.6	40.0	49.4	6.6	18.4	48.9	26.7	3.6
	50대 (607)		4.5개월	4.1	36.7	49.3	9.4	20.3	48.0	24.1	5.4
	60대 (489)		4.9개월	6.1	43.1	44.9	5.6	11.3	43.7	37.2	5.6
	70대 이상 (615)		4.9개월	6.4	42.1	46.8	4.1	11.4	40.0	41.3	6.3
도시 (1,148)			4.5개월	3.0	44.6	44.2	7.4	24.8	48.3	22.9	2.5

*1.0% 미만은 제시하지 않음

월 평균 난방비는 15.5만원

그 기간 동안의 월 평균 난방비는 얼마나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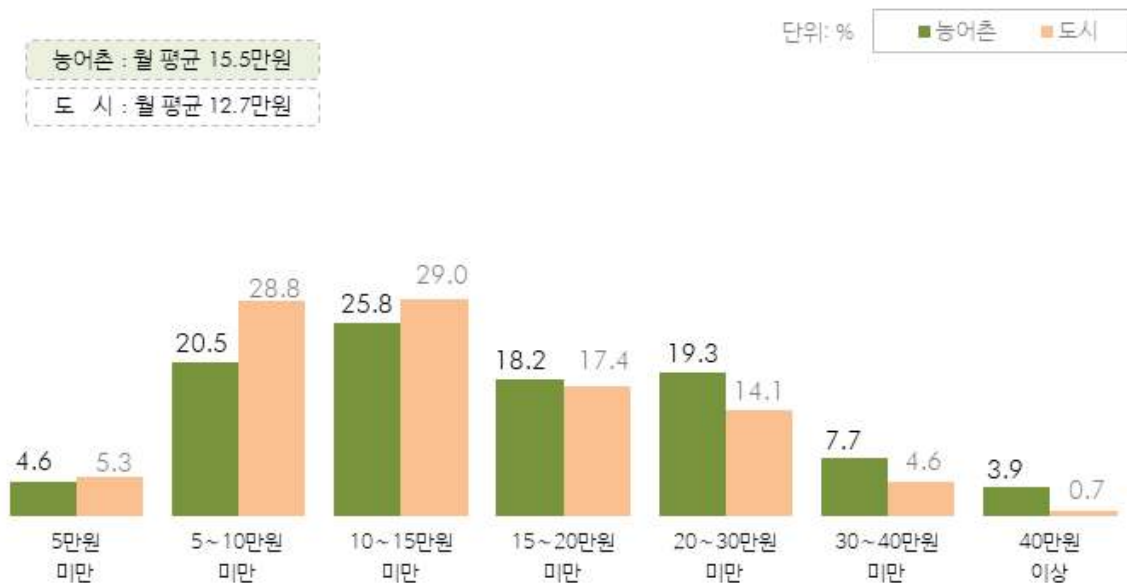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월 평균 난방비 지출 금액으로 '10~15만원 미만'(25.8%), '20~30만원 미만'(19.3%), '15~20만원 미만'(18.2%) 등 [10~30만원 미만](63.3%)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5~10만원 미만'(20.5%), '5만원 미만'(4.6%) 등 [10만원 미만](25.1%), '30~40만원 미만'(7.7%), '40만원 이상'(3.9%) 등 [30만원 이상](11.6%) 순이었다.

농어촌의 월 평균 난방비는 15.5만원으로 연 평균 난방비 지출 기간(평균 4.7개월)을 감안하면 연 평균 72.9만원을 난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의 월 평균 난방비가 더 많았으며(+2.8만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15.8만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604 - (1) | 월 평균 난방비



면지역, 농어가, 50~60대 연령층, 단독주택 거주층, 지역난방, 기름 보일러, 전기 보일러, 화목 보일러 이용층에서 월 평균 난방비 지출이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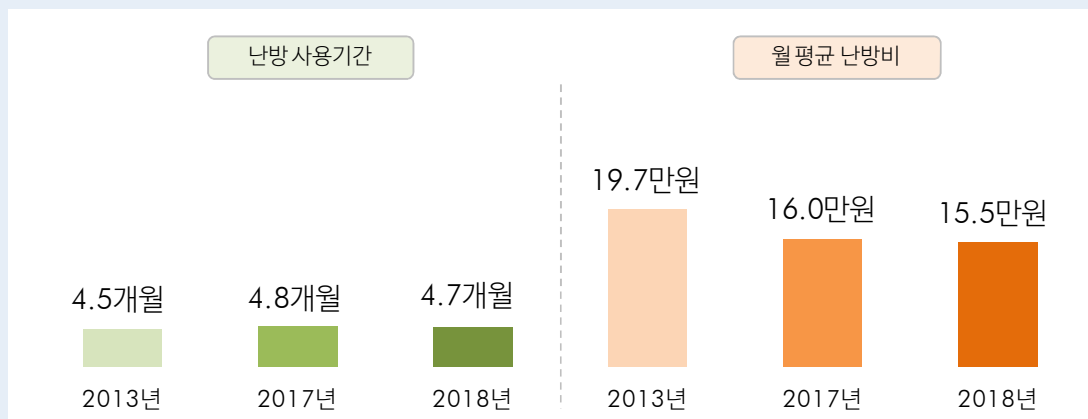
| 표 1604 - (2) | 월 평균 난방비

단위 : %(명)

구분			평균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15만원 미만	15~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농어촌 (2,763)			15.5만원	4.6	20.5	25.8	18.2	19.3	7.7	3.9
읍/면	읍 (1,223)	13.4만원	5.1	23.9	32.1	19.9	13.1	3.2	2.7	
	면 (1,540)	17.2만원	4.3	17.8	20.9	16.8	24.1	11.3	4.8	
영농 여부	농어가 (845)	18.6만원	1.4	15.8	23.2	18.1	22.4	12.4	6.8	
	비농어가 (1,919)	14.2만원	6.1	22.5	27.0	18.2	17.9	5.7	2.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5)	12.2만원	9.1	23.8	27.0	21.4	17.0	1.6	0.1	
	40대 (491)	15.8만원	3.8	18.5	29.6	17.9	19.8	5.1	5.4	
	50대 (607)	16.7만원	3.7	18.2	24.5	19.7	18.8	10.0	5.2	
	60대 (486)	17.4만원	3.7	17.5	24.2	15.2	21.6	12.8	5.0	
	70대 이상 (616)	15.2만원	3.3	24.5	25.6	17.1	17.1	9.0	3.4	
주택 종류	단독주택 (1,572)	18.2만원	2.0	17.2	21.4	17.1	23.8	11.9	6.6	
	아파트 (874)	11.9만원	6.5	24.9	33.6	21.3	11.4	2.2	-	
	연립/다세대주택/기타 (317)	12.3만원	12.3	24.4	26.2	15.1	18.5	2.5	1.0	
난방 시설 종류	중앙난방 (24)	13.0만원	-	2.3	50.1	40.8	6.8	-	-	
	지역난방 (47)	17.7만원	-	11.6	8.8	31.1	43.5	5.1	-	
	도시가스 보일러 (980)	11.6만원	7.3	26.8	33.7	20.5	9.3	2.4	0.0	
	기름 보일러 (1,051)	16.6만원	3.2	19.1	24.4	17.2	22.9	8.6	4.5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163)	15.2만원	3.3	22.2	17.1	20.2	28.9	5.3	3.1	
	전기 보일러 (273)	25.6만원	2.8	5.9	10.8	10.1	23.9	28.6	17.8	
	연탄 보일러 (44)	14.4만원	5.0	23.0	22.7	24.6	19.7	5.0	-	
	화목 보일러 (108)	17.4만원	3.2	11.9	22.6	13.9	39.3	4.3	4.7	
도시 (1,149)			12.7만원	5.3	28.8	29.0	17.4	14.1	4.6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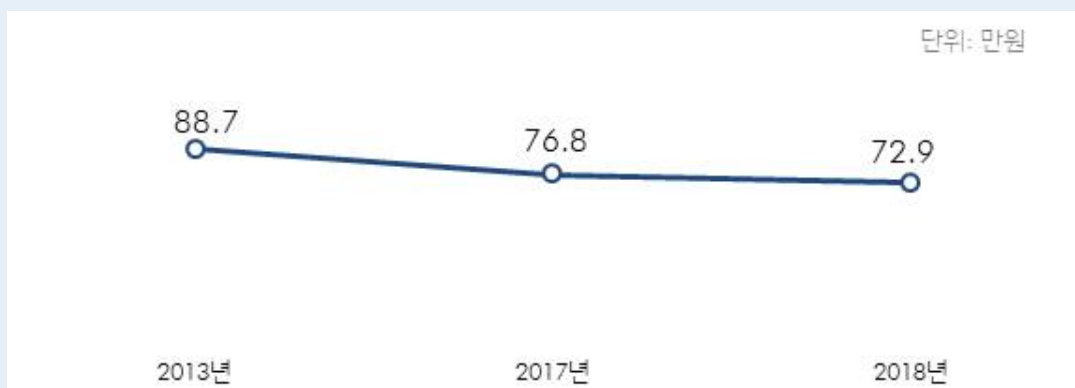
난방비 사용기간 및 난방비 - 추이

- 난방비는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 연 평균 난방비 기준, 2013년에 비해 평균 -15.7만원 감소

| 그림 1604 - (3) | 연 평균 난방비 - 추이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연 평균 난방비=월 평균 난방비×연 평균 난방비 지출 기간

1605> 주택에 대한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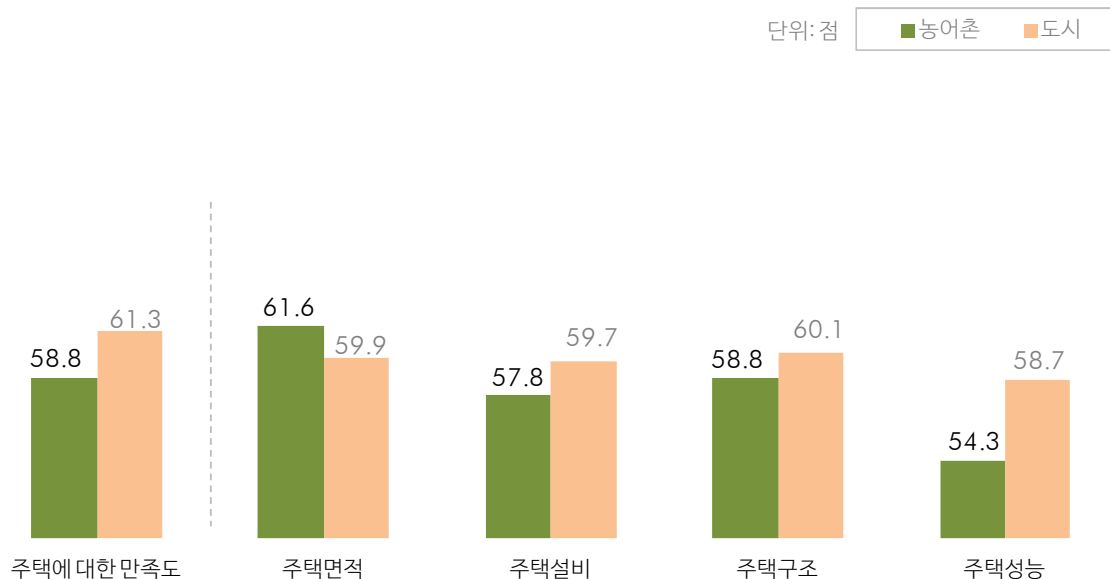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측정 값]

▶ 주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평균 58.8점)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주택 성능'(평균 54.3점)에 대해 만족한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약함

'주택 면적'(평균 61.6점)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간/시설 배치, 동선 등 '주택 구조'(평균 58.8점),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 등 '주택 설비'(평균 57.8점), 내열, 내화, 방열, 방습 등 '주택 성능'(평균 54.3점) 순으로 주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평균 58.8점)의 평가를 보였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주택 성능'(4.4점) 만족도가 낮았다.

| 그림 1605 - (1) | 주택에 대한 만족도



이주민층, 아파트 거주층, 주택의 건축 및 신축연도가 최근일수록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 가운데, 면지역, 연령대가 높을수록,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 단독주택 거주층에서 '주택 면적' 만족도가 높은 반면,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주택 성능' 만족도가 높았다.

| 표 1605 | 주택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주택에 대한 만족도	주택 면적	주택 설비	주택 구조	주택 성능
농어촌 (2,780)			58.8	61.6	57.8	58.8	54.3
읍/면	읍 (1,228)		57.8	59.8	57.3	58.6	55.3
	면 (1,552)		59.5	63.1	58.1	59.0	53.5
영농 여부	농어가 (853)		58.4	62.6	57.5	58.4	52.3
	비농어가 (1,927)		58.9	61.2	57.9	59.0	55.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59.6	59.7	59.4	59.8	57.6
	40대 (494)		56.9	58.7	54.5	58.4	52.4
	50대 (608)		59.8	62.3	58.6	59.3	54.8
	60대 (492)		59.4	64.2	58.5	58.6	54.9
	70대 이상 (620)		57.9	62.8	57.3	57.8	51.6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7)		60.2	62.1	59.3	60.2	55.8
	선주민 (994)		56.4	60.8	55.0	56.5	51.6
향후 5년 내 이주의사	이주 의향층 (200)		58.3	57.7	56.0	57.1	54.7
	비의향층 (2,575)		58.8	61.9	57.9	59.0	54.3
주택 종류	단독주택 (1,580)		57.7	62.4	56.9	57.6	51.8
	아파트 (878)		61.7	62.2	60.4	62.1	58.4
	연립/다세대주택/기타 (322)		56.4	56.0	54.8	55.7	55.4
주택 건축 및 신축년도	1960년대 이전 (185)		44.2	52.8	43.1	43.6	38.7
	1970년대 (213)		46.8	54.5	47.2	49.4	40.0
	1980년대 (340)		52.8	57.5	51.5	55.0	48.2
	1990년대 이후 (1,970)		62.5	63.9	61.6	62.1	58.5
도시 (1,149)			61.3	59.9	59.7	60.1	58.7

주택에 대한 만족도 - 추이

- 전반적으로 2013년과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
- 2017년 대비 '주택 성능'(+4.7점) 만족도가 증가

| 그림 1605 - (2) | 주택에 대한 만족도 - 추이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주택성능' 항목은 2017년에 추가됨

* 2017년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4개 항목의 산술평균값임

1606> 주택 개보수 필요성

▶ '도배, 페인트, 바닥, 창·문 교체 및 보수공사'(21.1%)가 가장 먼저 보수해야 할 부분

귀하께서는 거주하시는 주택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개보수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복수 응답 :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

가장 먼저 보수해야 할 부분으로 '도배, 페인트, 바닥, 창·문 교체 및 보수공사'(21.1%)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주방, 목욕탕, 화장실 보수공사'(14.2%), '보일러 교체 및 냉·난방, 단열 공사'(12.5%), '대수선'(6.4%), '지붕·담장 교체 및 보수공사'(3.2%), '전기(누전), 누수공사'(2.5%), '상하수도 공사'(1.2%),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설비 개선'(1.1%) 순으로 나타났다.

읍지역에서 '도배, 페인트, 바닥, 창·문 교체 및 보수공사'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1970년대 이전 건축 및 신축 층에서 '보일러 교체 및 냉·난방, 단열 공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비농어가, 1990년대 이후 건축 및 신축층에서 '주택의 개보수가 필요없음' 비율이 높았다.

도시 지역 역시 농어촌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표 1608 | 주택 개보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도배, 페인트, 바닥, 창·문 교체 및 보수공사	주방, 목욕탕, 화장실 보수공사	보일러 교체 및 냉·난방, 단열 공사	전기(누전), 누수공사	상하수도 공사	지붕·담장 교체 및 보수공사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설비 개선	대수선	기타	주택의 개보수가 필요없음
농어촌 (2,766)			21.1	14.2	12.5	2.5	1.2	3.2	1.1	6.4	0.3	37.5
읍/면	읍	(1,222)	24.0	16.8	7.4	2.6	0.7	2.6	1.1	5.2	0.6	39.1
	면	(1,544)	18.9	12.3	16.6	2.4	1.6	3.6	1.0	7.4	0.0	36.2
영농 여부	농어가	(849)	23.4	12.4	15.7	3.3	2.2	4.3	0.7	8.9	0.2	28.9
	비농어가	(1,917)	20.1	15.1	11.1	2.1	0.7	2.7	1.2	5.3	0.3	41.5
주택 건축 및 신축 년도	1960년대 이전	(185)	24.0	18.6	23.0	3.4	0.4	6.9	1.5	11.3	0.0	11.0
	1970년대	(213)	26.3	15.5	22.2	3.0	0.4	3.4	2.2	9.8	0.0	17.1
	1980년대	(337)	25.4	12.8	16.3	3.0	2.0	3.7	1.5	9.2	1.1	24.9
	1990년대 이후	(1,963)	19.6	13.2	9.6	2.3	1.2	2.7	0.8	4.8	0.2	45.5
도시 (1,145)			21.2	15.7	9.7	2.5	1.4	0.7	0.7	8.1	0.1	39.9

1607> 상수도 및 하수도 종류

▶ ‘광역 및 지방 상수도’(83.1%), ‘공공하수처리시설’(84.3%) 비율이 가장 높음

 ‘광역 및 지방 상수도’(83.1%)가 주된 상수도 종류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의 상수도 종류는 무엇입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상수도 종류로 ‘광역 및 지방 상수도’(83.1%)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마을상수도(간이 상수도)’(10.5%), ‘자가상수도(지하수, 우물)’(6.3%) 순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 1990년대 이후 건축 및 신축층에서 ‘광역 및 지방 상수도’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단독주택 거주층에서 ‘마을상수도(간이 상수도)’, ‘자가상수도(지하수, 우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광역 및 지방 상수도’ 비율이 낮았다(-16.9%p).

| 표 1607 - (1) | 상수도 종류

단위 : %(명)

구분			광역 및 지방 상수도	마을상수도 (간이 상수도)	자가상수도 (지하수, 우물)	없음
농어촌 (2,775)			83.1	10.5	6.3	0.1
읍/면	읍	(1,224)	97.9	0.8	1.2	0.1
	면	(1,551)	71.4	18.2	10.2	0.2
영농 여부	농어가	(852)	70.7	19.6	9.6	0.1
	비농어가	(1,923)	88.6	6.5	4.8	0.1
주택 건축 및 신축년도	1960년대 이전	(185)	70.7	13.1	16.2	.
	1970년대	(213)	76.3	17.9	5.5	0.4
	1980년대	(339)	79.0	12.6	8.4	.
	1990년대이후	(1,969)	85.3	9.4	5.2	0.2
주택종류	단독주택	(1,579)	71.8	18.2	9.9	0.1
	아파트	(874)	100.0	.	.	.
	연립/다세대/기타	(322)	92.5	1.6	5.5	0.4
도시 (1,141)			100.0	0.0	.	.

‘공공하수처리시설’(84.3%)이 주된 하수도 종류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의 하수도 종류는 무엇입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공공하수처리시설’(84.3%) 비율이 ‘개인하수처리시설’(14.1%)에 비해 높았으며, 하수처리 시설이 없다는 응답은 1.6%였다.

읍지역, 비농어가, 주택 건축 및 신축년도가 최근일수록 ‘공공하수처리시설’ 비율이 더욱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1960년대 이전 건축 및 신축층, 단독주택 거주층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 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비율이 낮았다(-15.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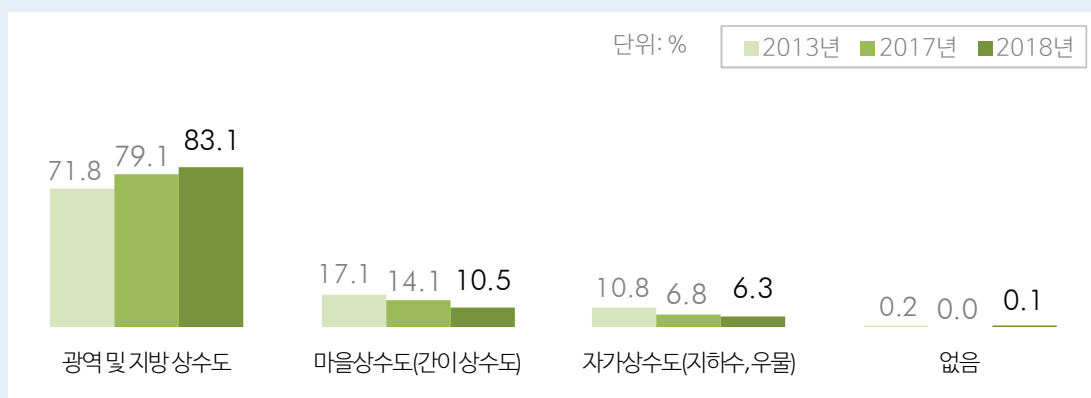
| 표 1607 - (2) | 하수도 종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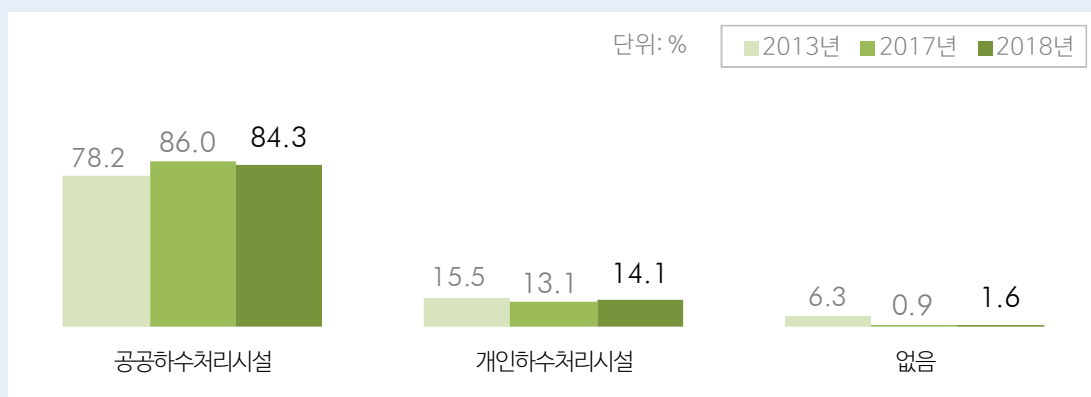
구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없음
농어촌 (2,760)			84.3	14.1	1.6
읍/면	읍	(1,224)	96.2	2.6	1.1
	면	(1,536)	74.8	23.3	1.9
영농 여부	농어가	(845)	70.7	25.5	3.8
	비농어가	(1,914)	90.3	9.1	0.6
주택 건축 및 신축년도	1960년대 이전	(181)	71.0	26.7	2.3
	1970년대	(213)	79.2	17.6	3.2
	1980년대	(339)	83.9	14.8	1.2
	1990년대이후	(1,957)	85.8	12.8	1.4
주택종류	단독주택	(1,566)	73.6	24.1	2.3
	아파트	(872)	100.0	.	.
	연립/다세대/기타	(322)	94.0	3.8	2.1
도시 (1,145)			99.9	0.1	

상수도 및 하수도 종류 - 추이

- 조사년도에 관계없이 '광역 및 지방상수도'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2017년 대비 '광역 및 지방 상수도'(+4.0%p) 비율이 증가한 반면, '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3.6%p) 비율은 감소함



- 조사년도에 관계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비율이 가장 높음



1608> 쓰레기 처리 방법

▶ 생활쓰레기(93.4%), 음식물쓰레기(67.9%), 재활용품(97.0%), 폐영농자재(85.4%) 모두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이 주된 처리 방법

귀덕에서는 다음의 쓰레기를 주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생활쓰레기의 경우 '종량제 봉투 사용'(93.4%),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분리배출'(67.9%), '자체처리'(18.0%), "퇴비", "사료" 등 '기타'(14.1%), 재활용품의 경우 '분리배출'(97.0%), 폐영농자재(농어가)의 경우 '분리배출'(85.4%), '자체처리'(11.9%) 비율이 높아 대체로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종량제 봉투 사용', '분리배출' 비율이 더욱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비율이 낮았다(-30.1%p).

| 표 1608 - (1) | 쓰레기 처리 방법(1)

단위 : %(명)

구분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사례수	종량제 봉투 사용	자체 처리	사례수	분리 배출	자체 처리	기타
농어촌		(2,761)	93.4	6.6	(2,761)	67.9	18.0	14.1
읍/면	읍	(1,215)	99.1	0.9	(1,215)	86.3	8.9	4.8
	면	(1,545)	89.0	11.0	(1,545)	53.4	25.2	21.4
영농 여부	농어가	(850)	87.2	12.8	(850)	33.7	34.5	31.8
	비농어가	(1,910)	96.2	3.8	(1,910)	83.1	10.7	6.2
도시		(1,145)	99.9	0.1	(1,141)	98.0	2.0	0.0

| 표 1608 - (2) | 쓰레기 처리 방법(2)

단위 : %(명)

구분	재활용품				폐영농자재(농어가)			
	사례수	분리 배출	자체 처리	기타	사례수	분리 배출	자체 처리	기타
농어촌	(2,753)	97.0	2.7	0.4	(818)	85.4	11.9	2.7
읍/면	읍	(1,208)	98.8	1.2	(194)	76.3	19.8	3.8
	면	(1,545)	95.5	3.8	(624)	88.2	9.5	2.4
영농 여부	농어가	(849)	94.7	4.8	(818)	85.4	11.9	2.7
	비농어가	(1,904)	98.0	1.7				
도시	(1,141)	98.9	1.1		-	-	-	-

쓰레기 처리 방법 - 추이

- 2017년에 비해 생활쓰레기의 경우, '종량제 봉투 사용' 비율이 +6.0%p 증가한 반면, '자체처리' 비율은 -7.2%p 감소함
-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자체처리' 비율이 증가(+12.1%p)한 반면 '기타' 비율이 감소(-14.2%p)
- 폐영농자재의 경우, '분리배출' 비율이 -10.9%p 감소함

| 표 1608 - (3) | 쓰레기 처리 방법 - 추이

단위 : %(명)

구분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사례수	종량제 봉투 사용	자체 처리	사례수	분리 배출	자체 처리	기타
2018년	(2,761)	93.4	6.6	(2,761)	67.9	18.0	14.1
2017년	(3,991)	87.4	13.8	(3,990)	65.6	5.9	28.3
2013년	(2,750)	78.0	21.9	(2,753)	61.4	26.5	12.2

구분	재활용품			폐영농자재(농어가)			
	사례수	분리 배출	자체 처리	사례수	분리 배출	자체 처리	기타
2018년	(2,753)	97.0	2.7	(818)	85.4	11.9	2.7
2017년	(3,989)	99.3		(1,316)	96.3	1.3	2.1
2013년	(2,743)	86.6	13.1	(831)	63.5	32.2	4.3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1.0% 미만은 제시하지 않음(2017년 재활용품 '소각'(0.5%), '기타'(0.2%), 2018년 재활용품 '기타'(0.4%))

* 자체처리 : 투기+매립+소각

1609>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 '하수처리'(평균 64.0점), '상수도 수질'(평균 63.8점)에 대해 가장 만족함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초생활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 측정 값]

가장 만족하는 영역은 '하수처리'(평균 64.0점), '상수도 수질'(평균 63.8점)이며, 다음으로 '쓰레기 처리'(평균 62.1점), 인터넷, 전화, TV, 라디오, 우편 등의 활용 여건 등 '정보통신여건'(평균 61.2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평균 48.6점),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시설 등 '생활서비스 이용'(평균 46.7점)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읍지역, 비농어가, 아파트 거주층,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대중교통 이용', '생활서비스 이용', '정보통신 여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 가운데, 특히 '생활서비스 이용'(20.1점), '대중교통 이용'(15.7점), '정보통신 여건'(12.2점) 만족도가 다소 더 낮았다.

| 표 1609 |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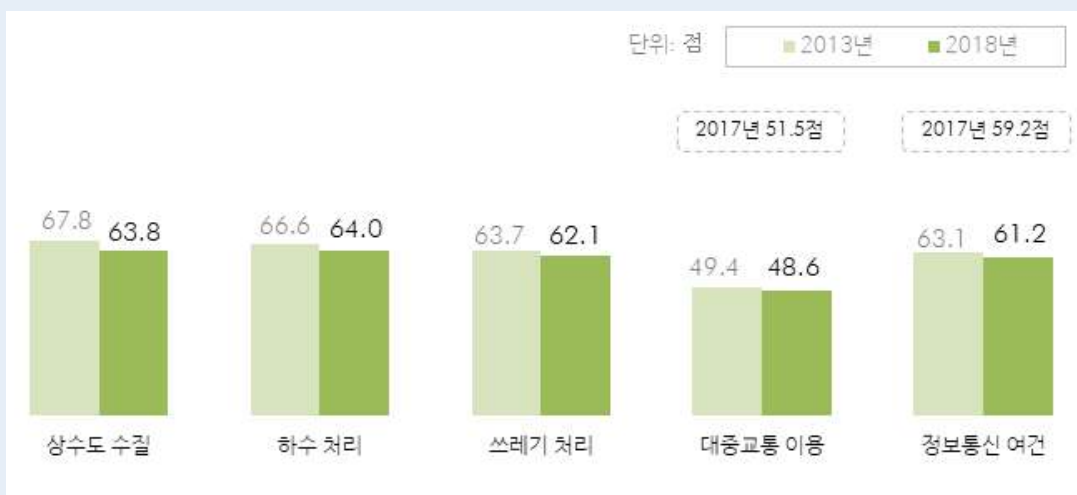
단위: 점(명)

구분			상수도 수질	하수 처리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이용	생활서비스 이용	정보통신 여건
농어촌 (2,780)			63.8	64.0	62.1	48.6	46.7	61.2
읍/면	읍	(1,228)	62.2	62.8	62.5	51.5	51.3	61.6
	면	(1,552)	65.1	64.9	61.7	46.2	43.0	60.9
영농 여부	농어가	(853)	65.0	63.3	61.6	46.4	41.8	58.2
	비농어가	(1,927)	63.3	64.3	62.3	49.5	48.8	62.4
주택 종류	단독주택	(1,580)	64.3	63.9	60.5	45.5	42.4	58.9
	아파트	(878)	63.4	64.8	66.8	54.0	52.8	65.0
	연립/다세대/기타	(322)	62.5	62.3	57.1	48.8	51.0	61.8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200)	66.2	65.0	61.6	43.0	45.9	62.7
	비의향층	(2,575)	63.6	63.9	62.1	49.0	46.7	61.1
도시 (1,149)			65.3	67.2	65.8	64.3	66.8	73.4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 추이

- 2013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그림 1609 |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 추이



* 2013년(n=2,70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8년에 '생활서비스 이용' 항목이 추가되었으나, 비교에는 제시하지 않음

* 2017년에는 '대중교통 이용', '정보통신 여건' 항목만 조사함

1610> 마을 안전 체감도

▶ 재난·재해 사고로부터의 안전(62.6%), 범죄로부터의 안전(61.2%)에 대해 공감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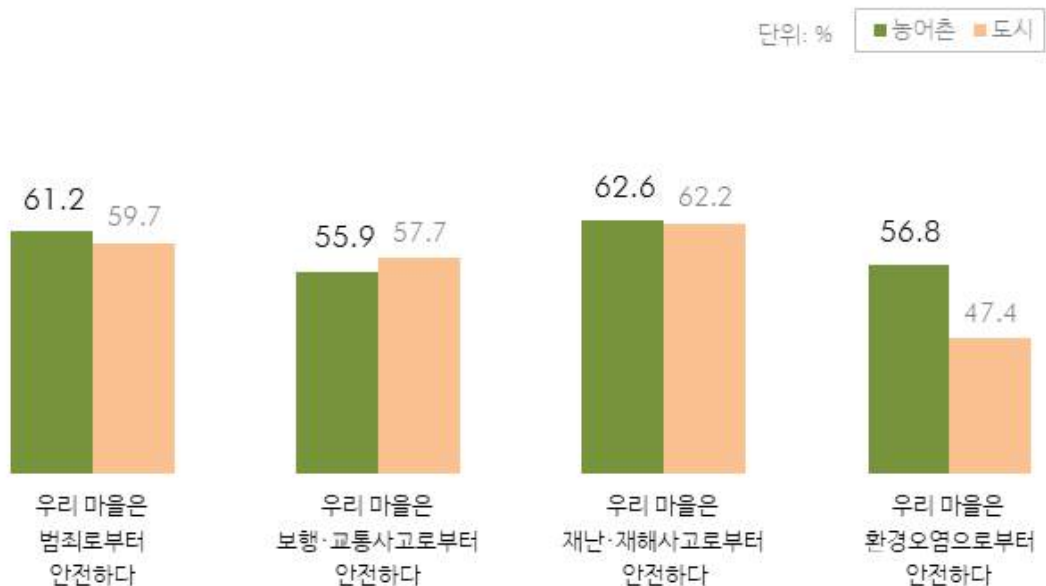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마을(동네)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우리 마을은 재난·재해사고로부터 안전하다’(62.6%), ‘우리 마을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61.2%), ‘우리 마을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56.8%), ‘우리 마을은 보행·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55.9%) 등 전반적으로 마을이 안전하다는 의견에 50%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우리 마을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다(+9.4%p).

| 그림 1610 - (1) | 마을 안전 체감도



면지역, 농어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동의율이 높아 마을에 대해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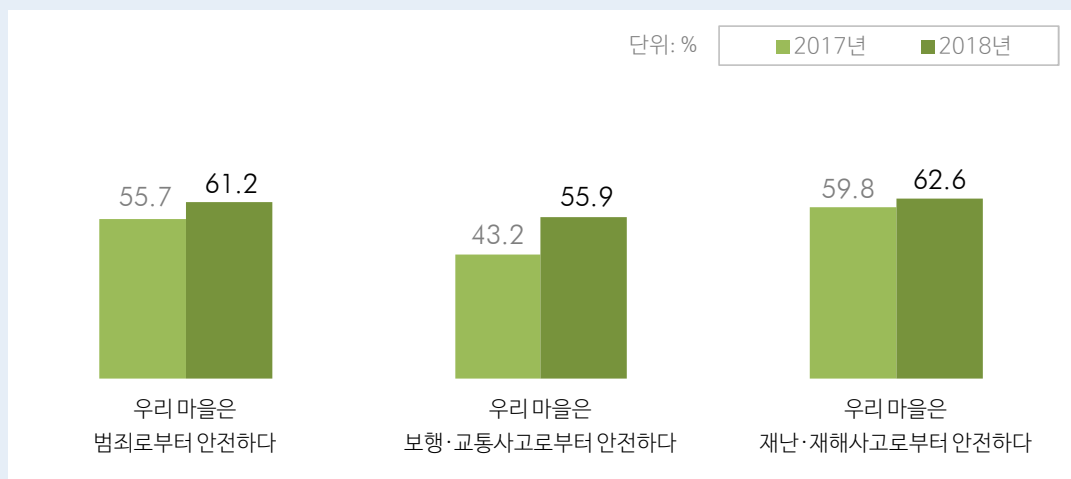
| 표 1610 | 마을 안전 체감도

단위: %(명)

구분		우리 마을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우리 마을은 보행·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사례수	그런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사례수	그런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농어촌		(2,769)	61.2	32.8	6.0	(2,770)	55.9	33.8	10.3
읍/면	읍	(1,220)	52.6	39.8	7.6	(1,220)	49.2	39.0	11.9
	면	(1,549)	68.0	27.4	4.7	(1,551)	61.1	29.8	9.1
영농 여부	농어가	(850)	70.1	24.8	5.1	(851)	61.9	27.8	10.3
	비농어가	(1,919)	57.2	36.4	6.4	(1,919)	53.2	36.5	10.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44.1	47.0	9.0	(528)	40.6	48.5	10.9
	40대	(486)	53.7	38.4	7.9	(486)	49.8	38.1	12.1
	50대	(607)	59.4	33.9	6.7	(607)	55.5	31.3	13.2
	60대	(490)	72.3	24.2	3.5	(490)	66.1	26.4	7.6
	70대 이상	(619)	74.6	22.3	3.1	(619)	65.7	27.4	6.9
도시		(1,145)	59.7	33.6	6.7	(1,145)	57.7	33.0	9.3
구분		우리 마을은 재난·재해사고로부터 안전하다				우리 마을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			
		사례수	그런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사례수	그런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농어촌		(2,766)	62.6	31.7	5.7	(2,727)	56.8	33.9	9.3
읍/면	읍	(1,220)	54.9	36.7	8.4	(1,208)	48.3	37.8	13.9
	면	(1,547)	68.7	27.7	3.6	(1,519)	63.5	30.9	5.6
영농 여부	농어가	(850)	67.6	26.9	5.5	(846)	63.2	30.0	6.8
	비농어가	(1,917)	60.4	33.8	5.8	(1,881)	53.9	35.7	10.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49.9	43.7	6.4	(515)	44.2	39.1	16.7
	40대	(486)	57.8	34.7	7.5	(482)	49.3	40.6	10.1
	50대	(608)	62.8	29.1	8.1	(597)	50.0	38.9	11.0
	60대	(489)	68.8	26.7	4.4	(486)	69.3	23.8	6.9
	70대 이상	(617)	71.9	25.9	2.3	(610)	71.5	25.6	2.8
도시		(1,145)	62.2	30.2	7.6	(1,135)	47.4	39.4	13.2

마을 안전 체감도 - 추이

- 전반적으로 안전 체감도가 상승한 가운데, 2017년 대비 '우리 마을은 보행·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12.7%p) 비율이 다소 증가



1611 >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CCTV 설치 늘리기’(23.7%)가 주된 필요 사항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다음 중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복수 응답 :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

주된 필요사항으로 ‘CCTV 설치 늘리기’(23.7%)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전한 보행자길 갖추기’(15.5%), ‘도로 안전시설(표지판, 횡단보도, 신호등 등) 늘리기’(13.7%), ‘가로등 늘리고 고치기’(13.4%), ‘순찰(경찰, 주민봉사) 횡수 늘리기’(8.7%), ‘빈집, 버려진 집, 방치된 빈터관리’(5.9%), ‘오래되고 낡은 건물, 시설 고치기’(4.2%) 순이었다.

면지역에서 ‘가로등 늘리고 고치기’ 비율이 높은 반면,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도로안전 시설 늘리기’ 비율이 높았다.

도시 지역 역시 농어촌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 1611 |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명)

구분			도로 안전 시설 늘리기	안전한 보행자 길 갖추기	가로등 늘리고 고치기	CCTV 설치 늘리기	순찰 횡수 늘리기	오래 되고 낡은 건물, 시설 고치기	빈집, 버려진 집, 방치된 빈터 관리	기타	특별히 필요를 느끼지 않음
농어촌 (2,751)			13.7	15.5	13.4	23.7	8.7	4.2	5.9	0.5	14.4
읍/면	읍 (1,207)		14.8	16.3	9.9	25.5	8.5	3.6	4.3	0.7	16.4
	면 (1,543)		12.8	15.0	16.1	22.3	8.7	4.7	7.1	0.4	12.8
영농 여부	농어가 (850)		12.1	13.6	14.4	25.6	9.5	6.5	9.1	1.0	8.2
	비농어가 (1,901)		14.4	16.5	12.9	22.8	8.3	3.1	4.4	0.3	17.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3)		20.5	19.2	10.3	21.9	8.4	2.6	2.9	0.1	14.1
	40대 (490)		10.6	17.5	12.8	25.4	11.0	3.0	3.1	0.7	15.8
	50대 (602)		11.1	13.8	15.5	25.3	7.8	3.5	5.9	1.2	15.8
	60대 (487)		13.5	11.3	13.6	25.8	7.2	6.2	8.6	0.5	13.3
	70대 이상 (610)		12.6	15.7	14.8	20.3	9.2	5.8	8.8	0.2	12.7
도시 (1140)			10.1	14.2	10.2	22.5	11.2	4.5	2.7	0.6	24.0

📊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추이

- 문항 구성이 달라 동등비교가 어려운 가운데, 'CCTV 설치 늘리기'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안전한 보행자길 갖추기', '빈집, 버려진 집, 방치된 빈 터 관리'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그림 1611 |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추이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7년에 '빈집, 버려진 집, 방치된 빈터 관리', '안심하고 귀가 서비스 확충', '주민 방범/순찰봉사 활동 확대' 항목이 추가되고, '특별히 필요를 느끼지 않음' 항목은 삭제됨

* 2013년(12.1%), 2018년(14.4%) '특별히 필요를 느끼지 않음' 항목은 제시하지 않음

* 2017년: '기타'(3.3%) 비율에 '안심 귀가서비스 확충'(3.1%) 비율이 포함되어 있음. '순찰 횟수 늘리기'(10.6%)는 '경찰순찰 확대'(8.5%), '주민 방범/순찰봉사 활동 확대'(2.1%)의 합임

* 2013년, 2018년은 2가지를 순위별로 선택하여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함/ 2017년은 2가지를 선택하여 100.0% 환산한 값임



1700> 환경·

경관

- 1701>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 1702> 마을 경관에 대한 인식
- 1703>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1701 >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 '소음, 진동'(17.0%), '악취'(13.6%), '대기오염'(11.9%)이 주된 환경 문제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마을(동네)에서 개선해야 할 주된 환경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복수 응답 :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

'소음, 진동'(17.0%), '악취'(13.6%), '대기오염'(11.9%)이 개선해야 할 주된 환경 문제로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쓰레기'(8.3%), '수질 오염'(6.1%), '토양 오염'(2.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별히 없다'는 40.6%였다.

읍지역,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소음, 진동', '대기오염' 비율이 높은 반면, 농어가에서 '쓰레기' 비율이 높았다. 한편, 면지역,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특별히 없다'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소음, 진동'(-11.2%p), '대기오염'(-10.7%p) 비율이 낮은 반면, '특별히 없다'(+13.8%p) 비율이 높았다.

| 표 1701 | 개선해야 할 환경 문제

단위 : %(명)

구분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소음, 진동	악취	쓰레기	기타	특별히 없다
농어촌 (2,766)		11.9	6.1	2.3	17.0	13.6	8.3	0.2	40.6
읍/면	읍 (1,221)	13.7	3.5	0.6	21.5	16.3	7.3	0.4	36.7
	면 (1,545)	10.4	8.2	3.7	13.3	11.3	9.1	0.1	43.9
영농 여부	농어가 (848)	8.7	8.4	3.9	13.0	12.6	12.1	0.0	41.3
	비농어가 (1,919)	13.3	5.1	1.6	18.7	14.0	6.6	0.3	40.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14.7	3.7	0.4	21.4	14.6	7.7	0.1	37.5
	40대 (491)	11.3	6.1	1.9	17.1	18.4	7.7	0.0	37.5
	50대 (603)	11.7	7.1	3.6	17.2	11.2	7.0	0.8	41.2
	60대 (489)	10.8	7.9	2.1	15.3	12.9	9.7	0.1	41.3
	70대 이상 (617)	9.5	6.0	2.9	13.4	11.5	9.7	0.0	46.9
도시 (1,143)		22.6	4.0	1.0	28.2	6.2	11.1	0.1	26.8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 추이

- 2017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기 오염'(+4.2%p), '수질 오염'(+3.3%p) 비율이 약간 증가한 반면, '악취'(-3.4%p), '쓰레기'(-3.1%p)는 약간 감소

| 그림 1701 |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 추이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기타'는 제시하지 않음

* 2017년은 단일항목을 선택함/ 2018년은 환경문제 2가지를 순위별로 선택하여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함

1702> 마을 경관에 대한 인식

▶ '우리 마을을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에 대한 공감도가 60.1%

귀하는 마을 경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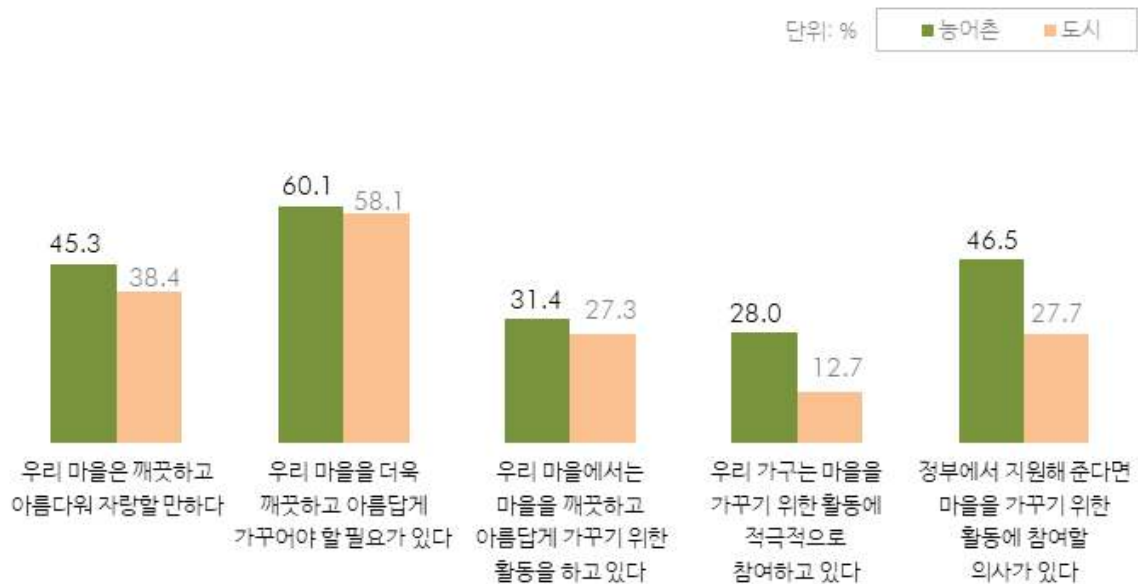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마을(동네)을 가꾸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필요한 자재, 활동비 등)'(46.5%), '우리 마을은 깨끗하고 아름다워 자랑할 만하다'(45.3%)에 대해서는 농어촌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우리 마을에서는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31.4%), '우리 가구는 마을을 가꾸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28.0%)에 대해서는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마을을 가꾸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18.8%p), '우리 가구는 마을을 가꾸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15.3%p)에 대한 동의도가 다소 높았다.

| 그림 1702 | 마을 경관에 대한 인식



* [그런편(합)] 비율 기준

면지역, 농어가, 60대 이상 연령층, 선주민층에서 전반적으로 마을 경관 가꾸기와 관련된 인식에 다소 더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이주민 층에서 [그렇지 않은 편(합)] 비율이 높았다.

| 표 1702 - (1) | 마을 경관에 대한 인식(1)

단위 : %(명)

구분		우리 마을은 깨끗하고 아름다워 자랑할 만하다				우리 마을을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례수	그런편(합)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합)	사례수	그런편(합)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합)
농어촌		(2,771)	45.3	41.5	13.2	(2,769)	60.1	36.3	3.6
읍/면	읍	(1,223)	40.6	39.2	20.2	(1,220)	58.2	37.3	4.6
	면	(1,548)	49.0	43.4	7.6	(1,549)	61.6	35.6	2.8
영농 여부	농어가	(849)	51.1	42.1	6.8	(846)	65.1	31.3	3.6
	비농어가	(1,922)	42.7	41.3	16.0	(1,923)	57.9	38.6	3.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31.1	52.0	16.9	(528)	56.2	41.3	2.5
	40대	(491)	43.4	36.0	20.6	(491)	59.7	33.4	6.9
	50대	(605)	40.5	44.8	14.7	(604)	60.7	36.3	2.9
	60대	(490)	51.8	38.2	9.9	(490)	60.8	36.5	2.7
	70대 이상	(618)	58.6	35.7	5.8	(618)	63.2	34.5	2.2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5)	40.3	43.5	16.2	(1,776)	57.2	39.1	3.6
	선주민	(991)	54.5	37.8	7.7	(987)	65.4	31.1	3.5
도시		(1,145)	38.4	43.9	17.6	(1,143)	58.1	39.6	2.4

| 표 1702 - (2) | 마을 경관에 대한 인식(2)

단위 : %(명)

구분		우리 마을에서는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가구는 마을을 가꾸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례수	그런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합)	사례수	그런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합)
농어촌		(2,773)	31.4	45.1	23.5	(2,773)	28.0	39.9	32.1
읍/면	읍	(1,223)	30.4	43.6	26.0	(1,223)	21.6	38.3	40.0
	면	(1,551)	32.3	46.2	21.5	(1,551)	33.1	41.1	25.8
영농 여부	농어가	(849)	39.2	48.1	12.7	(849)	40.7	43.1	16.2
	비농어가	(1,924)	28.0	43.7	28.3	(1,924)	22.4	38.5	39.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25.1	45.2	29.8	(528)	20.5	36.6	42.9
	40대	(491)	28.3	39.4	32.3	(491)	24.9	32.3	42.9
	50대	(607)	32.9	44.4	22.7	(607)	28.0	45.4	26.6
	60대	(490)	36.2	47.9	16.0	(490)	35.0	43.4	21.6
	70대 이상	(619)	35.7	47.6	16.7	(619)	32.2	39.8	28.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6)	26.4	45.2	28.4	(1,776)	22.2	39.6	38.3
	선주민	(991)	40.2	45.0	14.8	(991)	38.4	40.5	21.1
도시		(1,145)	27.3	40.6	32.0	(1,145)	12.7	29.5	57.7

| 표 1702 - (3) | 마을 경관에 대한 인식(3)

단위 : %(명)

구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마을을 가꾸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사례수	그런편(합)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합)
농어촌		(2,773)	46.5	37.0	16.6
읍/면	읍	(1,223)	42.8	36.0	21.2
	면	(1,551)	49.4	37.7	12.9
영농 여부	농어가	(849)	60.2	34.5	5.3
	비농어가	(1,924)	40.4	38.1	21.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37.0	41.8	21.2
	40대	(491)	44.8	34.0	21.2
	50대	(607)	50.6	39.3	10.1
	60대	(490)	56.0	33.7	10.3
	70대 이상	(619)	46.2	35.2	18.6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6)	43.3	37.9	18.8
	선주민	(991)	52.3	35.1	12.5
도시		(1,143)	27.7	32.1	40.2

1703>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 '자연환경/경관의 보전'(37.4%)이 농어업·농어촌의 주된 가치

다음의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중 귀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복수 응답 :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중 '자연환경/경관의 보전'(37.4%)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원생활 공간 제공'(19.4%), '국토의 균형 발전'(12.4%), '농어업 유산 보존/계승'(12.2%), '식량의 안정적 공급'(10.4%), '관광/휴양 공간 제공'(8.1%) 순이었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읍지역,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전원생활 공간 제공' 비율이 높은 반면,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1703 - (1) |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단위 : %(명)

구분			자연환경/ 경관의 보전	전원생활 공간 제공	관광/휴양 공간 제공	농어업 유산 보존/계승	국토(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어촌 (2,740)			37.4	19.4	8.1	12.2	12.4	10.4
읍/면	읍	(1,201)	34.4	23.3	8.8	11.8	12.2	9.5
	면	(1,539)	39.8	16.4	7.5	12.5	12.6	11.1
영농 여부	농어가	(848)	34.4	16.5	7.5	15.3	13.7	12.6
	비농어가	(1,892)	38.8	20.8	8.3	10.9	11.8	9.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5)	38.0	22.9	9.8	8.7	11.9	8.6
	40대	(488)	39.7	22.3	8.0	12.3	11.1	6.7
	50대	(607)	35.9	17.6	9.1	12.6	14.6	10.2
	60대	(489)	37.0	18.3	6.8	13.5	14.0	10.3
	70대 이상	(613)	36.9	17.0	6.8	13.5	10.3	15.4
도시 (1,141)			39.7	19.4	9.4	13.7	10.6	7.3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 추이

- 2017년에 비해 '전원생활 공간 제공'(+5.4%p) 비율이 약간 증가한 반면, '국토(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5.2%p) 비율은 감소함

| 표 1703 - (2) |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 추이

단위 : %(명)

구분	자연환경/ 경관의 보전	전원생활 공간 제공	관광/휴양 공간 제공	농어업 유산 보존/계승	국토(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식량의 안정적 공급
2018년 (2,740)	37.4	19.4	8.1	12.2	12.4	10.4
2017년 (3,970)	36.7	14.0	5.4	13.5	17.6	12.8
2013년 (2,749)	34.6	18.6	10.9	14.4	11.9	9.0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기타'는 제시하지 않음

* 2013년, 2018년은 2가지를 순위별로 선택하여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함/ 2017년은 단일항목을 선택함



1800> 지역

공동체

- 1801> 가족·이웃과의 교류
- 1802> 공동체 활동 참여
- 1803> 외부인 유입 여부
- 1804>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 1805> 마을공동사업 경험 및 참여 의사
- 1806>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
- 1807>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1801 > 가족·이웃과의 교류

▶ 가족·친척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미만'(49.0%)이나 '한 달에 한 번'(26.8%), 이웃, 친구, 직장동료의 경우 '일주일에 수차례'(31.8%) 교류

귀하께서는 가족이나 이웃과 얼마나 자주(일 외의 목적으로) 만남을 가지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비동거 가족이나 친척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미만'(49.0%) 만남을 가진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한 달에 한 번'(26.8%), '한 달에 두 세 차례'(11.3%), '일주일에 한 번 정도'(7.4%), '일주일에 수차례'(4.3%) 순이었다. 이웃, 친구, 직장동료의 경우 '일주일에 수차례'(31.8%) 만남을 가진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19.0%), '매일'(18.4%) 순으로 나타나 비동거 가족이나 친척에 비해 더 자주 교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면지역, 농어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족·친척과 '한 달에 한 번 미만', 이웃, 친구, 직장동료와 '매일' 교류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에서는 가족·친척과 '한 달에 한 번', 이웃, 친구, 직장동료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류하는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이웃, 친구, 직장동료의 경우 '매일'(+8.4%p), '일주일에 수차례'(+7.4%p) 비율이 높았다.

| 표 1801 | 가족·이웃과의 교류

단위: %(명)

구분	가족·친척(비동거)							이웃, 친구, 직장동료						
	사례수	한 달에 한 번 미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세 차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수차례	매일	사례수	한 달에 한 번 미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세 차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수차례	매일
농어촌	(2,774)	49.0	26.8	11.3	7.4	4.3	1.2	(2,765)	14.8	7.8	8.2	19.0	31.8	18.4
읍/면	(1,223)	42.2	29.6	10.5	9.6	6.0	2.0	(1,219)	15.5	9.3	9.4	20.6	29.8	15.3
	(1,551)	54.3	24.6	12.0	5.6	2.9	0.6	(1,546)	14.2	6.7	7.3	17.7	33.3	20.9
영농여부	농어가 (852)	57.6	22.8	12.0	5.2	1.7	0.8	(847)	8.6	5.1	6.8	13.7	34.4	31.5
	비농어가 (1,923)	45.2	28.6	11.0	8.4	5.4	1.4	(1,918)	17.5	9.1	8.8	21.3	30.6	12.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39.5	26.9	11.9	10.2	10.3	1.1	(528)	17.6	6.8	12.5	18.2	34.8	10.2
	40대 (490)	45.6	28.3	10.9	9.1	4.0	2.0	(489)	16.7	13.0	12.5	23.5	23.3	11.0
	50대 (608)	53.3	29.5	8.9	5.7	1.7	1.0	(604)	19.7	9.4	6.5	21.6	26.7	16.1
	60대 (491)	50.5	22.6	15.6	6.7	3.8	0.7	(490)	11.3	6.0	7.5	16.4	34.5	24.3
	70대 이상 (620)	55.6	25.6	10.1	4.9	2.3	1.5	(617)	9.0	4.9	3.2	15.0	38.2	29.7
도시	(1,145)	45.8	29.3	9.4	7.7	4.7	3.1	(1,143)	16.3	11.0	13.2	25.1	24.4	10.0

1802 > 공동체 활동 참여

▶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편(합)](42.9%) > [참여하는 편(합)](18.3%)

귀하께서는 마을(동네)의 공식적인 행사나 회의, 공동작업 등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마을(동네)의 공식적인 행사나 회의, 공동작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15.1%) 등 [참여하는 편(합)] 비율이 18.3%로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21.9%) 등 [참여하지 않는 편(합)](42.9%)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읍지역, 비농어가, 이주민, 이주 의향층에서 [참여하지 않는 편(합)]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선주민층, 비의향층에서 [참여하는 편(합)]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참여하는 편(합)](+9.0%p) 비율이 높은 반면, [참여하지 않는 편(합)](-27.6%p) 비율은 낮았다.

| 표 1802 | 공동체 활동 참여

단위 : %(명)

구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참여하는 편(합)	보통	적극적 으로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 편(합)
농어촌 (2,758)		3.1	15.1	18.3	38.9	21.0	21.9	42.9
읍/면	읍 (1,214)	0.9	9.6	10.5	38.7	20.1	30.7	50.8
	면 (1,544)	4.9	19.5	24.4	39.0	21.7	14.9	36.6
영농 여부	농어가 (847)	7.6	29.6	37.1	40.9	15.6	6.3	21.9
	비농어가 (1,910)	1.2	8.7	9.9	37.9	23.4	28.8	52.2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63)	1.8	11.1	12.9	38.2	20.2	28.7	48.9
	선주민 (989)	5.5	22.3	27.9	40.2	22.4	9.4	31.9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199)	1.7	3.9	5.6	25.8	20.2	48.3	68.6
	비의향층 (2,558)	3.2	16.0	19.3	39.9	21.0	19.8	40.9
도시 (1,143)		1.1	8.2	9.3	20.2	33.5	37.0	70.5

1803 > 외부인 유입 여부

▶ 귀농·귀촌인(36.6%) > 결혼 이민자(27.1%) > 이주 노동자(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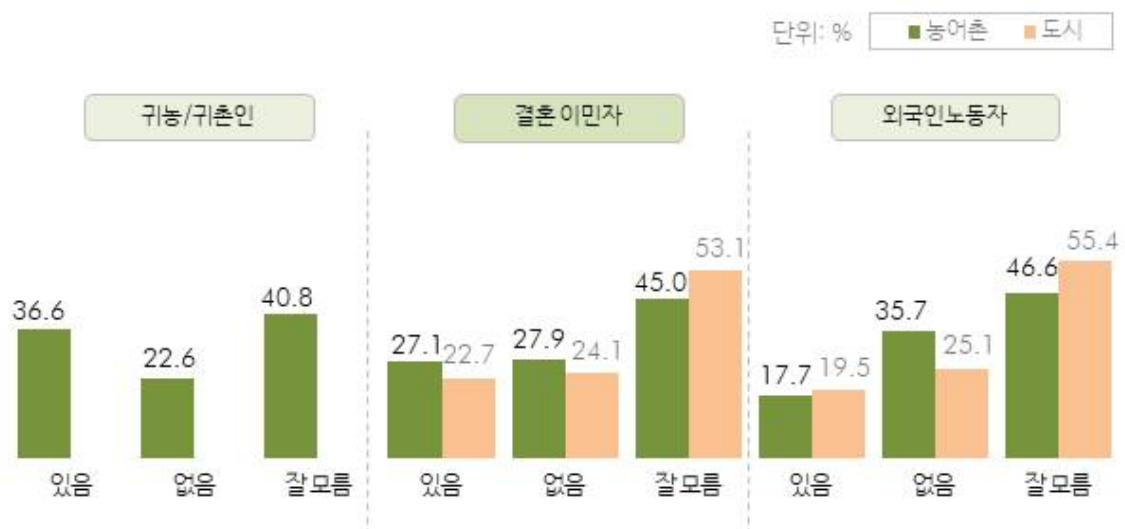
귀택 또는 귀하의 이웃에는 귀농·귀촌인,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가 살고 있습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귀농·귀촌인의 경우, '우리 가구에 있음'(3.5%), '우리 이웃에 있음'(33.1%) 등 [있음] 비율이 36.6%로 [없음](22.6%)에 비해 높았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우리 가구에 있음'(1.2%), '우리 마을에 있음'(25.9%) 등 [있음](27.1%) 비율과 [없음](27.9%)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주 노동자의 경우, [있음] 비율이 17.7%로 [없음](35.7%)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도시 대비, 결혼이민자 [있음](+4.4%p), 이주 노동자 [없음](+10.6%p) 비율이 높은 반면, [잘 모름] 비율은 낮았다.

| 그림 1803 | 외부인 거주 여부



면지역, 농어가에서 귀농·귀촌인, 결혼이민자 [있음], 이주 노동자 [없음] 비율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잘 모름] 비율이 높았다.

| 표 1803 - (1) | 외부인 유입 여부

단위 : %(명)

구분			귀농·귀촌인				
			우리 가구에 있음	우리 이웃에 있음	있음	없음	잘 모름
농어촌 (2,755)			3.5	33.1	36.6	22.6	40.8
읍/면	읍 (1,216)		0.9	22.0	22.9	24.2	52.9
	면 (1,539)		5.6	41.9	47.4	21.4	31.2
영농 여부	농어가 (852)		5.4	50.0	55.5	22.5	22.1
	비농어가 (1,904)		2.7	25.5	28.2	22.7	49.1

구분			결혼이민자				
			우리 가구에 있음	우리 이웃에 있음	있음	없음	잘 모름
농어촌 (2,767)			1.2	25.9	27.1	27.9	45.0
읍/면	읍 (1,215)		1.2	21.4	22.5	21.9	55.6
	면 (1,552)		1.2	29.5	30.7	32.5	36.8
영농 여부	농어가 (852)		1.3	35.8	37.1	36.3	26.6
	비농어가 (1,915)		1.1	21.5	22.7	24.1	53.2
도시 (1143)			1.6	21.2	22.7	24.1	53.1

구분			이주 노동자				
			우리 가구에 있음	우리 이웃에 있음	있음	없음	잘 모름
농어촌 (2,765)			0.6	17.1	17.7	35.7	46.6
읍/면	읍 (1,215)		0.8	15.7	16.5	25.8	57.7
	면 (1,550)		0.5	18.2	18.7	43.5	37.8
영농 여부	농어가 (852)		0.6	16.5	17.0	51.8	31.2
	비농어가 (1,913)		0.7	17.4	18.0	28.6	53.4
도시 (1,142)			1.1	18.4	19.5	25.1	55.4

외부인 유입 여부 - 추이

- 2015년에 비해 귀농/귀촌인(-3.5%p), 결혼 이민자(-12.2%p), 이주노동자(-7.3%p) [있음] 비율이 감소한 반면, [잘 모름] 비율이 증가

| 표 1803 - (2) | 외부인 유입 여부 - 추이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잘 모름
귀농·귀촌인	2018년	(2,755)	36.6	22.6	40.8
	2015년	(3,900)	40.1	23.1	36.8
	2013년	(2,744)	16.6	46.2	37.2
결혼이민자	2018년	(2,767)	27.1	27.9	45.0
	2015년	(3,923)	39.3	27.6	33.1
	2013년	(2,756)	21.9	43.2	34.9
이주 노동자	2018년	(2,765)	17.7	35.7	46.6
	2015년	(3,915)	25.0	37.9	37.1
	2013년	(2,748)	12.0	49.5	38.5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1804 >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 귀농·귀촌인(56.1%) > 결혼 이민자(54.7%) > 이주 노동자(44.3%)

귀하께서는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귀하의 이웃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이웃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귀농·귀촌인에 대해 ‘매우 긍정적’(9.8%), ‘다소 긍정적’(46.3%) 등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5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결혼이민자(54.7%), 이주 노동자(44.3%)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체로 [긍정(합)]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해 [긍정(합)] 비율이 높은 반면(+6.3%p),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 표 1804 |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단위: %(명)

구분		귀농·귀촌인				결혼이민자				이주 노동자			
		사례수	긍정 (합)	보통	부정 (합)	사례수	긍정 (합)	보통	부정 (합)	사례수	긍정 (합)	보통	부정 (합)
농어촌		(2,755)	56.1	39.0	5.0	(2,753)	54.7	38.8	6.4	(2,765)	44.3	42.2	13.5
읍/면	읍	(1,216)	49.2	45.8	5.0	(1,201)	49.1	44.4	6.5	(1,214)	36.7	48.0	15.2
	면	(1,539)	61.5	33.6	5.0	(1,552)	59.1	34.5	6.4	(1,551)	50.3	37.6	12.2
영농 여부	농어가	(852)	64.7	30.2	5.1	(852)	61.3	32.8	5.9	(850)	50.2	38.0	11.8
	비농어가	(1,904)	52.2	42.9	4.9	(1,901)	51.8	41.5	6.7	(1,915)	41.7	44.0	14.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0)	54.7	40.5	4.8	(520)	48.9	42.7	8.5	(520)	40.6	41.9	17.5
	40대	(491)	51.3	43.6	5.1	(488)	50.6	41.8	7.6	(491)	42.6	43.0	14.4
	50대	(603)	57.7	36.5	5.9	(597)	58.8	35.6	5.5	(608)	43.7	42.5	13.8
	60대	(490)	55.9	40.6	3.6	(491)	55.8	39.9	4.3	(489)	46.3	42.9	10.8
	70대 이상	(613)	59.3	35.9	4.8	(619)	58.6	34.9	6.6	(619)	47.9	40.7	11.4
도시		-	-	-	-	(1,143)	48.4	44.2	7.5	(1,143)	43.5	45.1	11.4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 추이

- 2015년 대비 귀농/귀촌인(+2.4%p), '결혼 이민자'(+10.0%p), '이주 노동자'(+11.9%p) 모두 [긍정] 비율이 증가

| 그림 1804 |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 추이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1805> 마을공동사업 경험 및 참여 의사(농어촌)

▶ 마을공동사업 및 관련 주민(역량) 교육 경험률은 10.0% 이하, 향후 참여 의향률은 30.0% 내외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주민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 사업 및 관련 교육에 참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향후에 마을공동사업이 실시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사업’(10.0%)이나 ‘마을공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민(역량)교육’(7.4%)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전체 농어촌 가구의 10% 이하로 나타났다.

‘마을공동사업’(29.2%)과 ‘마을공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민(역량)교육’(27.1%)에 대한 향후 참여 의향률은 30% 내외 수준으로 경험률에 비해 높았다.

면지역, 농어가, 60대 연령층, 선주민층, 이주 비의향층에서 마을공동사업 및 주민(역량)교육의 경험률과 향후 참여의향률이 높게 나타났다.

| 표 1805 - (1) | 마을공동사업 참여 경험 및 참여 의사(농어촌)

단위 : %(명)

구분			마을공동사업		마을공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민(역량)교육	
			경험률	향후 참여의향률	경험률	향후 참여의향률
농어촌 (2,780)			10.0	29.2	7.4	27.1
읍/면	읍	(1,228)	4.9	22.1	3.9	22.0
	면	(1,552)	14.0	34.9	10.2	31.2
영농 여부	농어가	(853)	20.6	47.4	15.5	43.0
	비농어가	(1,927)	5.3	21.2	3.9	20.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2.8	24.4	2.6	24.7
	40대	(494)	9.1	27.9	6.5	25.5
	50대	(608)	9.7	30.8	9.4	30.2
	60대	(492)	19.1	39.5	13.0	35.4
	70대 이상	(620)	9.9	25.7	6.2	21.9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7)	6.4	26.3	5.2	25.3
	선주민	(994)	16.4	34.8	11.4	30.6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200)	7.2	18.4	5.8	17.0
	비의향층	(2,575)	10.2	30.1	7.6	28.0

 마을공동사업 경험 및 참여 의사 - 추이

- 2013년 대비 경험률은 비슷한 수준인 반면, 마을공동사업(+8.9%p), 마을공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민교육(+7.5%p) 비율이 증가

| 표 1805 - (2) | 마을공동사업 경험 및 참여 의사 - 추이

단위 : %(명)

구분	마을공동사업		마을공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민교육	
	경험률	향후 참여의향률	경험률	향후 참여의향률
2018년 (2,780)	10.0	29.2	7.4	27.1
2013년 (2,764)	9.0	20.3	7.6	19.6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1806>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농어촌)

▶ 마을 공동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50% 이상의 공감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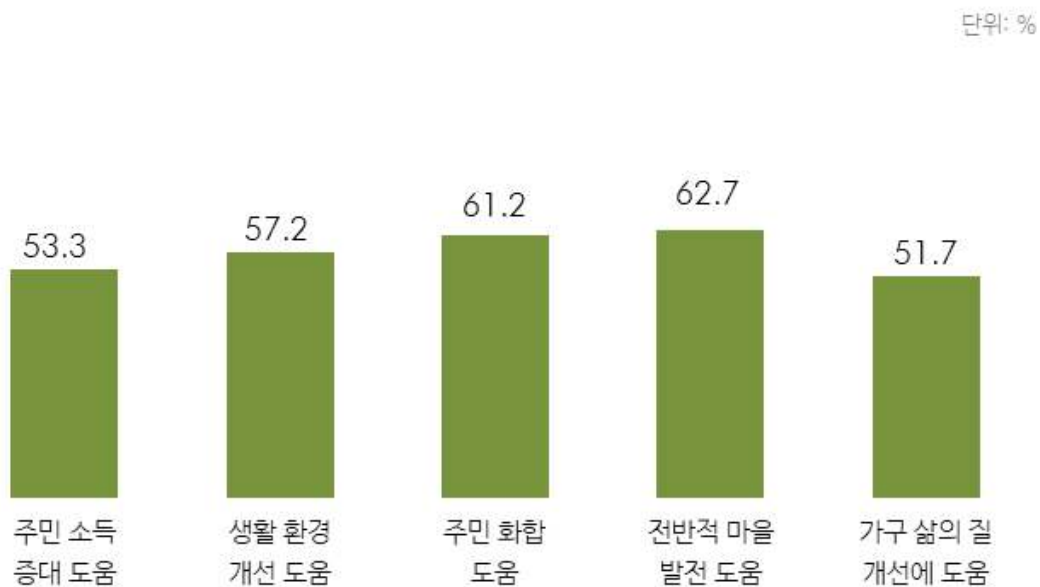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마을공동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마을공동사업은 주민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데에 도움이 된다’(61.2%), ‘마을공동사업은 생활환경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바뀌는 데에 도움이 된다’(57.2%), ‘마을공동사업은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53.3%) 등 마을공동사업의 순기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50% 이상의 공감도를 보였다.

한편, ‘마을공동사업은 전반적으로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된다’에 대해서는 62.7%의 공감도를 보인 반면, ‘마을공동사업은 우리 가구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데에 도움이 된다’(51.7%)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공감한다는 태도가 약했다.

| 그림 1806 - (1) |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



* 제시한 비율은 [그런편(합)] 비율

농어가, 마을공동사업 참여 경험층 및 향후 마을 공동사업 참여 의향층에서 전반적으로 공감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 가운데, 면지역,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민 소득 증대 도움’에 대한 공감도가 더욱 높았다.

| 표 1806 - (1) |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1)

단위 : %(명)

구분		주민 소득 증대 도움				생활환경 개선 도움			
		사례수	그런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합)	사례수	그런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합)
농어촌		(2,746)	53.3	40.8	5.8	(2,745)	57.2	39.7	3.1
읍/면	읍	(1,207)	49.4	43.6	7.0	(1,207)	57.0	39.6	3.4
	면	(1,539)	56.5	38.6	4.9	(1,538)	57.5	39.7	2.8
영농 여부	농어가	(852)	62.4	32.6	4.9	(850)	61.1	35.5	3.5
	비농어가	(1,895)	49.3	44.5	6.2	(1,895)	55.5	41.6	2.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3)	45.0	50.2	4.8	(513)	57.9	40.6	1.5
	40대	(491)	51.5	39.8	8.7	(491)	58.3	38.3	3.4
	50대	(602)	52.7	40.6	6.7	(601)	60.0	34.9	5.1
	60대	(490)	54.1	39.2	6.7	(490)	52.1	44.3	3.6
	70대 이상	(613)	61.7	35.2	3.1	(613)	58.6	39.4	1.9
마을 공동사업	경험층	(277)	73.4	22.6	4.0	(276)	68.1	28.3	3.6
	비경험층	(2,470)	51.1	42.9	6.0	(2,469)	56.0	40.9	3.0
향후 마을 공동사업 참여	의향층	(811)	73.5	23.4	3.1	(811)	73.4	24.7	1.9
	비의향층	(1,935)	44.9	48.1	7.0	(1,934)	50.5	45.9	3.6

‘주민 소득 증대 도움’, ‘생활환경 개선 도움’과 마찬가지로 농어가, 마을공동사업 참여 경험층 및 향후 마을 공동사업 참여 의향층에서 전반적으로 공감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 가운데, 면지역,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반적 마을 발전 도움’에 대한 공감도가 더욱 높았다.

| 표 1806 - (2) |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2)

단위 : %(명)

구분		주민 화합 도움				전반적 마을 발전 도움			
		사례수	그런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사례수	그런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 (합)
농어촌		(2,744)	61.2	35.0	3.8	(2,744)	62.7	34.3	3.0
읍/면	읍	(1,207)	59.0	36.3	4.7	(1,207)	59.2	36.6	4.2
	면	(1,537)	62.9	33.9	3.1	(1,536)	65.5	32.5	2.1
영농 여부	농어가	(851)	70.6	26.0	3.4	(849)	69.3	27.9	2.8
	비농어가	(1,893)	57.0	39.0	4.0	(1,894)	59.8	37.2	3.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3)	55.4	43.0	1.6	(513)	59.7	38.6	1.7
	40대	(491)	59.8	34.3	5.9	(491)	60.2	37.2	2.6
	50대	(602)	63.6	30.8	5.6	(600)	63.5	31.7	4.7
	60대	(490)	60.5	35.6	3.8	(489)	62.7	33.4	3.8
	70대 이상	(610)	65.6	32.0	2.4	(613)	67.0	31.0	2.1
마을 공동사업	경험층	(276)	71.2	27.3	1.5	(277)	71.5	26.6	1.9
	비경험층	(2,467)	60.1	35.9	4.0	(2,467)	61.8	35.1	3.1
향후 마을 공동사업 참여	의향층	(809)	80.5	17.8	1.7	(810)	82.4	16.6	1.0
	비의향층	(1,934)	53.1	42.2	4.7	(1,934)	54.5	41.7	3.8

농어가, 마을공동사업 참여 경험층 및 향후 마을 공동사업 참여 의향층에서 ‘가구 삶의 질 개선에 도움’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다.

| 표 1806 - (3) |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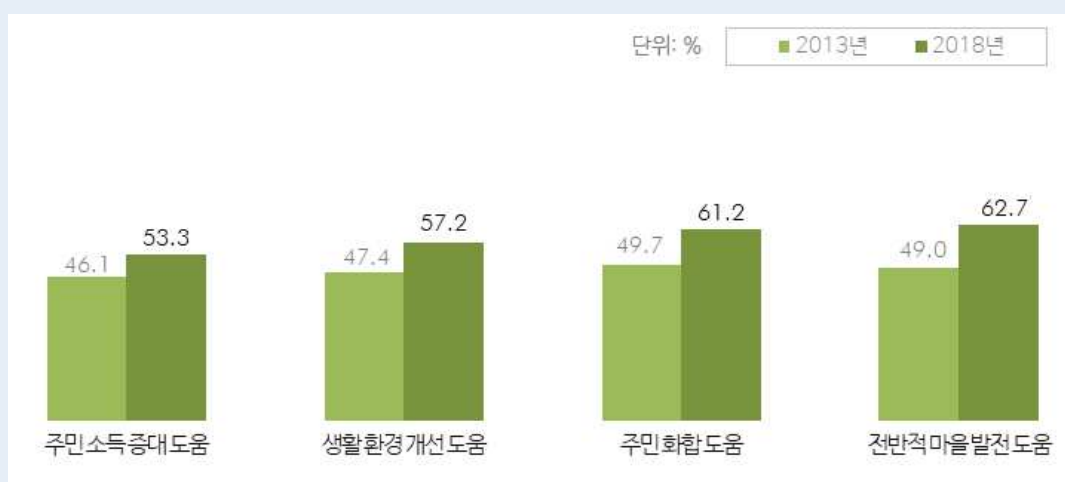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가구 삶의 질 개선에 도움			
		사례수	그런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합)
농어촌		(2,744)	51.7	41.3	7.1
읍/면	읍	(1,207)	52.5	39.8	7.7
	면	(1,536)	51.0	42.4	6.6
영농 여부	농어가	(850)	58.0	35.7	6.3
	비농어가	(1,893)	48.8	43.8	7.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3)	47.5	48.9	3.6
	40대	(491)	51.1	41.7	7.2
	50대	(602)	54.5	37.4	8.2
	60대	(489)	52.8	39.4	7.8
	70대 이상	(611)	53.0	38.4	8.5
마을 공동사업	경험층	(277)	67.1	29.9	3.0
	비경험층	(2,467)	49.9	42.5	7.6
향후 마을 공동사업 참여	의향층	(811)	74.9	23.3	1.7
	비의향층	(1,933)	41.9	48.8	9.3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 - 추이

- 2013년 대비 모든 항목에 대한 공감도가 증가한 가운데, '전반적 마을 발전 도움'(+13.7%p), '주민 화합 도움'(+11.5%p) 비율이 다소 증가

| 그림 1806 - (2) |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 - 추이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제시한 비율은 [그런편(함)] 비율

* 2018년에 '가구 삶의 질 개선에 도움' 항목이 추가되었으나, 비교에는 제시하지 않음

1807>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발전된 편(합)](23.7%) < [낙후된 편(합)](30.4%)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정도를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정도에 대해 ‘매우 발전된 수준’(1.2%), ‘발전된 편’(22.5%) 등 [발전된 편(합)]이라는 비율이 23.7%로 ‘매우 낙후됨’(2.7%), ‘낙후된 편’(27.6%) 등 [낙후된 편(합)](30.4%)에 비해 낮았다.

읍지역, 30대 이하 연령층, 아파트 거주층에서 [발전된 편(합)]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 50대 연령층에서 [낙후된 편(합)]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발전된 편(합)] 비율이 낮은 반면(-15.8%p), [낙후된 편(합)] 비율이 높았다(+13.6%p).

| 표 1807 |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매우 발전된 수준	발전된 편	발전된 편(합)	보통	낙후된 편	매우 낙후됨	낙후된 편(합)
농어촌 (2,767)			1.2	22.5	23.7	46.0	27.6	2.7	30.4
읍/면	읍	(1,217)	1.1	26.4	27.5	46.4	24.3	1.9	26.1
	면	(1,550)	1.2	19.5	20.7	45.6	30.3	3.4	33.7
영농 여부	농어가	(852)	1.8	24.4	26.2	43.9	27.1	2.8	29.9
	비농어가	(1,915)	0.9	21.6	22.5	46.9	27.9	2.7	30.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0)	1.0	28.5	29.5	41.3	26.7	2.5	29.1
	40대	(491)	1.9	20.9	22.8	47.0	27.6	2.6	30.2
	50대	(608)	1.1	18.8	19.9	40.3	35.1	4.6	39.8
	60대	(491)	1.0	24.3	25.3	48.6	24.3	1.7	26.1
	70대 이상	(619)	0.9	20.1	21.0	52.2	24.9	1.9	26.8
주택 종류	단독주택	1578	1.1	19.9	20.9	46.2	30.2	2.7	32.8
	아파트	866	1.8	31.5	33.3	45.5	19.7	1.5	21.2
	연립/다세대/기타	322		11.3	11.3	45.8	36.6	6.3	42.9
도시 (1,141)			4.7	34.9	39.5	43.6	15.1	1.7	16.8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 추이

- 2013년 대비 [발전된 편(합)]이라는 응답이 다소 증가(+9.8%p)한 반면, [낙후된 편(합)](-6.1%p)이라는 의견은 감소

| 그림 1807 |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 추이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1900> 경제

활동

- 1901> 도·농 교류/6차 산업 경험 유무 및 만족도
- 1902> 도·농 교류/6차 산업 추진 시 어려움(농어가)
- 1903> 농어가 소득구조
- 1904> 월 평균 생활비
- 1905>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투자 영역

1901 > 도·농 교류/6차 산업 경험 유무 및 만족도

▶ 농어가와 비농어가, 도시민 모두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 판매 및 구매' 경험률 및 향후 의향률이 높음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사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조사대상 가구(농어가 : n=853, 비농어가 : n=1,927, 도시 : n=1,149) 기준]

농어가의 경우,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 판매'(21.9%) 경험률이 가장 높은 반면, '농어가 가공'(7.6%), '농어촌 체험관광'(3.9%), '음식 판매(농가레스토랑, 농가맛집)'(3.5%), '숙박 제공(민박 운영)'(2.0%) 경험률은 높지 않았다.

면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경험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비농어가 중 1/3 가량이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29.8%) 및 '농어가 가공품 이용'(26.8%) 경험이 있었다. 반면에 '농어촌 체험 관광'(5.7%), '농어가 식사(농가레스토랑, 농가맛집)'(5.6%), '농어가 숙박(농어가 민박 이용)'(3.8%) 경험률은 높지 않았다.

도시 지역에서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 경험률이 높았다(+6.6%p).

| 표 1901 - (1) | 도·농 교류 및 6차 산업화 참여 경험 유무(농어촌 - 농어가)

단위 : %(명)

구분		농어가 가공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	농어촌 체험관광	음식 판매 (농가레스토랑, 농가맛집)	숙박제공 (민박 운영)
농어가 (853)		7.6	21.9	3.9	3.5	2.0
읍/면	읍 (205)	4.4	11.6	2.0	0.9	0.2
	면 (648)	8.6	25.2	4.5	4.3	2.6

| 표 1901 - (2) | 도·농 교류 및 6차 산업화 이용 경험 유무(농어촌 - 비농어가, 도시)

단위 : %(명)

구분		농어가 가공품 이용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	농어촌 체험관광	농어가 식사 (농가레스토랑, 농가맛집)	농어가 숙박 (농어가 민박 이용)
비농어가 (1,927)		26.8	29.8	5.7	5.6	3.8
읍/면	읍 (1,023)	21.1	28.5	8.4	6.6	3.4
	면 (904)	33.2	31.3	2.6	4.4	4.4
도시 (1149)		25.4	36.4	5.7	8.8	6.2

* 농어촌 중 농어가의 경우 '참여 경험', 비농어가와 도시의 경우 '이용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임



농어가의 경우, '농어가 가공'(평균 69.6점),

비농어가의 경우,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평균 75.6점)에서 가장 큰 만족도를 보임

[조사대상 가구(농어가: n=853, 비농어가: n=1,927, 도시: n=1,149) 기준/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chi_i - 1) \times 25.0000$, χ_i =측정 값]

농어가의 경우, '농어가 가공'(평균 69.6점), '음식판매(농가레스토랑, 농가맛집)'(평균 69.3점),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평균 68.6점)에서 '다소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를 보인 반면, '숙박제공(민박 운영)'(평균 62.9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한다는 태도가 약했다.

비농어가의 경우,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평균 75.6점), '농어가 가공품 이용'(평균 72.4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 농어가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 가운데,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 '농어가 식사(농가레스토랑, 농가맛집)'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 표 1901 - (3) | 도농 교류 및 6차 산업화 참여 및 이용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농어가 가공/ 농어가 가공품 이용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		농어촌 체험관광		음식판매/ 농어가식사 (농가레스토랑, 농가맛집)		숙박제공 (민박 운영)/ 농어가 숙박 (농어가 민박 이용)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농어촌	농어가	(137)	69.6	(256)	68.6	(74)	66.0	(83)	69.3	(50)	62.9
	비농어가	(838)	72.4	(897)	75.6	(378)	64.6	(561)	63.6	(357)	62.6
도시		(559)	70.1	(650)	75.5	(305)	70.8	(377)	74.5	(332)	65.8

* 농어촌 중 농어가의 경우 '참여 경험 만족도', 비농어가와 도시의 경우 '이용 경험 만족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임



‘농어가’(30.3%), 비농어가(46.5%), 도시(56.6%) 모두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 참여/이용 의향이 가장 높음

향후(에도) 다음의 사업에 참여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사대상 가구(농어가 : n=853, 비농어가 : n=1,927, 도시 : n=1,149) 기준]

농어가의 경우, 경험률이 높았던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30.0%) 참여 의향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어가 가공’(16.0%), ‘음식 판매(농가레스토랑, 농가맛집)’(9.8%), ‘농어촌 체험관광’(8.7%), ‘숙박 제공(민박 운영)’(5.9%) 순으로 나타났다.

면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참여 의향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 1901 - (4) | 도농 교류 및 6차 산업화 향후 참여 의향(농어촌 - 농어가)

단위 : %(명)

구분			농어가 가공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	농어촌 체험관광	음식 판매 (농가레스토랑, 농가맛집)	숙박제공 (민박 운영)
농어가 (853)			16.0	30.0	8.7	9.8	5.9
읍/면	읍	(205)	8.1	16.8	4.3	4.1	1.9
	면	(648)	18.5	34.2	10.0	11.5	7.2

비농어가 역시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46.5%) 및 ‘농어가 가공품 이용’(43.5%) 이용 의향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어가 식사(농가레스토랑, 농가맛집)’(29.1%), ‘농어촌 체험관광’(19.6%), ‘농어가 숙박(농어가 민박 이용)’(18.5%) 순으로 나타났다. 읍지역에서 ‘농어촌 체험관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에 비해 ‘농어가 숙박(농어가 민박 이용)’,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 이용 의향률이 다소 높았다.

| 표 1901 - (5) | 도농 교류 및 6차 산업화 향후 이용 의향(농어촌 - 비농어가, 도시)

단위 : %(명)

구분			농어가 가공품 이용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	농어촌 체험관광	농어가 식사 (농가레스토랑, 농가맛집)	농어가 숙박 (농어가 민박 이용)
비농어가 (1,927)			43.5	46.5	19.6	29.1	18.5
읍/면	읍	(1,023)	41.0	47.6	26.0	32.3	21.6
	면	(904)	46.4	45.4	12.4	25.5	15.1
도시 (1,149)			48.7	56.6	26.6	32.8	28.9

* 농어촌 중 농어가의 경우 ‘참여 의향’, 비농어가와 도시의 경우 ‘이용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임

도농 교류/6차 산업 경험 유무 및 만족도(농어가) - 추이

- 2013년 대비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5.2%p) 비율이 약간 증가

| 표 1901 - (6) | 도농 교류/6차 산업 참여 경험 유무(농어가) - 추이 단위 : %(명)

구분	농어가 가공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	농어촌 체험관광	음식판매 (농가레스토랑, 농가맛집)	숙박제공 (민박 운영)
2018년 (853)	7.6	21.9	3.9	3.5	2.0
2014년 (1,120)	4.3	32.2	1.1	0.6	0.6
2013년 (912)		16.7	6.2		3.1

- 2013년과 구성 항목이 달라 동등비교가 어려운 가운데, '음식판매(농가레스토랑, 농가맛집)', '숙박제공(민박운영)' 만족도가 다소 증가

| 표 1901 - (7) | 도농 교류/6차 산업 참여 경험 만족도(농어가) - 추이 단위 : 점(명)

구분	농어가 가공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		농어촌 체험관광		음식판매 (농가레스토랑, 농가맛집)		숙박제공 (민박 운영)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2018년	(137)	69.6	(256)	68.6	(74)	66.0	(83)	69.3	(50)	62.9
2013년	-		(138)	64.7	(50)	65.4	(24)	56.0		

- 2013년 대비 '농어촌 체험관광'(-8.4%p) 참여 의향이 감소
- 2014년 대비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6.4%p) 참여 의향이 감소한 반면, '음식판매(농가레스토랑, 농가맛집'(+7.7%p), '농어가 가공'(+8.0%p) 참여 의향은 증가

| 표 1901 - (8) | 도농 교류/6차 산업 참여 의향(농어가) - 추이 단위 : %(명)

구분	농어가 가공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	농어촌 체험관광	음식판매 (농가레스토랑, 농가맛집)	숙박제공 (민박 운영)
2018년 (853)	16.0	30.0	8.7	9.8	5.9
2014년 (1,120)	8.0	36.4	4.5	2.1	2.2
2013년 (912)	-	32.5	17.1		9.8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4년은 가구소득 기여도에 대한 만족도로 제시하지 않음

* 2013년은 '농어가 식당 또는 민박'으로 질문함

1902> 도·농 교류/6차 산업 추진 시 어려움(농어가)

▶ '고객·판로 확보(홍보 및 마케팅)'(28.2%)가 가장 주된 어려움

귀하께서 위 사업을 하시면서, 또는 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경험 유무’ 혹은 ‘참여 의향’에서 하나라도 ‘있음’을 선택한 총(n=280) 기준]

농어가에서 도·농 교류 및 6차 산업을 추진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 ‘고객·판로 확보(홍보 및 마케팅)’(28.2%)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인력 부족’(23.0%), ‘자금 부족’(20.1%)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획력 및 기술 부족’(9.2%), ‘시설/설비 부족’(8.0%), ‘경영관리 역량 부족’(6.1%) 순으로 나타났다.

읍지역, 가공, 직거래/로컬푸드 참여 및 의향층에서 ‘고객·판로 확보(홍보 및 마케팅)’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에서 ‘인력 부족’ 비율이 높았다.

| 표 1902 - (1) | 도·농 교류 및 6차 산업 추진 시 어려움(농어가)

단위 : %(명)

구분			자금 부족	기획력 및 기술력 부족	경영 관리 역량 부족	시설/ 설비 부족	행정· 제도 복잡	관련 규제로 인한 제약	인력 부족	고객· 판로 확보 (홍보 및 마케팅)	참여자 간 갈등
농어가 (280)			20.1	9.2	6.1	8.0	2.2	1.8	23.0	28.2	1.4
읍/면	읍 (39)		17.5	20.6	6.8	3.1			11.4	40.5	
	면 (242)		20.5	7.3	6.0	8.8	2.5	2.1	24.9	26.3	1.6
참여 여부	가공 (56)		19.1	8.8	10.7	14.4		1.5	16.4	29.1	
	직거래/로컬푸드 (171)		11.3	6.7	6.2	5.7		2.1	30.7	36.2	1.1
	농촌체험관광 (31)		39.1	10.6	1.7	11.7		2.1	26.1	8.7	
	음식판매 (20)		33.3	10.4	2.5	21.0	7.9		16.4	8.4	
	숙박제공 (17)		44.5	10.8	5.1	15.5	6.4	4.0	7.5	6.1	
참여 의향	가공 (98)		22.5	10.8	7.1	7.1	1.0	0.7	18.4	32.5	0.1
	직거래/로컬푸드 (192)		16.3	6.6	4.9	7.3	0.5	1.9	28.3	33.4	0.7
	농촌체험관광 (53)		40.2	9.7	0.8	17.9	0.9	1.2	11.2	18.0	
	음식판매 (53)		37.7	5.1	0.6	15.5	3.9		16.9	20.2	
	숙박제공 (36)		49.9	9.3	3.5	19.9	3.1	1.9	3.3	9.1	



도농 교류/6차 산업 추진 시 어려움 - 추이

- 2013년 대비 '자금 부족'(-9.2%p), '기획력 및 기술력 부족'(-8.7%p), '시설/설비 부족'(-8.8%p) 비율이 감소한 반면, '고객·판로 확보(홍보 및 마케팅)'(+22.9%p) 비율은 증가

| 표 1902 - (2) | 도농 교류/6차 산업 추진 시 어려움 - 추이

단위 : %(명)

		자금 부족	기획력 및 기술력 부족	경영 관리 역량 부족	시설/ 설비 부족	행정· 제도 복잡	관련 규제로 인한 제약	인력 부족	고객· 판로 확보 (홍보 및 마케팅)	참여자 간 갈등
2018년	(280)	20.1	9.2	6.1	8.0	2.2	1.8	23.0	28.2	1.4
2014년	(470)	20.0	7.1	4.2	10.9	1.1	1.4	22.0	30.2	1.0
2013년	(347)	29.3	17.9	-	16.8	-	2.9	23.3	5.3	2.4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기타'는 제시하지 않음

* 2014년에 '경영관리역량부족', '행정·제도 복잡' 항목이 추가됨

1903> 농어가 소득구조

▶ 농어가 중 29.0%가 '겸업농', 겸업농의 소득 중 66.2%가 '농업 외 소득'

귀택은 농어업만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농어업 외 다른 일을 겸하고 계십니까?
(겸업의 경우) 농어업 외 종사하시는 일의 형태와 소득 구조는 어떠합니까?

[겸업 여부 : 농어가(n=853) 기준/ 농업 외 직종의 형태, 종사자 지위, 소득 구조 : 겸업층(n=242) 기준]

농어가 중 농업만을 하고 있는 전업농이 71.0%, 농업 외 다른 일을 겸하고 있는 겸업농이 29.0%로 나타났다.

겸업을 하고 있는 농가의 농업 외 직종 형태로 '자영업'(47.4%)과 '임금근로'(52.6%)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며, 임금근로를 하고 있는 농가의 종사자 지위로 '상용'(54.2%)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읍지역에서 직종 형태로 '자영업', 종사자 지위로 '상용' 비율이 높은 반면, 면지역에서 '임금근로', '일용' 비율이 높았다.

| 표 1903 - (1) | 전업 또는 겸업 여부 및 겸업의 형태

단위 : %(명)

구분		전업	겸업	농업 외 직종의 형태		종사자 지위		
				자영업	임금근로	상용	임시	일용
농어가 (834)		71.0	29.0	47.4	52.6	54.2	21.1	24.7
읍/면	읍 (200)	72.8	27.2	55.6	44.4	74.5	17.5	8.1
	면 (634)	70.5	29.5	45.7	54.3	50.7	21.7	27.6

겸업을 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 구조로 '농업 외 소득'(평균 66.2%) 비율이 '농어업 소득'(평균 30.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읍지역에서 '농어업 외 소득' 비율이 더욱 높았다.

| 표 1903 - (2) | 소득 구조

단위 : %

구분		농어업 소득	농업 외 소득	기타소득
농어가 (240)		30.5	66.2	3.4
읍/면	읍 (53)	22.6	76.6	0.7
	면 (187)	32.7	63.2	4.1

1904> 월 평균 생활비

▶ 월 평균 생활비는 164.0만원

2017년('01.01.~12.31.)을 기준으로 귀댁의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농어촌 지역의 월 평균 생활비는 평균 164.0만원으로, 이 중 '식료품비'(평균 58.3만원) 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통/통신비'(평균 33.1만원), '교육비'(평균 19.4만원), '광열수도비'(평균 16.8만원), '보건의료비'(평균 13.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연령층,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교육비' 등 월 평균 생활비가 다소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대비, 농어촌에서 '식료품비'(-24.3만원), '교육비'(-12.5만원) 등 월 평균 생활비가 평균 -53.9만원 적게 들었다.

| 표 1904 - (1) | 월 평균 생활비

단위: 만원(명)

구분			월 평균 생활비	식료품비	보건 의료비	광열 수도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
농어촌 (2,759)			164.0	58.3	13.8	16.8	19.4	33.1	22.6
읍/면	읍 (1,218)		181.1	66.8	14.8	15.7	25.4	38.3	20.0
	면 (1,542)		150.4	51.5	13.1	17.6	14.6	28.9	24.6
영농 여부	농어가 (848)		151.2	48.8	15.0	17.7	15.5	30.1	24.1
	비농어가 (1,911)		169.7	62.5	13.3	16.4	21.1	34.4	21.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0)		188.0	71.7	10.4	16.5	25.3	39.7	24.4
	40대 (489)		232.6	76.9	13.8	17.9	50.0	46.1	27.9
	50대 (607)		191.0	65.5	14.9	19.0	19.6	41.7	30.3
	60대 (489)		136.6	49.6	14.9	17.3	4.5	28.4	22.0
	70대 이상 (618)		85.4	31.5	14.9	13.6	1.9	13.2	10.4
총 가구원 수	1명 (884)		89.1	33.7	9.6	12.6	2.4	16.0	14.8
	2명 (855)		145.4	52.9	15.0	17.5	7.1	31.2	21.6
	3명 이상 (1,020)		244.5	84.1	16.6	19.8	44.3	49.5	30.2
도시 (1,147)			217.9	82.6	12.6	17.8	31.9	40.8	32.2



월 평균 생활비 - 추이

- 2014년 이후 월 평균 생활비가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

| 그림 1904 | 월 평균 생활비 - 추이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4년, 2017년은 단일 문항임/ 2016년, 2018년은 비목별 생활비를 합산한 값임

1905>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투자 영역

▶ ‘농어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여건 개선’(37.4%)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80)/도시 가구(n=1,1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으로 ‘농어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여건 개선’(37.4%)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 특화 작목 개발’(29.3%), ‘농어촌 자원 활용 6차산업 육성’(15.0%), ‘지역 문화관광 개발, 품질 제고’(9.6%), ‘농공단지 조성, 기업 유치’(8.6%)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지역 특화 작목 개발’ 비율이 높은 반면,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농공단지 조성, 기업 유치’ 비율이 높았다.

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여건 개선’(+9.7%p) 비율이 높은 반면, ‘농어촌 자원 활용 6차산업 육성’(-8.4%p) 비율은 낮았다.

| 표 1905 - (1) |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투자 영역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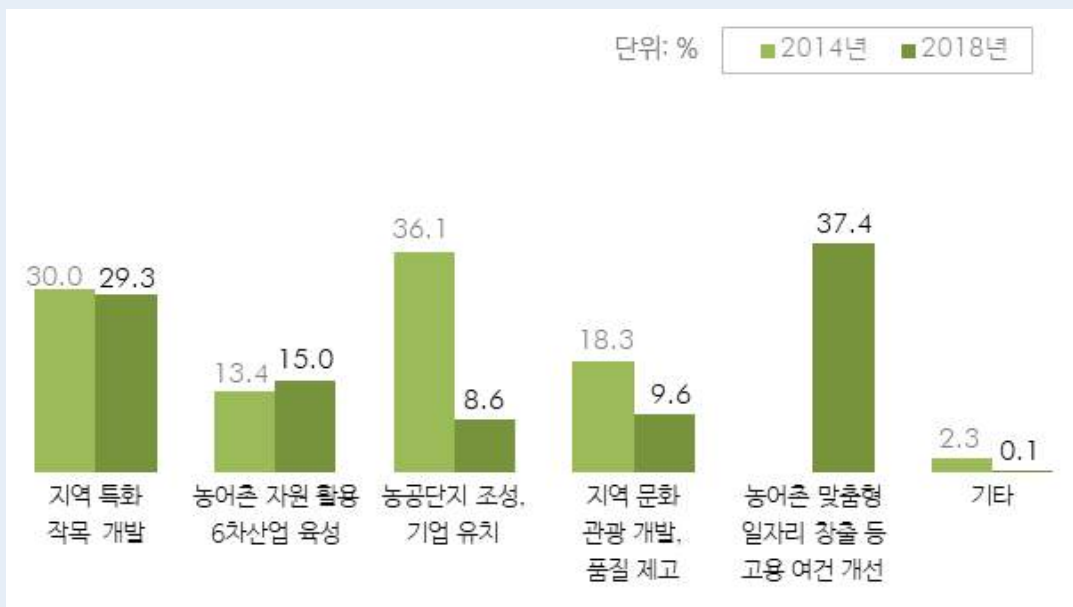
구분			지역 특화 작목 개발	농어촌 자원 활용 6차산업 육성	농공단지 조성, 기업 유치	지역 문화관광 개발, 품질 제고	농어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여건 개선	기타
농어촌 (2,725)			29.3	15.0	8.6	9.6	37.4	0.1
읍/면	읍 (1,203)		23.2	15.6	10.9	9.9	40.2	0.2
	면 (1,522)		34.1	14.5	6.8	9.4	35.2	
영농 여부	농어가 (835)		34.5	16.8	6.5	7.9	34.1	0.1
	비농어가 (1,890)		27.0	14.1	9.5	10.4	38.9	0.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7)		23.6	15.8	10.5	13.5	36.5	
	40대 (483)		28.0	15.5	14.1	8.7	33.6	
	50대 (599)		26.6	15.5	10.1	7.2	40.7	
	60대 (482)		34.6	15.2	5.5	9.1	35.6	0.1
	70대 이상 (605)		34.4	13.3	4.1	10.1	37.7	0.4
도시 (1,131)			26.8	23.4	11.4	10.6	27.7	0.2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영역 - 추이

- 문항 구성이 달라 동등비교가 어려운 가운데, 2014년 대비 '지역 문화관광 개발, 품질 제고'(-8.7%p) 비율이 약간 감소

| 그림 1905 |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영역 - 추이



* 2013년(n=2,764), 2018년(n=2,780)은 도/농 비교 종합조사로 농어촌 가구 기준 수치임

* 2014년에 '농공단지 조성, 기업 유치'(36.1%)는 '지역 특화 농공단지 조성'(18.7%), '기업 유치'(17.4%)의 합임

* 2018년 '농어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여건 개선' 항목 추가

제2부 기존통계 활용

2018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 2100> 보건의료
- 2200> 복지
- 2300> 교육
- 2400> 문화·여가여건
- 2500> 기초생활여건/환경·경관
- 2600> 지역역량
- 2700> 경제활동



2100> 보건

의료

- 2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 2102> 만성질환 현황
- 2103> 주관적 건강 인식
- 2104> 건강검진 수진율
- 2105> 월평균 보건의료비
- 2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 2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 2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 2109> 농작업 손상
- 2110> 병상 수
- 2111> 보건의료기관 수
- 2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2113>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2101 >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 농어촌의 유병률은 36.1%, 평균 유병일수 10.6일, 평균 외병일수 0.4일

2018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주 동안 농어촌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사람은 36.1%로 2008년 이후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25.7%)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표 2101 |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단위 : %, 일)

연도	구분	유병률	평균 유병일수	평균 외병일수
2008	농어촌	21.8	9.0	0.7
	도시	16.6	8.1	0.7
2010	농어촌	25.3	8.1	0.6
	도시	19.7	7.1	0.6
2012	농어촌	30.4	9.7	0.5
	도시	22.8	8.1	0.6
2014	농어촌	31.8	10.3	0.7
	도시	23.2	8.5	0.7
2016	농어촌	32.8	10.8	0.6
	도시	24.2	8.7	0.9
2018	농어촌	36.1	10.6	0.4
	도시	25.7	9.0	0.5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0세 이상 인구 대상, 지난 2주간

2102> 만성질환 현황

▶ 농어촌의 만성질환으로 ‘고혈압’이 많으며, 도시에 비해 유병률이 높음

2017년 기준, 농어촌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38.2%), ‘고콜레스테롤혈증’(23.8%), ‘당뇨병’(15.8%), ‘고중성지방혈증’(15.3%)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 표 2102 | 만성질환 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유병률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당뇨병
2005	농어촌	33.8	8.6	17.3	10.1
	도시	26.6	7.9	16.5	8.8
2007	농어촌	26.6	7.7	12.6	8.1
	도시	24.7	11.7	18.2	10.2
2008	농어촌	33.4	10.3	19.3	10.3
	도시	25.7	11.3	16.9	9.9
2009	농어촌	33.0	11.1	17.8	11.4
	도시	26.7	12.0	16.7	9.7
2010	농어촌	33.1	13.2	16.6	10.8
	도시	27.6	14.4	17.1	9.9
2011	농어촌	36.1	14.9	19.1	13.8
	도시	29.3	14.4	15.8	9.6
2012	농어촌	37.2	16.5	16.7	12.4
	도시	30.1	15.1	17.2	9.2
2013	농어촌	33.2	14.7	19.5	11.9
	도시	29.7	16.2	17.1	11.9
2014	농어촌	32.0	16.4	20.4	10.9
	도시	28.2	15.5	17.6	11.1
2015	농어촌	38.4	21.5	20.1	12.4
	도시	30.6	19.1	16.0	10.3
2016	농어촌	38.3	23.5	18.6	18.0
	도시	32.5	21.8	17.3	12.0
2017	농어촌	38.2	23.8	15.3	15.8
	도시	29.8	23.7	16.2	11.7

자료 : 각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국민건강통계)

주 : 만 30세 이상 대상

2103 > 주관적 건강 인식

▶ 농어촌 주민들의 주관적 건강 인식은 '좋다'가 46.9%

2018년 농어촌 주민들의 주관적 건강 인식은 '좋다'(46.9%)는 평가가 '나쁘다'(20.6%)에 비해 높았으며, 도시(49.2%)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 2103 | 주관적 건강 인식

(단위 : %)

연도	구분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2008	농어촌	46.0	10.0	36.0	32.1	21.9	18.8	3.1
	도시	52.8	10.3	42.5	35.0	12.2	10.6	1.5
2010	농어촌	42.2	9.2	33.0	34.8	23.1	19.3	3.8
	도시	47.8	10.0	37.8	38.1	14.1	11.9	2.2
2012	농어촌	43.8	10.0	33.8	33.3	22.8	18.8	4.0
	도시	45.7	10.2	35.5	39.8	14.6	12.2	2.4
2014	농어촌	43.8	11.0	32.8	33.8	22.4	18.8	3.6
	도시	49.7	11.1	38.6	36.7	13.6	11.8	1.8
2016	농어촌	44.9	9.7	35.2	33.7	21.3	18.0	3.3
	도시	47.5	10.2	37.3	38.6	13.8	12.1	1.7
2018	농어촌	46.9	10.4	36.5	32.5	20.6	17.3	3.3
	도시	49.2	8.9	40.3	36.9	13.9	12.0	1.9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104> 건강검진 수진율

▶ 농어촌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63.3%

2017년 기준, 농어촌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63.3%로, 도시(68.8%)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 표 2104 | 건강검진 수진율 (단위 : 명, %)

연도	구분	N	분율	표준오차
1998	농어촌	3,107	44.9	1.4
	도시	5,716	49.8	1.0
2001	농어촌	1,651	45.1	1.7
	도시	6,411	48.1	0.9
2005	농어촌	1,564	50.2	1.6
	도시	6,236	46.7	1.0
2007	농어촌	862	52.6	2.5
	도시	2,116	47.5	1.4
2008	농어촌	1,801	53.5	1.7
	도시	5,002	47.8	1.1
2009	농어촌	1,916	57.1	1.7
	도시	5,556	49.8	1.0
2010	농어촌	1,368	55.1	2.3
	도시	4,883	53.8	1.0
2011	농어촌	1,214	59.9	1.8
	도시	4,809	52.2	1.0
2012	농어촌	1,127	55.3	2.0
	도시	4,478	56.2	1.1
2013	농어촌	1,036	58.8	1.5
	도시	4,319	61.1	1.0
2014	농어촌	949	60.5	2.3
	도시	4,069	58.2	1.2
2015	농어촌	970	62.5	2.3
	도시	4,135	61.1	1.0
2016	농어촌	1,127	63.7	1.9
	도시	4,705	64.9	0.9
2017	농어촌	1,057	63.3	2.6
	도시	4,780	68.8	0.9

자료 :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국민건강통계)
주 : 1998년 - 만 20세 이상 대상, 2001년 이후 - 만 19세 이상 대상

2105> 월평균 보건의료비

▶ 농가의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196,770원, 어가는 234,543원

2017년 농가의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196,770원으로 도시 근로자가구(181,473원)에 비해 높은 반면, 어가(234,543원)에 비해 낮았다.

| 표 2105 - (1) | 월평균 보건의료비(1)

(단위 : 원)

연도	구분	월평균 보건의료비
2007	농가	143,031
	어가	128,167
	도시근로자가구	111,985
2008	농가	153,203
	어가	137,000
	도시근로자가구	119,194
2009	농가	161,945
	어가	145,833
	도시근로자가구	142,343
2010	농가	167,058
	어가	163,333
	도시근로자가구	151,101

자료 :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가계조사(도시)

주 : 농어가는 2007년, 2008년 구분류 기준, 2009년 이후 신분류 기준

| 표 2105 - (2) | 월평균 보건의료비(2)

(단위 : 원)

연도	구분	월평균 보건의료비
2011	농가	161,310
	어가	175,167
	도시근로자가구	159,985
2012	농가	162,980
	어가	167,673
	도시근로자가구	164,019
2013	농가	174,851
	어가	188,717
	도시근로자가구	163,456
2014	농가	179,512
	어가	188,831
	도시근로자가구	173,790
2015	농가	179,091
	어가	203,701
	도시근로자가구	174,720
2016	농가	195,954
	어가	232,535
	도시근로자가구	180,390
2017	농가	196,770
	어가	234,543
	도시근로자가구	181,473

자료 :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가계조사(도시)

주 : 농어가는 2007년, 2008년 구분류 기준, 2009년 이후 신분류 기준

2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 농어촌의 미치료자 중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병의원' 12.1%, '치과' 36.3%

2017년 기준, 농어촌의 미치료자 중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병의원' 12.1%, '치과' 36.3%로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치과'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도시(29.8%)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표 2106 |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병의원			치과		
		N	분율	표준오차	N	분율	표준오차
2007	농어촌	188	20.0	3.9	326	34.8	3.7
	도시	452	22.8	3.1	773	41.9	2.7
2008	농어촌	456	28.0	2.5	729	45.5	2.3
	도시	1,165	21.9	1.6	2,172	39.0	1.4
2009	농어촌	529	21.7	2.8	850	42.0	2.3
	도시	1,319	25.3	1.5	2,586	45.1	1.4
2010	농어촌	360	16.0	2.5	527	34.6	3.6
	도시	855	17.3	1.5	1,820	32.5	1.6
2011	농어촌	263	19.7	3.8	439	32.1	2.7
	도시	837	17.1	1.4	1,735	33.6	1.4
2012	농어촌	226	13.1	2.6	384	31.6	3.3
	도시	709	23.1	2.2	1,579	36.6	1.7
2013	농어촌	140	21.3	4.4	341	37.9	3.0
	도시	566	27.8	2.4	1,290	35.4	2.0
2014	농어촌	952	17.6	-	997	35.0	-
	도시	4,079	25.0	-	4,192	34.4	-
2015	농어촌	970	20.8	-	1,041	27.2	-
	도시	4,138	22.1	-	4,361	30.3	-
2016	농어촌	1,055	11.5	1.3	938	35.1	2.9
	도시	4,475	9.0	0.5	3,884	32.1	1.1
2017	농어촌	1,020	12.1	1.7	938	36.3	2.2
	도시	4,599	9.8	0.6	4,044	29.8	1.0

자료: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국민건강통계)

주: 2014년 이후 만 19세 이상 대상

2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 농어촌의 자살 생각률은 6.9%

2017년 기준, 농어촌의 자살 생각률은 6.9%로 도시(4.3%)에 비해 높았다.

| 표 2107 |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자살 생각률			자살 생각자의 자살시도율		
		N	분율	표준오차	N	분율	표준오차
2007	농어촌	860	16.0	2.1	158	11.5	2.4
	도시	2,113	14.7	1.1	340	3.4	0.9
2008	농어촌	1,798	19.8	1.3	384	9.3	2.3
	도시	4,998	16.9	0.7	930	5.6	0.8
2009	농어촌	1,920	18.1	1.2	406	4.6	1.2
	도시	5,558	16.0	0.7	942	7.2	1.0
2010	농어촌	1,366	18.3	1.3	260	3.1	1.1
	도시	4,886	14.0	0.7	683	6.6	1.1
2011	농어촌	1,214	16.2	1.2	225	5.2	1.7
	도시	4,812	13.4	0.7	657	6.0	1.3
2012	농어촌	1,124	15.2	1.2	184	3.0	1.4
	도시	4,467	12.9	0.6	604	5.0	1.0
2013	농어촌	1,031	3.6	0.6	-	-	-
	도시	4,308	4.5	0.4	-	-	-
2015	농어촌	1,041	6.2	0.8	-	-	-
	도시	4,365	4.9	0.4	-	-	-
2017	농어촌	1,123	6.9	1.6	-	-	-
	도시	4,991	4.3	0.3	-	-	-

자료 :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국민건강통계)
주: 만 19세 이상 대상

2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 농어촌의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은 2.2%

2017년 기준, 농어촌에서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은 2.2%로 도시(2.9%)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2013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표 2108 |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명, %)

연도	구분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						우울증상 경험자의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2008	농어촌	1,796	2.0	756	1.2	1,040	2.7	317	5.7	98	5.2	219	6.1
	도시	4,998	2.1	2,081	1.4	2,917	2.7	773	8.7	209	8.3	564	8.9
2009	농어촌	1,920	1.6	845	0.8	1,075	2.4	320	6.0	92	4.0	228	6.9
	도시	5,560	2.4	2,391	1.7	3,169	3.1	886	8.7	261	5.5	625	10.4
2010	농어촌	1,366	1.4	595	1.5	771	1.3	197	4.4	57	2.0	140	5.9
	도시	4,889	2.4	2,109	1.2	2,780	3.5	628	10.9	163	8.0	465	12.1
2011	농어촌	1,214	3.2	527	3.0	687	3.3	178	15.1	63	21.9	115	10.3
	도시	4,812	2.2	2,033	1.6	2,779	2.7	640	9.0	187	6.6	453	10.4
2012	농어촌	1,125	2.6	483	2.8	642	2.3	168	8.5	59	12.6	109	5.0
	도시	4,466	2.5	1,826	0.9	2,640	3.9	580	10.1	157	4.3	423	12.7
2013	농어촌	1,030	0.9	452	0.0	578	1.9	-	-	-	-	-	-
	도시	4,306	1.3	1,802	1.0	2,504	1.6	-	-	-	-	-	-
2015	농어촌	1,041	1.9	473	1.0	568	2.9	-	-	-	-	-	-
	도시	4,366	2.7	1,879	1.9	2,487	3.4	-	-	-	-	-	-
2017	농어촌	1,124	2.2	507	1.9	617	2.5	-	-	-	-	-	-
	도시	4,992	2.9	2,211	2.6	2,781	3.1	-	-	-	-	-	-

자료 :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국민건강통계)

주: 만 19세 이상 대상

2109 > 농작업 손상

▶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2.2%, 손상 종류로는 골절(35.0%)이 가장 많음

2017년에 농업인이 경험한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2.2%이었으며, 농기계 및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은 사용하지 않는 농업인에 비해 손상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 각각 3.0%, 2.6%의 손상 발생률을 보였다.

| 표 2109 - (1) | 농기계 및 농약 사용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업무상 손상자수	업무상 손상 발생률	업무상 손상자수	업무상 손상 발생률	업무상 손상자수	업무상 손상 발생률
농기계	사용함	43,441	3.9	27,130	2.4	33,699	3.0
	사용 안함	21,294	2.1	11,299	1.2	7,979	1.0
	총 계	64,735	3.0	38,429	1.9	41,678	2.2
농약	사용함	49,331	3.6	26,777	1.9	35,111	2.6
	사용 안함	15,465	2.1	11,488	1.7	6,567	1.2
	총 계	64,796	3.0	38,265	1.9	41,678	2.2

자료 : 각 연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

주 : 업무상 손상자수 -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값임

농작업 손상 종류로는 ‘골절’ 비율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근육/인대 파열(좌상)’(13.4%), ‘허리/목 디스크 파열’(9.7%), ‘타박상/멍’(9.3%) 순이었다. ‘농약 중독’ 발생률은 0.6%로 나타났다.

| 표 2109 - (2) |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종류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손상자 수	비율	손상자 수	비율	손상자 수	비율
총계	67,520	100.0	38,497	100.0	41,048	100.0
급힘/찰과상	2,527	3.7	753	2.0	1,313	3.2
찢림	848	1.3	1,113	2.9	1,336	3.3
타박상/멍	7,778	11.5	1,548	4.0	3,806	9.3
뱀/접질림(염좌)	6,765	10.0	2,569	6.7	2,248	5.5
베임(열상/개방상)	4,349	6.4	2,589	6.7	3,423	8.3
신체 절단	1,194	1.8	875	2.3	1,200	2.9
골절	22,027	32.6	15,180	39.4	14,386	35.0
탈구	796	1.2	682	1.8	106	0.3
근육/인대 파열(좌상)	4,870	7.2	4,750	12.3	5,481	13.4
허리/목 디스크 파열	4,160	6.2	3,309	8.6	4,002	9.7
일시적인 의식상실(뇌진탕 등)	1,292	1.9	813	2.1	939	2.3
농약 중독	1,453	2.2	331	0.9	226	0.6
동물에 물림(교상)	2,184	3.2	605	1.6	890	2.2
일시적/영구적 청력상실	155	0.2	157	0.4	0	0.0
일시적/영구적 시력상실	0	0.0	59	0.2	85	0.2
화상	181	0.3	74	0.2	90	0.2
산소 결핍/질식	134	0.2	0	0.0	0	0.0
감전	0	0.0	0	0.0	0	0.0
복합 손상	3,309	4.9	906	2.4	245	0.6
기타	3,498	5.2	2,184	5.7	1,274	3.1

자료 : 각 연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

주. 업무상 손상자수 -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값임, 다중 응답 항목으로 총계와 항목의 합이 상이함

2110 > 병상 수

▶ 농어촌의 병상 수는 131,261개로 도시(572,147개)의 약 22.9% 수준

2017년 기준, 농어촌의 병상 수는 총 131,261개로 ‘요양병원’(61,067개), ‘병원’(36,353개), ‘정신병원’(14,628개), ‘종합병원’(9,182개), ‘의원’(8,290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의 병상 수는 572,147개였다.

| 표 2110 - (1) | 병상 수(1)

(단위: 개)

연도	구분	계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2007	농어촌	74,970	4,581	14,393	25,847	17,432	0	1,000
	도시	375,149	121,259	52,334	86,545	78,860	1,373	0
2008	농어촌	62,243	5,016	12,789	23,674	9,611	0	1,000
	도시	416,402	123,657	64,181	98,980	88,231	1,355	0
2009	농어촌	65,584	5,277	15,122	24,066	9,289	0	1,000
	도시	432,718	125,324	74,381	106,722	82,473	1,345	0
2010	농어촌	81,556	9,136	21,150	24,182	13,181	0	1,000
	도시	441,801	123,961	91,677	106,488	75,023	1,318	0
2011	농어촌	72,338	5,893	21,144	24,125	8,874	0	1,000
	도시	492,234	131,835	114,150	121,400	77,703	1,318	0
2012	농어촌	77,050	5,882	25,362	25,874	8,251	0	700
	도시	521,794	132,968	135,692	129,146	73,618	1,286	0
2013	농어촌	74,776	5,982	26,842	27,464	6,659	0	700
	도시	558,311	135,443	165,817	128,397	72,982	1,128	0
2014	농어촌	77,597	5,797	29,538	25,771	6,220	0	700
	도시	590,873	139,185	184,448	137,803	69,918	932	0
2015	농어촌	127,663	8,459	54,999	50,581	9,742	0	700
	도시	546,878	138,415	174,847	139,299	69,206	932	0
2016	농어촌	129,503	9,032	57,684	49,839	9,003	0	700
	도시	562,842	139,986	188,689	140,286	66,167	858	0
2017	농어촌	131,261	9,182	61,067	36,353	8,290	0	700
	도시	572,147	140,978	198,663	131,617	60,514	997	0

자료 :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 표 2110 - (2) | 병상 수(2)

(단위 : 개)

연도	구분	정신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2007	농어촌	10,461	29	0	880	154	191	2
	도시	26,253	220	17	7,365	301	469	153
2008	농어촌	9,479	24	0	377	158	158	1
	도시	30,080	229	14	8,233	704	704	75
2009	농어촌	10,197	25	0	358	63	187	0
	도시	31,513	266	39	8,336	881	1,361	77
2010	농어촌	11,647	25	0	926	63	187	0
	도시	32,634	303	45	8,565	881	1,361	77
2011	농어촌	10,544	24	0	438	76	220	0
	도시	33,341	327	90	10,205	1,228	548	89
2012	농어촌	10,486	24	0	278	52	140	1
	도시	35,027	293	61	11,669	1,485	467	82
2013	농어촌	6,644	24	0	279	95	85	2
	도시	39,231	283	92	12,309	1,851	505	273
2014	농어촌	9,069	0	0	338	78	86	0
	도시	40,302	277	76	13,793	2,315	1,635	149
2015	농어촌	2,277	30	0	579	261	35	0
	도시	4,966	256	61	15,922	2,770	135	69
2016	농어촌	2,215	30	0	785	180	35	0
	도시	6,433	237	80	17,194	2,740	133	39
2017	농어촌	14,628	30	0	681	199	131	0
	도시	16,462	233	94	19,501	2,899	153	36

자료 :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2111 > 보건의료기관 수

▶ 농어촌의 보건의료기관 수는 7,687개소로 도시(58,944개소)의 약 13.0% 수준

2017년 기준, 농어촌의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7,687개소로 '의원'(3,397개소), '치과의원'(1,782개소), '한의원'(1,769개소) 순이었으며, 도시의 보건의료기관 수는 58,944개소로 나타났다.

| 표 2111 - (1) | 보건의료기관 수(1)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계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2007	농어촌	6,857	20	137	187	3,516	0	1
	도시	46,057	282	456	758	22,749	3	0
2008	농어촌	4,641	22	130	170	2,301	0	1
	도시	49,524	291	560	894	24,280	3	0
2009	농어촌	4,776	22	341	175	2,344	0	1
	도시	50,993	290	621	954	24,760	3	0
2010	농어촌	6,411	30	177	185	3,131	0	1
	도시	49,833	282	672	969	24,203	3	0
2011	농어촌	5,034	23	170	170	2,383	0	1
	도시	53,462	296	805	1,075	25,526	3	0
2012	농어촌	5,145	23	189	178	2,432	0	1
	도시	54,374	300	898	1,149	26,330	3	0
2013	농어촌	4,511	23	190	164	2,108	0	1
	도시	56,388	301	1,038	1,167	26,708	3	0
2014	농어촌	4,766	21	205	170	2,233	0	0
	도시	58,909	300	1,099	1,266	28,456	4	1
2015	농어촌	7,387	27	336	273	3,211	0	1
	도시	56,032	310	999	1,219	26,152	3	0
2016	농어촌	7,470	28	346	271	3,302	0	1
	도시	57,529	313	1,040	1,239	26,855	3	0
2017	농어촌	7,687	28	365	232	3,397	0	1
	도시	58,944	316	1,057	1,232	27,561	3	0

자료 :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 표 2111 - (2) | 보건의료기관 수(2)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정신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2007	농어촌	28	4	1,543	17	1,375	25	4
	도시	19	147	11,737	121	9,520	157	48
2008	농어촌	26	20	947	8	997	18	1
	도시	92	164	12,671	131	10,251	157	30
2009	농어촌	28	3	1,007	8	1,024	21	2
	도시	102	175	13,064	143	10,681	164	36
2010	농어촌	38	5	1,444	15	1,354	29	2
	도시	105	183	12,630	144	10,450	157	35
2011	농어촌	32	3	1,118	8	1,100	24	2
	도시	112	196	13,884	170	11,205	156	34
2012	농어촌	33	3	1,130	5	1,118	30	3
	도시	123	199	13,670	194	11,322	154	32
2013	농어촌	25	3	1,007	5	959	23	3
	도시	135	197	14,572	198	11,857	168	44
2014	농어촌	32	4	1,018	6	1,051	24	2
	도시	138	198	14,915	228	12,084	189	31
2015	농어촌	14	6	1,672	10	1,706	129	2
	도시	23	207	14,912	250	11,899	29	29
2016	농어촌	13	6	1,734	12	1,723	32	2
	도시	29	217	15,262	270	12,137	138	26
2017	농어촌	46	6	1,782	12	1,769	47	2
	도시	64	225	15,601	300	12,386	175	24

자료 :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2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 기준 '종합병원'의 59.2%가 3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 있음

2015년 기준, 농어촌 주민들은 ‘약국’(39.0%), ‘보건진료소’(31.2%), ‘보건소’(44.6%), ‘병·의원, 한의원’(31.6%)의 경우 행정리 안이나 소요시간 10분 미만인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으나, ‘종합병원’의 경우 절반이 넘는 59.2%가 3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112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 (단위 : %)

2005									
이동수단	이동시간								
		15분미만	15~30분	30분 이상					
걸어서	15.3	9.5	3.4	2.3					
자동차	69.9	24.7	25.6	19.6					
기타	14.9	4.6	5.5	4.8					
2010									
구분	(우리) 행정리 안에 있음(①)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있음(②)	다른 지역(①, ② 이외)에 있음			이용 하지 않음			
			15분 미만	15~30분	30분 이상				
약국	11.1	50.1	37.8	42.1	40.9	17.0	0.9		
보건진료소	9.1	32.0	27.6	52.2	31.4	16.4	31.3		
보건소	9.6	62.5	23.6	52.7	33.1	14.2	4.2		
병·의원, 한의원	8.3	39.4	51.2	29.2	43.8	27.0	1.1		
종합병원	1.0	4.6	89.7	6.6	26.2	67.2	4.7		
2015									
구분	행정리 안에 있음	다른 지역에 있음							이용 하지 않음
		10분 미만	10-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40분 미만	40-50분 미만	50-60분 미만	1시간 이상	
약국	7.6	31.4	40.2	13.6	5.0	1.2	0.2	0.8	0.1
보건진료소	3.0	28.2	27.1	8.2	3.1	1.1	0.3	0.3	28.9
보건소	3.3	41.3	37.3	8.9	2.7	0.6	0.1	0.3	5.4
병·의원, 한의원	5.7	25.9	37.8	17.6	8.5	2.4	0.5	1.3	0.3
종합병원	0.4	3.9	12.0	20.0	23.0	14.2	6.8	15.2	4.5

자료 : 각 연도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원자료 분석

2113>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 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79.0%)가 가장 높음

2018년 기준, 농어촌의 지난 1년 동안 주로 이용한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79.0%), '한의원(한방병원)'(64.5%), '종합병원'(60.9%), '병의원'(58.5%), '약국'(46.1%) 순으로 나타났다.

| 표 2113 - (1) |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

연도	구분	종합병원			병의원			한의원(한방병원)			보건소			약국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2008	농어촌	62.9	26.6	10.5	54.4	38.7	6.8	55.0	37.9	7.0	75.6	21.2	3.2	30.5	63.2	6.3
	도시	52.0	33.3	14.7	47.3	44.1	8.6	55.2	38.1	6.7	51.0	38.3	10.7	30.8	61.9	7.3
2010	농어촌	58.4	29.8	11.8	53.5	44.2	7.7	52.0	38.7	9.3	71.2	26.3	2.5	36.5	52.0	11.6
	도시	51.3	33.4	15.2	46.1	43.1	9.7	56.6	35.7	7.6	50.6	35.0	14.4	32.3	58.4	9.3
2012	농어촌	58.8	30.2	10.9	54.5	37.7	7.8	52.0	35.7	9.3	70.0	25.8	4.2	28.9	68.9	2.2
	도시	51.7	34.4	13.9	45.2	45.6	9.2	56.6	36.2	7.6	56.7	34.2	9.1	28.2	65.9	5.9
2014	농어촌	60.4	34.4	12.6	49.7	43.6	6.7	55.8	37.1	7.1	72.6	23.3	4.1	47.3	50.8	1.9
	도시	53.2	34.4	12.6	47.5	45.0	7.4	54.0	38.6	7.4	62.2	33.9	4.0	30.0	66.2	3.8
2016	농어촌	59.5	31.4	9.1	58.2	36.1	5.7	61.5	30.1	8.4	68.5	28.0	3.5	31.2	63.2	5.7
	도시	51.8	35.3	13.0	47.3	44.8	7.8	51.9	39.9	8.1	55.1	35.7	9.2	33.2	62.5	4.3
2018	농어촌	60.9	30.5	8.6	58.5	35.3	6.2	64.5	31.1	4.4	79.0	17.4	3.6	46.1	52.7	1.2
	도시	57.0	31.9	11.1	53.2	39.4	7.4	56.0	39.0	5.0	63.2	31.9	4.9	40.9	56.0	3.1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농어촌의 보건 의료 서비스 불만족 이유로는 ‘의료비(약값)가 높다’(22.1%), ‘진료 및 입원 대기 시간이 길다’(17.7%), ‘치료 결과가 미흡하다’(17.3%) 순으로 나타났다.

| 표 2113 - (2) | 보건 의료 서비스 불만족 이유

(단위: %)

연도	구분	불친절하다	의료비(약값)가 높다	치료 결과가 미흡하다	진료가 불성실하다	진료 및 입원 대기 시간이 길다	의료 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하다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검사 등) 많이 한다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기타
2008	농어촌	11.7	32.8	19.9	9.4	16.4	2.0	5.6	1.6	0.6
	도시	13.4	27.9	20.3	9.0	15.7	5.9	4.1	3.7	0.0
2010	농어촌	11.7	29.9	17.9	8.0	19.4	2.6	8.5	1.7	0.3
	도시	8.4	30.7	21.1	6.7	19.8	5.1	5.1	2.9	0.2
2012	농어촌	13.5	24.3	18.1	10.1	16.3	6.7	5.5	5.2	0.2
	도시	11.1	28.2	19.7	11.1	17.9	2.4	7.9	1.4	0.2
2014	농어촌	10.3	17.5	24.2	8.6	22.5	5.1	5.8	5.2	0.7
	도시	11.2	26.1	20.0	9.6	19.8	2.2	9.1	2.0	0.1
2016	농어촌	15.6	19.5	20.7	9.2	17.1	7.1	6.4	4.2	0.3
	도시	11.5	24.9	20.0	9.8	19.9	1.8	9.8	1.7	0.7
2018	농어촌	11.5	22.1	17.3	7.0	17.7	4.9	5.8	6.2	-
	도시	9.1	25.1	21.7	8.1	20.6	2.0	8.2	2.7	0.5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의료 서비스 불만족자 대상, 주된 응답



2200> 복지

- 2201> 치매노인 비율
- 2202> 노인의 의존 소득원
- 2203> 노인일자리 참여
- 2204> 영유아 비율
- 2205> 유치원 취원율
- 2206> 보육시설 현황
- 2207> 장애인 추가비용
- 2208> 결혼이민자 현황

2201 > 치매노인 비율

▶ 전국의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는 703,968명, 치매 유병률은 9.95%

2016년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는 703,968명으로, 9.95%의 치매 유병률을 보였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표 2201 | 치매노인 비율 (단위 : 명, %)

연도	구분	65세 이상 인구	치매노인 수					치매 유병률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05	전국	4,252,919	351,025	36,606	54,274	100,328	159,817	8.25
2012	전국	5,889,675	540,755	-	-	-	-	9.18
2016	전국	7,075,518	703,968	-	-	-	-	9.9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관리 Mapping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2012 치매 유병률 조사; 중앙치매센터, 2016 치매역학조사

2202> 노인의 의존 소득원

▶ 농어촌(68.0%) 및 도시(70.5%) 모두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이 높으며, 농어촌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67.0%)이 주된 소득원임

2017년 기준, 농어촌의 60세 이상 노인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68.0%), '자녀 또는 친척 지원'(20.3%), '정부 및 사회단체'(11.6%) 순으로 나타나, 도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농어촌에서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 '근로 소득 및 사업소득'이 67.0%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도시에서는 '연금, 퇴직금'(+8.5%p), '재산소득'(+6.6%p) 비율이 농어촌에 비해 높았다.

| 표 2202 | 노인의 의존 소득원

(단위 : %)

연도	구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 단체	기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		함께 살고 있음	함께 살고 있지 않음			
2007	농어촌	66.0	81.7	5.6	7.8	4.8	28.7	40.2	59.8	5.2	0.0
	도시	59.2	56.5	14.2	20.4	8.9	36.6	58.0	42.0	4.1	0.1
2009	농어촌	63.9	73.0	5.8	17.1	4.0	27.1	34.1	65.9	9.0	0.0
	도시	58.3	48.3	16.8	27.9	7.1	33.2	48.7	51.3	8.4	0.1
2011	농어촌	63.5	70.6	4.9	17.5	7.0	28.6	35.5	64.5	7.8	0.1
	도시	58.8	42.3	15.7	32.0	10.0	33.4	51.1	48.9	7.6	0.2
2013	농어촌	65.1	74.8	6.0	13.6	5.6	25.8	32.7	67.3	9.1	0.0
	도시	63.1	44.4	14.7	29.3	11.6	29.9	50.1	49.9	7.0	0.1
2015	농어촌	66.1	69.7	7.0	17.7	5.6	19.9	38.5	61.5	13.9	0.0
	도시	66.7	48.9	13.4	31.1	6.6	24.1	53.7	46.3	9.1	0.1

연도	구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 단체	기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금	예금				
2017	농어촌	68.0	67.0	5.4	21.8	5.8	20.3	11.6	0.0
	도시	70.5	49.9	12.0	30.3	7.8	20.1	9.3	0.0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60세 이상 인구대상

2203> 노인일자리 참여

▶ 농어촌의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층은 12.0%

2017년 기준, 농어촌에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층은 7.5%, 참여한 경험이 있는 층은 4.5%, 신청했으나 참여기회가 없는 층은 2.2%로 나타났다.

| 표 2203 | 노인일자리 참여 (단위 : %)

연도	구분	인자율	참여 실태			
			현재 참여 중	참여경험 있음	신청했으나 참여기회 없었음	비신청
2011	농어촌	66.5	3.1	7.3	3.9	85.7
	도시	69.8	4.5	6.6	9.7	79.2
2014	농어촌		3.7	4.0	3.2	89.1
	도시		4.5	4.5	5.6	86.0
2017	농어촌		7.5	4.5	2.2	85.8
	도시		6.3	4.6	4.1	85.0

자료 : 각 연도 노인실태조사
주 : 65세 이상 인구 대상

2204> 영유아 비율

▶ 농어촌의 영유아 비율은 4.7%

2016년 기준, 농어촌의 0세~5세 영유아 비율은 4.7%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도시(5.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204 | 영유아 비율

(단위 : %)

연도	구분	총인구	0세~5세		
				0세~3세	4~5세
2007	농어촌	100.0	5.3	3.4	1.8
	도시	100.0	5.8	3.8	2.0
2008	농어촌	100.0	5.2	3.4	1.8
	도시	100.0	5.7	3.7	2.0
2009	농어촌	100.0	5.2	3.5	1.7
	도시	100.0	5.6	3.7	1.9
2010	농어촌	100.0	5.1	3.5	1.6
	도시	100.0	5.5	3.7	1.8
2011	농어촌	100.0	5.1	3.4	1.7
	도시	100.0	5.6	3.7	1.9
2012	농어촌	100.0	5.1	3.4	1.8
	도시	100.0	5.6	3.7	1.9
2013	농어촌	100.0	4.9	3.3	1.6
	도시	100.0	5.5	3.7	1.8
2014	농어촌	100.0	4.9	3.2	1.7
	도시	100.0	5.4	3.6	1.8
2015	농어촌	100.0	4.8	3.1	1.7
	도시	100.0	5.4	3.6	1.9
2016	농어촌	100.0	4.7	3.0	1.7
	도시	100.0	5.3	3.4	1.9

자료 :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

2205> 유치원 취원율

▶ 농어촌의 유치원 취원율은 47.2%로 도시(50.9%)와 비슷한 수준

2016년 기준, 농어촌의 유치원 취원율은 47.2%로 2012년(39.4%)에 비해 증가(+7.8%p)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50.9%)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표 2205 | 유치원 취원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유치원 취원 대상자	유치원 재원자	유치원 취원율
2007	농어촌	261,908	95,242	36.4
	도시	1,241,154	446,308	36.0
2010	농어촌	241,045	90,099	37.4
	도시	1,068,985	448,488	42.0
2011	농어촌	212,865	92,009	43.2
	도시	1,088,943	472,825	43.4
2012	농어촌	246,339	97,058	39.4
	도시	1,162,159	516,691	44.5
2013	농어촌	234,651	106,015	45.2
	도시	1,152,386	552,173	47.9
2014	농어촌	237,705	105,105	44.2
	도시	1,157,489	547,441	47.3
2015	농어촌	244,483	110,373	45.1
	도시	1,192,872	572,180	48.0
2016	농어촌	239,790	113,103	47.2
	도시	1,160,161	591,035	50.9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2007~2011), 주민등록인구통계, 교육통계(2012~)

주: 1) 유치원 취원 대상자는 각 지역 만 3~5세 인구수임

2) 취원율 = 재원자 수/취원대상자 x100

3)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대도시+중소도시를 합한 수치임

2206> 보육시설 현황

▶ 농어촌의 영유아 보육시설(7,964개)은 도시의 1/4 수준

2017년 기준, 농어촌의 보육시설은 7,964개로, 2007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도시(대도시+중소도시)의 1/4 수준이었다.

2017년 기준, 농어촌의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수는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개인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183,961명)가 가장 많았다.

| 표 2206 - (1)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1)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법인 외	개인			
2007	농어촌	4,901	352	673	346	2,145	1	1,342	42
	대도시	12,456	938	387	403	5,469	27	5,071	161
	중소도시	13,499	458	400	253	5,467	33	6,771	117
2008	농어촌	6,504	426	751	362	2,674	3	2,246	42
	대도시	13,018	921	384	389	5,482	29	5,628	185
	중소도시	13,977	479	323	218	5,150	33	7,651	123
2009	농어촌	6,996	468	764	358	2,775	7	2,576	48
	대도시	13,485	944	393	370	5,486	29	6,068	195
	중소도시	15,069	505	313	207	5,172	30	8,715	127
2010	농어촌	7,759	506	783	354	2,947	10	3,104	55
	대도시	14,034	977	389	343	5,558	34	6,519	214
	중소도시	16,228	551	296	191	5,284	30	9,744	132
2011	농어촌	8,030	528	781	356	3,068	13	3,224	60
	대도시	14,591	999	387	327	5,630	41	6,968	239
	중소도시	17,221	589	294	187	5,436	35	10,530	150

자료 : 각 연도 보육통계

주 :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 2206 - (2)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2)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2	농어촌	8,477	555	773	363	3,178	19	3,509	80
	대도시	15,461	1,039	384	308	5,709	46	7,701	274
	중소도시	18,589	609	287	198	5,553	48	11,725	169
2013	농어촌	8,269	569	770	362	3,220	21	3,224	103
	대도시	15,852	1,120	383	302	5,746	56	7,927	619
	중소도시	19,649	643	286	204	5,785	52	12,481	198
2014	농어촌	8,265	587	754	358	3,244	24	3,178	120
	대도시	15,999	1226	378	287	5,720	64	7,985	339
	중소도시	19,478	676	288	207	5,858	61	12,155	233
2015	농어촌	8,216	606	754	363	3,267	27	3,053	146
	대도시	15,695	1,321	377	270	5,619	66	7,671	371
	중소도시	18,606	702	283	201	5,740	62	11,350	268
2016	농어촌	8,048	625	746	356	3,228	27	2,885	181
	대도시	15,177	1,494	373	256	5,413	70	7,128	443
	중소도시	17,859	740	283	192	5,675	60	10,585	324
2017	농어촌	7,964	653	739	347	3,177	30	2,818	200
	대도시	14,843	1,720	373	235	5,251	73	6,700	491
	중소도시	17,431	784	280	189	5,617	61	10,138	362

자료 : 각 연도 보육통계

주 :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 2206 - (3) |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1)

(단위 : 명)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법인 외	개인			
2007	농어촌	30,902	2,506	6,915	2,714	13,942	5	4,550	270
	대도시	68,892	8,835	4,548	2,776	34,318	154	16,937	1,324
	중소도시	69,791	4,287	4,557	2,197	34,828	186	22,680	1,056
2008	농어촌	38,653	3,092	7,490	2,657	17,237	7,899	11	267
	대도시	74,799	9,247	4,476	2,609	36,563	11,904	8,339	1,661
	중소도시	71,450	4,482	3,581	1,940	33,257	26,920	153	1,117
2009	농어촌	45,245	3,781	8,455	3,037	20,166	32	9,403	371
	대도시	82,568	10,507	4,827	2,870	39,804	161	22,454	1,945
	중소도시	79,099	5,109	3,760	2,081	35,698	155	31,006	1,290
2010	농어촌	51,110	4,215	8,870	3,075	22,594	42	11,827	487
	대도시	90,341	11,061	4,928	2,669	43,659	203	25,518	2,303
	중소도시	87,633	5,704	3,570	1,964	38,278	153	36,550	1,414
2011	농어촌	54,512	4,530	8,857	3,115	24,577	55	12,784	594
	대도시	97,617	11,541	5,015	2,646	46,959	248	28,544	2,664
	중소도시	96,506	6,158	3,619	1,963	41,243	182	41,583	1,758
2012	농어촌	61,460	4,884	9,076	3,336	28,004	86	15,235	839
	대도시	111,076	12,183	5,284	2,616	52,339	299	35,125	3,230
	중소도시	111,701	6,658	3,651	2,142	45,896	229	50,913	2,212
2013	농어촌	63,928	5,292	9,423	3,488	30,481	99	14,021	1,124
	대도시	117,198	13,990	5,492	2,811	54,921	365	35,603	4,016
	중소도시	120,593	7,468	3,850	2,404	50,778	266	53,107	2,720
2014	농어촌	66,101	5,580	9,475	3,517	31,956	131	14,052	1,390
	대도시	120,925	15,340	5,616	2,757	56,227	421	36,059	4,505
	중소도시	124,791	8,057	3,954	2,475	53,764	304	52,836	3,371

자료 : 각 연도 보육통계

주 :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 2206 - (4) |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2)

(단위: 명)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법인 외	개인			
2015	농어촌	68,523	5,804	9,362	3,543	33,418	157	14,421	1,818
	대도시	124,721	16,488	5,656	2,669	57,352	479	37,021	5,056
	중소도시	127,823	8,531	3,915	2,425	54,954	334	53,682	3,982
2016	농어촌	69,040	6,025	9,303	3,511	33,731	157	14,070	2,243
	대도시	125,793	17,958	5,691	2,580	57,000	494	36,104	5,966
	중소도시	126,933	8,954	3,926	2,345	54,878	328	51,717	4,785
2017	농어촌	71,121	6,365	9,242	3,478	34,344	178	14,896	2,618
	대도시	127,559	20,242	5,693	2,449	56,316	521	35,567	6,771
	중소도시	131,537	9,491	3,910	2,327	56,260	367	53,713	5,469

자료: 각 연도 보육통계

주: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 2206 - (5) |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1)

(단위: 명)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 외	개인			
2007	농어촌	227,794	19,518	54,441	20,132	111,914	34	19,921	1,834
	대도시	443,670	68,506	34,116	19,362	245,412	671	68,064	7,539
	중소도시	428,469	31,117	29,654	16,412	255,158	739	89,638	5,751
2008	농어촌	264,423	22,571	56,137	20,069	133,177	58	30,671	1,740
	대도시	453,534	68,260	32,901	18,689	246,314	727	77,710	8,933
	중소도시	417,545	32,574	24,856	15,060	236,156	706	102,057	6,136
2009	농어촌	277,630	25,185	55,724	19,954	139,279	157	35,242	2,089
	대도시	465,344	70,072	32,432	18,096	248,600	769	85,284	10,091
	중소도시	432,075	34,399	24,182	14,668	235,166	729	116,317	6,614

자료: 각 연도 보육통계

주: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 2206 - (6) |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2)

(단위 : 명)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 외	개인			
2010	농어촌	307,963	27,447	58,344	19,849	154,732	213	44,654	2,724
	대도시	499,674	72,250	32,956	17,265	266,763	918	97,603	11,919
	중소도시	472,273	37,907	22,754	14,012	250,396	767	139,179	7,258
2011	농어촌	320,857	28,984	57,232	20,068	163,523	289	47,528	3,233
	대도시	522,894	73,711	32,714	16,634	279,297	1,128	106,252	13,158
	중소도시	504,978	40,340	22,742	13,974	263,827	869	154,630	8,596
2012	농어촌	348,759	30,206	57,290	20,922	180,619	474	54,967	4,281
	대도시	574,723	76,753	33,120	16,167	303,679	1,325	128,424	15,255
	중소도시	563,879	42,718	22,639	14,825	283,958	1,114	188,280	10,345
2013	농어촌	340,626	30,323	55,069	20,356	180,675	480	48,397	5,326
	대도시	573,577	79,950	31,748	16,166	300,273	1,509	126,877	17,054
	중소도시	572,777	44,192	22,017	15,162	289,231	1,237	188,839	12,099
2014	농어촌	341,403	30,654	52,647	19,493	183,033	590	48,811	6,178
	대도시	575,605	83,146	30,465	15,119	297,922	1,784	128,403	18,766
	중소도시	597,663	45,444	21,440	14,563	294,459	1,400	188,036	14,321
2015	농어촌	340,463	31,156	50,557	19,054	184,211	688	46,860	7,937
	대도시	558,183	87,444	29,073	14,114	283,995	1,968	121,270	20,319
	중소도시	554,167	47,143	20,085	13,690	279,392	1,471	175,877	16,509
2016	농어촌	341,448	32,460	49,791	18,720	184,972	696	45,243	9,566
	대도시	555,097	93,451	29,076	13,480	278,884	2,058	114,974	23,174
	중소도시	554,670	50,018	20,246	13,174	281,807	1,486	168,377	19,562
2017	농어촌	341,287	33,364	48,647	18,100	183,961	835	45,501	10,879
	대도시	550,729	101,544	28,405	12,553	270,739	2,075	109,918	25,495
	중소도시	558,227	52,008	19,742	12,751	283,859	1,598	166,189	22,080

자료 : 각 연도 보육통계

주 :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2207 > 장애인 추가비용

▶ 장애인 추가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2005년에는 155.4천원이었던 장애인 추가비용이 2017년에는 165.1천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대비 ‘보호, 간병인’(+7.0천원), ‘부모 사후 대비비’(+6.1천원)가 증가한 반면, ‘재활보조기구 구입, 유지비’는 감소(-11.7천원)하였다.

| 표 2207 | 장애인 추가비용 (단위: 천원)

연도	총 추가 비용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호, 간병인	재활 기관 이용료	통신비	재활 보조기구 구입, 유지비	부모 사후 대비비
2005	155.4	22.9	90.2	6.1	11.8	2.1	1.2	6.4	8.8
2008	158.7	17.8	57.3	6.2	9.9	2.0	1.4	36.8	6.2
2011	160.7	22.8	56.8	6.0	14.1	1.9	9.6	31.7	5.4
2014	164.2	25.6	66.0	4.1	13.6	4.2	9.9	18.9	16.8
2017	165.1	20.5	65.9	8.0	20.6	4.8	9.8	7.2	22.9

자료 : 각 연도 장애인실태조사

2208> 결혼이민자 현황

▶ 농어촌에서 외국 여성과 혼인 비율은 8.0%, 농림어업 종사자의 외국 여성과 혼인 비율은 20.2%

2016년 기준, 농어촌 혼인건수에서 외국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은 8.0%로 도시(4.8%)에 비해 높았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외국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은 20.2%로 도시 거주 농림어업 종사자가 외국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8.9%)보다 높게 나타났다.

| 표 2208 |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 건, %)

연도	구분	전체			농림어업 종사자		
		혼인건수(A)	외국 여성과의 혼인		혼인건수(C)	외국 여성과의 혼인	
			건수(B)	비율(B/A)		건수(D)	비율(D/C)
2004	농어촌	53,909	5,694	10.6	4,883	1,474	30.2
	도시	241,071	18,095	7.5	1,433	333	23.2
2005	농어촌	55,029	7,575	13.8	5,878	2,371	40.3
	도시	244,360	22,545	9.2	1,663	498	29.9
2006	농어촌	58,382	8,746	15.0	6,479	2,991	46.2
	도시	261,377	20,470	7.8	1,793	529	29.5
2007	농어촌	59,397	8,016	13.5	5,948	2,649	44.5
	도시	274,592	20,145	7.3	1,718	522	30.4
2008	농어촌	57,035	7,853	13.8	4,959	2,038	41.1
	도시	262,357	19,893	7.6	1,499	434	29.0
2009	농어촌	52,918	6,839	12.9	4,341	1,679	38.7
	도시	248,050	17,846	7.2	1,295	307	23.7
2010	농어촌	56,502	7,219	12.8	4,489	1,684	37.5
	도시	261,077	18,605	7.1	1,481	338	22.8
2011	농어촌	54,441	6,074	11.2	3,959	1,291	32.6
	도시	266,713	15,709	5.9	1,395	267	19.1
2012	농어촌	52,829	5,462	10.3	4,042	1,176	29.1
	도시	266,463	14,623	5.5	1,352	219	16.2
2013	농어촌	50,906	4,552	8.9	3,758	981	26.1
	도시	263,992	13,196	5.0	1,440	197	13.7
2014	농어촌	48,818	3,940	8.1	3,500	730	20.9
	도시	248,965	11,587	4.7	1,222	145	11.9
2015	농어촌	48,638	3,534	7.3	3,410	615	18.0
	도시	247,486	10,762	4.3	1,278	134	10.5
2016	농어촌	46,792	3,743	8.0	3,134	632	20.2
	도시	229,747	11,040	4.8	1,198	107	8.9

자료 :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주: 농림어업 종사자는 남편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만 집계(외국인 제외)



2300> 교육

- 2301> 학생 수
- 2302> 학교 수
- 2303> 교원 수
- 2304> 사무직원 수
- 2305> 보건교사 배치율
- 2306> 학교 컴퓨터 보급률
- 2307>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2308>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2309>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2310>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 2311> 학업중단 비율
- 2312> 대학(교) 진학률
- 2313>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및 참여율
- 231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 2315>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2301 > 학생 수

▶ 농어촌의 학생 수는 915,607명

2018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915,607명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표 2301 |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구분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1,144,550	609,385	282,418	252,747
	도시	6,473,246	3,062,822	1,756,193	1,654,231
2009	농어촌	1,109,056	570,718	277,997	260,341
	도시	6,338,103	2,903,677	1,728,975	1,705,451
2010	농어촌	1,087,631	545,841	277,955	263,835
	도시	6,148,617	2,753,253	1,696,843	1,698,521
2011	농어촌	1,060,729	521,695	275,042	263,992
	도시	5,926,118	2,610,782	1,635,530	1,679,806
2012	농어촌	1,038,396	496,997	273,273	268,126
	도시	5,682,780	2,454,998	1,575,821	1,651,961
2013	농어촌	994,318	463,026	263,333	267,959
	도시	5,487,174	2,320,720	1,540,856	1,625,344
2014	농어촌	981,213	460,649	255,014	265,550
	도시	5,304,579	2,267,860	1,462,897	1,573,822
2015	농어촌	964,781	464,147	238,321	262,313
	도시	5,124,046	2,250,463	1,347,630	1,525,953
2016	농어촌	938,577	459,010	219,494	260,073
	도시	4,944,213	2,213,833	1,237,996	1,492,384
2017	농어촌	927,168	465,818	212,382	248,968
	도시	4,798,092	2,208,409	1,168,952	1,420,731
2018	농어촌	915,607	476,177	207,648	231,782
	도시	4,668,642	2,235,208	1,126,640	1,306,794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2 > 학교 수

▶ 농어촌의 학교 수는 4,380개

2018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수는 총 4,380개로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도시에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302 | 학교 수

(단위: 개)

연도	구분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4,526	2,609	1,240	677
	도시	6,554	3,204	1,837	1,513
2009	농어촌	4,485	2,573	1,235	677
	도시	6,675	3,256	1,871	1,548
2010	농어촌	4,489	2,566	1,239	684
	도시	6,748	3,288	1,891	1,569
2011	농어촌	4,475	2,550	1,238	687
	도시	6,842	3,332	1,915	1,595
2012	농어촌	4,457	2,531	1,236	690
	도시	6,903	3,364	1,926	1,613
2013	농어촌	4,431	2,513	1,229	689
	도시	6,977	3,400	1,944	1,633
2014	농어촌	4,422	2,508	1,229	685
	도시	7,024	3,426	1,957	1,641
2015	농어촌	4,428	2,514	1,228	686
	도시	7,098	3,464	1,976	1,658
2016	농어촌	4,397	2,497	1,217	683
	도시	7,166	3,504	1,992	1,670
2017	농어촌	4,391	2,499	1,212	680
	도시	7,222	3,541	2,001	1,680
2018	농어촌	4,380	2,494	1,209	677
	도시	7,256	3,570	2,005	1,681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3> 교원 수

▶ 농어촌의 교원 수는 90,905명

2018년 기준, 농어촌의 교원 수는 90,905명으로, 2017년에 비해 증가(+1,575명)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원 수(+806명)를 비롯하여, 중학교(+434명), 고등학교 교원 수 또한 증가(+335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교원 수는 339,912명으로 2017년 대비 증가(+1,000명)하였으며, 초등학교(+1,520명), 중학교(+342명) 교원 수가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 교원 수는 감소(-862명)했다.

| 표 2303 | 교원 수

(단위: 명)

연도	구분	교원 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83,688	41,228	21,881	20,579
	도시	320,108	130,962	86,819	102,327
2009	농어촌	83,748	41,223	21,753	20,772
	도시	325,469	133,845	87,322	104,302
2010	농어촌	84,422	41,674	21,700	21,048
	도시	327,536	135,080	87,081	105,375
2011	농어촌	86,136	42,468	22,046	21,622
	도시	336,228	138,155	88,612	109,461
2012	농어촌	87,000	42,639	22,225	22,136
	도시	338,392	138,796	88,779	110,817
2013	농어촌	86,872	42,155	22,457	22,260
	도시	340,817	139,430	90,233	111,154
2014	농어촌	88,219	42,656	22,949	22,614
	도시	342,290	140,016	90,400	111,874
2015	농어촌	88,571	42,843	22,883	22,845
	도시	340,333	139,815	88,364	112,154
2016	농어촌	88,526	42,818	22,682	23,026
	도시	339,878	140,634	86,843	112,401
2017	농어촌	89,330	43,383	22,912	23,035
	도시	338,912	140,975	86,218	111,719
2018	농어촌	90,905	44,189	23,346	23,370
	도시	339,912	142,495	86,560	110,857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4> 사무직원 수

▶ 농어촌의 초·중·고교 사무직원 수는 16,025명, 학교 당 3.6명

2017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전체 사무직원수는 16,025명, 학교 당 3.6명으로 연도별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도시의 학교 당 사무직원수는 학교당 4.6명으로 농어촌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304 | 사무직원 수

(단위: 명)

연도	구분	사무직원 수				학교 당 사무직원 수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2008	농어촌	17,490	10,398	3,989	3,103	3.9	4.0	3.2	4.6
	도시	33,284	15,106	7,993	10,185	5.1	4.7	4.4	6.7
2009	농어촌	17,252	10,222	3,948	3,082	3.8	4.0	3.2	4.6
	도시	33,360	15,082	8,079	10,199	5.0	4.6	4.3	6.6
2010	농어촌	17,304	10,290	3,897	3,117	3.9	4.0	3.1	4.6
	도시	33,794	15,229	8,162	10,403	5.0	4.6	4.3	6.6
2011	농어촌	17,114	10,175	3,825	3,114	3.8	4.0	3.1	4.5
	도시	33,851	15,260	8,121	10,470	4.9	4.6	4.2	6.6
2012	농어촌	17,218	10,240	3,844	3,134	3.9	4.0	3.1	4.5
	도시	34,291	15,499	8,217	10,575	5.0	4.6	4.3	6.6
2013	농어촌	16,870	10,021	3,792	3,057	3.8	4.0	3.1	4.4
	도시	33,889	15,244	8,078	10,567	4.9	4.5	4.2	6.5
2014	농어촌	17,031	10,136	3,806	3,089	3.9	4.0	3.1	4.5
	도시	34,339	15,589	8,099	10,651	4.9	4.6	4.1	6.5
2015	농어촌	16,634	9,884	3,706	3,044	3.8	3.9	3.0	4.4
	도시	34,094	15,588	7,913	10,593	4.8	4.5	4.0	6.4
2016	농어촌	16,408	9,704	3,640	3,064	3.7	3.9	3.0	4.5
	도시	33,649	15,288	7,773	10,588	4.7	4.4	3.9	6.3
2017	농어촌	16,025	9,441	3,587	2,997	3.6	3.8	3.0	4.4
	도시	33,162	15,088	7,597	10,477	4.6	4.3	3.8	6.2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5> 보건교사 배치율

▶ 농어촌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39.4%로 도시(79.1%)의 약 1/2수준

2016년 기준, 농어촌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39.4%로, ‘고등학교’(47.1%), ‘초등학교’(46.8%)에서 보건교사 배치율이 높은 반면, ‘중학교’(20.0%)에서 낮게 나타났다. 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79.1%로 농어촌의 2배 수준을 보였다.

| 표 2305 | 보건교사 배치율

(단위 : %)

연도	구분	보건교사 배치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38.7	50.1	16.1	35.7
	도시	82.0	90.1	71.5	77.6
2009	농어촌	37.7	49.0	15.7	35.3
	도시	81.7	89.5	72.0	77.1
2010	농어촌	38.1	49.7	15.7	35.1
	도시	80.7	88.8	72.0	74.3
2011	농어촌	38.1	48.7	16.6	37.6
	도시	81.7	88.0	73.4	78.5
2012	농어촌	38.2	48.4	16.6	39.4
	도시	81.9	87.8	73.4	79.7
2013	농어촌	38.0	48.1	16.8	39.0
	도시	80.7	86.7	72.4	78.0
2014	농어촌	38.4	47.7	17.6	41.6
	도시	81.1	86.9	72.6	79.1
2015	농어촌	38.5	46.8	18.9	43.3
	도시	79.1	85.3	70.5	76.4
2016	농어촌	39.4	46.8	20.0	47.1
	도시	79.1	84.4	71.3	77.4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1) 보건교사배치율(%)=보건교사 배치 학교수x100/전체학교수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임

2306> 학교 컴퓨터 보급률

▶ 농어촌 학교의 컴퓨터 1대 당 학생 수는 1.9명

2017년 기준, 농어촌 학교의 컴퓨터 1대 당 학생 수는 1.9명으로 점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3.8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 표 2306 | 학교 컴퓨터 보급률

(단위: 명)

연도	구분	컴퓨터 1대 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3.0	3.4	3.0	2.4
	도시	5.6	6.5	6.2	4.1
2009	농어촌	2.9	3.2	2.9	2.5
	도시	5.4	6.0	6.1	4.2
2010	농어촌	2.4	2.9	1.8	2.5
	도시	5.2	5.6	5.9	4.2
2011	농어촌	2.7	2.7	2.8	2.4
	도시	4.9	5.2	5.7	4.0
2012	농어촌	2.5	2.6	2.7	2.4
	도시	4.7	4.9	5.6	4.0
2013	농어촌	2.4	2.4	2.5	2.3
	도시	4.4	4.5	5.2	3.8
2014	농어촌	2.2	2.2	2.3	2.2
	도시	4.2	4.3	4.8	3.6
2015	농어촌	2.1	2.2	2.0	2.2
	도시	4.1	4.4	4.4	3.4
2016	농어촌	2.0	2.1	1.8	2.1
	도시	3.9	4.3	4.1	3.4
2017	농어촌	1.9	2.0	1.7	2.0
	도시	3.8	4.3	3.8	3.2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7 >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농어촌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34.5%

2017년 기준, 농어촌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34.5%로 2015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도시(49.4%) 및 중소도시(40.5%)에 비해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낮았다.

| 표 2307 - (1) | 방과 후 학교 참여율(1) (단위 : %)

연도	구분	참여율
2007	농어촌	40.8
	대도시	38.1
	중소도시	37.5
2008	농어촌	37.9
	대도시	40.6
	중소도시	37.0
2009	농어촌	38.0
	대도시	45.9
	중소도시	42.0
2010	농어촌	42.1
	대도시	51.3
	중소도시	45.8
2011	농어촌	43.3
	대도시	54.1
	중소도시	45.5
2012	농어촌	37.7
	대도시	48.0
	중소도시	42.1

자료 :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 표 2307 - (2) | 방과 후 학교 참여율(2)

(단위 : %)

연도	구분	참여율
2013	농어촌	40.6
	대도시	52.9
	중소도시	44.7
2014	농어촌	41.5
	대도시	53.8
	중소도시	45.1
2015	농어촌	41.0
	대도시	50.9
	중소도시	44.7
2016	농어촌	36.3
	대도시	51.3
	중소도시	43.8
2017	농어촌	34.5
	대도시	49.4
	중소도시	40.5

자료 :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2308>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전국의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 비율은 43.2%

2017년 기준, 전국의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43.2%로, 초등학교(50.8%), 고등학교(50.4%), 중학교(19.6%) 순이었다.

| 표 2308 |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단위 : %)

구분		학교급별 참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07	38.2	35.5	22.1	61.9	70.0
2008	38.7	33.8	26.5	61.2	70.2
2009	43.1	37.2	30.6	66.2	76.8
2010	47.6	39.8	38.1	70.1	80.8
2011	48.8	44.6	36.4	67.8	77.7
2012	44.1	42.4	29.3	61.0	70.1
2013	47.6	49.2	29.3	62.7	69.7
2014	48.2	52.2	27.8	61.4	68.5
2015	46.8	50.8	26.7	58.6	65.3
2016	45.9	50.3	20.0	60.7	66.9
2017	43.2	50.8	19.6	50.4	56.1

자료 :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2309 >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농어촌의 학생의 학업성취도 우수학력 비율은 도시에 비해 낮은 편

2016년 기준, 고등학교 2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우수학력 비율을 보면 각각 농어촌이 29.8%, 25.2%, 33.4%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중학교 3학년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했을 때에도 우수학력 비율이 국어 30.7%, 수학 10.9%, 영어 15.5%로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표 2309 - (1) |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초등학교 6학년

(단위 : %)

연도	성취수준	국어				수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2006	농어촌	15.3	47.5	30.7	6.5	16.8	58.1	23.2	1.9	44.1	23.1	27.6	5.2
	대도시	19.9	51.5	25.2	3.5	27.3	56.0	15.6	1.1	61.2	19.2	17.0	2.6
	중소도시	20.2	51.2	25.2	3.3	24.1	58.3	16.4	1.2	61.4	19.3	16.8	2.5
2009	농어촌	32.9	45.3	19.2	2.6	19.1	65.2	14.1	1.6	60.2	19.4	18.3	2.1
	대도시	36.3	44.8	16.9	2.0	29.4	59.5	10.0	1.1	72.9	13.4	12.1	1.6
	중소도시	35.2	44.7	17.7	2.4	24.9	62.3	11.5	1.3	69.2	14.9	13.9	2.0
2010	농어촌	40.7	37.0	21.0	1.3	22.8	51.6	24.3	1.2	58.9	20.8	18.2	2.1
	대도시	42.3	36.4	20.0	1.3	28.6	48.8	21.4	1.2	68.5	15.9	13.5	2.1
	중소도시	43.6	35.7	19.5	1.2	25.9	50.1	22.8	1.2	66.4	16.8	14.7	2.1
2011	농어촌	37.6	44.3	17.5	0.6	18.5	59.9	20.7	0.9	65.1	21.3	13.0	0.6
	대도시	42.7	40.8	15.8	0.7	23.7	57.5	17.7	1.1	74.1	15.4	9.7	0.7
	중소도시	40.1	42.6	16.6	0.6	20.3	59.2	19.5	1.0	70.6	17.4	11.3	0.8
2012	농어촌	49.1	33.9	16.5	0.5	34.0	43.3	21.9	0.9	66.8	21.6	10.9	0.8
	대도시	55.8	30.5	13.2	0.5	43.1	39.0	17.0	0.9	78.0	13.8	7.5	0.7
	중소도시	50.6	33.2	15.6	0.6	37.0	41.6	20.4	1.0	72.9	16.5	9.7	0.9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2013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은 평가에서 제외됨

| 표 2309 - (2) |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중학교 3학년

(단위 : %)

연도	성취수준	국어				수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2006	농어촌	7.4	40.5	43.0	9.1	11.6	29.1	48.9	10.4	10.5	36.4	46.6	6.5
	대도시	11.9	44.3	36.4	7.4	20.1	34.1	39.7	6.1	23.7	36.3	35.4	4.6
	중소도시	11.0	45.3	36.6	7.0	18.3	33.9	41.0	6.8	19.9	37.9	37.5	4.7
2009	농어촌	13.4	50.3	31.1	5.2	14.1	33.1	39.8	13.0	16.0	47.6	60.1	6.2
	대도시	17.7	51.9	25.8	4.6	23.1	35.2	31.3	10.4	28.9	44.2	22.2	4.7
	중소도시	17.8	52.0	25.7	4.5	22.0	35.0	32.4	10.6	26.4	45.3	23.4	4.9
2010	농어촌	19.2	50.8	26.7	3.2	14.5	37.9	41.0	6.6	15.8	44.6	34.7	4.9
	대도시	24.3	49.8	22.8	3.1	23.6	37.9	32.8	5.8	28.7	41.7	25.9	3.7
	중소도시	23.2	49.8	23.7	3.3	21.8	37.5	34.5	6.2	24.9	42.6	28.6	3.9
2011	농어촌	26.3	52.5	19.7	1.5	12.8	44.0	38.6	4.6	21.3	42.5	34.7	1.5
	대도시	32.2	49.9	16.5	1.4	23.1	43.8	29.3	3.8	35.9	37.3	25.5	1.2
	중소도시	31.4	50.0	17.2	1.4	20.6	44.1	31.3	4.0	31.9	38.4	28.4	1.4
2012	농어촌	26.5	55.0	17.4	1.0	9.5	49.6	36.9	3.9	16.8	50.5	30.2	2.4
	대도시	33.1	51.7	14.1	1.0	19.5	50.3	27.1	3.1	32.2	44.4	21.3	2.0
	중소도시	30.6	52.6	15.6	1.1	16.1	49.8	30.3	3.7	27.1	45.8	24.6	2.3
2013	농어촌	24.9	59.7	14.5	1.1	6.8	52.4	35.5	5.3	17.1	53.2	26.4	3.3
	대도시	32.5	54.7	11.6	1.2	15.7	53.8	25.9	4.6	32.5	45.0	19.5	3.1
	중소도시	29.3	56.5	13.0	1.3	12.4	53.4	28.8	5.5	27.4	46.7	22.3	3.6
2014	농어촌	20.4	65.2	12.6	1.9	6.8	51.2	35.5	6.5	18.0	51.0	27.5	3.4
	대도시	29.0	58.8	10.0	2.1	15.5	54.6	24.7	5.2	35.2	42.5	19.1	3.2
	중소도시	26.0	61.3	10.8	2.0	12.2	54.2	27.7	6.0	29.5	45.4	21.7	3.5
2015	농어촌	23.9	55.3	18.1	2.8	10.2	46.5	37.8	5.5	14.8	46.8	34.7	3.8
	대도시	33.0	50.8	13.6	2.7	23.3	46.9	25.6	4.2	31.2	42.9	22.8	3.2
	중소도시	29.6	52.9	15.0	2.5	17.2	48.2	29.9	4.7	25.2	44.5	26.8	3.5
2016	농어촌	30.7	57.2	9.8	2.3	10.9	47.1	35.7	6.3	15.5	51.5	28.3	4.7
	대도시	40.9	50.0	7.1	2.0	24.6	48.0	23.2	4.2	33.8	44.4	18.2	3.6
	중소도시	36.6	53.4	8.1	2.0	18.4	49.1	27.4	5.1	26.8	47.2	21.8	4.2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 표 2309 - (3) |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고등학교 2학년

(단위 : %)

연도	성취수준	국어				수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2006	농어촌	9.1	43.4	41.7	5.8	7.2	30.7	47.6	14.6	4.5	32.7	56.0	6.8
	대도시	18.3	46.3	31.4	4.0	15.0	38.5	36.8	9.6	12.8	40.6	42.5	4.2
	중소도시	20.9	44.9	29.8	4.4	16.6	37.3	35.9	10.2	14.0	39.9	41.0	5.2
2010	농어촌	23.8	43.5	28.3	4.4	16.5	45.6	31.2	6.7	17.8	32.5	44.6	5.1
	대도시	34.0	42.5	19.4	4.1	27.5	47.7	20.7	4.0	30.0	36.8	29.6	3.6
	중소도시	32.5	43.9	20.0	3.7	24.6	49.7	21.7	4.0	27.2	37.6	31.8	3.4
2011	농어촌	25.2	55.0	17.7	2.1	15.8	59.3	19.5	5.4	21.6	55.2	18.4	4.7
	대도시	34.6	51.3	12.1	2.0	25.8	56.3	13.8	4.2	35.8	49.0	11.9	3.3
	중소도시	33.1	52.4	12.6	1.9	21.6	59.3	14.8	4.3	31.8	51.4	13.1	3.7
2012	농어촌	24.6	56.5	17.4	1.5	19.0	59.3	17.1	4.6	25.0	55.9	16.3	2.8
	대도시	31.5	53.1	13.3	2.0	27.2	55.4	13.3	4.1	37.0	49.0	11.6	2.3
	중소도시	28.9	54.0	14.9	2.2	22.8	57.3	15.4	4.6	31.4	51.8	14.0	2.7
2013	농어촌	27.1	54.5	15.9	2.5	17.5	66.4	11.5	4.6	25.5	56.8	14.7	3.0
	대도시	33.2	51.3	12.7	2.8	25.1	61.4	9.3	4.2	36.7	49.9	10.9	2.5
	중소도시	29.9	53.6	13.7	2.7	20.0	64.4	10.8	4.8	31.5	52.9	12.8	2.8
2014	농어촌	29.8	55.6	13.5	1.1	17.5	65.8	10.8	5.9	24.9	57.6	11.5	6.1
	대도시	35.9	51.2	11.4	1.5	25.7	60.0	9.3	4.9	36.9	49.2	8.3	5.6
	중소도시	32.5	53.7	12.6	1.2	19.2	64.3	10.8	5.7	30.6	53.2	10.0	6.2
2015	농어촌	25.3	53.6	18.6	2.5	23.6	54.8	15.9	5.7	28.9	52.2	14.2	4.7
	대도시	30.5	51.7	14.9	2.9	32.4	49.7	12.7	5.3	40.9	44.8	10.2	4.2
	중소도시	27.1	53.8	16.8	2.3	26.0	53.0	15.3	5.7	34.4	48.6	12.4	4.6
2016	농어촌	29.8	51.8	15.2	3.2	25.2	51.2	17.9	5.8	33.4	49.8	11.2	5.7
	대도시	35.3	49.8	11.4	3.5	34.7	45.8	14.8	4.7	46.5	41.2	7.6	4.7
	중소도시	31.8	52.0	13.3	2.9	28.1	48.4	17.9	5.6	39.2	46.0	9.5	5.4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2006년 : 고등학교 1학년

2310>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률은 농어촌과 도시 모두 100% 수준

2016년 기준, 농어촌의 학교진학률은 중학교 100.0%, 고등학교 99.6%로, 도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 2310 |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단위 : %)

연도	구분	중학교 진학률(초→중)	고등학교 진학률(중→고)
2008	농어촌	99.9	98.8
	도시	99.9	98.8
2009	농어촌	99.9	99.0
	도시	99.9	98.6
2010	농어촌	99.9	98.8
	도시	99.8	98.1
2011	농어촌	99.9	97.9
	도시	99.9	98.2
2012	농어촌	99.9	98.9
	도시	99.9	98.7
2013	농어촌	99.9	99.0
	도시	99.9	98.9
2014	농어촌	100.0	99.7
	도시	100.0	99.7
2015	농어촌	100.0	99.7
	도시	100.0	99.8
2016	농어촌	100.0	99.6
	도시	100.0	99.8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11 > 학업중단 비율

▶ 농어촌의 학업중단 비율은 초등학교 0.3%, 중학교 0.5%, 고등학교 1.6%

2016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학교 학업중단 비율은 각 0.3%, 0.5%로 도시(각 0.6%, 0.7%)에 비해 낮았다. 반면, 농어촌의 고등학교 학업중단 비율은 1.6%로 도시 1.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표 2311 | 학업중단 비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비율	학생 수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비율	학생 수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비율
2008	농어촌	609,385	2,159	0.4	282,418	1,914	0.7	252,747	6,714	2.7
	도시	3,062,822	18,291	0.6	1,756,193	18,187	1.0	1,654,231	26,229	1.6
2009	농어촌	570,718	1,820	0.3	277,997	1,882	0.7	260,341	7,196	2.8
	도시	2,903,677	15,824	0.5	1,728,975	17,793	1.0	1,705,451	27,754	1.6
2010	농어촌	545,841	1,115	0.2	277,955	1,686	0.6	263,835	7,353	2.8
	도시	2,753,253	10,519	0.4	1,696,843	14,050	0.8	1,698,521	27,187	1.6
2011	농어촌	521,695	1,496	0.3	275,042	2,016	0.7	263,992	7,775	2.9
	도시	2,610,782	17,340	0.7	1,635,530	16,850	1.0	1,679,806	31,112	1.9
2012	농어촌	496,997	1,697	0.3	273,273	1,907	0.7	268,126	7,315	2.7
	도시	2,454,998	17,466	0.7	1,575,821	15,904	1.0	1,651,961	30,076	1.8
2013	농어촌	463,026	1,375	0.3	263,333	1,781	0.7	267,959	6,724	2.5
	도시	2,320,974	15,453	0.7	1,540,856	14,645	1.0	1,625,344	28,210	1.7
2014	농어촌	460,649	1,446	0.3	255,014	1,531	0.6	265,550	5,664	2.1
	도시	2,267,860	14,462	0.6	1,462,897	12,747	0.9	1,573,822	24,718	1.6
2015	농어촌	464,147	1,493	0.3	238,321	1,292	0.5	262,313	4,691	1.8
	도시	2,250,463	13,393	0.6	1,347,630	10,410	0.8	1,525,953	20,627	1.4
2016	농어촌	459,010	1,446	0.3	219,494	1,159	0.5	260,073	4,193	1.6
	도시	2,213,833	13,109	0.6	1,237,996	8,802	0.7	1,492,384	18,361	1.2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12> 대학(교) 진학률

▶ 농어촌의 대학(교) 진학률은 71.3%

2017년 기준,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자는 85,687명이며, 이 중 71.3%가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으로 올수록 대학(교) 진학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는 68.5% 였다.

| 표 2312 - (1) | 대학(교) 진학률(1)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자			대학(교)진학률			
			국내 대학	국내 전문 대학	국외 대학		국내 대학	국내 전문 대학	국외 대학
2008	농어촌	76,446	37,915	26,668	264	84.8	49.6	70.3	1.0
	도시	505,475	303,546	115,998	1,222	83.2	60.1	38.2	1.1
2009	농어촌	74,708	37,008	26,342	272	85.2	49.5	71.2	1.0
	도시	501,590	281,706	122,942	1,458	81.0	56.2	43.6	1.2
2010	농어촌	82,011	39,772	28,289	340	83.4	48.5	71.1	1.2
	도시	551,528	298,665	127,707	1,489	77.6	54.2	42.8	1.2
2011	농어촌	84,007	36,076	28,052	315	76.7	42.9	77.8	1.1
	도시	564,461	261,064	139,334	1,459	71.2	46.3	53.4	1.0
2012	농어촌	83,048	34,714	26,598	274	74.2	41.8	76.6	1.0
	도시	553,676	254,738	132,920	1,082	70.2	46.0	52.2	0.8
2013	농어촌	84,768	36,053	25,512	265	72.9	42.5	70.8	1.0
	도시	546,429	254,266	125,893	870	69.7	46.5	49.5	0.7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1) 국내대학에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진학자가 포함되어 있고 국외대학은 국외 4년제 대학교, 전문대 포함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 표 2312 - (2) | 대학(교) 진학률(2)

(단위: 명, %)

연도	구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자	대학(교)진학률
2014	농어촌	87,271	64,084	73.4
	도시	545,712	384,733	70.5
2015	농어촌	86,409	63,087	73.0
	도시	529,053	372,563	70.4
2016	농어촌	85,922	61,995	72.2
	도시	521,676	362,002	69.4
2017	농어촌	85,687	61,066	71.3
	도시	497,921	340,857	68.5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13>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농어촌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7.7만원

2017년 기준, 농어촌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7.7만원이며, 사교육 참여율은 61.7%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사교육비는 모든 학교급에서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적은 가운데,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차이가 컸다. 농어촌의 사교육 참여율도 대도시(73.2%), 중소도시(71.1%)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 표 2313 - (1) |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1)

(단위 : 만원, %)

연도	구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특수고		
2007	농어촌	12.1	13.2	13.1	7.9	7.8	66.4
	대도시	24.6	24.7	26.2	22.7	28.0	79.6
	중소도시	22.8	23.9	23.3	19.7	23.0	77.5
2008	농어촌	12.5	13.9	13.3	8.4	8.3	64.0
	대도시	25.5	26.0	26.8	23.3	28.1	77.6
	중소도시	24.2	25.9	24.3	21.0	24.8	75.8
2009	농어촌	15.6	18.0	17.7	8.1	11.1	67.3
	대도시	26.9	26.3	27.3	27.3	32.2	76.6
	중소도시	24.5	25.4	27.4	19.9	24.3	76.0
2010	농어촌	16.0	19.1	16.9	8.4	11.3	65.4
	대도시	26.6	25.7	27.1	27.4	31.9	75.5
	중소도시	24.4	25.6	26.7	19.9	23.9	74.7

자료 :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 표 2313 - (2) |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2)

(단위 : 만원, %)

연도	구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특수고		
2011	농어촌	16.0	18.6	17.8	8.6	11.0	64.0
	대도시	26.6	25.3	27.9	27.2	31.7	73.8
	중소도시	24.3	25.1	27.2	20.1	23.6	72.4
2012	농어촌	15.0	16.3	18.7	9.1	11.3	58.0
	대도시	26.3	23.6	29.7	27.1	31.7	71.9
	중소도시	23.4	21.7	28.3	21.5	25.0	70.3
2013	농어촌	14.7	16.5	16.5	10.3	12.3	57.5
	대도시	27.1	24.6	29.9	28.2	33.3	71.4
	중소도시	23.8	24.1	27.1	20.3	23.5	70.2
2014	농어촌	15.6	16.7	17.8	11.7	14.0	59.2
	대도시	27.3	25.3	29.6	28.2	33.1	70.5
	중소도시	24.1	23.6	27.7	21.5	24.9	70.1
2015	농어촌	16.0	16.8	19.8	12.1	14.8	57.7
	대도시	27.5	25.1	29.9	28.9	34.0	71.0
	중소도시	24.0	23.0	27.5	22.3	25.6	70.0
2016	농어촌	16.6	17.8	17.0	14.4	17.2	57.9
	대도시	29.0	26.3	30.7	31.4	36.6	69.9
	중소도시	25.0	24.0	27.7	24.5	28.1	68.6
2017	농어촌	17.7	18.7	16.7	16.7	20.4	61.7
	대도시	31.7	28.9	33.6	34.6	40.8	73.2
	중소도시	26.2	24.5	29.0	26.4	29.9	71.1

자료 :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231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 농어촌의 58.2%가 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

2017년 기준, 농어촌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은 ‘부담스럽다’가 58.2%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은 28.4%, ‘부담스럽지 않다’는 13.3%이었다. 농어촌에서 도시(65.4%)에 비해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부담스럽다’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표 2314 |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

연도	구분	부담스럽다			보통	부담스럽지 않다		
			매우	약간			별로	전혀
2008	농어촌	75.9	37.9	38.0	18.6	5.6	5.0	0.6
	도시	80.5	40.1	40.4	15.0	4.4	3.9	0.5
2010	농어촌	76.6	34.6	42.0	17.6	5.8	5.1	0.7
	도시	78.7	37.9	40.8	16.4	4.9	4.2	0.7
2012	농어촌	68.6	29.4	39.2	22.1	9.2	7.2	2.0
	도시	73.7	31.9	41.8	20.8	5.4	4.5	0.9
2014	농어촌	62.0	24.3	37.7	26.8	11.2	9.6	1.6
	도시	70.4	27.4	43.0	22.5	7.0	5.6	1.4
2016	농어촌	61.1	25.6	35.5	30.6	8.3	7.0	1.3
	도시	65.9	28.1	37.8	27.6	6.4	5.3	1.1
2017	농어촌	58.2	21.6	36.6	28.4	13.3	10.2	3.1
	도시	65.4	24.6	40.8	26.4	8.2	6.9	1.3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30세 이상 가구주 대상

2315>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 농어촌의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율은 29.8%

2017년 기준, 농어촌의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율은 29.8%로, 대도시(35.2%) 및 중소도시(35.3%)에 비해 약간 낮았다.

| 표 2315 - (1) |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1)

(단위 : %)

연도	구분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2007	농어촌	31.7	4.2	28.3	13.9
	대도시	29.4	7.5	25.3	9.2
	중소도시	29.3	3.9	26.9	10.7
2009	농어촌	26.4	3.1	24.4	11.8
	대도시	27.6	5.5	24.2	13.3
	중소도시	29.2	3.2	27.2	16.8
2010	농어촌	30.8	3.1	29.8	19.3
	대도시	28.1	4.2	25.6	12.8
	중소도시	33.6	3.7	31.2	16.4
2011	농어촌	25.7	2.1	24.5	13.9
	대도시	35.0	5.6	32.0	16.6
	중소도시	31.8	3.3	30.1	16.3
2012	농어촌	26.6	0.4	26.2	13.4
	대도시	37.3	4.3	34.2	14.3
	중소도시	37.3	3.8	34.8	17.8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주 : 1) 전체참여율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하나라도 참여한 경우임

2) 형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3) 비형식교육이란 강좌형태로 기관에 등록하여 참여하거나 개인과외, 스터디클럽 형태로 참여한 교육을 의미

※대도시: 서울 및 광역시

| 표 2315 - (2) |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2)

(단위 : %)

연도	구분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2013	농어촌	30.6	1.7	29.9	19.3
	대도시	30.7	4.6	28.1	16.1
	중소도시	29.6	3.8	27.3	15.6
2014	농어촌	37.3	1.9	36.2	28.0
	대도시	34.9	3.2	33.4	23.0
	중소도시	38.9	3.5	37.2	27.4
2015	농어촌	35.2	2.8	33.7	25.7
	대도시	41.9	4.4	40.0	27.3
	중소도시	41.1	2.8	40.2	29.1
2016	농어촌	37.5	2.9	36.1	21.6
	대도시	32.7	2.6	31.4	13.5
	중소도시	38.6	2.9	36.7	20.1
2017	농어촌	29.8	1.4	29.4	11.5
	대도시	35.2	2.0	34.1	13.8
	중소도시	35.3	2.1	34.2	15.3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주 : 1) 전체참여율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하나라도 참여한 경우임

2) 형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3) 비형식교육이란 강좌형태로 기관에 등록하여 참여하거나 개인과의, 스터디클럽 형태로 참여한 교육을 의미

※대도시: 서울 및 광역시



2400> 문화·여가

여건

- 2401> 주요 여가활동
- 2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 2403>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 2404>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2401 > 주요 여가활동

▶ 농어촌의 주요 여가활동은 'TV 시청'(주중 54.7%/ 주말 42.2%)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2017년 기준, 농어촌의 주중의 주요 여가활동으로는 'TV 시청'이 54.7%로 가장 많았으며, '휴식 활동'(16.3%),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9.2%), '취미·자기개발 활동'(7.5%) 순으로 나타났다.

휴일을 포함한 주말의 경우, 주중과 마찬가지로 'TV 시청'(42.2%), '휴식 활동'(18.2%)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사회 및 기타활동'(7.8%), '관광활동'(7.2%) 순으로 주중의 여가활동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도/농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표 2401 - (1) | 주요 여가활동(1)

(단위 : %)

연도	구분	TV 및 DVD 시청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창작적 취미	자기 개발	봉사 활동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 일	기타
2007	농어촌	29.1	4.2	1.1	0.4	3.6	4.5	1.0	1.6	0.3	9.2	16.8	18.4	9.2	0.5
	도시	27.4	5.3	2.4	0.6	5.0	6.5	1.1	3.2	0.2	10.5	13.1	15.4	8.9	0.5
2009	농어촌	30.0	4.6	1.4	0.4	3.8	4.9	1.1	1.8	0.3	8.0	19.2	14.4	8.9	1.2
	도시	30.1	5.4	2.8	1.0	5.7	6.2	1.0	3.4	0.4	10.0	13.0	12.5	8.2	0.6
2011	농어촌	36.4	3.3	2.0	0.6	4.3	4.7	1.3	1.5	0.4	8.1	16.4	12.9	7.1	1.1
	도시	36.1	4.3	3.5	1.2	5.5	6.4	1.5	2.8	0.2	9.4	12.5	9.5	6.5	0.5
2013	농어촌	35.6	4.7	2.3	0.6	4.6	3.7	1.2	1.5	0.2	8.9	15.4	13.0	7.1	1.2
	도시	34.2	5.9	3.6	0.8	5.3	5.8	1.3	2.8	0.3	8.6	12.4	10.9	7.6	0.6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6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 2401 - (2) | 주요 여가활동(2)

(단위 : %)

연도	구분	TV 및 DVD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자기 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2015	농어촌	45.2	3.8	0.7	1.0	5.4	4.2	5.2	5.7	19.2	8.3	1.3
	도시	42.0	5.4	0.9	1.2	7.7	4.9	6.8	6.7	16.2	6.8	1.3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 2401 - (3) | 주중의 주요 여가활동

(단위 : %)

연도	구분	TV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자기 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2017	농어촌	54.7	1.5	0.7	0.7	5.2	0.9	9.2	7.5	16.3	2.9	0.4
	도시	50.3	2.2	0.7	0.9	6.9	0.6	12.8	7.7	15.5	2.2	0.2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 2401 - (4) | 주말(휴일 포함)의 주요 여가활동

(단위 : %)

연도	구분	TV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자기 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2017	농어촌	42.2	4.8	0.5	0.8	6.1	7.2	6.6	5.3	18.2	7.8	0.5
	도시	36.1	6.4	0.7	1.3	7.4	6.8	9.7	5.7	18.9	6.7	0.3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 농어촌의 1년간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경험률은 52.3%, 횟수는 평균 7.5회

2017년 기준, 농어촌의 지난 1년간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경험률은 52.3%, 평균 관람 횟수는 7.5회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공연장’ 관람 경험률(31.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관람 경험률 및 평균 관람 횟수가 낮았다.

| 표 2402 |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단위 : %, 회)

연도	구분	관람함								관람 하지 않음
				공연장 이용		전시장 이용		스포츠 관람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2007	농어촌	42.8	5.1	79.0	4.8	38.8	2.4	15.0	3.0	57.2
	도시	56.8	7.3	88.1	6.3	36.2	2.9	19.0	3.4	43.2
2009	농어촌	38.4	6.0	84.3	5.4	33.2	2.6	17.8	3.3	61.6
	도시	58.7	7.7	90.2	6.6	32.4	3.0	20.9	3.5	41.3
2011	농어촌	42.7	7.0	30.3	3.2	21.8	2.4	20.4	4.1	57.3
	도시	62.1	8.6	34.2	3.4	23.8	2.5	24.9	4.2	37.9
2013	농어촌	45.9	7.7	30.7	3.7	22.3	2.6	19.5	3.9	54.1
	도시	67.1	9.0	34.0	3.7	22.7	2.6	22.4	4.1	32.9
2015	농어촌	53.0	7.2	30.2	3.1	21.0	2.5	18.1	4.1	47.0
	도시	63.6	8.6	33.7	3.4	23.2	2.6	21.6	3.9	36.4
2017	농어촌	52.3	7.5	31.7	3.5	19.9	2.5	20.2	2.9	47.7
	도시	69.5	9.2	33.7	3.6	23.2	2.6	25.9	3.5	30.5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1)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 2011년 이후,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를 ‘공연장’에 포함, ‘박물관’, ‘미술관’을 ‘전시장’에 포함

2403>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 농어촌의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는 698개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는 총 698개소로, ‘복지회관’(214개소) 등 지역 문화·복지 시설(319개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403 - (1) |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1)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총계	공연시설				전시시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 상영장		미술관	화랑
2006	농어촌	715	96	69	6	21	57	41	16
	도시	2,728	1,415	296	235	884	363	125	238
2009	농어촌	690	101	72	10	19	55	52	3
	도시	2,951	1,647	342	246	1,059	387	129	258

연도	구분		지역 문화·복지 시설				기타시설
			시군 구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다목적 체육 이용시설	소계
2006	농어촌	426	53	316	57	0	136
	도시	744	72	461	178	33	206
2009	농어촌	393	43	283	67	-	141
	도시	701	84	454	163	-	216

자료 : 각 연도 시도 통계연보

주 :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 표 2403 - (2) |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2)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총계	공연시설				전시시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2011	농어촌	609	105	80	7	18	56	50	6
	도시	2,353	1,097	411	337	349	363	117	246
2012	농어촌	548	99	79	6	14	59	52	7
	도시	2,334	1,120	412	366	342	366	126	240
2013	농어촌	516	94	79	6	9	55	43	12
	도시	2,412	1,142	401	412	329	369	145	224
2014	농어촌	516	104	84	7	13	71	48	23
2015	농어촌	698	145	100	10	35	94	68	26

연도	구분	지역 문화·복지 시설				기타시설			
			시군 구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소계	문화원	국악원	전수 회관
2011	농어촌	299	55	182	62	149	79	11	59
	도시	658	104	368	186	235	147	15	73
2012	농어촌	238	48	143	47	152	79	10	63
	도시	614	89	337	188	234	144	17	73
2013	농어촌	236	38	140	58	131	77	4	50
	도시	667	73	383	211	234	143	15	76
2014	농어촌	196	38	112	46	145	77	9	59
2015	농어촌	319	38	214	67	140	74	9	57

자료 : 각 연도 시도 통계연보

주 : 1)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2) 2014년 기준, 일부 도시 지역의 조사문항 개편으로 인해 동등 비교 불가, 2014년부터 농어촌 결과만 제시

3) 미술관 : 강원 지역의 경우 박물관 포함 수치임

2404>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 농어촌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10.8%, 문화 관련 동아리 참여율은 4.7%

2016년 기준, 농어촌에서 ‘미술교육’(2.9%), ‘문학교육’(2.6%), ‘전통예술교육’(2.4%)에 대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문화·예술교육 전체에 대한 참여율은 10.8%로 대도시(9.8%)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중소도시(13.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농어촌의 문화 동아리 중 ‘미술’(1.4%), ‘전통예술’(1.1%) 동아리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어촌의 전체 동아리 참여율은 4.7%로 대도시(4.1%)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중소도시(7.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표 2404 - (1)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참여현황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문학 교육	미술 교육	서양 음악 교육	전통 예술 교육	무용 교육	연극 교육	뮤지컬 교육	영화 교육	대중 음악 교육	역사 문화 유산 교육
2012	농어촌	12.0	2.3	2.3	2.9	1.4	0.9	0.7	1.2	3.6	4.4	1.7
	대도시	7.1	2.1	2.0	0.9	0.5	0.5	1.0	0.8	2.1	1.3	1.1
	중소도시	9.0	2.3	2.4	1.7	1.1	0.8	0.7	0.2	1.3	0.8	1.1
2014	농어촌	6.9	1.9	1.9	0.9	0.6	0.3	0.7	0.8	1.4	1.1	1.0
	대도시	6.9	2.2	1.7	1.1	0.6	0.4	0.4	0.2	1.0	0.6	1.7
	중소도시	7.0	2.1	2.1	2.3	0.6	0.5	0.5	0.3	1.6	0.9	1.2
2016	농어촌	10.8	2.6	2.9	2.0	2.4	0.6	0.5	0.7	1.7	1.8	-
	대도시	9.8	2.2	2.4	1.2	1.1	0.8	0.6	0.4	1.6	1.1	-
	중소도시	13.9	3.4	4.0	1.9	1.8	0.6	0.4	0.9	2.3	2.2	-

자료: 각 년도별 문화향수실태조사

| 표 2404 - (2) | 지역별 문화 동아리 참여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전체	문학	미술	서양 음악	전통 예술	무용	연극	뮤지컬	영화	대중 음악	역사 문화 유산
2012	농어촌	1.8	0.7	0.6	0.6	0.4	0.5	0.4	2.2	1.0	1.1	6.3
	대도시	0.5	0.6	0.2	0.4	0.1	0.3	0.2	0.5	0.4	0.3	2.7
	중소도시	1.0	0.7	0.9	0.6	0.4	0.3	0.0	0.2	0.6	0.3	4.3
2014	농어촌	4.8	0.8	0.9	0.6	0.8	0.1	0.2	0.3	1.4	0.5	0.7
	대도시	4.4	1.1	1.1	0.6	0.4	0.5	0.6	0.1	1.0	0.4	0.4
	중소도시	3.8	0.9	0.7	0.7	0.5	0.3	0.5	0.1	1.0	0.8	0.4
2016	농어촌	4.7	0.9	1.4	0.9	1.1	0.3	0.2	0.2	0.6	0.4	0.3
	대도시	4.1	1.0	1.2	0.4	0.3	0.1	0.4	0.1	0.2	0.3	0.7
	중소도시	7.5	1.6	2.1	1.1	0.7	0.6	0.4	0.1	1.0	0.6	0.6

자료: 각 연도별 문화향수실태조사



2500> 기초생활 여건/

환경·경관

- 2501>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
- 2502>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 2503> 주택의 시설 현황
- 2504> 상수도 보급률
- 2505> 하수도 보급률
- 2506> 도로 포장률
- 2507>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 2508>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 2509> 인터넷 이용 목적
- 2510>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2511> 환경오염 체감 정도

2501 >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

▶ 농어촌의 주택 노후기간은 '15~30년 미만' 비율이 34.6%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주택 노후기간별 현황을 보면 '15~30년 미만'이 3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년 이상'(29.3%), '5~15년 미만'(23.6%), '5년 미만'(12.5%) 순이었다.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 비율이 도시(12.6%)에 비해 농어촌에서 높은 반면, '15~30년 미만' 주택 비율은 도시(45.5%)가 농어촌 보다 높았다.

| 표 2501 - (1) |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05) (단위 : %)

연도	구분	계	2000~2005년	1990~1999년	1980~1989년	1979년 이전
2005	농어촌	100.0	19.9	40.3	15.3	24.5
	도시	100.0	22.7	47.3	20.9	9.1

자료 : 2005 인구주택총조사

| 표 2501 - (2) |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10) (단위 : %)

연도	구분	계	2005~2010년	1995~2004년	1980~1994년	1979년 이전
2010	농어촌	100.0	17.3	35.0	27.1	20.7
	도시	100.0	15.2	39.9	38.3	6.6

자료 : 2010 인구주택총조사

| 표 2501 - (3) | 주택 노후기간별 현황(2015) (단위 : %)

연도	구분	계	5년 미만	5~15년 미만	15~30년 미만	30년 이상
2015	농어촌	100.0	12.5	23.6	34.6	29.3
	도시	100.0	12.7	29.1	45.5	12.6

자료 : 2015 인구주택총조사

2502>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 주된 주거형태는 '단독주택'(57.5%), '아파트'(33.3%)였으며, '자가'(71.9%) 비율이 매우 높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주거형태로는 '단독주택'(57.5%)이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33.3%), '다세대주택'(4.8%), '연립주택'(2.7%) 순이었다. 반면, 도시의 경우, '아파트'(67.4%), '단독주택'(14.9%), '다세대주택'(13.5%) 순으로 농촌과 차이를 보였다.

농어촌의 주택 점유형태로는 '자가'(71.9%)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도시에서는 '자가'(53.2%), '보증금 있는 월세'(22.4%), '전세'(17.5%) 순이었다.

| 표 2502 - (1) | 주거형태

(단위 : %)

연도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005	농어촌	68.4	24.3	3.2	2.1	2.0
	도시	39.3	46.8	3.4	8.8	1.7
2010	농어촌	63.1	30.2	3.0	2.4	1.3
	도시	34.9	52.4	2.9	8.5	1.2
2015	농어촌	57.5	33.3	2.7	4.8	1.6
	도시	14.9	67.4	3.0	13.5	1.2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 표 2502 - (2) | 점유형태

(단위 : %)

연도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2005	농어촌	71.9	10.2	8.1	2.2	2.1	5.5
	도시	52.2	25.3	16.4	2.0	1.7	2.4
2010	농어촌	70.8	11.0	9.9	1.9	1.6	4.9
	도시	51.2	24.3	19.5	1.8	1.3	2.0
2015	농어촌	71.9	7.0	11.2	2.3	1.3	6.3
	도시	53.2	17.5	22.4	2.6	0.7	3.5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503> 주택의 시설 현황

- ▶ 농어촌의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 목욕시설' 비율은 90%대로 높은 반면, '상수도'는 69.3%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 97.4%, '기름 보일러'(38.7%), '도시가스 보일러'(32.2%) 비율 높음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주거시설은 '입식부엌'이 97.3%, '상수도'가 69.3%, '수세식화장실'이 90.3%, '온수목욕시설'이 94.6%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입식부엌 98.9%, 상수도 99.5%, 수세식화장실 98.6%, 온수목욕시설 98.4%)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15년 기준, 농어촌의 난방형태로는 '개별난방'이 97.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기름 보일러'(38.7%), '도시가스 보일러'(32.2%)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도시의 난방시설로는 '도시가스 보일러'(71.9%)가 가장 많았다.

| 표 2503 - (1) | 주거시설

(단위: %)

연도	구분	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입식	재래식	없음	상수도	마을 상수도	자가 수도	수도 없음	수세식	재래식	없음	온수	비온수	없음
2005	농어촌	95.5	4.3	0.2	52.9	22.8	4.0	20.3	80.1	19.7	0.1	90.5	1.1	8.4
	도시	98.6	1.1	0.3	98.4	0.4	0.6	0.7	97.5	2.4	0.1	97.2	0.1	2.6
2010	농어촌	97.3	2.6	0.1	69.3	21.5	0.9	8.3	90.3	9.7	0.0	94.6	2.0	3.4
	도시	98.9	0.9	0.3	99.5	0.2	0.1	0.3	98.6	1.4	0.0	98.4	0.4	1.2

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 표 2503 - (2) | 난방형태

(단위: %)

연도	구분	난방방식			개별난방의 난방시설								
		중앙 난방	지역 난방	개별 난방	도시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화목 보일러	연탄 아궁이	재래식 아궁이	기타
2005	농어촌	1.1	1.5	97.4	15.0	57.3	8.5	9.3	3.6	-	0.6	1.9	1.3
	도시	7.1	10.4	82.5	59.4	17.9	2.4	1.8	0.5	-	0.1	0.0	0.3
2010	농어촌	0.6	2.9	96.5	24.2	43.8	8.4	12.4	3.8	-	0.3	1.1	2.4
	도시	5.7	12.4	81.9	67.8	9.3	1.9	2.1	0.5	-	0.0	0.0	0.2
2015	농어촌	0.4	2.2	97.4	32.2	38.7	6.7	12.0	2.9	3.5	0.3	0.5	0.6
	도시	3.3	15.1	81.6	71.9	5.9	1.7	1.5	0.3	0.1	0.0	0.0	0.1

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504> 상수도 보급률

▶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은 83.2%로 도시(99.5%)에 비해 낮음

2016년 기준,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은 83.2%로, 최근으로 올수록 보급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도시(99.5%)에 비해서는 낮았다.

표 2504 상수도 보급률		(단위: 명, %)		
연도	구분	총인구	급수인구	상수도 보급률
2006	농어촌	9,539,023	5,677,070	59.5
	도시	40,160,933	39,625,063	98.7
2010	농어촌	9,923,079	7,115,072	71.7
	도시	41,615,288	41,345,270	99.4
2011	농어촌	9,919,093	7,346,713	74.1
	도시	41,893,172	41,648,749	99.4
2012	농어촌	9,892,779	7,561,558	76.4
	도시	42,084,490	41,857,340	99.5
2013	농어촌	9,767,113	7,729,999	79.1
	도시	42,464,861	42,263,478	99.5
2014	농어촌	9,896,788	8,013,740	81.0
	도시	42,622,977	42,440,516	99.6
2015	농어촌	9,984,684	8,245,273	82.6
	도시	42,805,495	42,650,111	99.6
2016	농어촌	10,186,166	8,474,898	83.2
	도시	42,844,680	42,638,706	99.5

자료: 각 연도 상수도통계

주: 1) 도시는 시가지, 농어촌은 읍면부, 도서지역을 포함함

2) 보급률=(급수인구÷총인구)×100

2505> 하수도 보급률

▶ 농어촌의 하수도 보급률은 67.3%로 특광역시(99.0%), 중소도시(92.5%)에 비해 낮음

2017년 기준, 농어촌의 하수도 보급률은 63.4%로 특광역시(99.0%), 중소도시(92.5%)에 비해 낮았다.

표 2505 하수도 보급률		(단위: 명, %)		
연도	구분	총인구	하수처리인구	하수도 보급률
2006	농어촌	4,984,466	2,099,011	42.1
	일반도시	32,325,541	31,386,187	97.1
	도농복합도시	12,314,262	8,964,998	72.8
2012	농어촌	2,293,128	1,394,688	60.8
	특광역시	23,657,889	23,387,342	98.9
	중소도시	22,350,579	19,784,600	88.5
2013	농어촌	3,977,331	2,343,502	58.9
	특광역시	24,350,968	23,971,351	98.4
	중소도시	23,799,087	21,357,422	89.7
2014	농어촌	3,829,802	2,372,562	61.9
	특광역시	24,416,789	24,057,521	98.5
	중소도시	24,172,856	21,721,114	89.9
2015	농어촌	3,841,152	2,433,601	63.4
	특광역시	23,788,287	23,498,216	98.8
	중소도시	25,042,986	22,638,685	90.4
2016	농어촌	3,836,393	2,521,257	65.7
	특광역시	23,720,741	23,484,824	99.0
	중소도시	24,639,570	22,658,196	92.0
2017	농어촌	3,822,812	2,572,140	67.3
	특광역시	23,341,232	23,117,731	99.0
	중소도시	24,823,178	22,966,417	92.5

자료: 각 연도 하수도통계

주: 1)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2) 보급률=(급수인구÷총인구)×100

2506> 도로 포장률

▶ 도로 포장률은 92.8%

2017년 기준, 전체적인 도로 포장률이 92.8%이었으며, ‘고속도로’(100.0%), ‘특·광시도’(100.0%), ‘일반국도’(99.7%), ‘구도’(99.6%) 포장률이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도’(96.6%), ‘지방도’(91.7%), ‘군도’(76.5%) 순이었다.

| 표 2506 - (1) | 도로 포장률(1)

(단위 : km,%)

연도	구분	총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도로 포장률		
2007	농어촌	33,536,554	24,634,335	73.5	6,748,259	2,153,940
	특별·광역시	20,469,380	20,100,482	98.2	318,088	50,810
	일반시	31,358,613	22,663,720	72.3	1,101,465	7,593,428
	도농복합시	17,654,413	13,222,920	74.9	2,961,749	1,469,744
2012	총계	105,703	88,183	83.4	8,765	8,755
	고속도로	4,044	4,044	100.0	-	-
	일반국도	13,766	13,432	97.6	57	277
	특·광시도	19,464	19,298	99.1	117	49
	지방도	18,162	15,230	83.9	1,591	1,341
	시도	27,670	21,094	76.2	1,406	5,170
	군도	22,597	15,085	66.8	5,594	1,918
	구도	15,076	15,003	99.5	73	-
2013	총계	106,414	87,799	82.5	8,620	9,995
	고속도로	4,112	4,112	100.0	-	-
	일반국도	13,843	13,527	97.7	57	259
	특·광시도	4,879	4,821	98.8	20	38
	지방도	18,083	15,243	84.3	1,529	1,311
	시도	28,047	20,352	72.6	1,184	6,511
	군도	22,374	14,741	65.9	5,757	1,876
	구도	15,076	15,003	99.5	73	-

자료 : 각 연도 도로현황조사

| 표 2506 - (2) | 도로 포장률(2)

(단위 : km,%)

연도	구분	총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도로 포장률		
2014	총계	105,673	89,701	84.9	8,218	7,754
	고속도로	4,139	4,139	100.0	-	-
	일반국도	13,950	13,651	97.9	57	242
	특광시도	4,758	4,758	100.0	-	-
	지방도	18,058	15,251	84.5	1,504	1,303
	시도	27,170	21,650	79.7	1,066	4,454
	군도	22,202	14,921	67.2	5,526	1,755
	구도	15,396	15,331	99.6	65	-
2015	총계	107,527	91,195	84.8	7,830	8,502
	고속도로	4,193	4,193	100.0	-	-
	일반국도	13,948	13,670	98.0	57	221
	특광시도	4,727	4,727	100.0	-	-
	지방도	18,087	15,305	84.6	1,473	1,309
	시도	28,348	22,337	78.8	913	5,098
	군도	22,637	15,438	68.2	5,326	1,873
	구도	15,587	15,525	99.6	61	1
2016	총계	108,779,551	92,826,049	85.3	7,601,959	8,351,543
	고속도로	4,437,570	4,437,570	100.0	-	-
	일반국도	13,976,605	13,757,953	98.4	55,543	163,109
	특광시도	4,761,176	4,761,176	100.0	-	-
	지방도	18,121,363	15,412,886	85.1	1,432,048	1,276,429
	시도	28,867,451	22,888,097	79.3	874,900	5,104,454
	군도	22,795,717	15,807,383	69.3	5,182,144	1,806,190
	구도	15,819,669	15,760,984	99.6	57,324	1,361
2017	총계	101,869,532	94,548,800	92.8	7,320,732	8,221,752
	고속도로	4,717,440	4,717,440	100.0	-	-
	일반국도	13,847,497	13,810,404	99.7	37,093	135,049
	특광시도	4,885,573	4,885,573	100.0	-	-
	지방도	16,809,438	15,410,097	91.7	1,339,341	1,245,887
	시도	24,346,181	23,512,353	96.6	833,828	5,094,366
	군도	21,243,113	16,249,330	76.5	4,993,783	1,746,348
	구도	16,020,290	15,963,603	99.6	56,687	102

자료 : 각 연도 도로현황조사

2507 >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 농어촌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42.8%

2016년 기준, 신호등, 횡단보도, 표지판, 노면표시 등 농어촌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이 42.8%로 2008년부터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도시의 만족도(45.4%)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 2507 |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24.0	3.4	20.5	52.6	23.5	19.4	4.1
	도시	26.1	3.0	23.1	54.6	19.3	16.8	2.5
2010	농어촌	28.4	5.6	22.8	51.8	19.7	16.8	2.9
	도시	29.4	4.8	24.6	53.3	17.2	15.0	2.2
2012	농어촌	33.5	6.1	27.4	48.0	18.5	15.1	3.4
	도시	32.0	5.6	26.4	53.5	14.4	12.4	2.0
2014	농어촌	39.0	7.4	31.6	45.7	15.3	12.7	2.6
	도시	39.1	6.7	32.4	48.4	12.6	10.6	2.0
2016	농어촌	42.8	9.1	33.7	35.6	21.5	16.8	4.7
	도시	45.4	9.3	36.1	37.4	17.2	14.2	3.0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508 >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 농어촌의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은 59.3%로 도시(78.0%)에 비해 낮음

2017년 기준, 농어촌의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은 59.3%로 2016년에 비해 감소(-6.8%p)한 가운데, 컴퓨터 보유가구 중 인터넷 접속 가능한 가구는 98.3%이었다. 도시(보유율 78.0%)에 비해 보유율이 낮게 나타났다.

| 표 2508 |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단위: %)

연도	구분	보유율		계		미보유
				인터넷 접속 가능	인터넷 접속 불가능	
2007	농어촌	68.5	100.0	67.3	32.7	31.5
	도시	83.3	100.0	82.8	17.2	16.7
2013	농어촌	70.1	100.0	96.2	3.8	29.9
	도시	83.3	100.0	98.6	1.4	16.7
2014	농어촌	68.1	100.0	97.0	3.0	31.9
	도시	80.8	100.0	98.9	1.1	19.2
2015	농어촌	68.0	100.0	97.2	2.8	32.0
	도시	79.4	100.0	99.2	0.8	20.6
2016	농어촌	66.1	100.0	98.3	1.7	33.9
	도시	77.6	100.0	99.4	0.6	22.4
2017	농어촌	59.3	100.0	98.3	1.7	40.7
	도시	78.0	100.0	99.8	0.2	22.0

자료 : 각 연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509> 인터넷 이용 목적

▶ 농어촌의 인터넷 이용 목적 중 '커뮤니케이션'(92.0%) 비율이 가장 높음

2017년 기준, 농어촌의 인터넷 이용 목적(복수 응답)은 '커뮤니케이션'이 92.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료 및 정보 획득'(90.2%), '여가활동'(89.1%) 순이었다. 도시에서도 유사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509 | 인터넷 이용 목적

(단위: %)

연도	구분	자료 및 정보 획득	여가 활동	커뮤니 케이션	인터넷 구매 및 판매	인터넷 금융	홈페 이지 운영	교육 학습	커뮤 니티	SW 다운/ 업그레 이드	구직 활동	파일 공유 서비스	기타
2007	농어촌	85.9	86.9	80.2	44.9	26.1	37.4	41.2	30.1	9.7	1.4	-	6.1
	도시	87.8	85.9	83.5	51.4	35.5	40.7	49.1	37.6	11.3	3.9	-	13.2
2010	농어촌	91.6	88.9	85.6	56.8	31.5	43.9	43.0	41.9	7.4	10.1	26.1	13.2
	도시	91.6	89.1	88.9	57.9	39.6	45.6	55.2	49.0	10.1	12.0	22.2	17.9
2011	농어촌	92.0	88.0	85.2	57.7	31.1	43.3	41.9	40.6	7.4	9.7	25.1	1.2
	도시	92.0	87.9	88.4	58.6	39.3	44.5	52.2	46.3	9.9	11.5	21.5	0.6
2012	농어촌	92.3	87.3	84.4	56.8	31.1	42.3	40.4	39.3	8.4	9.2	24.1	1.8
	도시	92.3	87.5	87.8	57.9	40.0	43.8	50.3	45.0	10.7	11.5	21.0	0.9
2013	농어촌	88.2	81.4	79.3	40.0	33.2	35.3	18.0	11.4	13.0	8.0	7.8	1.7
	도시	91.9	87.3	86.7	47.5	43.4	37.5	19.2	18.7	12.3	9.5	7.2	2.0
2014	농어촌	88.0	78.7	84.8	50.7	-	16.9	31.8	-	16.9	9.1	9.1	-
	도시	91.7	79.9	90.8	60.2	-	13.4	30.9	-	13.4	10.3	8.5	-

연도	구분	커뮤니 케이션	자료 및 정보 획득	여가 활동	홈페이지 운영	교육 학습	직업· 직장	기타
2015	농어촌	86.8	85.9	82.8	41.1	32.8	13.1	46.6
	도시	92.4	90.1	86.8	44.6	34.4	14.6	56.5
2016	농어촌	87.4	84.2	84.2	46.7	37.8	12.5	56.5
	도시	92.4	90.1	90.1	47.3	44.8	18.6	60.5
2017	농어촌	92.0	90.2	89.1	44.6	45.1	20.4	57.1
	도시	95.1	93.4	92.0	49.7	49.6	24.5	64.6

자료 : 각 연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2014년 '거래활동' 인터넷구매 및 판매, '콘텐츠 생성' 홈페이지 운영으로 구분

2510>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농어촌에서 '식량안보'(40.7%)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범죄위험'(49.7%), '교통사고'(46.1%), '신종 전염병'(40.9%)에서 크게 나타남

2018년 기준, 농어촌에서는 '식량안보'(40.7%)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범죄위험'(49.7%), '교통사고'(46.1%), '신종 전염병'(40.9%)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도시에서도 유사한 경향이였다. '국가안보', '범죄위험',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안전'하다는 인식이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더 높았다.

| 표 2510 - (1)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건축물 및 시설물/교통사고

(단위 : %)

연도	구분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16.6	52.6	30.8	5.1	32.1	62.9
	도시	18.1	51.9	30.0	5.8	33.4	60.8
2010	농어촌	22.6	55.4	22.1	8.2	41.1	50.7
	도시	23.7	54.5	21.9	7.0	38.9	54.1
2012	농어촌	27.4	51.4	21.2	10.0	36.0	54.0
	도시	26.0	52.8	21.3	9.3	40.1	50.7
2014	농어촌	13.7	36.4	49.9	7.5	36.3	56.1
	도시	11.7	36.8	51.6	7.3	36.6	56.2
2016	농어촌	19.8	46.0	34.1	9.9	39.2	50.9
	도시	20.9	45.4	33.7	10.4	39.4	50.3
2018	농어촌	26.5	43.8	29.8	14.7	39.2	46.1
	도시	23.4	43.2	33.4	12.8	39.2	48.0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 2510 - (2)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국가안보/범죄위험

(단위 : %)

연도	구분	국가안보			범죄위험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22.0	41.7	36.2	-	-	-
	도시	25.2	43.1	31.6	-	-	-
2010	농어촌	13.5	31.1	55.4	8.8	28.1	63.2
	도시	15.3	32.9	51.9	8.0	28.7	63.2
2012	농어촌	23.1	36.8	40.1	9.2	25.5	65.3
	도시	21.8	38.9	39.4	9.1	27.0	63.9
2014	농어촌	15.8	33.3	51.0	9.6	27.7	62.6
	도시	14.8	33.4	51.8	8.7	26.3	65.0
2016	농어촌	19.0	34.3	46.8	8.9	25.0	66.1
	도시	20.0	34.9	45.1	9.3	23.4	67.2
2018	농어촌	31.0	35.2	33.9	16.6	33.7	49.7
	도시	31.2	35.7	33.2	17.3	31.7	51.0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 2510 - (3)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식량안보/신종 전염병

(단위 : %)

연도	구분	식량안보			신종 전염병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4.4	30.2	65.5	-	-	-
	도시	4.3	26.5	69.3	-	-	-
2010	농어촌	34.1	45.0	20.9	8.8	32.1	59.0
	도시	35.0	45.9	19.0	10.6	36.4	53.0
2012	농어촌	31.0	45.9	23.1	13.2	39.2	47.6
	도시	29.9	45.4	24.6	12.9	39.7	47.4
2014	농어촌	27.8	46.6	25.6	9.0	35.5	55.4
	도시	24.5	47.1	28.4	9.4	35.5	55.0
2016	농어촌	27.7	47.3	25.0	9.2	29.3	61.5
	도시	29.6	46.1	24.2	9.4	28.5	62.1
2018	농어촌	40.7	43.1	16.3	17.4	41.7	40.9
	도시	37.2	43.9	19.0	16.6	40.2	43.2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 2510 - (4)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정보보안/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단위 : %)

연도	구분	정보보안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5.4	36.8	57.8	13.1	37.4	49.5
	도시	4.6	28.6	66.7	18.3	43.9	37.8
2010	농어촌	14.4	46.5	39.1	16.2	42.2	41.6
	도시	13.3	41.7	45.1	19.4	46.1	34.5
2012	농어촌	13.6	44.4	42.0	21.9	41.3	36.7
	도시	12.2	38.4	49.3	23.5	46.1	30.3
2014	농어촌	8.4	34.3	57.2	15.4	38.7	45.9
	도시	7.2	28.8	64.0	15.0	41.1	43.9
2016	농어촌	11.6	38.4	49.9	18.5	41.4	40.2
	도시	12.0	35.6	52.4	21.3	43.8	35.0
2018	농어촌	19.0	43.0	37.9	22.8	37.5	39.7
	도시	17.2	39.4	43.4	22.8	40.1	37.2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 2510 - (5)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화재·산불/전반적인 사회 안전

(단위 : %)

연도	구분	화재·산불			전반적인 사회 안전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8.3	44.6	47.0	7.2	39.1	53.7
	도시	10.2	48.8	40.9	8.5	40.7	50.9
2010	농어촌	15.7	51.0	33.3	10.6	47.2	42.1
	도시	16.8	56.0	27.2	11.4	50.9	37.6
2012	농어촌	18.0	49.4	32.6	14.1	47.3	38.5
	도시	17.7	55.1	27.2	13.7	49.3	37.1
2014	농어촌	15.5	50.0	34.4	10.6	41.8	47.6
	도시	13.9	51.6	34.5	9.3	39.1	51.6
2016	농어촌	17.6	50.1	32.3	12.5	41.9	45.6
	도시	19.4	52.1	28.4	13.3	41.1	45.5
2018	농어촌	23.5	47.2	29.4	21.0	49.5	29.5
	도시	20.4	48.2	31.4	20.5	48.0	31.5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511 > 환경오염 체감정도

▶ 전반적으로 농어촌의 환경오염에 대해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2018년 기준, 농어촌의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정도는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녹지환경'(63.6%)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다. 농어촌에서 도시에 비해 좋아졌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2511 - (1) | 환경오염 체감정도 - 대기오염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7.3	1.0	6.3	54.9	37.8	33.4	4.4
	도시	9.7	0.7	9.0	50.9	39.4	33.9	5.4
2010	농어촌	60.5	24.0	36.5	30.5	9.1	8.1	1.0
	도시	30.5	6.3	24.2	46.0	23.5	19.9	3.6
2012	농어촌	67.4	32.4	35.0	24.7	7.9	6.7	1.2
	도시	34.3	8.0	26.3	47.1	18.7	15.9	2.8
2014	농어촌	11.2	1.5	9.7	74.7	14.2	12.1	2.1
	도시	13.0	3.6	9.4	76.9	10.1	9.3	0.8
2016	농어촌	54.0	21.8	32.2	29.9	16.2	12.9	3.3
	도시	27.0	5.9	21.1	42.6	30.5	23.2	7.3
2018	농어촌	49.5	19.0	30.5	27.4	23.1	16.1	7.0
	도시	24.2	4.7	19.5	37.0	38.7	26.2	12.5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 2511 - (2) | 환경오염 체감정도 - 수질오염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7.2	0.9	6.3	54.3	38.5	33.2	5.3
	도시	11.2	0.8	10.4	59.0	29.8	25.7	4.1
2010	농어촌	54.2	18.8	35.4	35.8	9.9	8.8	1.1
	도시	29.4	4.9	24.5	54.7	15.9	13.8	2.1
2012	농어촌	59.8	25.1	34.7	30.8	9.4	8.1	1.3
	도시	32.0	6.4	25.6	55.6	12.4	10.8	1.6
2014	농어촌	12.9	3.4	9.5	76.8	10.3	9.6	0.7
	도시	10.9	1.5	9.4	80.9	8.2	7.1	1.1
2016	농어촌	51.5	18.5	33.0	36.9	11.6	9.8	1.8
	도시	29.3	5.7	23.6	54.3	16.4	13.9	2.5
2018	농어촌	45.4	15.6	29.8	37.3	17.3	13.9	3.4
	도시	25.8	4.4	21.4	51.3	22.8	18.8	4.0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 2511 - (3) | 환경오염 체감정도 - 토양오염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6.1	0.8	5.2	53.4	40.6	34.9	5.7
	도시	9.4	0.7	8.7	56.1	34.5	29.6	4.9
2010	농어촌	48.0	14.9	33.1	38.1	13.9	12.5	1.4
	도시	26.5	4.3	22.2	52.5	21.1	18.1	3.0
2012	농어촌	54.8	21.9	32.9	34.3	10.9	9.6	1.3
	도시	29.1	5.7	23.4	53.9	17.1	14.5	2.6
2014	농어촌	11.4	3.2	8.2	75.7	13.0	12.0	1.0
	도시	10.3	1.4	8.9	78.3	11.3	9.8	1.5
2016	농어촌	45.4	15.3	30.1	39.9	14.7	12.5	2.2
	도시	26.1	5.0	21.1	52.8	21.2	17.7	3.5
2018	농어촌	44.7	15.1	29.6	38.3	17.0	14.1	2.9
	도시	26.2	4.6	21.6	50.8	23.0	19.0	4.0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 2511 - (4) | 환경오염 체감정도 - 소음·진동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5.8	0.9	4.9	52.1	42.1	34.2	7.9
	도시	7.5	0.6	6.9	44.7	47.8	38.6	9.2
2010	농어촌	46.8	17.1	29.7	33.3	19.9	15.9	4.0
	도시	23.1	4.3	18.8	40.9	36.1	27.9	8.2
2012	농어촌	52.8	23.3	29.5	29.3	17.8	14.3	3.5
	도시	23.9	5.4	18.5	41.6	34.5	26.6	7.9
2014	농어촌	10.1	2.8	7.3	72.6	17.3	14.6	2.7
	도시	8.4	1.2	7.2	71.2	20.4	16.8	3.6
2016	농어촌	45.3	17.5	27.8	34.3	20.4	15.8	4.6
	도시	23.8	4.9	18.9	40.8	35.4	27.2	8.2
2018	농어촌	47.8	18.6	29.2	32.3	19.9	14.8	5.1
	도시	26.1	5.2	20.9	42.0	31.8	24.6	7.2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 2511 - (5) | 환경오염 체감정도 - 녹지환경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6.9	1.0	5.9	54.0	39.2	30.5	8.6
	도시	15.3	1.6	13.7	51.3	33.4	27.1	6.3
2010	농어촌	60.8	25.3	35.5	31.6	7.5	6.6	0.9
	도시	37.8	9.1	28.7	42.9	19.2	14.8	4.4
2012	농어촌	57.7	25.8	31.9	30.9	11.4	8.8	2.6
	도시	40.9	11.3	29.6	40.7	18.5	14.2	4.3
2014	농어촌	55.2	22.7	32.5	34.7	10.1	7.9	2.2
	도시	38.3	9.8	28.5	43.2	18.5	14.4	4.1
2016	농어촌	48.6	18.9	29.7	36.8	14.6	11.2	3.4
	도시	39.8	10.4	29.4	42.0	18.2	14.3	3.9
2018	농어촌	63.6	26.2	37.4	28.4	8.1	6.4	1.7
	도시	47.3	12.5	34.8	39.6	13.0	10.7	2.3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600> 지역

공동체

2601> 사회단체 참여율

2601 > 사회단체 참여율

▶ 농어촌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46.9%

2015년 기준, 농어촌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46.9%이었으며, ‘친목 및 사교단체’가 56.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취미, 스포츠 및 여가 활용 단체’(15.6%), ‘종교 단체’(15.4%), ‘지역사회모임’(5.4%), ‘시민사회단체’(4.8%) 순이었다.

도시에 비해 ‘지역사회모임’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601 | 사회단체 참여율

(단위 : %)

연도	구분		참여율									참여 단체 없음
			친목 및 사교 단체	종교 단체	취미, 스포츠 및 여가 활용 단체	시민 사회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지역 사회 모임	기타 단체	
2006	농어촌	41.4	82.7	17.3	20.5	12.9	2.0	2.8	1.1	-	0.3	58.6
	도시	38.2	77.7	22.7	29.6	10.3	4.2	3.5	1.2	-	0.4	61.8
2009	농어촌	41.0	68.1	13.6	9.0	7.2	0.8	0.8	0.2	-	0.3	59.0
	도시	39.5	56.2	21.1	13.1	6.0	2.1	1.1	0.3	-	0.2	60.5
2011	농어촌	47.1	60.3	14.8	10.7	5.6	0.7	0.7	0.2	6.7	0.2	52.9
	도시	46.5	53.1	20.8	16.2	4.9	1.9	0.8	0.3	1.7	0.3	53.5
2013	농어촌	50.2	59.2	15.4	11.5	5.4	0.9	0.5	0.1	6.8	0.3	49.8
	도시	50.1	58.0	18.1	14.7	5.0	1.7	0.7	0.2	1.5	0.2	49.9
2015	농어촌	47.9	55.7	18.1	11.9	5.0	1.3	0.7	0.2	7.1	0.1	52.1
	도시	49.1	55.7	18.4	16.1	4.7	2.1	1.0	0.2	1.7	0.0	50.9
2017	농어촌	46.9	56.4	15.4	15.6	4.8	0.9	1.1	0.3	5.4	0.0	53.1
	도시	50.3	56.0	17.0	18.5	3.7	1.8	1.0	0.4	1.5	0.1	49.7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6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700> 경제

활동

- 2701> 소득 및 가계지출
- 2702> 부채 규모
- 2703> 소득 만족도
- 2704> 소비생활 만족도
- 2705> 노후준비
- 2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2701 > 소득 및 가계지출

▶ 농가의 호당 연평균 소득은 37,197천원, 연평균 가계지출은 31,049천원

2016년 기준, 농가의 호당 연평균 소득은 37,197천원,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47,077천원으로 2015년 대비 어가 소득이 증가했다. 한편, 같은 시기에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58,613천원으로 농어촌에 비해 다소 많았다.

농가의 호당 연평균 가계지출은 31,049천원이었으며, 어가는 30,086천원으로 농가에 비해 약간 적은 가운데, 도시 근로자는 44,267천원으로 농어촌에 비해 많았다.

| 표 2701 - (1) | 소득 및 가계지출(1)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연평균 소득	연평균 가계지출
2007	농가	31,967	28,048
	어가	30,668	22,963
	도시근로자	43,874	33,918
2008	농가	30,523	27,102
	어가	31,176	25,405
	도시근로자	46,807	36,306
2009	농가	30,814	26,574
	어가	33,945	25,188
	도시근로자	46,238	36,440
2010	농가	32,121	27,672
	어가	35,696	26,695
	도시근로자	48,092	38,514
2011	농가	30,148	27,906
	어가	38,623	27,523
	도시근로자	50,983	40,376

자료 :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 표 2701 - (2) | 소득 및 가계지출(2)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연평균 소득	연평균 가계지출
2012	농가	31,031	27,490
	어가	37,381	26,625
	도시근로자	53,908	41,937
2013	농가	34,524	30,264
	어가	38,586	28,032
	도시근로자	55,275	42,571
2014	농가	34,950	30,555
	어가	41,015	28,237
	도시근로자	56,815	43,822
2015	농가	37,215	30,613
	어가	43,895	29,573
	도시근로자	57,800	43,951
2016	농가	37,197	31,049
	어가	47,077	30,086
	도시근로자	58,613	44,267

자료 :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2702> 부채 규모

▶ 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26,375천원, 어가는 42,452천원

2017년 연도말 기준, 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26,375천원으로 농업용 부채는 10,618천원, 가계용 부채는 8,588천원이었다. 같은 시기 기준, 어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42,452천원으로 농가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이 중 어업용 부채는 21,525천원, 가계용 부채는 10,691천원으로 나타났다.

| 표 2702 | 부채 규모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부채		농업, 어업용		가계용	
		연도초	연도말	연도초	연도말	연도초	연도말
2007	농가	28,966	29,946	16,125	16,481	7,263	7,725
	어가	33,920	34,407	16,800	16,690	9,544	10,178
2008	농가	23,920	25,786	12,638	13,600	6,343	6,446
	어가	33,630	33,587	18,581	18,207	9,265	9,484
2009	농가	25,614	26,268	13,040	13,150	6,891	7,086
	어가	35,745	35,864	19,734	19,038	9,701	10,618
2010	농가	27,025	27,210	13,189	12,930	6,857	7,330
	어가	34,177	35,640	18,349	18,277	9,835	10,347
2011	농가	27,509	26,035	12,634	11,892	7,748	7,156
	어가	39,687	37,862	20,035	18,631	11,045	10,816
2012	농가	27,889	27,262	13,022	13,123	7,435	7,030
	어가	40,766	39,518	20,716	20,177	10,544	10,363
2013	농가	26,946	27,363	11,934	11,715	7,504	7,729
	어가	39,470	40,422	20,335	20,689	9,473	10,194
2014	농가	-	27,878	-	11,778	-	7,539
	어가	-	41,404	-	21,413	-	10,092
2015	농가	-	27,215	-	11,917	-	7,754
	어가	-	41,645	-	21,143	-	10,386
2016	농가	-	26,730	-	11,924	-	7,756
	어가	-	42,870	-	21,485	-	10,664
2017	농가	-	26,375	-	10,618	-	8,588
	어가	-	42,452	-	21,525	-	10,691

자료 :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2703> 소득 만족도

▶ 농어촌에서 소득 '만족' 비율은 12.5%

2017년 기준, 농어촌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 만족도는 '불만족'이 44.7%로 '만족'(12.5%)에 비해 높았으며, 도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 2703 | 소득 만족도

(단위 : %)

연도	구분	소득 있음								소득 없음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7	농어촌	66.2	10.2	1.3	8.9	37.8	52.0	35.9	16.1	33.8
	도시	63.6	10.0	1.1	8.9	36.2	53.8	35.7	18.2	36.4
2009	농어촌	69.9	13.5	1.6	11.9	38.3	48.2	34.9	13.3	30.1
	도시	64.9	14.2	1.5	12.7	39.6	46.2	32.7	13.5	35.1
2011	농어촌	74.0	10.5	1.2	9.3	40.5	48.9	36.3	12.6	26.0
	도시	71.9	12.0	1.5	10.5	38.9	49.1	35.5	13.6	28.1
2013	농어촌	80.3	10.8	1.7	9.1	40.7	48.5	36.0	12.5	19.7
	도시	75.6	12.4	1.5	10.9	38.6	49.1	34.6	14.5	24.4
2015	농어촌	81.1	10.6	1.3	9.3	45.4	44.5	33.8	10.7	18.9
	도시	77.9	11.5	1.6	9.9	41.6	46.8	33.8	13.0	22.1
2017	농어촌	85.2	12.5	1.6	10.9	42.8	44.7	32.9	11.8	14.8
	도시	81.4	13.4	1.8	11.6	40.3	46.2	32.7	13.5	18.6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7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이후 - 19세 이상 인구 대상

2704> 소비생활 만족도

▶ 농어촌의 소비생활 '만족' 비율은 13.8%

2017년 기준, 농어촌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35.8%)이 '만족'(13.8%)에 비해 높았으며, 도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 2704 | 소비생활 만족도 (단위 : %)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7	농어촌	10.1	1.2	8.9	45.3	44.6	33.2	11.4
	도시	10.2	1.2	9.0	43.2	46.6	33.3	13.3
2009	농어촌	12.2	1.8	10.4	45.6	42.2	33.0	9.2
	도시	14.0	1.8	12.2	46.2	39.8	29.9	9.9
2011	농어촌	10.4	1.2	9.2	49.1	40.5	31.7	8.8
	도시	13.2	1.6	11.6	46.3	40.4	30.0	10.4
2013	농어촌	12.2	1.8	10.4	48.4	39.3	31.3	8.0
	도시	13.9	2.0	11.9	46.4	39.7	29.6	10.1
2015	농어촌	12.5	1.6	10.9	51.1	36.4	28.6	7.8
	도시	14.1	2.0	12.1	47.4	38.4	28.6	9.8
2017	농어촌	13.8	1.7	12.1	50.4	35.8	28.4	7.4
	도시	15.7	2.2	13.5	46.6	37.7	28.3	9.4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7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 19세 이상 인구 대상

2705 > 노후준비

▶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은 69.9%,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53.1%)

2017년 기준,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은 69.9%이었으며,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53.1%),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18.7%) 순이었으며,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30.1%로 '준비능력이 없음'(52.9%), '자녀에게 의탁'(22.3%) 등의 이유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다.

| 표 2705 - (1) | 노후준비하고(되어) 있음

(단위 : %)

연도	구분		준비하고(되어)있음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기타
2007	농어촌	65.6	39.7	7.9	14.6	2.8	26.1	8.4	0.5
	도시	74.2	41.4	8.0	16.6	3.9	22.5	6.6	1.1
2009	농어촌	64.3	42.9	8.4	16.6	4.0	22.4	5.1	0.6
	도시	77.8	42.6	7.3	18.0	3.8	20.7	6.3	1.2
2011	농어촌	66.4	51.6	7.9	12.3	2.9	18.7	5.3	1.3
	도시	77.9	55.9	7.1	13.7	2.5	14.5	5.3	1.1
2013	농어촌	60.1	49.0	8.2	9.3	4.3	20.8	6.9	1.5
	도시	75.7	53.1	7.8	11.6	4.6	16.9	5.1	0.9
2015	농어촌	64.9	49.6	8.3	9.3	4.4	21.0	6.6	0.7
	도시	74.3	56.1	8.6	8.9	3.8	17.1	4.9	0.6
2017	농어촌	69.9	53.1	10.7	7.5	3.2	18.7	6.6	0.2
	도시	74.0	57.8	9.1	8.7	4.0	14.9	5.1	0.4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1) 2007년, 2009년 - 18세 이상 가구주 대상, 2011년 이후 - 19세 이상 가구주 대상

2) '준비하고(되어) 있음'에서 기타는 '주식, 채권 등'을 포함

| 표 2705 - (2) | 노후준비하고 있지 않음

(단위 : %)

연도	구분		준비하고 있지 않음			
			아직 생각안함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능력 없음	자녀에게 의탁
2007	농어촌	34.4	9.3	25.5	42.0	23.1
	도시	25.8	11.6	33.4	43.0	12.0
2009	농어촌	35.7	7.1	19.5	55.5	18.0
	도시	22.2	9.1	27.9	47.3	15.7
2011	농어촌	33.6	8.7	16.4	57.7	17.1
	도시	22.1	10.7	24.8	50.4	14.1
2013	농어촌	39.9	8.4	18.4	49.2	23.9
	도시	24.3	8.9	26.0	49.9	15.1
2015	농어촌	35.1	7.1	23.8	51.3	17.9
	도시	25.7	10.9	26.2	49.5	13.4
2017	농어촌	30.1	6.8	17.6	52.9	22.3
	도시	26.0	11.4	28.9	48.8	10.9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1) 2007년, 2009년 - 18세 이상 가구주 대상, 2011년 이후 - 19세 이상 가구주 대상

2) '준비하고(되) 있음'에서 기타는 '주식, 채권 등'을 포함

2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 농어촌 농어업 경영주의 농업 및 어업 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가장 많음

2015년 기준, 농어촌의 농업 경영주의 농업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78.5%로 가장 많았으며, '10~15년'(7.0%), '5~10년'(6.2%), '15~20년'(4.5%), '5년 미만'(3.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의 어업 경영주의 어업 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76.1%로 가장 많았으며, '10~15년'(8.1%), '15~20년'(6.8%), '5~10년'(5.6%), '5년 미만'(3.4%)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 경영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표 2706 |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단위: %)

연도	구분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2005	농가	3.9	5.3	6.2	3.8	80.8
	농어촌	3.0	4.3	5.3	3.5	84.0
	도시	8.7	10.2	10.6	5.6	64.9
	어가	4.2	6.5	9.3	7.2	72.8
	농어촌	3.8	6.1	9.2	7.3	73.6
	도시	5.9	7.9	9.7	6.9	69.7
2010	농가	5.1	6.6	7.8	4.2	76.4
	농어촌	3.7	4.6	6.4	3.8	81.6
	도시	11.1	14.8	14.0	5.9	54.2
	어가	3.7	5.9	9.5	6.3	74.6
	농어촌	3.4	5.6	9.3	6.2	75.6
	도시	5.0	7.5	10.4	6.7	70.5
2015	농가	4.9	8.0	9.0	5.2	72.9
	농어촌	3.9	6.2	7.0	4.5	78.5
	도시	8.7	14.6	16.5	7.7	52.5
	어가	3.7	5.8	8.4	6.9	75.2
	농어촌	3.4	5.6	8.1	6.8	76.1
	도시	5.0	6.8	9.4	7.5	71.3

자료: 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주: 어가는 해수면+내수면을 합한 수치임

부록

2018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전국표본리스트

항목별 타자료 비교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주요 용어 정리

2018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표

01 전국 표본리스트

(1) 농어촌

구분	시도	시군	읍/면 수	비고
합 계			140	
1	경기도	광주시	1	
2	경기도	김포시	1	
3	경기도	안성시	2	
4	경기도	양주시	2	
5	경기도	양평군	1	
6	경기도	연천군	1	
7	경기도	용인시	2	
8	경기도	파주시	1	
9	경기도	평택시	1	
10	경기도	포천시	2	
11	경기도	화성시	1	
12	강원도	강릉시	1	
13	강원도	고성군	1	
14	강원도	삼척시	2	
15	강원도	영월군	1	
16	강원도	정선군	2	
17	강원도	철원군	1	
18	강원도	춘천시	2	
19	강원도	평창군	1	
20	강원도	홍천군	1	
21	강원도	횡성군	1	
22	충청북도	괴산군	2	
23	충청북도	단양군	2	
24	충청북도	보은군	1	
25	충청북도	영동군	1	
26	충청북도	옥천군	1	
27	충청북도	음성군	2	
28	충청북도	증평군	1	
29	충청북도	진천군	1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비고
30	충청북도	청주시	1	
31	충청북도	충주시	2	
32	충청남도	계룡시	1	
33	충청남도	공주시	2	
34	충청남도	금산군	3	
35	충청남도	논산시	1	
36	충청남도	서산시	2	
37	충청남도	아산시	2	
38	충청남도	예산군	1	
3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3	
40	충청남도	청양군	1	
41	전라북도	고창군	1	
42	전라북도	군산시	4	
43	전라북도	김제시	1	
44	전라북도	남원시	2	
45	전라북도	무주군	1	
46	전라북도	부안군	1	
47	전라북도	완주군	1	
48	전라북도	익산시	2	
49	전라북도	임실군	2	
50	전라북도	장수군	1	
51	전라북도	정읍시	1	
52	전라남도	강진군	2	
53	전라남도	고흥군	1	
54	전라남도	광양시	1	
55	전라남도	구례군	1	
56	전라남도	담양군	2	
57	전라남도	무안군	1	
58	전라남도	보성군	1	
59	전라남도	순천시	1	
60	전라남도	신안군	1	
61	전라남도	영광군	1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비고
62	전라남도	영암군	1	
63	전라남도	완도군	1	
64	전라남도	장성군	2	
65	전라남도	장흥군	1	
66	전라남도	진도군	2	
67	전라남도	해남군	2	
68	전라남도	화순군	1	
69	대구광역시	달성군	1	
70	경상북도	경산시	1	
71	경상북도	경주시	2	
72	경상북도	고령군	1	
73	경상북도	김천시	1	
74	경상북도	봉화군	1	
75	경상북도	성주군	3	
76	경상북도	안동시	2	
77	경상북도	영덕군	1	
78	경상북도	영주시	1	
79	경상북도	영천시	1	
80	경상북도	칠곡군	1	
81	경상북도	포항시	3	
82	울산	울주군	2	
83	경상남도	거제시	2	
84	경상남도	거창군	1	
85	경상남도	밀양시	1	
86	경상남도	산청군	1	
87	경상남도	의령군	1	
88	경상남도	진주시	1	
89	경상남도	창녕군	2	
90	경상남도	창원시	2	
91	경상남도	하동군	3	
92	경상남도	합천군	1	
9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3	
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	

(2) 도시

구분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비고
합 계			60	
1	서울	강동구	2	
2	서울	강북구	1	
3	서울	강서구	1	
4	서울	광진구	1	
5	서울	구로구	3	
6	서울	금천구	1	
7	서울	노원구	2	
8	서울	마포구	1	
9	서울	서대문구	1	
10	서울	송파구	4	
11	서울	영등포구	2	
12	서울	은평구	2	
13	서울	종구	1	
14	서울	종량구	1	
15	인천	계양구	2	
16	인천	남동구	1	
17	인천	동구	1	
18	인천	부평구	2	
19	경기	고양시	3	
20	경기	동두천시	1	
21	경기	성남시	1	
22	경기	시흥시	2	
23	경기	안산시	2	
24	경기	안양시	1	
25	경기	여주시	1	
26	경기	용인시	1	

구분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비고
27	대전	동구	2	
28	대전	서구	1	
29	충북	청주시	2	
30	충남	서산시	1	
31	광주	남구	1	
32	광주	북구	2	
33	전북	전주시	1	
34	전남	순천시	1	
35	대구	달서구	1	
36	대구	서구	1	
37	부산	남구	1	
38	부산	부산진구	1	
39	부산	북구	1	
40	경북	경산시	1	
41	경남	김해시	1	
4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1	

02 항목별 타 자료 비교

[가구원 및 생활 전반 부문]

문항	2013	2017	2018	타자료 비교
> 이주실태(%)				
· 선주민	49.1	41.3	35.9	
· 이주민	50.9	58.7	64.1	
> 이주 직전 주택 위치(%)				
· 농어촌 → 농어촌	66.4	74.2	75.3	
· 도시 → 농어촌	33.6	25.8	24.7	
> 이주 의사(%)				
· 이주 의향층	9.4	7.8	7.2	※'17 주거실태조사(전국) · 이사계획(5년 내) : 10.5%
> 이주 희망 지역(%)				
· 농어촌 → 농어촌	66.5	77.1	68.1	
· 농어촌 → 도시	29.6	22.0	31.9	
· 기타(해외 파견, 이민 등)	3.9	0.9	0.0	
> 이주 희망 이유(%)				
· 직업관련사유	26.4	29.9	25.9	
· 주택관련사유	23.1	29.3	28.2	
· 가족관련 사유	3.5	2.6	7.0	
· 가정 경제 상황의 변화	6.3	3.1	0.5	
· 건강상의 이유	3.5	2.4	0.2	
· 자녀교육	17.1	14.1	9.3	
· 생활환경관련 사유	13.2	18.4	25.3	
· 이웃과의 관계 관련 사유	-	-	0.5	
· 기타	6.9	0.2	3.0	

문항		2013	2017	2018	타자료 비교
> 농어촌 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점)					
보건의료	· 중요도	-	82.6	81.5	※'18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0~10점, 11점 척도) · 보건·복지(5.6점) · 교육(5.5점) · 정주생활기반(6.2점) · 경제활동·일자리(5.1점) · 문화·여가(5.4점) · 환경·경관(5.9점) · 안전(5.7점) · 전체 평균(5.7점)
	· 만족도	48.9	45.8	52.0	
복지 서비스	· 중요도	-	77.8	81.3	
	· 만족도	44.4	49.9	52.2	
교육 여건	· 중요도	-	73.6	70.4	
	· 만족도	49.6	43.6	49.5	
문화·여가 여건	· 중요도	-	69.5	69.5	
	· 만족도	41.4	42.2	48.9	
기초생활 기반	· 중요도	-	78.6	78.5	
	· 만족도	51.0	51.3	51.3	
안전	· 중요도	-	81.5	79.8	
	· 만족도	-	65.5	61.7	
환경·경관	· 중요도	-	75.7	76.1	
	· 만족도	60.2	63.6	62.8	
이웃과의 관계	· 중요도	-	-	75.0	
	· 만족도	64.7	-	60.7	
경제활동	· 중요도	-	80.2	79.7	
	· 만족도	41.3	46.8	49.0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점)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61.6	58.7	※'18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0~10점, 11점 척도) · 나는 지금 행복하다(6.1점)
> 행복의 영향 요인(%)					
· 가족		-	34.3	26.6	
· 건강		-	38.0	40.0	
· 경제적 안정		-	21.8	26.2	
· 일/직업		-	3.3	3.1	
· 문화 및 여가활동		-	0.9	1.1	
· 지역생활 환경		-	0.5	0.4	
· 대인관계		-	0.6	2.4	
· 기타		-	0.5	0.2	

[보건의료 부문]

문항	2013	2016	2018	타자료 비교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6				
· 보건진료소	3.7	1.3	2.0	※'17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보건소(0.44%) · 지역 내 병·의원(70.63%) · 한방 병·의원(1.51%) · 종합, 대학병원(7.77%) · 치과 병·의원(1.07%) · 요양병원(0.08%) · 기타(0.05%) · 비해당(18.39%)
· 보건소(지소)	3.0	3.0	1.9	
· 보건의료원	-	-	2.9	
· 병(의원)	76.4	83.5	81.2	
· 한방병(의원)	2.3	1.4	2.1	
· 종합병원/대학병원	13.9	10.8	9.9	
· 기타	0.7	0.0	0.1	
>의료기관 이동 시 편도 소요시간(분)				
· 평균 소요시간	26.6	23.6	23.9	
> 공공의료시설 경험 및 이용 만족도				
· 이용 경험충(%)	45.1	45.4	39.4	
· 이용 만족도(점)	73.4	69.0	71.6	
> 응급실 이용 경험(%)				
· 이용 경험충	14.4	18.8	12.9	
> 질병 치료시 어려움(%)				
· 치료비가 부담된다	44.9	32.4	32.0	
·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	9.1	8.8	10.7	
·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8.4	16.5	10.8	
·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	10.4	11.8	13.4	
·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5.6	5.9	12.7	
·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20.7	24.6	20.4	

[복지 부문]

문항		2013	2016	2018	타자료 비교
> 위기에 대한 경제적 대비 정도 - 퇴직, 노후생활 등에 대한 준비(%)					
질병, 사고, 재해에 대한 준비	· 준비되어 있지 않은 편(합)	-	-	49.0	※ '17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충분(11.8%) · 보통(39.6%) · 불충분(45.1%)
	· 보통(합)	-	-	29.8	
	· 준비되어 있는 편(합)	-	-	21.3	
퇴직,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	· 준비되어 있지 않은 편(합)	-	-	53.3	
	· 보통(합)	-	-	27.8	
	· 준비되어 있는 편(합)	-	-	18.8	
> 필요복지서비스(%)					
·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	-	-	8.3	※ '17 사회조사(읍면부) ·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30.4%) · 소득 지원 서비스(19.0%) · 주거 관련 서비스(7.7%) · 안전 관련 서비스(8.3%) ·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22.9%) · 보육 및 교육 서비스(6.6%) · 여가·문화 향유 지원 서비스(4.8%) · 기타(0.3%)	
· 소득 지원 서비스	-	-	14.9		
· 주거 관련 서비스	-	-	8.3		
·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	-	-	9.8		
·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	-	-	6.7		
· 문화·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	-	-	11.2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	8.7		
· 기타	-	-	0.1		
·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	-	32.1		
>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 질병예방서비스	21.0	22.0	17.3		
· 질병치료서비스	20.1	23.4	15.6		
· 방문 요양 및 간호 서비스	12.5	6.5	12.0		
· 주·야간 보호 서비스	0.9	0.8	0.7		
· 가정·활동지원 서비스	9.7	8.2	9.0		
· 교통수단 지원	8.8	7.6	10.4		
· 노인 공동생활 서비스	-	-	1.5		
· 여가·취미활동 서비스	-	4.4	3.3		
· 노인 일자리 지원	4.9	13.6	9.6		
· 기타	1.7	0.0	0.3		
·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20.3	13.5	20.3		

[교육 부문]

문항	2013	2015	2018	타자료 비교
> 자녀 통학 시 편도 소요시간(분)				
· 초등학교 자녀	9.8	-	9.7	
· 중학생 자녀	16.3	-	15.5	
· 고등학생 자녀	22.7	-	23.8	
>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 학교 내 방과 후 프로그램	14.3	20.6	26.7	
· 학교 외 공공기관 방과 후 프로그램	5.5	8.1	9.1	
· 사설 학원 수강	49.1	47.2	45.2	
· 집에서 가족과 보냄	8.6	5.1	13.7	
· 혼자 보냄	16.8	14.5	4.6	
· 기타	5.7	4.5	0.7	
> 평생교육 경험(%)				
· 평생교육 경험층	20.4	21.9	17.0	
· 농촌생활관련 교육	8.7	8.2	5.1	※'18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농어촌) · 성인기초 및 문자해독교육(0.3%) · 직업능력 향상교육(23.5%) · 인문교양교육(5.2%) · 문화예술 스포츠교육(14.6%) · 시민참여교육(2.2%)
· 문해교육	1.0	1.1	0.7	
· 인문교양교육	2.7	2.8	2.1	
· 정보화교육	4.1	3.3	3.4	
· 직업능력교육	3.7	2.9	3.0	
· 문화예술교육	3.7	5.3	4.3	
· 시민참여교육	-	-	2.9	
· 스포츠·건강교육	6.8	9.6	8.0	

[문화·여가여건 부문]

문항	2013	2014	2018	타자료 비교
> 주된 문화·여가활동(%)				
· 문화예술관람	-	5.4	5.4	※'16 국민여가활동조사(농어촌) · 문화예술 관람활동(0.7%) · 문화예술 참여활동(0.6%) · 스포츠 관람활동(1.7%) · 스포츠 참여활동(5.4%) · 관광활동(0.3%) · 취미오락활동(20.2%) · 사회 및 기타활동(4.1%) · 휴식활동(66.9%)
· 문화예술활동	-	1.4	1.5	
· 스포츠관람	-	1.5	2.0	
· 스포츠활동	-	17.5	5.2	
· 여행	-	3.3	1.6	
· 취미활동	-	4.8	3.2	
· 사회활동	-	14.4	20.1	
· 휴식	-	17.8	20.1	
· TV 및 라디오 시청	-	29.2	33.0	
· 독서, 신문/잡지 보기	-	2.0	2.5	
·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	1.9	4.9	
· 기타	-	0.8	0.2	
>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점)				
· 만족도 평균	41.4	-	51.8	※'16 국민여가활동조사(농어촌) · 평균 4.42점(7점 척도)
> 하고 싶은 문화여가 활동(%)				
· 문화예술관람	-	11.6	11.2	※'17 사회조사(읍면부) · 문화예술 관람(8.7%) · 문화예술 참여(1.8%) · 스포츠 관람(3.2%) · 스포츠 활동(8.9%) · 관광활동(45.5%) · 취미·자기개발 활동(11.2%) · 사회 및 기타활동(5.9%) · 휴식활동(5.0%) · TV시청(7.7%) ·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1.9%) · 기타(0.2%)
· 문화예술활동	-	7.9	5.3	
· 스포츠관람	-	3.5	3.0	
· 스포츠활동	-	18.3	12.5	
· 여행	-	30.7	31.8	
· 취미활동	-	9.2	9.4	
· 사회활동	-	3.8	4.1	
· 휴식	-	14.8	22.6	
· 기타	-	0.2	0.1	

[기초생활여건 부문]

문항	2013	2017	2018	타자료 비교
>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	-	9.1	※'17 주거실태조사(전국)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9%) · 면적기준 미달가구(4.1%) · 시설기준 미달가구(3.3%) · 침실기준 미달가구(0.3%)
· 방 개수	-	-	3.9	
· 최소 주거면적	-	-	2.9	
· 전용 입식 부엌	-	-	1.3	
· 전용 수세식 화장실	-	-	3.4	
· 목욕시설	-	-	2.2	
> 난방시설 현황(%)				
· 중앙난방	0.8	1.4	0.8	※'17 주거실태조사(전국) · 중앙난방(4.1%) · 지역난방(12.4%) · 가스보일러(67.6%) · 기름보일러(11.0%) · 전기보일러(3.4%) · 연탄보일러(0.5%) · 기타(0.6%) · 설치되어있지 않음(0.2%)
· 지역난방	1.9	6.2	1.6	
· 도시가스 보일러	33.9	30.7	33.9	
· 기름 보일러	38.8	37.8	37.8	
·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6.2	3.5	5.7	
· 전기 보일러	11.2	12.3	9.6	
· 연탄 보일러	3.0	2.3	2.3	
· 화목보일러	-	5.3	4.9	
· 재래식 아궁이	0.6	-	0.6	
· 기타	3.6	0.6	2.9	
> 난방 사용기간 및 난방비				
· 난방비 지출 기간(개월)	4.5	4.8	4.7	
· 월 평균 난방비(만원)	19.7	16.0	15.5	
> 상수도 종류(%)				
· 광역 및 지방 상수도	71.8	79.1	83.1	※'15농림어업총조사 · 상수도(63.4%) · 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33.1%) · 전용상수도(2.4%) · 없음(1.1%)
· 마을 상수도(간이 상수도)	17.1	14.1	10.5	
· 자가 상수도(지하수, 우물)	10.8	6.8	6.3	
· 없음	0.2	0.0	0.1	

문항		2013	2017	2018	타자료 비교
> 하수도 종류(%)					
· 공공하수처리시설		78.2	86.0	84.3	※'15농림어업총조사
· 개인하수처리시설		15.5	13.1	14.1	· 공공하수처리시설(38.0%) · 마을하수처리시설(10.8%)
· 없다		6.3	0.9	1.6	· 없음(51.2%)
> 쓰레기 처리 방법(%)					
생활 쓰레기	· 종량제 봉투 사용	78.0	87.4	93.4	※'15농림어업총조사
	· 자체처리(투기, 매립, 소각)	21.9	13.8	6.6	· 분리수거(83.1%) · 소각(13.0%)
음식물 쓰레기	· 분리배출	61.4	65.6	67.9	※'15농림어업총조사
	· 자체처리(투기, 매립, 소각)	26.5	5.9	18.0	· 분리수거(51.8%) · 매립(15.9%)
	· 기타(퇴비활용, 동물먹이 등)	12.2	28.3	14.1	· 기타(30.6%)
재활용품	· 분리배출	86.6	99.3	97.0	
	· 자체처리(투기, 매립, 소각)	13.1	-	2.7	
	· 기타	0.3	0.5	0.4	
폐영농자재 (농어가)	· 분리배출	63.5	96.3	84.4	※'15농림어업총조사
	· 자체처리(투기, 매립, 소각)	32.2	1.3	11.9	· 분리수거(77.6%) · 소각(6.9%)
	· 기타	4.3	2.1	2.7	· 기타(14.2%)
>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점)					
· 상수도 수질		67.8	-	63.8	
· 하수 처리		66.6	-	64.0	
· 쓰레기 처리		63.7	-	62.1	
· 대중교통 여건		49.4	-	48.6	
· 생활서비스 이용		-	-	46.7	
· 정보통신 여건		63.1	-	61.2	

문항		2013	2017	2018	타자료 비교
> 마을 안전 체감도(%)					
범죄 위험인식	· 안전한 편	—	55.7	61.2	※'18사회조사(읍면부) · 범죄위험(안전한 편 16.6%) · 교통사고(안전한 편 14.7%) · 자연재해(안전한 편 22.9%)
보행·교통사고 위험인식	· 안전한 편	—	43.2	55.9	
재난·재해 위험인식	· 안전한 편	—	59.8	62.6	
환경오염 위험인식	· 안전한 편	—	—	56.8	
>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도로안전시설 늘리기		11.7	13.6	13.7	
· 안전한 보행자길 갖추기		18.6	16.4	15.5	
· 가로등 늘리고 고치기		16.6	13.4	13.4	
· CCTV 설치 늘리기		20.1	23.6	23.7	
· 순찰 횟수 늘리기		7.0	8.5	8.7	
· 오래되고 낡은 건물, 시설 고치기		12.0	9.1	4.2	
· 빈집, 버려진 집, 방치된 빈터 관리		—	10.0	5.9	
· 안심 귀가 서비스 확충		—	3.1	—	
· 주민 방범·순찰봉사 활동 확대		—	2.1	—	
· 기타		2.0	0.2	0.5	
· 특별히 필요를 느끼지 않음		12.1	—	14.4	

[환경·경관 부문]

문항	2013	2017	2018	타자료 비교
>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 대기 오염	-	7.7	11.9	
· 수질 오염	-	2.8	6.1	
· 토양 오염	-	1.8	2.3	
· 소음, 진동	-	15.0	17.0	
· 악취	-	17.0	13.6	
· 쓰레기	-	11.4	8.3	
· 기타	-	-	0.2	
· 특별히 없다	-	44.3	40.6	
>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 자연환경·경관의 보전	34.6	36.7	37.4	※'17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농업인 10점 만점) ·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7.07점) · 전통문화를 계승/여가를 보내는 공간(6.28점) · 국토의 균형발전 이바지 (6.12점) · 일자리 창출(5.69점) · 식량의 안정적 공급 (6.81점)
· 전원생활공간 제공	18.6	14.0	19.4	
· 관광·휴양공간 제공	10.9	5.4	8.1	
· 농어업 유산의 보존·계승	14.4	13.5	12.2	
· 국토(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11.9	17.6	12.4	
· 식량의 안정적 공급	9.0	12.8	10.4	
· 기타	0.6	0.0	0.0	

[지역사회 활동 부문]

문항		2013	2015	2018	타자료 비교
> 외부인 유입 여부(%)					
귀농/귀촌인	· 있음	16.6	40.1	36.6	
	· 없음	46.2	23.1	22.6	
	· 잘모름	37.2	36.8	40.8	
결혼 이민자	· 있음	21.9	39.3	27.1	
	· 없음	43.2	27.6	27.9	
	· 잘모름	34.9	33.1	45.0	
이주 노동자	· 있음	12.0	25.0	17.7	
	· 없음	49.5	37.9	35.7	
	· 잘모름	38.5	37.1	46.6	
> 외부인 수용성(%)					
귀농/귀촌인	· 긍정(합)	49.9	53.7	56.1	
	· 보통	46.0	38.4	39.0	
	· 부정(합)	4.0	7.9	5.0	
결혼 이민자	· 긍정(합)	46.0	44.7	54.7	
	· 보통	45.5	45.4	38.8	
	· 부정(합)	8.4	9.8	6.4	
이주 노동자	· 긍정(합)	41.6	32.4	44.3	
	· 보통	47.9	47.0	42.2	
	· 부정(합)	10.5	20.6	13.5	
> 마을공동사업 경험 및 참여의사(%)					
참여 경험	· 마을 공동사업	9.0	-	10.0	
	· 마을공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민(역량) 교육	7.6	-	7.4	
참여 의사	· 마을 공동사업	20.3	-	29.2	
	· 마을공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민(역량) 교육	19.6	-	27.1	

문항		2013	2015	2018	타자료 비교
>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					
주민 소득 증대 도움	· 그런편(합)	46.1	46.1	53.3	
생활 환경 개선 도움	· 그런편(합)	47.4	47.4	57.2	
주민 화합 도움	· 그런편(합)	49.7	49.7	61.2	
전반적 마을 발전 도움	· 그런편(합)	49.0	49.0	62.7	
가구 삶의 질 개선에 도움	· 그런편(합)	-	-	51.7	

[경제활동 부문]

문항		2013	2016	2018	타자료 비교
> 월 평균 생활비(만원)					
· 월 평균 생활비		-	160.5	164.0	※'17 주거실태조사(전국) · 평균 198.9만원

문항		2013	2014	2018	타자료 비교
> 도 농 교류/6차 산업 추진 시 어려움(%)					
· 자금 부족		29.3	20.0	20.1	
· 기획력 및 기술력 부족		17.9	7.1	9.2	
· 경영관리 역량 부족		-	4.2	6.1	
· 시설/설비 부족		16.8	10.9	8.0	
· 행정·제도 복잡		-	1.1	2.2	
· 관련 규제에 인한 제약		2.9	1.4	1.8	
· 인력 부족		23.3	22.0	23.0	
· 고객·판로 확보(홍보 및 마케팅)		5.3	30.2	28.2	
· 참여자 간 갈등		2.4	1.0	1.4	
>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투자 영역(%)					
· 지역 특화 작목 개발		-	30.0	29.3	
· 농어촌 자원 활용 6차산업 육성		-	13.4	15.0	
· 농공단지 조성, 기업 유치		-	36.1	8.6	
· 지역 문화관광 개발, 품질 제고		-	18.3	9.6	
· 농어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여건 개선		-	-	37.4	
· 기타		-	2.3	0.1	

03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¹²⁾

표준오차(SE)와 상대표준오차(RSE)

◦ 표본오차 (sampling error)

- 모집단 전체가 아닌 일부 표본을 확률 추출하는 데서 생기는 통계적 오차
- 표본조사를 통해 구한 통계의 정확성(precision)을 나타내는 척도
- 일반적으로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등의 형태로 표현

◦ 표준오차 (standard error: SE)

- 추정치의 표준편차: $\sqrt{Var(\hat{\theta})}$

◦ 상대표준오차 (relative standard error: RSE)

$$- RSE(\hat{\theta}) = \frac{\sqrt{Var(\hat{\theta})}}{\hat{\theta}}$$

- 상대표준오차는 추정치나 표준오차의 단위와 상관없이 일정하므로 표본조사 품질 척도로 널리 사용됨

◦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 \hat{\theta} \pm 1.96 \sqrt{Var(\hat{\theta})}$$

◦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모두 $Var(\hat{\theta})$ 의 함수로 표현

- 모두 수학적으로 동등함

◦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통계적 정확도

- 통계의 중요성, 목적, 용도에 따라 정확도 요구가 다름
- 일반적으로, 전국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통상적으로 1 ~ 5% 정도로 사용
- 시도별, 속성별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3 ~ 10% 정도
- 상대표준오차가 지나치게 크면 공표를 지양해야 함

12) 전체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별책으로 발간된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1)

구분			n	평균(점)	SE	RSE(%)
종합 만족도	농어촌		2,780	55.0	0.67	1.2
	읍/면 여부	읍	1,228	54.1	1.18	2.2
		면	1,552	55.7	0.91	1.7
	영농 여부	농어가	853	56.8	1.10	1.9
		비농어가	1,927	54.2	0.77	1.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54.2	1.47	2.7
		40대	494	52.2	1.32	2.5
		50대	608	53.9	0.92	1.7
		60대	492	57.7	1.05	1.8
		70대 이상	620	57.0	0.91	1.6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7	54.3	0.86	1.6
		선주민	994	56.2	1.00	1.8
	향후5년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200	49.4	3.37	6.8
		비의향층	2,575	55.5	6.79	1.2
	도시		1,149	60.3	1.29	2.1
체감 만족도	농어촌		2,780	55.8	0.74	1.3
	읍/면 여부	읍	1,228	55.3	1.35	2.4
		면	1,552	56.2	1.02	1.8
	영농 여부	농어가	853	57.7	1.20	2.1
		비농어가	1,927	55.0	0.86	1.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55.8	1.74	3.1
		40대	494	53.2	1.66	3.1
		50대	608	54.0	1.21	2.2
		60대	492	58.7	1.12	1.9
		70대 이상	620	57.7	1.01	1.8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7	55.3	0.98	1.8
		선주민	994	56.8	1.16	2.0
	향후5년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200	50.1	4.20	8.4
		비의향층	2,575	56.3	0.75	1.3
	도시		1,149	61.3	1.60	2.6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2)

구분			n	평균(점)	SE	RSE(%)
차원 만족도	농어촌		2,780	54.2	0.76	1.4
	읍/면 여부	읍	1,228	52.9	1.25	2.4
		면	1,552	55.2	0.97	1.8
	영농 여부	농어가	853	56.0	1.24	2.2
		비농어가	1,927	53.4	0.86	1.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52.7	1.50	2.8
		40대	494	51.3	1.38	2.7
		50대	608	53.8	0.93	1.7
		60대	492	56.8	1.14	2.0
		70대 이상	620	56.2	0.93	1.7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7	53.4	0.91	1.7
		선주민	994	55.7	1.06	1.9
	향후5년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200	48.6	2.76	5.7
		비의향층	2,575	54.6	0.78	1.4
	도시		1,149	59.4	1.11	1.9
보건의료	농어촌		2,780	52.0	1.33	2.6
	읍/면 여부	읍	1,228	51.1	1.93	3.8
		면	1,552	52.7	1.68	3.2
	영농 여부	농어가	853	53.0	1.55	2.9
		비농어가	1,927	51.5	1.65	3.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50.8	2.87	5.7
		40대	494	47.5	2.12	4.5
		50대	608	53.0	1.86	3.5
		60대	492	54.5	1.42	2.6
		70대 이상	620	53.6	1.65	3.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7	51.0	1.52	3.0
		선주민	994	53.6	1.70	3.2
	향후5년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200	47.7	4.57	9.6
		비의향층	2,575	52.3	1.37	2.6
	도시		1,149	65.9	1.83	2.8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3)

구분			n	평균(점)	SE	RSE(%)
복지 서비스	농어촌		2,780	52.2	1.20	2.3
	읍/면 여부	읍	1,228	52.0	1.45	2.8
		면	1,552	52.3	1.70	3.3
	영농 여부	농어가	853	53.0	1.56	3.0
		비농어가	1,927	51.8	1.41	2.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50.3	2.19	4.4
		40대	494	51.0	1.88	3.7
		50대	608	51.9	1.66	3.2
		60대	492	54.4	1.50	2.7
		70대 이상	620	53.1	1.60	3.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7	51.8	1.28	2.5
		선주민	994	52.8	1.62	3.1
	향후5년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200	46.0	3.08	6.7
		비의향층	2,575	52.7	1.24	2.4
	도시		1,149	57.8	1.31	2.3
교육 여건	농어촌		2,780	49.5	0.87	1.8
	읍/면 여부	읍	1,228	50.5	1.30	2.6
		면	1,552	48.6	1.28	2.6
	영농 여부	농어가	853	50.3	1.53	3.0
		비농어가	1,927	49.1	0.92	1.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51.7	1.52	2.9
		40대	494	44.5	1.76	4.0
		50대	608	50.0	1.19	2.4
		60대	492	50.8	1.43	2.8
		70대 이상	620	49.8	1.10	2.2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7	49.3	1.03	2.1
		선주민	994	49.6	1.30	2.6
	향후5년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200	47.2	4.05	8.6
		비의향층	2,575	49.6	0.87	1.8
	도시		1,149	57.7	1.35	2.3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4)

구분			n	평균(점)	SE	RSE(%)
문화·여가 여건	농어촌		2,780	48.9	0.50	1.9
	읍/면 여부	읍	1,228	48.8	1.59	3.3
		면	1,552	49.0	1.25	2.5
	영농 여부	농어가	853	48.8	1.59	3.2
		비농어가	1,927	49.0	1.08	2.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48.3	2.14	4.4
		40대	494	47.2	2.00	4.2
		50대	608	48.3	1.40	2.9
		60대	492	51.1	1.59	3.1
		70대 이상	620	49.9	1.07	2.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7	48.7	1.17	2.4
		선주민	994	49.3	1.27	2.6
	향후5년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200	45.5	3.43	7.5
		비의향층	2,575	49.2	1.03	2.1
	도시		1,149	55.3	1.19	2.1
기초생활기반	농어촌		2,780	51.3	1.44	2.8
	읍/면 여부	읍	1,228	50.1	1.66	3.3
		면	1,552	52.2	1.94	3.7
	영농 여부	농어가	853	52.7	1.79	3.4
		비농어가	1,927	50.7	1.59	3.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50.5	2.58	5.1
		40대	494	48.1	1.92	4.0
		50대	608	52.0	2.27	4.4
		60대	492	53.2	1.82	3.4
		70대 이상	620	52.4	1.40	2.7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7	50.9	1.73	3.4
		선주민	994	52.0	1.56	3.0
	향후5년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200	47.0	3.79	8.1
		비의향층	2,575	51.6	1.52	3.0
	도시		1,149	62.6	1.58	2.5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5)

구분			n	평균(점)	SE	RSE(%)
안전	농어촌		2,780	61.7	0.85	1.4
	읍/면 여부	읍	1,228	59.3	1.46	2.5
		면	1,552	63.6	1.35	2.1
	영농 여부	농어가	853	63.6	1.34	2.1
		비농어가	1,927	60.9	0.97	1.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58.6	1.68	2.9
		40대	494	58.8	1.87	3.2
		50대	608	61.5	1.26	2.0
		60대	492	64.8	1.28	2.0
		70대 이상	620	64.7	1.00	1.5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7	60.3	1.09	1.8
		선주민	994	64.2	1.17	1.8
	향후5년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200	54.4	2.97	5.5
		비의향층	2,575	62.3	0.89	1.4
	도시		1,149	62.4	1.51	2.4
환경·경관	농어촌		2,780	62.8	0.97	1.5
	읍/면 여부	읍	1,228	57.9	1.62	2.8
		면	1,552	66.7	1.57	2.4
	영농 여부	농어가	853	66.9	1.45	2.2
		비농어가	1,927	61.0	1.11	1.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58.3	2.05	3.5
		40대	494	61.0	2.04	3.3
		50대	608	61.7	1.48	2.4
		60대	492	65.6	1.35	2.1
		70대 이상	620	67.3	1.16	1.7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7	61.3	1.23	2.0
		선주민	994	65.6	1.23	1.9
	향후5년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200	55.9	3.12	5.6
		비의향층	2,575	63.3	1.00	1.6
	도시		1,149	59.8	1.56	2.6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6)

구분			n	평균(점)	SE	RSE(%)
이웃과의 관계	농어촌		2,780	60.7	0.86	1.4
	읍/면 여부	읍	1,228	57.4	1.37	2.4
		면	1,552	63.4	1.56	2.5
	영농 여부	농어가	853	66.9	1.31	2.0
		비농어가	1,927	58.0	0.97	1.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55.4	1.95	3.5
		40대	494	57.1	1.72	3.0
		50대	608	58.5	1.33	2.3
		60대	492	64.7	1.25	1.9
		70대 이상	620	67.4	1.19	1.8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7	58.2	0.97	1.7
		선주민	994	65.3	1.38	2.1
	향후5년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200	50.6	2.79	5.5
		비의향층	2,575	61.5	0.88	1.4
	도시		1,149	57.7	1.42	2.5
경제활동여건	농어촌		2,780	49.0	1.11	2.3
	읍/면 여부	읍	1,228	49.5	1.51	3.0
		면	1,552	48.6	1.63	3.4
	영농 여부	농어가	853	49.7	1.87	3.8
		비농어가	1,927	48.8	1.09	2.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8	50.8	1.90	3.7
		40대	494	46.2	2.03	4.4
		50대	608	47.9	1.74	3.6
		60대	492	51.9	1.83	3.5
		70대 이상	620	48.7	1.49	3.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1,777	49.0	1.13	2.3
		선주민	994	49.1	1.75	3.6
	향후5년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200	44.1	2.34	5.3
		비의향층	2,575	49.4	1.18	2.4
	도시		1,149	55.2	1.64	3.0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구분		n	평균(점)	SE	RSE(%)
농어촌		2,753	58.7	0.79	1.3
읍/면 여부	읍	1,212	59.1	1.35	2.3
	면	1,541	58.4	0.96	1.6
영농 여부	농어가	842	60.4	0.82	1.4
	비농어가	1,911	58.0	1.04	1.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6	67.3	1.38	2.0
	40대	489	60.0	1.88	3.1
	50대	597	59.8	1.36	2.3
	60대	489	56.8	1.22	2.1
	70대 이상	614	50.9	0.88	1.7
도시		1,147	62.3	1.30	2.1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구분	n	비율(%)	SE	RSE(%)
농어촌	2,744	100.0		
매우 좋아졌다	29	1.1	0.38	35.9
좋아진 편이다	717	26.1	2.60	10.0
좋아진 편(합)	746	27.2	2.69	9.9
보통이다	1,339	48.8	2.21	4.5
나빠진 편이다	588	21.4	1.66	7.8
매우 나빠졌다	72	2.6	0.57	21.7
나빠진 편(합)	659	24.0	1.69	7.1
도시	1,148	100.0		
매우 좋아졌다	16	1.4	0.45	31.9
좋아진 편이다	347	30.3	2.55	8.4
좋아진 편(합)	364	31.7	2.81	8.9
보통이다	583	50.8	2.65	5.2
나빠진 편이다	172	15.0	1.94	13.0
매우 나빠졌다	29	2.5	1.03	41.1
나빠진 편(합)	201	17.5	2.38	13.6

의료기관 이동 시 편도 소요시간

구분		n	평균(분)	SE	RSE(%)
농어촌		2,744	23.9	0.89	3.7
읍/면 여부	읍	1,214	18.6	1.24	6.7
	면	1,530	28.2	1.30	4.6
영농 여부	농어가	845	26.5	1.10	4.2
	비농어가	1,899	22.8	1.16	5.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6	21.6	2.56	11.9
	40대	488	20.0	2.28	11.4
	50대	601	22.2	1.29	5.8
	60대	488	25.7	1.39	5.4
	70대 이상	613	28.9	1.11	3.8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시설	183	19.8	1.57	7.9
	병(의)원	2,229	21.4	0.82	3.8
	한방 병(의)원	58	17.5	2.88	16.4
	종합병원/대학병원	269	49.0	4.11	8.4
의료기관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걸어서	371	10.0	0.60	6.0
	버스	754	33.2	2.00	6.0
	택시	125	22.9	3.44	15.0
	개인 차량	1,426	22.4	0.95	4.3
	기타	59	27.2	4.93	18.1
도시		1,134	15.0	0.66	4.4

질병 치료 시 어려움

구분	n	비율(%)	SE	RSE(%)
농어촌	2,765	100.0		
치료비가 부담된다	884	32.0	2.77	8.7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	295	10.7	1.39	13.1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298	10.8	1.39	12.9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	370	13.4	1.24	9.3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351	12.7	1.76	13.9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565	20.4	2.54	12.4
도시	1,131	100.0		
치료비가 부담된다	369	32.6	3.78	11.6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	35	3.1	0.89	28.7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65	5.7	1.78	31.1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	43	3.8	0.97	25.3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159	14.1	2.46	17.5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457	40.4	3.78	9.4

위기에 대한 경제적 대비 정도(질병, 사고, 재해)

구분	n	비율(%)	SE	RSE(%)
농어촌	2,776	100.0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37	1.3	0.46	34.8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553	19.9	1.99	10.0
준비되어 있는 편(합)	590	21.3	1.99	9.4
보통이다	827	29.8	2.22	7.5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1,015	36.6	2.33	6.4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344	12.4	1.50	12.1
준비되어 있지 않은 편(합)	1,359	49.0	2.67	5.5
도시	1,149	100.0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26	2.3	0.86	37.4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303	26.3	3.39	12.9
준비되어 있는 편(합)	329	28.6	3.49	12.2
보통이다	372	32.4	3.26	10.1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331	28.8	3.53	12.3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117	10.2	2.26	22.2
준비되어 있지 않은 편(합)	448	39.0	3.90	10.0

위기에 대한 경제적 대비 정도(퇴직, 노후생활)

구분	n	비율(%)	SE	RSE(%)
농어촌	2,773	100.0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30	1.1	0.35	33.0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493	17.8	1.65	9.3
준비되어 있는 편(합)	523	18.8	1.67	8.9
보통이다	772	27.8	1.90	6.8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1,044	37.6	1.92	5.1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435	15.7	1.61	10.2
준비되어 있지 않은 편(합)	1,479	53.3	2.39	4.5
도시	1,149	100.0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18	1.6	0.74	47.3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234	20.4	3.40	16.7
준비되어 있는 편(합)	252	21.9	3.43	15.7
보통이다	390	34.0	3.08	9.1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364	31.7	2.98	9.4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143	12.4	2.30	18.5
준비되어 있지 않은 편(합)	507	44.1	3.84	8.7

필요 복지서비스

구분	n	비율(%)	SE	RSE(%)
농어촌	2,771	100.0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	230	8.3	0.85	10.3
소득 지원 서비스	413	14.9	1.20	8.1
주거 관련 서비스	230	8.3	0.78	9.4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	272	9.8	0.82	8.4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	186	6.7	1.17	17.4
문화·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	310	11.2	1.95	17.4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241	8.7	0.66	7.6
기타	3	0.1	0.10	72.2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889	32.1	2.96	9.2
도시	1,148	100.0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	114	9.9	1.45	14.6
소득 지원 서비스	153	13.3	1.68	12.7
주거 관련 서비스	92	8.0	1.64	20.4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	71	6.2	1.07	17.2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	121	10.5	1.31	12.4
문화·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	137	11.9	2.28	19.1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65	5.7	1.50	26.3
기타	7	0.6	0.44	75.4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388	33.8	3.88	11.5

월 평균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구분		n	평균(만원)	SE	RSE(%)
농어촌		294	49.8	2.78	5.6
읍/면 여부	읍	192	48.9	3.46	7.1
	면	102	51.5	4.10	7.9
영농 여부	농어가	27	44.0	5.14	11.7
	비농어가	267	50.4	3.02	6.0
영유아 수	1명	178	42.0	2.25	5.4
	2명 이상	116	61.9	4.87	7.9
영유아 보육 방법	부모가 돌봄	130	42.1	3.42	8.1
	보육시설 이용	160	56.4	3.64	6.5
도시		177	61.2	5.24	8.6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구분	n	비율(%)	SE	RSE(%)
농어촌	236	100.0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36	15.3	3.62	23.6
의료재활 서비스	19	8.2	1.98	24.1
가사 지원 서비스	45	19.2	3.34	17.4
이동 편의 지원 서비스	19	8.1	2.12	26.0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14	5.9	3.07	52.2
취업 지원 서비스	26	10.9	3.55	32.7
장애자녀 학습 지원 서비스	8	3.6	2.47	69.3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22	9.2	2.95	32.1
기타	1	0.2	0.18	98.6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46	19.4	3.62	18.7
도시	77	100.0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12	15.5	5.96	38.6
의료재활 서비스	6	8.2	2.68	32.8
가사 지원 서비스	11	14.0	4.10	29.3
이동 편의 지원 서비스	9	11.4	4.79	41.9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1	0.9	0.92	100.1
취업 지원 서비스	11	14.9	7.40	49.6
장애자녀 학습 지원 서비스	1	1.9	1.30	68.8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11	14.5	6.90	47.6
기타	1	0.1	0.14	102.8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14	18.6	6.96	37.5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구분	n	비율(%)	SE	RSE(%)
농어촌	503	100.0		
학교 내 방과 후 프로그램	134	26.7	3.43	12.9
학교 외 공공기관 방과 후 프로그램	46	9.1	3.49	38.2
사설 학원 수강	227	45.2	4.82	10.7
집에서 가족과 보냄	69	13.7	3.09	22.5
혼자 보냄	23	4.6	2.16	46.9
기타	3	0.7	0.67	97.6
도시	272	100.0		
학교 내 방과 후 프로그램	48	17.8	3.92	22.1
학교 외 공공기관 방과 후 프로그램	13	4.8	2.26	46.7
사설 학원 수강	198	72.6	4.60	6.3
집에서 가족과 보냄	5	1.9	0.70	36.6
혼자 보냄	6	2.2	1.11	50.1
기타	2	0.6	0.62	100.3

평생교육 참여의 어려움

구분	n	비율(%)	SE	RSE(%)
농어촌	2,756	100.0		
비용이 부담된다	230	8.3	1.17	14.0
시간적 여유가 없다	1,021	37.1	2.19	5.9
지역에서 제공하는 시설(기관)이 없다	188	6.8	0.73	10.7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149	5.4	1.34	24.8
이동이 불편하다	174	6.3	1.04	16.6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391	14.2	1.35	9.5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164	6.0	0.71	11.9
기타	16	0.6	0.25	44.6
해당없음	423	15.4	2.10	13.7
도시	1,145	100.0		
비용이 부담된다	170	14.8	1.98	13.3
시간적 여유가 없다	369	32.2	3.33	10.3
지역에서 제공하는 시설(기관)이 없다	33	2.9	1.10	38.1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44	3.8	0.83	21.7
이동이 불편하다	27	2.3	0.54	23.5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89	7.8	1.86	23.9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118	10.3	2.14	20.9
기타	9	0.8	0.35	44.5
해당없음	287	25.1	3.46	13.8

문화·여가활동 시 어려움

구분	n	비율(%)	SE	RSE(%)
농어촌	2,757	100.0		
비용이 부담된다	683	25.1	1.76	7.0
시간적 여유가 없다	831	30.2	1.66	5.5
지역에 적합한 시설(기관)이 없다	221	8.0	0.85	10.6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89	3.2	0.74	22.9
이동이 불편하다	134	4.9	0.81	16.6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388	14.1	1.25	8.9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114	4.1	0.59	14.3
기타	2	0.1	0.05	76.7
해당없음	284	10.3	1.45	14.0
도시	1,142	100.0		
비용이 부담된다	390	34.1	3.33	9.8
시간적 여유가 없다	390	34.2	2.86	8.4
지역에 적합한 시설(기관)이 없다	36	3.2	1.03	32.5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30	2.6	0.77	29.6
이동이 불편하다	13	1.1	0.50	43.4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91	8.0	1.63	20.3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24	2.1	0.45	21.0
기타	8	0.7	0.37	52.0
해당없음	160	14.0	1.97	14.1

월 평균 난방비

구분		n	평균(만원)	SE	RSE(%)
농어촌		2,763	15.5	0.48	3.1
읍/면 여부	읍	1,223	13.4	0.58	4.3
	면	1,540	17.2	0.74	4.3
영농 여부	농어가	845	18.6	0.72	3.9
	비농어가	1,919	14.2	0.53	3.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25	12.2	0.73	6.0
	40대	491	15.8	0.80	5.1
	50대	607	16.7	0.69	4.2
	60대	486	17.4	0.77	4.4
	70대 이상	616	15.2	0.70	4.6
주택 종류	단독주택	1,572	18.2	0.57	3.1
	아파트	874	11.9	0.57	4.7
	연립/다세대주택 /기타	317	12.3	1.12	9.1
난방 시설 종류	중앙난방	24	13.0	0.60	4.6
	지역난방	47	17.7	2.28	12.9
	도시가스 보일러	980	11.6	0.55	4.7
	기름보일러	1,051	16.6	0.58	3.5
	프로판가스 (LPG) 보일러	163	15.2	0.80	5.3
	전기보일러	273	25.6	1.42	5.5
	연탄 보일러	44	14.4	1.65	11.5
	화목 보일러	108	17.4	1.30	7.5
도시		1,149	12.7	0.58	4.6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1)

구분			n	평균(점)	SE	RSE(%)
상수도 수질	농어촌		2,780	63.8	0.97	1.5
	읍/면 여부	읍	1,228	62.2	1.75	2.8
		면	1,552	65.1	1.01	1.6
	영농 여부	농어가	853	65.0	1.09	1.7
		비농어가	1,927	63.3	1.19	1.9
	주택 종류	단독주택	1,580	64.3	1.00	1.6
		아파트	878	63.4	2.25	3.5
		연립/다세대/기타	322	62.5	1.71	2.7
	도시		1,149	65.3	1.40	2.1
하수 처리	농어촌		2,780	64.0	0.72	1.1
	읍/면 여부	읍	1,228	62.8	1.26	2.0
		면	1,552	64.9	0.84	1.3
	영농 여부	농어가	853	63.3	1.08	1.7
		비농어가	1,927	64.3	0.86	1.3
	주택 종류	단독주택	1,580	63.9	0.83	1.3
		아파트	878	64.8	1.71	2.6
		연립/다세대/기타	322	62.3	1.47	2.4
	도시		1,149	67.2	1.23	1.8
쓰레기 처리	농어촌		2,780	62.1	0.85	1.4
	읍/면 여부	읍	1,228	62.5	1.57	2.5
		면	1,552	61.7	1.04	1.7
	영농 여부	농어가	853	61.6	1.04	1.7
		비농어가	1,927	62.3	1.04	1.7
	주택 종류	단독주택	1,580	60.5	0.84	1.4
		아파트	878	66.8	1.85	2.8
		연립/다세대/기타	322	57.1	2.60	4.6
	도시		1,149	65.8	1.44	2.2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2)

구분			n	평균(점)	SE	RSE(%)
대중교통 이용	농어촌		2,780	48.6	1.23	2.5
	읍/면 여부	읍	1,228	51.5	1.87	3.6
		면	1,552	46.2	1.75	3.8
	영농 여부	농어가	853	46.4	1.46	3.1
		비농어가	1,927	49.5	1.45	2.9
	주택 종류	단독주택	1,580	45.5	1.32	2.9
		아파트	878	54.0	2.56	4.7
		연립/다세대/기타	322	48.8	3.64	7.5
	도시		1,149	64.3	2.09	3.3
생활서비스 이용	농어촌		2,780	46.7	1.16	2.5
	읍/면 여부	읍	1,228	51.3	1.86	3.6
		면	1,552	43.0	1.55	3.6
	영농 여부	농어가	853	41.8	1.66	4.0
		비농어가	1,927	48.8	1.27	2.6
	주택 종류	단독주택	1,580	42.4	1.46	3.4
		아파트	878	52.8	2.35	4.5
		연립/다세대/기타	322	51.0	3.33	6.5
	도시		1,149	66.8	1.72	2.5
정보통신 여건	농어촌		2,780	61.2	1.05	1.7
	읍/면 여부	읍	1,228	61.6	1.42	2.3
		면	1,552	60.9	1.56	2.6
	영농 여부	농어가	853	58.2	1.44	2.5
		비농어가	1,927	62.4	1.15	1.8
	주택 종류	단독주택	1,580	58.9	1.14	1.9
		아파트	878	65.0	1.90	2.9
		연립/다세대/기타	322	61.8	2.40	3.9
	도시		1,149	73.4	1.48	2.0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분	n	비율(%)	SE	RSE(%)
농어촌	2,751	100.0		
도로 안전시설 늘리기	377	13.7	1.72	12.6
안전한 보행자 길 갖추기	426	15.5	1.44	9.2
가로등 늘리고 고치기	369	13.4	0.94	7.0
CCTV 설치 늘리기	652	23.7	1.32	5.6
순찰 횟수 늘리기	239	8.7	0.80	9.2
오래되고 낡은 건물, 시설 고치기	116	4.2	0.50	11.9
빈집, 버려진 집, 방치된 빈터 관리	162	5.9	0.57	9.6
기타	14	0.5	0.16	29.1
특별히 필요를 느끼지 않음	396	14.4	2.33	16.2
도시	1,140	100.0		
도로 안전시설 늘리기	115	10.1	1.64	16.3
안전한 보행자 길 갖추기	162	14.2	1.38	9.7
가로등 늘리고 고치기	116	10.2	1.42	14.0
CCTV 설치 늘리기	257	22.5	1.73	7.7
순찰 횟수 늘리기	128	11.2	1.79	15.9
오래되고 낡은 건물, 시설 고치기	51	4.5	1.16	26.0
빈집, 버려진 집, 방치된 빈터 관리	31	2.7	0.77	28.2
기타	7	0.6	0.26	44.3
특별히 필요를 느끼지 않음	274	24.0	3.63	15.2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구분	n	비율(%)	SE	RSE(%)
농어촌	2,740	100.0		
자연환경/ 경관의 보전	1,025	37.4	1.51	4.0
전원생활 공간 제공	532	19.4	1.53	7.9
관광/휴양 공간 제공	222	8.1	1.06	13.1
농어업 유산 보존/계승	334	12.2	0.97	8.0
국토(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340	12.4	0.91	7.4
식량의 안정적 공급	285	10.4	1.22	11.7
도시	1,141	100.0		
자연환경/ 경관의 보전	453	39.7	2.13	5.4
전원생활 공간 제공	221	19.4	2.20	11.4
관광/휴양 공간 제공	107	9.4	1.36	14.5
농어업 유산 보존/계승	156	13.7	1.53	11.2
국토(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121	10.6	1.19	11.3
식량의 안정적 공급	83	7.3	1.07	14.6

가족·이웃과의 교류-가족·친척(비동거)

구분	n	비율(%)	SE	RSE(%)
농어촌	2,774	100.0		
한 달에 한 번 미만	1,359	49.0	2.54	5.2
한 달에 한 번	743	26.8	1.87	7.0
한 달에 두 세 차례	314	11.3	1.38	12.2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05	7.4	1.10	14.9
일주일에 수차례	118	4.3	0.89	20.8
매일	34	1.2	0.32	26.5
도시	1,145	100.0		
한 달에 한 번 미만	524	45.8	3.75	8.2
한 달에 한 번	335	29.3	2.83	9.7
한 달에 두 세 차례	108	9.4	1.83	19.5
일주일에 한 번 정도	88	7.7	1.52	19.8
일주일에 수차례	54	4.7	1.45	30.9
매일	36	3.1	1.59	51.3

가족·이웃과의 교류-이웃, 친구, 직장동료

구분	n	비율(%)	SE	RSE(%)
농어촌	2,765	100.0		
한 달에 한 번 미만	409	14.8	2.59	17.5
한 달에 한 번	217	7.8	0.81	10.4
한 달에 두 세 차례	226	8.2	0.98	11.9
일주일에 한 번 정도	525	19.0	1.70	9.0
일주일에 수차례	879	31.8	2.62	8.2
매일	509	18.4	1.76	9.6
도시	1,143	100.0		
한 달에 한 번 미만	187	16.3	2.49	15.3
한 달에 한 번	126	11.0	1.80	16.3
한 달에 두 세 차례	151	13.2	1.78	13.5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87	25.1	2.96	11.8
일주일에 수차례	279	24.4	4.19	17.2
매일	114	10.0	2.27	22.8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구분		n	비율(%)	SE	RSE(%)
귀농·귀촌인	농어촌	2,755	100.0		
	긍정(합)	1,545	56.1	2.32	4.1
	보통	1,073	39.0	2.10	5.4
	부정(합)	137	5.0	0.90	18.1
결혼이민자	농어촌	2,753	100.0		
	긍정(합)	1,507	54.7	2.41	4.4
	보통	1,069	38.8	2.10	5.4
	부정(합)	177	6.4	1.11	17.2
	도시	1,143	100.0		
	긍정(합)	553	48.4	3.83	7.9
	보통	505	44.2	3.41	7.7
	부정(합)	85	7.5	1.77	23.8
외국인 노동자	농어촌	2,765	100.0		
	긍정(합)	1,226	44.3	2.19	4.9
	보통	1,166	42.2	2.05	4.9
	부정(합)	374	13.5	1.58	11.7
	도시	1,143	100.0		
	긍정(합)	497	43.5	3.69	8.5
	보통	516	45.1	3.07	6.8
	부정(합)	131	11.4	2.09	18.3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투자 영역

구분	n	비율(%)	SE	RSE(%)
농어촌	2,725	100.0		
지역 특화 작목 개발	798	29.3	2.36	8.1
농어촌 자원 활용 6차산업 육성	408	15.0	1.61	10.8
농공단지 조성, 기업 유치	234	8.6	1.00	11.6
지역 문화관광 개발, 품질 제고	263	9.6	1.07	11.1
농어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여건 개선	1,020	37.4	2.37	6.3
기타	3	0.1	0.05	57.8
도시	1,131	100.0		
지역 특화 작목 개발	303	26.8	3.06	11.5
농어촌 자원 활용 6차산업 육성	264	23.4	3.77	16.1
농공단지 조성, 기업 유치	129	11.4	1.69	14.8
지역 문화관광 개발, 품질 제고	120	10.6	1.18	11.1
농어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여건 개선	313	27.7	3.14	11.4
기타	2	0.2	0.16	81.1

04 주요 용어 정리

- **가구주**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말한다.
- **생계책임자** :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관리자**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등을 말한다.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등을 말한다.
- **사무 종사자**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금융 및 보험 사무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등을 말한다.
- **서비스 종사자** :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등을 말한다.
- **판매 종사자** : 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 종사자 등을 말한다.
- **농어업 종사자** : 농·축산 숙련직, 임업 숙련직, 어업 숙련직 등을 말한다.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족 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등을 말한다.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등을 말한다.
-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등을 말한다.
- **자영업자(고용주)**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모두 해당된다.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로 본다.
- **상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된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교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 등이 해당된다.
- **임시직**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한다.
- **일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매일 고용되어 일급, 일당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한다.
- **무급가족종사자** : 직접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기여한 자로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가구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이다. 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며, 개별가구 단위로 급여를 실시하되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 질병, 노령, 실업, 빈곤, 산업재해 등 사회적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건강, 교육, 문화, 생계 등을 위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의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의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농어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농어업인안전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에 의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보건진료소** :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이다.
- **보건소(지소)** : 보건소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에 1개씩 설치된 의료기관이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지소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 지역에 설치된다.
- **보건의료원** : 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의료법 제3조)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 **병(의)원**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 **한방병(의)원** : 한의사가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 **종합병원/대학병원** : 최소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 **국민건강보험** :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 **민영의료보험** : 각 개인의 개별적 선택에 의해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보장받는 개인의료보험으로서, 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질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대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료실비보험, 실비보험, 실손보험, 실손의료비보험 등으로 불린다.
- **공적연금** : 국가가 운영주체가 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이에 해당된다.
- **개인연금** :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가리킨다.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써 개인연금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 **농업인안전보험** :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을 위한 대응상품으로 농협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해주어 실제 가입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률은 15%수준(2012년도 평균기준)이다.
- **농기계종합보험** : 농업경영 목적의 농기계 운행 중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해주는 농촌복지형 상품으로서, 농협을 통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
- **농작물재해보험** :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

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보험이다.

- **농지연금** :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를 말한다.
- **주야간보호 서비스** :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일종을 말한다.
- **평생교육** : 학교 밖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폭넓게 지칭하는 것으로서, 유사용어로 성인교육, 사회교육 등이 있다.
- **인문교양교육** : 경제/경영강좌(펀드, 재무설계, 부동산 등), 인문교양강좌(역사, 철학 등), 자연/생태강좌(자연과학, 환경, 생태 등), 가정생활강좌(요리, 자녀교육, 꽃꽂이 등) 등이 포함된다.
- **시민참여교육** : 지도자과정(마을리더/자치위원 교육 등), 시민참여교육강좌(시민교육, 인권교육 등) 등이 포함된다.
- **전세** : 계약한 액수의 돈을 미리 지불하고 입주하여 살다가 퇴거할 때 그 금액을 되찾아 나오는 방식으로, 이 경우 실질적인 방세는 입주할 때 낸 금액의 이자이다.
- **보증부 월세** : 보증금을 내고 별도로 매월 월세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월세가 제때에 지불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월세분의 10배 정도의 금액을 입주할 때 보증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실질적인 방세는 보증금의 이자와 매월 내는 월세의 합계액이다.
- **월세(사글세)** : 매월 월세액을 정한 뒤 미리 1년분 정도의 월세 합계액을 선세(先貰)로 내고 그 금액을 매달 삭감해 가는 형식이다. 사글세액의 잔액이 떨어질 때가 계약이 만료되는 달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퇴거해야 한다. 만일 계약기간 내에 퇴거할 경우에는 삭감된 액수의 잔액을 되찾아갈 수 있다. 월세란 보증금이나 선세(先貰) 없이 매월 방세를 지불하는 형식이다.

- **단독주택** : 단일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구조의 주택을 말한다.
- **아파트** :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연립주택** :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슬레이트** : 지붕을 덮는 데 쓰는 천연 점판암의 얇은 판.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판을 말한다.
-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설비** :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난간·손잡이 설치, 미닫이 창문·문으로 교체, 바닥 단차 제거 등을 말한다.
- **중앙난방** : 공동주택 단지별 중앙집중식 난방을 말한다.
- **지역난방** : 대규모의 열생산 시설(열병합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에서 지역 전체에 걸쳐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 **도시가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가스관을 통해 일반 수용가에 공급하는 가스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중앙집중식 난방 및 개별식 가스보일러 포함한다.
- **광역상수도**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 **지방상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

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 **마을 상수도(간이 상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특/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가 제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 **자가 상수도(지하수, 우물)** : 개인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상수도로 지하수, 우물 등이 포함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재활용품** : 종이류, 의류 및 담요, 캔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폐영농자재** : 영농어업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폐비닐, 농약병 등이 포함된다.
- **귀농·귀촌인** : 귀농인이란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귀촌인이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 **결혼 이민자** : 결혼 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이주 노동자** : 이주 노동자란 국내 체류하면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마을공동사업** : 권역단위조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신활력지원(플러스)사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등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농촌개발사업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 **도농교류**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 **6차 산업** : 농산물 생산과 상품의 가공, 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기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말한다.
- **농어가 가공** : 농어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또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 : 농수산물 직거래란 농림어가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소비하는 개인 가구에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직판장, 직매장, 통신판매, 우편판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판매, 거리판매, 방문 판매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농어촌 체험관광** : 농어촌체험관광이란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음식판매(농가레스토랑, 농가맛집)** : 농가 또는 마을 단위에서 방문객, 체험객 등에게 음식을 만들어 판매 하거나(농어가), 이를 이용한 경험(농어촌 비농어가, 도시민) 등이 조사대상이다. 농촌진흥청 사업에 의한 '농가맛집'도 이에 포함된다.
- **연간 가구소득** :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 자녀로부터의 용돈 등의 합계 소득을 말한다.

05 2018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조사표

ID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	처	번	호	가	구	번	호
----	---	---	---	---	---	---	---	---	---	---	---	---	---	---	---	---	---	---	---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농어촌] (농어촌/도시 주민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은 2004년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도시/농어촌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복지, 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파악, 도·농 비교를 통해 관련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귀댁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작성기관 농촌진흥청
조사기관 코뮤니타스
전화번호 053-746-0021

조사원 이름

※ 본 페이지는 조사원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원 표본 가구	1회 방문	일자		시간	2회 방문	일자		시간	3회 방문	방문		시간							
		월	일	:		월	일	:		월	일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	처	번	호	가	구	번

대체 표본 가구 (1)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방문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	쳐	번	호	가	구	번	호

대체 표본 가구 (2)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방문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	쳐	번	호	가	구	번	호

대체 표본 가구 (3)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방문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	쳐	번	호	가	구	번	호

대체 표본 가구 (4)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방문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	쳐	번	호	가	구	번	호

대체 표본 가구 (5)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방문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	쳐	번	호	가	구	번	호

대체 표본 가구 (6)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방문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	쳐	번	호	가	구	번	호

대체 표본 가구 (7)	1회 방문	일자	시간	2회 방문	일자	시간	3회 방문	방문	시간
		월 일	:		월 일	:		월 일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쳐 번 호 가구 번 호

대체 표본 가구 (8)	1회 방문	일자	시간	2회 방문	일자	시간	3회 방문	방문	시간
		월 일	:		월 일	:		월 일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쳐 번 호 가구 번 호

응답자	① 가구주② 가구주 배우자	연락처 ^{주)}	() - () - ()
조사방법	① 조사원 면접 ② 응답자 자기기입 ③ 조사원 면접과 응답자 자기기입 병행		

주) 연락처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질문 드리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018년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참여 동의서

2018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도시/농어촌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복지, 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파악, 도·농 비교를 통해 관련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무응답과 오류 문항 점검을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수집하고 있으며, 점검기간 동안에만 가지고 있다가 필요 시 이용하게 됩니다. 조사표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각 지역을 대표하므로, 조사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하여주시면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월 일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설문조사 참여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여자 : (서명)



2018년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답례품 수령 확인서

본인은 2018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성실히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례로 소정의 답례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수령인 : (서명)

I. 가구 정보 및 생활 전반

1. [가구주와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은 가구주 및 배우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 **가구주**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가구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책임자는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분	성별	태어난 연도	혼인상태	동거		학력	직업 및 종사자 지위		결혼 이면	장애	
				여부	1 비동거 시 사유		직업	3 종사자 지위		여부	증상
	① 남 ② 여		① 유배우 ② 미혼, 비혼 ③ 배우자 없음 (사별 이혼 등)	① 동거 ② 비동거	※ 코드표 참고	※ 코드표 참고	* 구체적으로 작성	※ 코드표 참고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중증 ② 경증
가구주		___년									
배우자		___년									

《코드표》

구분	코드	구분	코드
1 비동거 시 사유	① 친지 보육 ② 학업(타 지역 학교 유학) ③ 자녀 교육 지원 ④ 직장(직업, 취업준비) ⑤ 건강(입원, 요양 등) ⑥ 기타(군복무, 별거, 가출 등)	2 학력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③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④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⑤ 대학, 대학교 졸업(중퇴, 수료) ⑥ 대학원 이상
3 종사자 지위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4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의 자녀 ② 자녀의 배우자 ③ 손자녀/그배우자 ④ 부모 ⑤ 조부모 ⑥ 형제자매/그배우자 ⑦ 기타 친인척 ⑧ 동거인

2.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다음은 가구주/배우자 외 가족 및 가구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 취업, 유학, 요양 등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직계가족(배우자, 자녀)을 포함하되, 결혼해 분가한 가족은 제외합니다.

구분	4 가구주와의 관계	동거		성별	연령 구분	결혼 이면	장애	
		여부	1 비동거 시 사유				여부	증상
	※ 코드표 참고	① 동거 ② 비동거	※ 코드표 참고	① 남 ② 여	① 영아(36개월 미만) ② 유아(만3세~미취학) ③ 초등학생 ④ 중·고등학생 ⑤ 만 19세 이상 성인()년생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중증 ② 경증
가족 1								
가족 2								
가족 3								
가족 4								

5-1. 어디로 이주할 생각이십니까?

- ①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② 다른 시/군의 농어촌 읍 지역
 ③ 다른 시/군의 농어촌 면 지역 ④ 중소도시(동)
 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⑥ 기타 (해외파견, 이민 등)

5-2.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
 ② 주택 구입, 계약 변동, 재개발 등 **주택 관련 사유**
 ③ 가구원의 분가, 합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
 ④ 교통,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관련 사유** ⑤ **이웃과의 관계 관련 사유**(갈등불화 등)
 ⑥ **자녀교육** 때문에 ⑦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⑧ **건강상의 이유로** ⑨ 기타 (→)

6.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귀하는 현재의 삶에서 다음의 각 부문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시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중요도					만족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 한 편이다	매우 중요 하다	매우 불만 족 한다	불만 족 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만족 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한다
(1)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편의 등 보건의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건강, 소득, 생활, 보육 등 지원 복지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여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예술, 스포츠, 여행 등 문화여가 여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주택, 도로, 대중교통 등 기초생활기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등 환경·경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지역사회 활동 참여, 교류 등 이웃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직업 기회, 소득, 물가 등 경제활동 여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전반적인 농어촌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12. [5년 전 대비 삶의 질 변화]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귀하의 삶의 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 ① 매우 나빠졌다 ② 나빠진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아진 편이다 ⑤ 매우 좋아졌다

II. 보건의료 부문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13.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귀택에 환자가 생길 경우,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보건진료소 ② 보건소(지소) ③ 보건의료원 ④ 병(의)원
⑤ 한방병(의)원 ⑥ 종합병원/대학병원 ⑦ 기타(⇒)

13-1. [의료기관 이용 횟수] 지난 1년(2017.09.01~2018.08.31)을 기준으로 그 의료기관을 이용한 월 평균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2회 ③ 월 3~4회 ④ 월 5회 이상

13-2. [의료기관 이동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그 의료기관으로 가는 데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편도 소요시간은?

※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고르고, 소요시간은 교통수단별 소요시간을 합산하여 작성

(1)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2) 편도 소요시간
① 걸어서 ② 버스 ③ 택시 ④ 개인 차량 ⑤ 기타(⇒)	() 분

14.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귀택에서는 지난 1년(2017.09.01~2018.08.31) 간 지역의 보건진료소, 보건소(지소), 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 15번** 으로 가십시오

14-1.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공공의료시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14-2. [공공의료시설 이용 불만족 이유] 공공의료시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불만족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① 시설·장비가 낙후되어서 ③ 전문성이 떨어져서 ⑤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⑦ 불친절해서	②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④ 비용이 부담되어서 ⑥ 위치가 좋지 않아서(멀다, 차편이 없다 등) ⑧ 기타 (⇨)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15. [응급실 이용 경험] 귀댁에서는 지난 1년(2017.09.01~2018.08.31) 동안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 16번** 으로 가십시오

15-1. [응급실 이동시의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응급실 이동시 이용한 교통수단과 이동하는 데에 걸린 편도 소요시간은?

(1)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2) 편도 소요시간
① 구급차 ④ 걸어서	② 개인 차량 ⑤ 기타 (⇨)	③ 택시	() 분

보건의료 여건 전반

16. [질병 치료시 어려움] 귀댁에 환자가 생길 경우, 그 환자의 질병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치료비가 부담된다 | ②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 |
| ③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 ④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 |
| ⑤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 ⑥ 기타 (⇨) |
| ⑦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 |

Ⅲ. 복지 부문

사회안전망

17. [보험 가입 현황] 귀댁은 현재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아래 보기 중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구분	가입	미가입	구 분	가입	미가입
(1) 국민건강보험	①	②	(5) 농업인안전보험(농어가)	①	②
(2) 민영의료보험	①	②	(6) 농기계종합보험(농어가)	①	②
(3) 공적연금	① (수급 포함)	②	(7) 농작물재해보험(농어가)	①	②
(4) 개인연금*	① (수급 포함)	②	(8) 농지연금(농어가)	①	②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 개인연금 :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개인연금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음.

18. [위기에 대한 경제적 대비 정도] 다음에 대한 귀댁의 경제적 준비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통 이다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1)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재해 등에 대한 준비	①	②	③	④	⑤
(2) 퇴직, 노후생활 등에 대한 준비	①	②	③	④	⑤

—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수요

19.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귀댁에서는 지난 1년(2017.09.01~2018.08.31) 동안 다음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용하신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이용 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만족 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한다
(1)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상담/알선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2) 소득 지원 서비스 (생계비 지원, 생활자금 융자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3) 주거 관련 서비스(집수리, 임차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4)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방문요양/목욕/ 간호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상담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5)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농번기 주말 돌봄방, 교육비 지원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구분	이용 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만족 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한다
(6) 문화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문화이용권,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7)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물품지원, 가정봉사서비스, 식사(반찬) 배달서비스, 교통수단 지원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8) 기타 (↗)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20. [필요 복지서비스] 귀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는 다음 보기 중 무엇입니까? 필요로 하시는 순서대로 **2개**를 골라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번호 :	구체적으로 :
2순위	번호 :	구체적으로 :

- ①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직업훈련, 취업상담/알선 등)
- ② 소득 지원 서비스(생계비 지원, 생활자금 융자 등)
- ③ 주거 관련 서비스(집수리, 임차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 ④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상담 등)
- ⑤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농번기 주말 돌봄방, 교육비 지원 등)
- ⑥ 문화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문화이용권,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 ⑦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물품 지원, 가정봉사서비스, 식사(반찬) 배달 서비스, 교통수단 지원 등)
- ⑧ 기타 (↗)
- ⑨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 노인복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구에 한해) —

21.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다음의 노인복지서비스 중 귀하 또는 귀댁의 어르신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① 질병예방서비스(건강진단, 치매 조기검진 등)
- ② 질병치료서비스(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 ③ 방문 요양 및 간호 서비스
- ④ 주야간보호 서비스
- ⑤ 가정·활동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생필품 구매 등)
- ⑥ 교통수단 지원(병원 동행 등)
- ⑦ 노인 공동생활 서비스
- ⑧ 여가·취미활동 서비스
- ⑨ 노인일자리 지원
- ⑩ 기타 (↗)
- ⑪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① 부모가 돌봄 ② 부모 이외 가족(조부모, 친인척)이 돌봄
③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 ④ 고용 육아도우미 또는 가사도우미가 돌봄
⑤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지원사업 이용 ⑥ 기타 (→)

☐ ① 학원,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 ②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 ③ 학습지
☐ ④ 방문교육 ☐ ⑤ 인터넷교육 ☐ ⑥ 기타 ()
☐ ⑦ 해당없음

(1) 본인 부담	(2) 보조금
월평균 () 만원	월평균 () 만원

1순위	2순위
-----	-----

- ① 어린이집·유치원 수가 부족하다
- ②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 ③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
- ④ 자녀 놀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
- ⑤ 방문교육(학습지 등)을 받기가 어렵다
- ⑥ 야간시간에 이용가능한 자녀 돌봄시설이 부족하다
- ⑦ 기타 ()
- ⑧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 장애인복지(‘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한해) —

26.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귀하 또는 귀하의 장애가 있는 가구원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② 의료재활서비스
 ③ 가사지원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 ④ 이동편의지원서비스
 ⑤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⑥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⑦ 장애자녀 학습지원서비스 ⑧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⑨ 기타 ()
 ⑩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IV. 교육 부문

— 학생교육(‘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 한해) —

27.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귀하의 자녀(손자녀)가 통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이며, 편도를 기준으로 평균 통학시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고르고, 소요시간은 교통수단별 소요시간을 합산

구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편도 소요시간
(1) 초등학생 자녀	① 걸어서 ② 통학버스 ③ 학원버스 ④ 버스 ⑤ 개인차량 ⑥ 자전거 ⑦ 기타 ()	() 분
(2) 중학생 자녀	① 걸어서 ② 통학버스 ③ 학원버스 ④ 버스 ⑤ 개인차량 ⑥ 자전거 ⑦ 기타 ()	() 분
(3) 고등학생 자녀	① 걸어서 ② 통학버스 ③ 학원버스 ④ 버스 ⑤ 개인차량 ⑥ 자전거 ⑦ 기타 ()	() 분

28. [자녀의 방과후 시간 활용] 귀하의 자녀(손자녀)는 학교 정규 수업과정을 마친 후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 ① 학교 내 방과후 프로그램(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 참여
 ② 학교 외 공공기관 방과후 프로그램(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참여
 ③ 사설학원 수강, 개인·그룹 과외 등
 ④ 집에서 가족과 보냄
 ⑤ 혼자 보냄
 ⑥ 기타 ()

29.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귀하께서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학교 시설 개선 | ② 우수교사 확보 |
| ③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개발 | ④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강사) 지원 |
| ⑤ 양질의 학교 급식 지원 | ⑥ 기숙시설 확충 |
| ⑦ 통학버스 운영 | ⑧ 지역 소규모학교 유지 |
| ⑨ 기타 (⇒) | |

— 평생교육

30. [평생교육 경험 및 수요] 귀하께서는 지난 1년(2017.09.01~2018.08.31) 동안 다음의 평생교육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여하신 활동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향후 참여 의사는 어떠하십니까?

※ 평생교육 : 학교 밖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유사용어로 성인교육, 사회교육 등이 있음

구분	참여 경험	참여 만족도					향후 참여 의사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농촌생활 관련 교육 (농업기술교육, 생활개선교육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2) 문해교육 (한글교실, 한문교육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3) 인문교양교육 (경제/경영, 역사, 철학, 외국어, 자녀교육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4) 정보화교육 (워드,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5) 직업능력교육 (자격증 강좌, 취업/창업 준비과정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6) 문화예술교육 (문화, 음악, 미술 강좌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7) 시민참여교육 (마을리더/자치위원 교육, 인권교육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8) 스포츠·건강교육 (스포츠, 건강/의료 강좌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9) 기타 (⇒)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33.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 귀하께서 앞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하고 싶은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순위	번호 :	구체적으로 :
2순위	번호 :	구체적으로 :

- ① 문화예술관람 ② 문화예술활동 ③ 스포츠관람
 ④ 스포츠활동 ⑤ 여행 ⑥ 취미활동
 ⑦ 사회활동 ⑧ 휴식 ⑨ 기타 (→)

34. [문화·여가활동시 어려움] 귀하께서 문화·여가활동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비용이 부담된다 ② 시간적 여유가 없다
 ③ 지역에 적합한 시설(기관)이 없다 ④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⑤ 이동이 불편하다(교통 불편, 거리가 멀다 등) ⑥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⑦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⑧ 기타(→)
 ⑨ 해당없음(어려움이 없음, 문화·여가활동 필요를 느끼지 않음 등)

— 전통문화·여가활동 경험 및 수요

35. [전통문화 활용 문화·여가 참여 경험 및 수요] 귀하께서는 지난 1년(2017.09.01~2018.08.31) 동안 다음과 같은 전통문화 또는 농촌문화를 활용한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향후(에도) 다음의 활용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참여 경험	참여 만족도					향후 참여 의사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전통예술(농악, 민요, 전통무용, 전통공예, 한국화, 서예, 시조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2) 전통의식주(한복, 천연염색, 매듭, 음식, 한과 등 만들기, 한옥 짓기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3) 전통무예(씨름, 국궁, 택견, 태권도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4) 공동체의례(동제, 산신제, 당산제, 성황제, 별신굿, 용왕제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5) 공동체놀이(지신밟기, 강강술래, 줄다리기, 거북놀이, 달집태우기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구분	참여 경험	참여 만족도					향후 참여 의사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6) 전통놀이(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널뛰기, 고누, 공기놀이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7) 기타(⇨)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VI. 기초생활여건 부문

— 주택 여건

36. [주택 건축년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건축(신축)년도는 언제입니까? () 년도

37.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주택 ④ 기타 (⇨)



↳ **문 38번** 으로 가십시오.

37-1. [지붕의 종류]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8. [주택의 점유형태] 주택의 점유형태는?

① 자기 집 ② 전세 ③ 월세(보증부 월세, 사글세) ④ 무상

39. [주택의 방 개수] 방은 모두 몇 개입니까? () 개

※ 사용하고 있는 방을 기준으로 하며, 세를 준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거실을 침실로 상시 이용하고 있으면 방수에 포함

40. [주택의 건평] 건평(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를 기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준 경우 그 면적은 제외
()㎡ 또는 ()평

41. [주택의 시설 현황] 귀댁 주택의 각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 난방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1순위, 2순위 선택

구분	종류		
(1) 부엌	① 입식	② 재래식	③ 없음
(2) 화장실	① 수세식	② 재래식	③ 없음
(3) 목욕시설	① 온수	② 비온수	③ 없음

구분		종류	
(4) 난방시설		① 중앙난방	② 지역난방 ③ 도시가스 보일러
1순위		④ 기름 보일러	⑤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⑥ 전기 보일러	⑦ 연탄 보일러 ⑧ 화목보일러
2순위		⑨ 재래식 아궁이	⑩ 기타 (↳)

42. **[난방비 부담]** 1년 중 난방을 사용하는 기간은 언제이며, 그 기간의 월 평균 난방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니까?

※ 주거용 난방비를 기준으로 작성, 장마철 습기 제거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난방을 가동하는 경우 제외

(1) 난방비 지출 기간	(2) 월 평균 난방비 지출 금액
() 월 ~ () 월	() 만원

43. [주택에 대한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구 분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주택 면적	①	②	③	④	⑤
(2) 주택 설비(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3) 주택 구조(공간/시설 배치, 동선 등)	①	②	③	④	⑤
(4) 주택 성능(단열, 냉/난방 효율 등)	①	②	③	④	⑤
(5) 주택 전반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44. [주택 개보수 필요성] 귀하께서는 거주하시는 주택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개보수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① 도배, 페인트, 바닥, 창문 교체 및 보수공사 ② 주방, 목욕탕, 화장실 보수공사
 ③ 보일러 교체 및 냉난방, 단열 공사 ④ 전기(누전), 누수공사
 ⑤ 상하수도 공사 ⑥ 지붕·담장 교체 및 보수공사
 ⑦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설비 개선 ⑧ 대수선(방, 거실 등 확장, 구조나 외부 형태 변경 등)
 ⑨ 기타() ⑩ 주택의 개보수가 필요 없음

— 생활여건

45. [상수도 종류]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의 상수도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광역 및 지방 상수도 ② 마을상수도(간이 상수도) ③ 자가상수도(지하수, 우물) ④ 없음

46. [하수도 종류]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의 하수도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공공하수처리시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③ 없음

47. [쓰레기 처리 방법] 귀택에서는 다음의 쓰레기를 주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 활용은 '기타'에 표기

구 분	분리배출	자체처리(투기, 매립, 소각)	기타
(1) 생활쓰레기	① 종량제봉투 사용	②	③ (⇨)
(2) 음식물쓰레기	①	②	③ (⇨)
(3) 재활용품	①	②	③ (⇨)
(4) 폐영농자재(농어가)	①	②	③ (⇨)

48.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초생활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각각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상수도 수질	①	②	③	④	⑤
(2) 하수 처리	①	②	③	④	⑤
(3) 쓰레기 처리	①	②	③	④	⑤
(4) 대중교통 이용	①	②	③	④	⑤
(5) 생활서비스 이용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6) 정보통신여건*	①	②	③	④	⑤

※ 정보통신여건 : 인터넷, 전화, TV, 라디오, 우편 등의 활용 여건

— 안전

49. [마을 안전 체감도]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마을(동네)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부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마을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마을은 보행·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마을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마을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50.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다음 중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도로안전시설(표지판, 횡단보도, 신호등 등) 늘리기	② 안전한 보행자길 갖추기
③ 가로등 늘리고 고치기	④ CCTV 설치 늘리기
⑤ 순찰(경찰, 주민봉사) 횟수 늘리기	⑥ 오래되고 낡은 건물, 시설 고치기
⑦ 빈집, 버려진 집, 방치된 빈터 관리	⑧ 기타 (⇒)
⑨ 특별히 필요를 느끼지 않음	

VII. 환경·경관 부문

— 환경

51.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마을(동네)에서 개선해야 할 주된 환경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대기 오염	② 수질 오염
③ 토양 오염	④ 소음, 진동
⑤ 악취	⑥ 쓰레기
⑦ 기타 (⇒)	⑧ 특별히 없음

— 경관

52. [마을 경관에 대한 인식]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V표 하여 주십시오.

※ 마을(동네)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활동 : 청소, 꽃길 가꾸기, 경관 작물 재배 등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마을(동네)은 깨끗하고 아름다워 자랑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마을(동네)을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마을(동네)에서는 마을(동네)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가구는 마을(동네)을 가꾸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마을(동네)을 가꾸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필요한 자재, 활동비 등)	①	②	③	④	⑤

— 다원적 가치

53.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다음의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중 귀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개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자연환경·경관의 보전	② 전원생활 공간 제공
④ 농어업 유산 보존·계승	⑤ 국토의 균형 발전
정적 공급	⑥ 식량의 안
⑦ 기타()	③ 관광·휴양 공간 제공

Ⅷ. 지역 공동체 부문

— 가족·이웃과의 관계

54. [가족·이웃과의 교류] 귀하께서는 가족이나 이웃과 얼마나 자주(일 외의 목적으로) 만남을 가지십니까?

구분	보기					
(1) 가족, 친척(비동거)	① 한 달에 한 번 미만	② 한 달에 한 번	③ 한 달에 두세차례	④ 일주일에 한 번 정도	⑤ 일주일에 수차례	⑥ 매일
(2) 이웃, 친구, 직장동료	① 한 달에 한 번 미만	② 한 달에 한 번	③ 한 달에 두세차례	④ 일주일에 한 번 정도	⑤ 일주일에 수차례	⑥ 매일

55. [공동체 활동 참여] 귀하께서는 마을(동네)의 공식적인 행사나 회의, 공동작업 등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⑤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6. [외부인 유입 여부] 귀택 또는 귀하의 이웃에는 귀농·귀촌인,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가 살고 있습니까?

※ 귀농(어)은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귀촌은 도시에서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를 가리킴. 응답 가구가 귀농·귀촌 가구인 경우 '① 우리 가구에 있음'을 선택함

구분	우리 가구에 있음	우리 이웃에 있음	없음	잘 모름
(1) 귀농·귀촌인(농어촌)	①	②	③	④
(2) 결혼 이민자	①	②	③	④
(3) 이주 노동자	①	②	③	④

57.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귀하께서는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귀하의 이웃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보통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귀농·귀촌인(농어촌)	①	②	③	④	⑤
(2) 결혼 이민자	①	②	③	④	⑤
(3) 이주 노동자	①	②	③	④	⑤

— 마을공동사업 참여

58. [마을공동사업 경험 및 참여 의사]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주민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 사업 및 관련 교육에 참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향후에 마을공동사업이 실시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마을공동사업 :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신활력지원(플러스)사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등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농촌개발사업

구 분	참여 경험 유무		향후 참여 의사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 마을공동사업	①	②	①	②
(2) 마을공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민(역량)교육	①	②	①	②

59.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 귀하께서는 마을공동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질문에 대해 해당하는 곳에 V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마을공동사업은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마을공동사업은 생활환경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바뀌는 데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마을공동사업은 주민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데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마을공동사업은 전반적으로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마을공동사업은 우리 가구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데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0.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정도를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낙후되어 있음 ② 낙후된 편임 ③ 보통임 ④ 발전된 편임 ⑤ 매우 발전된 수준

— 도·농 교류 및 6차 산업화 —

[illegible]

 비농어가에 한해

61. [도·농 교류/6차 산업 경험 유무 및 만족도]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지난 1년(2017.09.01~2018.08.31) 동안 다음의 사업을 이용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향후(에도) 다음의 사업을 이용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 분	경험 유무	만족도					향후 의사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만족 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한다	
(1) 농어가 가공품 이용	① 있다(ㄱ)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2)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	① 있다(ㄱ)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3) 농어촌 체험관광	① 있다(ㄱ)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4) 농어가 식사 (농가레스토랑, 농가맛집)	① 있다(ㄱ)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5) 농어가 숙박 (농어가 민박 이용)	① 있다(ㄱ)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경제활동여건

63. [연간 가구소득] 2017년('17.01.01.~12.31.) 소득을 기준으로 귀댁의 연간 가구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 연간 가구소득은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 자녀로부터의 용돈 등의 합계임

() 만원

 농어가에 한해

63-1. [전업 또는 겸업 여부] 귀댁은 농어업만을 하고 계십니까(전업), 혹은 농어업 외 다른 일을 겸하고 계십니까?

① 전업 → **문 64번** 으로 가십시오. ② 겸업



63-2. [겸업의 형태 및 소득 비중] 농어업 외 종사하시는 일의 형태와 소득 구조는 어떠합니까?

(1) 농업 외 직종의 형태	① 자영업 ② 임금근로(□상용 □임시 □일용)
(2) 소득 구조 (①+②+③의 합이 100)	① 농어업 소득 ()%
	② 농어업 외 소득 ()%
	③ 기타 소득 ()%

64. [월평균 생활비] 2017년(’01.01.~12.31.)을 기준으로 귀댁의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합계와 주요 내역별 생활비를 기입해 주십시오.

※ 생활비는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으로서,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저축, 저축성보험료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부채이자 상환 등), 사업업도의 비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구 분		금 액
합 계		() 만원
(1) 식료품비	(주식류, 부식류, 외식비 등)	() 만원
(2) 보건의료비	(병원치료비, 약값, 의치, 보청기, 영양제, 보약비 등)	() 만원
(3) 광열수도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냉/난방연료비 등)	() 만원
(4) 교육비	(학비, 학원비, 과외비, 자녀용돈, 책값 등)	() 만원
(5) 교통/통신비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수리비, 유류비, 전화/휴대폰/인터넷요금 등)	() 만원
(6) 기타		() 만원

65.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투자 영역]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 특화 작목 개발 ② 농어촌 자원 활용 6차산업 육성
③ 농공단지 조성, 기업 유치 ④ 지역 문화관광 개발, 품질 제고
⑤ 농어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여건 개선 ⑥ 기타 (↳)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검증원 이름		검증 결과	
--------	--	-------	--

ID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	처	번	호	가	구	번	호
----	---	---	---	---	---	---	---	---	---	---	---	---	---	---	---	---	---	---	---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도시]

(농어촌/도시 주민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은 2004년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도시/농어촌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복지, 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파악, 도·농 비교를 통해 관련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귀댁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작성기관 농촌진흥청
 실사기관 코뮤니타스
 전화번호 053-746-0021

조사원 이름

※ 본 페이지는 조사원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원 표본 가구	1회 방문	일자	시간	2회 방문	일자	시간	3회 방문	방문	시간
		월 일	:		월 일	:		월 일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 처 번 호 가 구 번 호

대체 표본 가구 (1)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방문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	쳐	번	호	가	구	번	호

대체 표본 가구 (2)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방문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	쳐	번	호	가	구	번	호

대체 표본 가구 (3)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방문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	쳐	번	호	가	구	번	호

대체 표본 가구 (4)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방문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	쳐	번	호	가	구	번	호

대체 표본 가구 (5)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방문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	쳐	번	호	가	구	번	호

대체 표본 가구 (6)	1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2회 방문	일자 월 일	시간 :	3회 방문	방문 월 일	시간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	쳐	번	호	가	구	번	호

대체 표본 가구 (7)	1회 방문	일자	시간	2회 방문	일자	시간	3회 방문	방문	시간
		월 일	:		월 일	:		월 일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쳐 번 호 가구 번 호

대체 표본 가구 (8)	1회 방문	일자	시간	2회 방문	일자	시간	3회 방문	방문	시간
		월 일	:		월 일	:		월 일	:
	비고	완료, 거부, 장기 부재 등 조사 결과							
	주소	병	합	조	사	구	번	호	1 1 자 리 거쳐 번 호 가구 번 호

응답자	① 가구주② 가구주 배우자	연락처 ^{주)}	() - () - ()
조사방법	① 조사원 면접 ② 응답자 자기기입 ③ 조사원 면접과 응답자 자기기입 병행		

주) 연락처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질문 드리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018년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참여 동의서

2018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도시/농어촌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복지, 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파악, 도·농 비교를 통해 관련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무응답과 오류 문항 점검을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수집하고 있으며, 점검기간 동안에만 가지고 있다가 필요 시 이용하게 됩니다. 조사표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각 지역을 대표하므로, 조사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하여주시면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월 일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설문조사 참여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여자 : (서명)



2018년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답례품 수령 확인서

본인은 2018년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성실히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례로 소정의 답례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수령인 : (서명)

I. 가구 정보 및 생활 전반

1. [가구주와 배우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은 가구주 및 배우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 **가구주**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가구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책임자는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분	성별 ① 남 ② 여	태어난 연도	혼인상태 ① 유배우 ② 미혼, 비혼 ③ 배우자 없음 (사별 이혼 등)	동거		직업 및 종사자 지위	결혼 이면	장애	
				여부	① 비동거 시 사유 ※ 코드표 참고	② 학력 ※ 코드표 참고		여부	증상
				① 동거 ② 비동거	※ 코드표 참고	* 구체적으로 작성 ※ 코드표 참고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중증 ② 경증
가구주		___년							
배우자		___년							

《코드표》

구분	코드	구분	코드
① 비동거 시 사유	① 친지 보육 ② 학업(타 지역 학교 유학) ③ 자녀 교육 지원 ④ 직장(직업, 취업준비) ⑤ 건강(입원, 요양 등) ⑥ 기타(군복무, 별거, 가출 등)	② 학력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③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④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⑤ 대학, 대학교 졸업(중퇴, 수료) ⑥ 대학원 이상
③ 종사자 지위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④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의 자녀 ② 자녀의 배우자 ③ 손자녀/그배우자 ④ 부모 ⑤ 조부모 ⑥ 형제자매/그배우자 ⑦ 기타 친인척 ⑧ 동거인

2.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다음은 가구주/배우자 외 가족 및 가구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 취업, 유학, 요양 등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직계가족(배우자, 자녀)을 포함하되, 결혼해 분가한 가족은 제외합니다.

구분	④ 가구주와의 관계 ※ 코드표 참고	동거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구분 ① 영아(36개월 미만) ② 유아(만3세~미취학) ③ 초등학생 ④ 중·고등학생 ⑤ 만 19세 이상 성인()년생	결혼 이면 ① 해당 ② 비해당	장애	
		여부	① 비동거 시 사유 ※ 코드표 참고				여부	증상
		① 동거 ② 비동거	※ 코드표 참고				① 해당 ② 비해당	① 중증 ② 경증
가족 1								
가족 2								
가족 3								
가족 4								

5-1. 어디로 이주할 생각이십니까?

- | | |
|------------------------|-------------------|
| ① 현재 살고 있는 시 내의 다른 곳으로 | ② 다른 중소도시(동) |
| ③ 다른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동 | ④ 다른 시/군의 농어촌 읍 |
| ⑤ 면 지역 | ⑥ 기타 (해외파견, 이민 등) |

5-2.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취업,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 | |
| ② 농어업 창업 또는 전원생활을 위해(귀농, 귀어, 귀촌 등) | |
| ③ 주택 구입, 계약 변동, 재개발 등 주택 관련 사유 | |
| ④ 가구원의 분가, 합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 | |
| ⑤ 교통,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관련 사유 | ⑥ 이웃과의 관계 관련 사유(갈등불화 등) |
| ⑦ 자녀교육 때문에 | ⑧ 가정경제 상황 의 변화로 |
| ⑨ 건강상의 이유로 | ⑩ 기타 (→) |

6. [농어촌생활 부문별 중요도 및 만족도] 귀하는 현재의 삶에서 다음의 각 부문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시는지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중요도					만족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은 편이 다	보통 이다	중요 한 편이 다	매우 중요 하다	매우 불만 족 한다	불만 족 하는 편이 다	보통 이다	만족 하는 편이 다	매우 만족 한다
(1)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편의 등 보건의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건강, 소득, 생활, 보육 등 지원 복지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여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예술, 스포츠, 여행 등 문화여가 여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주택, 도로, 대중교통 등 기초생활기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등 환경·경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지역사회 활동 참여, 교류 등 이웃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직업 기회, 소득, 물가 등 경제활동 여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전반적인 농어촌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불만족한다 | ② 불만족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 ④ 만족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만족한다 | |

13.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귀택에서는 지난 1년(2017.09.01~2018.08.31) 간 지역의 보건진료소, 보건소(지소), 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 15번** 으로 가십시오

13-1.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공공의료시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한다 ② 불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13-2. [공공의료시설 이용 불만족 이유] 공공의료시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① 시설·장비가 낙후되어서	②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③ 전문성이 떨어져서	④ 비용이 부담되어서
⑤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⑥ 위치가 좋지 않아서(멀다, 차편이 없다 등)
⑦ 불친절해서	⑧ 기타 (⇒)

—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

14. [응급실 이용 경험] 귀택에서는 지난 1년(2017.09.01~2018.08.31) 동안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 16번** 으로 가십시오

14-1. [응급실 이동시의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응급실 이동시 이용한 교통수단과 이동하는 데에 걸린 편도 소요시간은?

(1)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2) 편도 소요시간
① 구급차	② 개인 차량	③ 택시	() 분
④ 걸어서	⑤ 기타 (⇒)		

구분	이용 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만족 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한다
(1)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상담/알선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2) 소득 지원 서비스 (생계비 지원, 생활자금 융자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3) 주거 관련 서비스(집수리, 임차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4)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방문요양/목욕/ 간호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상담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5)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농번기 주말 돌봄방, 교육비 지원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6) 문화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문화이용권,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7)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물품지원, 가정봉사서비스, 식사(반찬) 배달서비스, 교통수단 지원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8) 기타 (↗)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19. [필요 복지서비스] 귀택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는 다음 보기 중 무엇입니까? 필요로 하시는 순서대로 2개를 골라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번호 :	구체적으로 :
2순위	번호 :	구체적으로 :

- ①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직업훈련, 취업상담/알선 등)
- ② 소득 지원 서비스(생계비 지원, 생활자금 융자 등)
- ③ 주거 관련 서비스(집수리, 임차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 ④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상담 등)
- ⑤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농번기 주말 돌봄방, 교육비 지원 등)
- ⑥ 문화여가 향유 지원 서비스(문화이용권,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 ⑦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물품 지원, 가정봉사서비스, 식사(반찬) 배달 서비스, 교통수단 지원 등)
- ⑧ 기타 (↗)
- ⑨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24. [영유아 보육/교육의 어려움]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영유아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느끼시는 순서대로 2개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어린이집·유치원 수가 부족하다 ②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③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 ④ 자녀 놀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 ⑤ 방문교육(학습지 등)을 받기가 어렵다 ⑥ 야간시간에 이용가능한 자녀 돌봄시설이 부족하다 ⑦ 기타 (→) ⑧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 장애인복지(‘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한해) —

25.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귀하 또는 귀하의 장애가 있는 가구원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② 의료재활서비스
 ③ 가사지원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 ④ 이동편의지원서비스
 ⑤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⑥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⑦ 장애자녀 학습지원서비스 ⑧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⑨ 기타 (→)
 ⑩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IV. 교육 부문

— 학생교육(‘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 한해) —

26.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귀하의 자녀(손자녀)가 통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이며, 편도를 기준으로 평균 통학시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고르고, 소요시간은 교통수단별 소요시간을 합산

구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편도 소요시간
(1) 초등학교 자녀	① 걸어서 ② 통학버스 ③ 학원버스 ④ 버스 ⑤ 개인차량 ⑥ 자전거 ⑦ 기타 (→)	() 분
(2) 중학생 자녀	① 걸어서 ② 통학버스 ③ 학원버스 ④ 버스 ⑤ 개인차량 ⑥ 자전거 ⑦ 기타 (→)	() 분
(3) 고등학생 자녀	① 걸어서 ② 통학버스 ③ 학원버스 ④ 버스 ⑤ 개인차량 ⑥ 자전거 ⑦ 기타 (→)	() 분

27. [자녀의 방과후 시간 활용] 귀댁의 자녀(손자녀)는 학교 정규 수업과정을 마친 후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 ① 학교 내 방과후 프로그램(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 참여
- ② 학교 외 공공기관 방과후 프로그램(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참여
- ③ 사설학원 수강, 개인그룹 과외 등
- ④ 집에서 가족과 보냄
- ⑤ 혼자 보냄
- ⑥ 기타 (⇒)

28.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귀하께서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 시설 개선
- ② 우수교사 확보
- ③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개발
- ④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강사) 지원
- ⑤ 양질의 학교 급식 지원
- ⑥ 기숙시설 확충
- ⑦ 통학버스 운영
- ⑧ 지역 소규모학교 유지
- ⑨ 기타 (⇒)

평생교육

29. [평생교육 경험 및 수요] 귀하께서는 지난 1년(2017.09.01~2018.08.31) 동안 다음의 평생 교육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여하신 활동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향후 참여 의사는 어떠하십니까?

※ 평생교육 : 학교 밖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유사용어로 성인교육, 사회교육 등이 있음

구분	참여 경험	참여 만족도					향후 참여 의사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농촌생활 관련 교육 (농업기술교육, 생활개선교육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2) 문해교육 (한글교실, 한문교육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3) 인문교양교육 (경제/경영, 역사, 철학, 외국어, 자녀교육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4) 정보화교육 (워드,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구분	참여 경험	참여 만족도					향후 참여 의사
		매우 불만족하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5) 직업능력교육 (자격증 강좌, 취업/창업 준비과정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	② 없다
(6) 문화예술교육 (문화, 음악, 미술 강좌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	② 없다
(7) 시민참여교육 (마을리더/자치위원 교육, 인권교육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	② 없다
(8) 스포츠·건강교육 (스포츠, 건강/의료 강좌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	② 없다
(9) 기타 ()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	② 없다

30. [평생교육 참여의 어려움] 귀하께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illegible]

V. 문화·여가여건 부문

— 문화·여가 활동 경험 및 수요

31. [주된 문화여가활동] 귀하께서는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십니까? 두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관람, 공연관람, 영화보기 등 **문화예술관람**
- ② 미술, 악기연주, 노래교실, 전통예술교실, 사진촬영, 춤/무용 등 **문화예술활동**
- ③ 경기장 방문관람, TV중계 시청 등 **스포츠관람**
- ④ 게이트볼, 족구, 축구, 탁구, 헬스, 등산 등 **스포츠활동**

구분	참여 경험	참여 만족도					향후 참여 의사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전통예술(농악, 민요, 전통무용, 전통공예, 한국화, 서예, 시조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2) 전통의식주(한복, 천연염색, 매듭, 음식, 한과 등 만들기, 한옥 짓기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3) 전통무예(씨름, 국궁, 태권, 태권도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4) 공동체의례(동제, 산신제, 당산제, 성황제, 별신굿, 용왕제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5) 공동체놀이(지신밟기, 강강술래, 줄다리기, 거북놀이, 달집태우기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6) 전통놀이(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널뛰기, 고누, 공기놀이 등)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7) 기타(⇨)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VI. 기초생활여건 부문

주택 여건

35. [주택 건축년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건축(신축)년도는 언제입니까? () 년도

36.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주택 ④ 기타 (⇨)



↳ **문 38번** 으로 가십시오.

65-2. [지붕의 종류]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7. [주택의 점유형태] 주택의 점유형태는?

① 자기 집 ② 전세 ③ 월세(보증부 월세, 사글세) ④ 무상

38. [주택의 방 개수] 방은 모두 몇 개입니까? () 개

※ 사용하고 있는 방을 기준으로 하며, 세를 준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거실을 침실로 상시 이용하고 있으면 방수에 포함

39. [주택의 건평] 건평(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를 기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준 경우 그 면적은 제외
()㎡ 또는 ()평

40. [주택의 시설 현황] 귀댁 주택의 각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 난방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1순위, 2순위 선택

구분	종류		
(1) 부엌	① 입식	② 재래식	③ 없음
(2) 화장실	① 수세식	② 재래식	③ 없음
(3) 목욕시설	① 온수	② 비온수	③ 없음
(4) 난방시설	① 중앙난방	② 지역난방	③ 도시가스 보일러
1순위	④ 기름 보일러	⑤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2순위	⑥ 전기 보일러	⑦ 연탄 보일러	⑧ 화목보일러
	⑨ 재래식 아궁이	⑩ 기타 (↳)	

41. [난방비 부담] 1년 중 난방을 사용하는 기간은 언제이며, 그 기간의 월 평균 난방비는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 주거용 난방비를 기준으로 작성, 장마철 습기 제거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난방을 가동하는 경우 제외

(1) 난방비 지출 기간	(2) 월 평균 난방비 지출 금액
() 월 ~ () 월	() 만원

42. [주택에 대한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구 분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주택 면적	①	②	③	④	⑤
(2) 주택 설비(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3) 주택 구조(공간/시설 배치, 동선 등)	①	②	③	④	⑤
(4) 주택 성능(단열, 냉/난방 효율 등)	①	②	③	④	⑤
(5) 주택 전반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43. [주택 개보수 필요성] 귀하께서는 거주하시는 주택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개보수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① 도배, 페인트, 바닥, 창문 교체 및 보수공사	② 주방, 목욕탕, 화장실 보수공사
③ 보일러 교체 및 냉난방, 단열 공사	④ 전기(누전), 누수공사
⑤ 상수도 공사	⑥ 지붕·담장 교체 및 보수공사
⑦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설비 개선	⑧ 대수선(방, 거실 등 확장, 구조나 외부 형태 변경 등)
⑨ 기타(↳)	⑩ 주택의 개보수가 필요 없음

— 생활여건

44. [상수도 종류]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의 상수도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광역 및 지방 상수도 ② 마을상수도(간이 상수도) ③ 자가상수도(지하수, 우물) ④ 없음

45. [하수도 종류]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의 하수도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공공하수처리시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③ 없음

46. [쓰레기 처리 방법] 귀댁에서는 다음의 쓰레기를 주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 활용은 '기타'에 표기

구 분	분리배출	자체처리(투기, 매립, 소각)	기타
(1) 생활쓰레기	① 종량제봉투 사용	②	③ (↳)
(2) 음식물쓰레기	①	②	③ (↳)
(3) 재활용품	①	②	③ (↳)
(4) 폐영농자재(농어가)	①	②	③ (↳)

47.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초생활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각각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상수도 수질	①	②	③	④	⑤
(2) 하수 처리	①	②	③	④	⑤
(3) 쓰레기 처리	①	②	③	④	⑤
(4) 대중교통 이용	①	②	③	④	⑤
(5) 생활서비스 이용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마용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6) 정보통신여건*	①	②	③	④	⑤

※ 정보통신여건 : 인터넷, 전화, TV, 라디오, 우편 등의 활용 여건

— 안전

48. [마을 안전 체감도]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마을(동네)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부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마을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마을은 보행·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마을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마을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49.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다음 중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도로안전시설(표지판, 횡단보도, 신호등 등) 늘리기 ② 안전한 보행자길 갖추기
 ③ 가로등 늘리고 고치기 ④ CCTV 설치 늘리기
 ⑤ 순찰(경찰, 주민봉사) 횡수 늘리기 ⑥ 오래되고 낡은 건물, 시설 고치기
 ⑦ 빈집, 버려진 집, 방치된 빈터 관리 ⑧ 기타 (⇒)
 ⑨ 특별히 필요를 느끼지 않음

Ⅶ. 환경·경관 부문

— 환경

50. [개선해야 할 환경문제]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마을(동네)에서 개선해야 할 주된 환경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① 대기 오염 ② 수질 오염 ③ 토양 오염 ④ 소음, 진동
 ⑤ 악취 ⑥ 쓰레기 ⑦ 기타 (⇒) ⑧ 특별히 없음

— 경관

51. [마을 경관에 대한 인식]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V표 하여 주십시오.

※ 마을(동네)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활동: 청소, 꽃길 가꾸기, 경관 작물 재배 등

구분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마을(동네)은 깨끗하고 아름다워 자랑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마을(동네)을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마을(동네)에서는 마을(동네)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가구는 마을(동네)을 가꾸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마을(동네)을 가꾸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필요한 자재, 활동비 등)	①	②	③	④	⑤

— 다원적 가치

52.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다음의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중 귀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개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자연환경·경관의 보전	② 전원생활 공간 제공
④ 농어업 유산 보존·계승 정적 공급	⑤ 국토의 균형 발전
⑦ 기타()	③ 관광·휴양 공간 제공
	⑥ 식량의 안

Ⅷ. 지역 공동체 부문

— 가족·이웃과의 관계

53. [가족·이웃과의 교류] 귀하께서는 가족이나 이웃과 얼마나 자주(일 외의 목적으로) 만남을 가지십니까?

구분	보기		
(1) 가족, 친척(비동거)	① 한 달에 한 번 미만 ④ 일주일에 한 번 정도	② 한 달에 한 번 ⑤ 일주일에 수차례	③ 한 달에 두세차례 ⑥ 매일
(2) 이웃, 친구, 직장동료	① 한 달에 한 번 미만 ④ 일주일에 한 번 정도	② 한 달에 한 번 ⑤ 일주일에 수차례	③ 한 달에 두세차례 ⑥ 매일

54. [공동체 활동 참여] 귀하께서는 마을(동네)의 공식적인 행사나 회의, 공동작업 등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⑤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5. [외부인 유입 여부] 귀택 또는 귀하의 이웃에는 귀농·귀촌인,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가 살고 있습니까?

※ 귀농(어)은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귀촌은 도시에서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를 가리킴. 응답 가구가 귀농·귀촌 가구인 경우 '① 우리 가구에 있음'을 선택함

구분	우리 가구에 있음	우리 이웃에 있음	없음	잘 모름
(1) 결혼 이민자	①	②	③	④
(2) 이주 노동자	①	②	③	④

56.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귀하께서는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귀하의 이웃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보통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1) 결혼 이민자	①	②	③	④	⑤
(2) 이주 노동자	①	②	③	④	⑤

— 마을공동사업 참여

57.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정도를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낙후되어 있음 ② 낙후된 편임 ③ 보통임 ④ 발전된 편임 ⑤ 매우 발전된 수준

IX. 경제활동 부문

— 도·농 교류 및 6차 산업화

58. [도·농 교류/6차 산업 경험 유무 및 만족도] 귀하 또는 귀댁에서는 지난 1년(2017.09.01 ~ 2018.08.31) 동안 다음의 사업을 이용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향후(에도) 다음의 사업을 이용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 분	경험 유무	만족도					향후 의사
		매우 불만족 한다	불만족 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만족 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한다	
(1) 농어가 가공품 이용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2) 농어가 직거래, 로컬푸드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3) 농어촌 체험관광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4) 농어가 식사 (농가레스토랑, 농가맛집)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5) 농어가 숙박 (농어가 민박 이용)	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① 있다
	② 없다(→)	■	■	■	■	■	② 없다

— 경제활동여건

59. [연간 가구소득] 2017년(‘17.01.01.~12.31.) 소득을 기준으로 귀댁의 연간 가구소득은 얼마 나 됩니까? ※ 연간 가구소득은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 자녀로부터의 용돈 등의 합계임

() 만원

60. [월평균 생활비] 2017년(‘01.01.~12.31.)을 기준으로 귀댁의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합계와 주요 내역별 생활비를 기입해 주십시오.

※ 생활비는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으로서,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저축, 저축성보험료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부채/이자 상환 등), 사업용도의 비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구 분		금 액
합 계		() 만원
(1) 식료품비	(주식류, 부식류, 외식비 등)	() 만원
(2) 보건의료비	(병원치료비, 약값, 의치, 보청기, 영양제, 보약비 등)	() 만원
(3) 광열수도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냉/난방연료비 등)	() 만원
(4) 교육비	(학비, 학원비, 과외비, 자녀용돈, 책값 등)	() 만원
(5) 교통/통신비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수리비, 유류비, 전화/휴대폰/인터넷요금 등)	() 만원
(6) 기타		() 만원

61.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 투자 영역]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 특화 작목 개발 ② 농어촌 자원 활용 6차산업 육성
③ 농공단지 조성, 기업 유치 ④ 지역 문화관광 개발, 품질 제고
⑤ 농어촌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여건 개선 ⑥ 기타 ()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검증원 이름		검증 결과	
--------	--	-------	--